

2023 제주아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37-01

제

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

주 불

미

권미소, 김미진, 김보향, 고은향

제주불미

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

제주불미

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

ISBN 979-11-982611-4-4(03700) 비매품/무료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37-01

2023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

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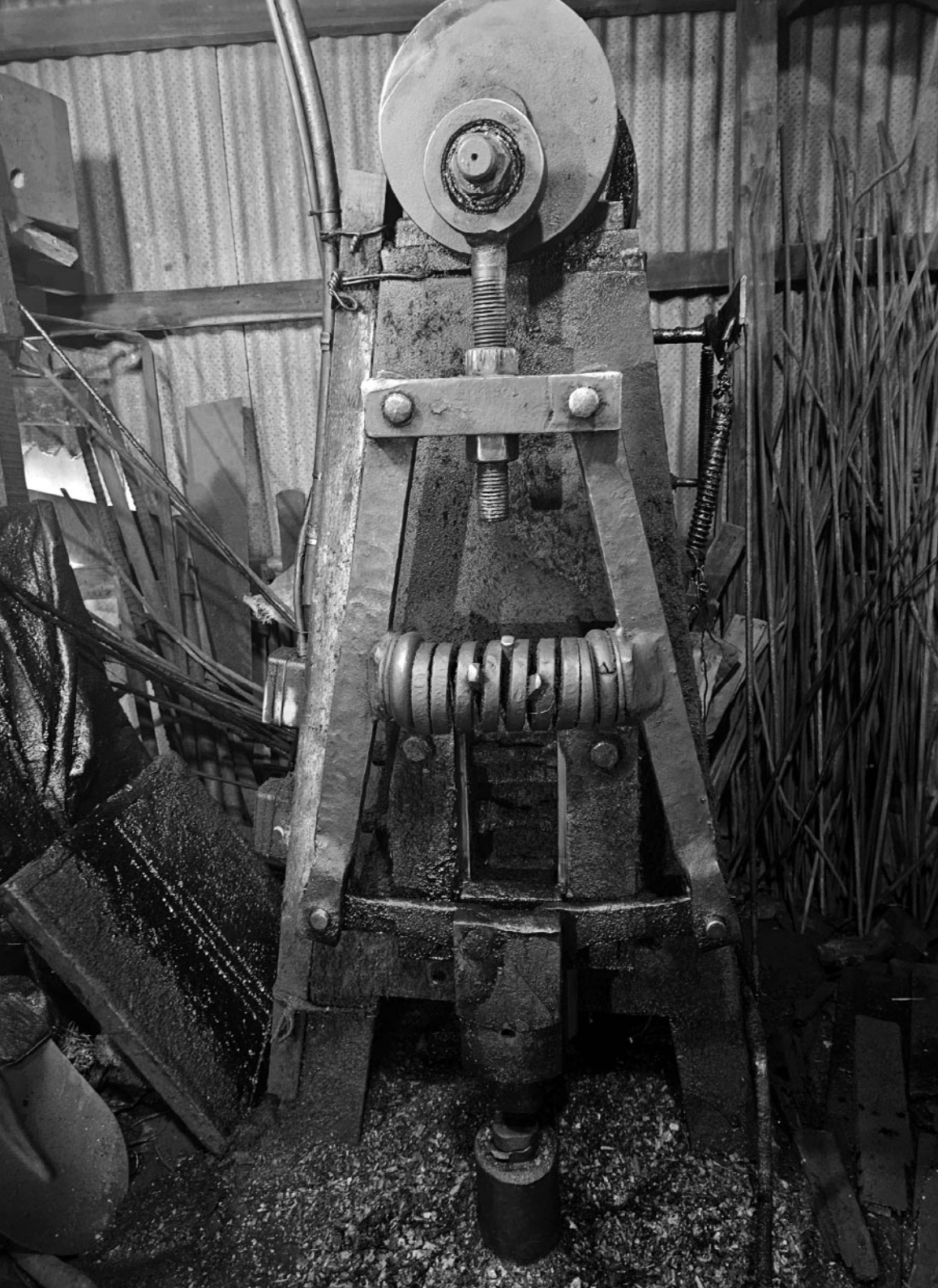


권미소, 김미진, 김보향, 고은향

미







책을 내며

제주어에는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곧 제주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변하는 우리 유산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를 통해 제주 사람들이 예로부터 만들어온 독특한 민속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제주 전통문화의 원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전승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조사하고,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나아가 소멸위기의 제주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으로

2019년에는 ‘제주의 초가’, 2020년에는 ‘제주의 목축 문화’, 2021년에는 ‘제주의 옷’, 2022년에는 ‘제주의 돌챙이’와 관련한 전승자를 만나 그들의 생애와 전통 문화를 제주어로 기록해 왔습니다.

올해는 ‘제주의 불미’를 주제로 하여 제주에서 쇠를 녹여 술과 보습 등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했던 분, 제주의 자연 환경에 맞는 농업·어업 도구를 제작해 온 분, 또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기억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풀어낸 불미 속 제주어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제주 불미-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안덕면 덕수리에서 행해지던 술과 보습 불미에 관한 구술, 충청·전라에서 입도해 대장장이로 살아온 이들의 삶과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책이 나올 수 있게 현지 조사를 나간 연구진을 내치지 않고 흔쾌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 준 제보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 책임을 맡은 권미소 전문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함께한 연구진, 책을 예쁘게 꾸며준 도서출판 한그루에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를 지켜내는 일, 그 기록의 시작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제주학연구센터 <2023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의 불미’ 현지 조사를 통해 채록한 16명의 구술 자료를 엮은 것이다.

‘불미’는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해 화덕에 공기를 불어 넣는 ‘풀무’의 제주어다. 제주에서 ‘불미’는 쇠를 달구어 연장 따위를 만드는 일과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드는 일, 때로는 그 일을 행하는 장소를 이르기도 한다. 또한 이곳을 가리켜 ‘불미왕’, ‘불미황’, ‘불밋간’, ‘불멧간’ 등으로 부르며, 쇠를 달구어 솥, 보습, 뱃 등을 대량으로 주조하는 야외 공간을 ‘불미마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주의 불미 문화는 산업화와 기계화 등의 사회 변화에 휘말려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통문화 중 하나다. 현재 제주에

서 불미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그 명맥을 잇지 못하는 실정이며, 제주 출신이 아닌 분들도 많아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불미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이 사업의 연구진은 2023년 제주 전역을 다니며 제주에서 불미일을 했던 사람, 전통 방식의 불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 내 불미에 관해 기억이 또렷한 사람, 타 지역에서 이주해 왔지만 제주에서 불미일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제주의 불미 정보, 불미 과정 전반, 불미대장의 삶 등에 관해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1개 지역에서 19명의 제보자를 만나 채록한 약 25시간 14분의 음성 자료와 22시간 15분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어 전사를 실시한 뒤 주 제보자이면서 구술 자료로 엮기에 적합한 총 16명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 책 『제주 불미-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은 크게 ‘제주의 전통 불미마당’, ‘제주도 내 불미왕’, ‘기억 속 제주 불미왕’, ‘입도 불미왕’ 등 네 가지의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1장 ‘제주의 전통 불미마당’에는 안덕면 덕수리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전통 방식의 솥과 보습을 제작했던 주물공예 경험과

기억, 제주의 불미마당이 펼쳐졌다고 전해오는 구좌읍 덕천리와 한경면 낙천리 제보자의 조사 자료를 실었다. 또 2장 ‘제주도 내 불미왕’에는 직접 대장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아버지 대에서부터 대장간을 운영하여 그 기억이 또렷한 제보자의 구술 자료를 정리했다. 3장 ‘기억 속 제주 불미왕’에는 마을에 있었던 대장간의 위치, 이름, 하는 일, 직접 방문했던 기억 등을 가진 분들의 발화 자료를 모았고, 마지막으로 4장 ‘입도 불미왕’에는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해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대장장이를 만나 제주 대장간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구술 채록한 자료를 엮었다.

구술 자료의 표기는 제보자의 제주어를 그대로 정리했으나 제주 출신이 아닌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보자의 방언을 살려 적었다.

한편, 구술 내용 가운데 특정 인물의 실명이 거론된 경우에는 ○을 사용해 이름 중간 글자, 혹은 마지막 글자를 숨김 처리하였다. 다만 실명이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령, 이 글에 등장하는 다른 제보자, 기술 보유자로 이름이 알려진 분 등에 한해 실명을 그대로 밝혔다. 또, 구술 자료 가운데 ()를 넣고, 생략된 말을 살려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자료의 내용 가운데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제보자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사진은 이 사업의 연구진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특히 안덕면 덕수리 제보자들의 구술 자료 곳곳에 들어 있는 주물공예 관련 사진은 <덕수리 민속 보존회>의 ‘불미 재현 행사’ 준비 과정과 행사 당일에 찍은 자료들이다. 송이철 <덕수리 민속 보존회> 팀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구술 자료의 맛을 살리기에 부족했을 것이다. 책에 자료를 실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사라져가는 제주의 불미와 제주 사람들의 불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 불미

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

차례

- 8 책을 내며
- 10 들어가기 전에

I. 제주의 전통 불미마당

- 20 오시 하나 들르민 텡이 열세 개까진 줏다고
안덕면 덕수리 윤문수
- 58 쳇 번 들어온 송칩이 하르부지가 허다가 덕수 사름덜이 하게 쉼 거지
안덕면 덕수리 김통립
- 92 불미허는 거 눈은 익곡 손은 설곡
안덕면 덕수리 김동권
- 150 불밋께 밀렷당 땡기민 청탁으로 막아정 일로 브름 나오곡
안덕면 덕수리 윤호경
- 209 이디 한 대장은 마께질 해연에 담배통 만들곡 부시 만들곡
구좌읍 덕천리 이대진
- 217 낙천에서 불무를 오래했다는 흔적이 아홉 굵이주
한경면 낙천리 조정배

II. 제주도 내 불미왕

- 236 곶강이도 몽그라지른 불에 구워근에
 한림읍 대림리 안영진
- 267 부지런한 아버지의 불메왕, 꼼꼼한 형이 이어받아
 한림리 수원리 조영진
- 294 아버지가 이 부근에서 담금질을 제일 잘한다고
 서귀포시 대포동 원천권

III. 기억 속 제주 불미왕

- 314 보리 철 돼튼 낮 들렁 강은에 거 베려 줍센 허주게
 한림읍 한림리 김종관
- 331 토평리 세 군데 불멧간, 오늘추룩 비 축축 올 때 가주
 서귀포시 토평동 강성진·오남호·김응반

IV. 입도 불미왕

- 348 곶강이, 물질해는 거는 제주도답게 맨들어야 팔아먹지
 성산읍 고성리 송현균
- 373 겐노는 물에 담그고, 노미는 기름에 담그고
 조천읍 신촌리 김규중
- 416 예전 벌초 때는 낮이 이만 개 나갔었는데
 한림읍 대림리 이승태

I.

- 20 오시 하나 들르민 텡이 열세 개갯진 찢다고
 안덕면 덕수리 윤문수
- 58 쳇 번 들어온 송칩이 하르부지가 허다가 덕수 사름덜이 하게 췌 거지
 안덕면 덕수리 김통립
- 92 불미허는 거 눈은 익곡 손은 설곡
 안덕면 덕수리 김동권
- 150 불밋께 밀럿당 땡기민 청탁으로 막아정 일로 브름 나오곡
 안덕면 덕수리 윤호경
- 209 이디 한 대장은 마께질 해연에 담배통 만들곡 부시 만들곡
 구좌읍 덕천리 이대진
- 217 낙천에서 불무를 오래헸다는 흔적이 아홉 굿이주
 한경면 낙천리 조정배

오시 하나 들르민 뎡이 열세 개꼴진 쫓다고

안덕면 덕수리 윤문수



윤문수 씨(1933년생)는 덕수리 불미공예 무형문화재 명예 보유자다.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으나 최근 많이 회복되어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해서 2023년 4월 21일, 제주시 삼양동 집으로 윤문수 씨를 찾아뵈었다. 걸음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긴 했지만 불미 이야기가 나오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 후에도 덕수리마을회 회원들이 불미 작업을 진행한 6월 18일, 8월 20일 덕수리 마을 박물관에서 윤문수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윤문수 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교에 3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처음에는 오촌 아저씨가 대장이어서 불미마당에서 심부름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불미일을 시작했다. 덕수리에서 불미를 시작할 때는 알을 만드는 모래 때문에 힘들어 붉은오름과 사계리 돌을 뺏아서 활용해 보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대정읍 무릉리의 인향동에서 불미마당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켓대장이 되었는데 다른 일꾼들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실력을 인정받아 대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덕수리 불미대장이었던 사람이 안덕면 사계리에서 불미마당을 열었을 때 윤문수 씨도 그 현장에서 1974년도까지 불미일을 했다고 한다.

불미마당에서 윤문수 씨의 역할은 켓대장으로, ‘오시장테’에 쫓물을 받아서 ‘보섭 뎡이’에 붓는 일을 주로 했다. 한번 쫓물을 받으면 열세 개의 보섭 뎡이에 쫓물을 부을 수가 있는데 이때, 다른 곳에 쫓물을 흘리지 않고 적정량을 붓는 것이 기술이라고 했다. 일당으로 받은 보섭 스무 개를 가지고 장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보섭 하나에 오만 원씩 받아서 팔았었다고 한다. 물건을 사는 할아버지들이 담뱃대를 대어 보면서 덕수 보섭이 맞다고 인정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덕수리 불미공예는 1977년 탐라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1986년 제주

도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되었다. 초대 보유자인 송영화 씨가 돌아가신 뒤 2008년 윤문수 씨가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명예 보유자가 되었고, 현재는 덕수리 마을회가 불미공예 보유단체로 지정되어 덕수리 불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어릴 때부터 땡기긴 해도 심부름

아버지도 (불미를) 조금 해도, 아버지 때 조금 해난 거 가트우다. 다 우리 친족들이 대부분 많이 해수다. 불민 처음에 땡김은 뭐 해도 우리 형님네, 우리 형님하고 우리 오촌 아주머니가 뭐 허니까 어릴 때부터 땡기긴 해도 일은 얼마 안 했어. 심부름 그냥. 우리 오촌 그 아저씨가 이거(대장)야. 나이도 하고 힘도 세고 아주 뭐 하나도 이거 가져가라 허민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렇게 돌레질¹⁾을, 그렇게 돌레질도 잘 돌리고.

결혼한 후제 한 삼십 대부터 땡겨실 거라

본격적으로는 혼, 한 삼십 대부터 땡겨실 거라. 결혼한 후제. 결혼하기 전엔 조금 그자 뭐 하고. (배운 것은) 그냥 그디서 주로 우리 덕수에 김○현이라고 사름하고, 많이 배웠수다. 김○현이. 그땐 우

1) ‘돌레질’은 주형 표면에 목탄 가루를 물에 타서 칠하는 일이다.

리가 뭐 허든 그자 김○현이엔 현 사름은 나보단 팔 년 이상인디, 공장장입니다. 공장장이난 그디서 뭐 행 자기네가 인부만 빌영 허고 자기가 오야지²⁾ 노릇만 하고. 정미소 허단 정미소 뭐 해 가니까 거기 불미 시작헸. 우리가 거기서 많이 해수다. 그디서 경험도 많이 허고 그 사름 뒷에 실패헸느냐 허면 저 몰래, 몰래. 모래에 실패 봐 가지고. 모래가 저 귀난, 귀난 몰래 나가 이제 생각허민 그거 그렇게 수운 건디 걸 몰라 가지고 왜냐하면 그 몰래가 허다가 부족허니까 저 불근오름에 가 가지고 그 불근오름 그 적을 해다가 무수기 시니까 거 곶아 가지고 해여 본다고. 해 보니까 ㄴ루가 얼마 안 나오니까 안 돼, 안 돼. 또 우리 보고 이젠 저 소금막이라는 디, 화순 거기 가서 저 그 소금막에 가서 누룩돌, 누룩돌을 가서 파당 한 번 해 보자고 헸 그래서 해 보니까 그디서 실패해 불었수다. 것이 소금기가 들어가니까 불을, 알 박아서 알을 구워야 돼니까 구워 가지고 허니까 소금기가 만딱 쫓 피어 불었어.

세계리 가 가지고 사 년 헷수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 딴 세계³⁾. 세계리 가서 칠십오 년도까지 헷수, 칠십오 년돈가 칠십스 년도꺼지도 해수다. 그디 가서 혼

2) ‘오야지’는 일본어 ‘おやじ’에서 온 말로 대장을 말한다.

3) ‘세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말한다.

사 년 혜수다. 사계, 덕수 앞이. 덕수 사름 그디 간 사니까 그 사름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모든 걸 그런 걸 다 아니까 김○호 씨라고. 덕수 사름이 그디 가서 혼 십오 명, 십이 명, 십오 명 그렇게 거기 가서 그디 인부 가명 자기네가 하고 기술자들은 다 우리가 가서 헐.

칠십오 년도에 아까 그 저 김○호, 그디 가서 우리가 한 사 년 헐 습니다. 칠십오 년도. 덕수 허다가 덕수 사람 쪼끔, 나보다 한 팔 년 도 이상인디 못허고 서툼어. 허다가 뭐 실패해 부니까 세계 잇는 분이 사촌 형님인디 동생 그거 뭐 허건 나신디 풀아 달라고 해서 텅이⁴⁾하고 문딱 사 가고 세계 가 가지고 사 년 헐수다, 사 년.

낙천 혹은 덕수 흑만이 못 헐디다

(불미 시작은) 그 낙천⁵⁾서 해낫다고 그런 말도 헐 습니다. 낙천서 허다가 그 송, 아 이젠 잊어 불언. 이제 뭐 헐다가 그 하르방이 이디 덕수 와 보니까 덕수 흑, 흑을 따라오는 게 덕수 왓덴 헐 습니다. 그러 니까 덕수서 그 오래 허니까 물아올라, 굿물이라고, 굿물이라고 그 흑 파다가 보니까 물이 생겨 분 거라, 굿물이라고 해서 이름을 굴 루이 물이 생겼다고 굿물. 이름을 굿물. 그래서 나도 덕수 아니 낙

천 가서 한 십오 일, 혼 이십 일 나도 잠깐 헐단 적 잇 습니다.

거기서가 좀 자기네들 뭐 해 보겠다고 허니까 그디 혹은 쓰긴 쓰 는디 덕수 흑만이 못 헐디다. 나 그디 아메도 한 이십 일 가까이 문 딱 맨들고 뭐헐 준비 다 뻬는디 설러비수게. 조 선생이라고 조 교 장⁶⁾, 조 뭐이더라. 덕수 와서 살단 그 낙천 사름인데 그래 가지고 나가 한 이십일 가까이 그런데 나가 만든 거 보섭 텅이 거튼 거 뭐 헐 거 다 이수다.

덕천 불미도 가왔다고 허는디

기술자덜은 다 덕수베긴 없어요. 우리가 허기 전이, 나가 허기 전인 또 저 덕천⁷⁾. 덕천이라고 덕천 불미라고 해서 덕천 가왔다고 허는디 나보다 다 이상 사람 다. 우리 팔촌 형님 그디 갓다가 눈 한 쪽 일러 불고, 췌물 튀어 부니까 이제. 팔촌 형님 응○ 씨라고. 물론 다, 몰라. 그 기능 보유자 그 어른이 그디 갓다가 그 형님 때문에 눈 혼 짹, 자기 혼자 뭐 물 줄라고 허니까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나도 몰랐는디 그 사람안티 이제사 들언.

그 덕천 난 말만 들었는디 나보다, 제일 밑에 사름이 나보다 으

4) '텅이'는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보습을 만드는 흙으로 된 거푸집을 말한다.

5) '낙천'은 제주도 한경면 낙천리를 말한다.

6) '조 선생', '조 교장'은 한경면 낙천리의 제보자 조정배 씨를 말한다.

7) '덕천'은 제주도 구좌읍 덕천리를 말한다.

섯 설 위에 사름이, 제일 어린 그 사람이, 제일 어린 사름으로 가났다.

덕수 흑이 촌흑이라 불에 강하고

우리 허는 게. 혼 삼백 년 이상 켜었으니까 나가 시작헌 때부터 삼백 년 켜었다고 허니까 이제 아메도 삼백오십 년 가까이. 게도 덕수 흑여도 우리가 헛는다.

(덕수는) 흑 때문에. 흑이 좋다 보니까. 흑이, 덕수 흑은 촌흑이라고 헛는다, 촌흑이라야 허는디 흑이 그렇게 풀이 좋고, 불에 강하고, 불에 강하고 그렇게 허니까. 또 흑이 좀 많고. 군물에서, 그쪽엔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포크레인으로 흙을 이기는 모습

파민 돌 하나도 엇고 상당히 흑만, 흑 그루만. 우리가 허기 전인 그 때 ○선이, 윤○선이라고 그 이장 헛는다 그디 공사허게 댜니까 그 촌흑을 이제 한 두 차, 세 차 딱 갖다와 가지고 그걸로 멧 년 허다 이제 다 떨어져수다, 촌흑이. 지금도 가민, 나가 가민 알아지는다. 촌흑을 쓴다 말이야. 막 그렇게 잘 나. 그 동네는 전부.

보섭 혼 번 허는디 주로 기술자가 열들

우리 기술자가 알대장⁸⁾ 한 사름허고 우리 켜대장⁹⁾ 세 사름. 독대장¹⁰⁾은 그디 자기네가 독대장. 일꾼도 서이. 경허민 멧 사름고? 넷, 다섯, 응답 보통 열들, 열들은 헤야 댜는다. 일허는디 혼 번 보섭 혼 번 허는디 주로 기술자가 열들은 헤야 댜.

체암엔 원대장¹¹⁾, 그다음 저 알대장, 그다음 켜대장, 독대장, 상일꾼, 하일꾼. 하일꾼. 하일꾼은 상하가 있어야지. 하일꾼은 조금 만헌 사름 헐 수 잇고, 상일꾼은 힘도 잇고 그디서 뉘허는 거 다 헤사, 그 사름덜 뉘음에 맞아야.

- 8) '알대장'은 보섭 텡이 안쪽에 넣는 알을 만들고 깎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불미마당의 기술적인 책임자로, 모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 9) '켄대장'은 쇧물을 주형에 부어 넣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 10) '독대장'은 도가니를 관리하고 불을 피워 무쇠를 녹이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 11) '원대장'은 자본을 대어 물자를 준비하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사람이다.

알대장이 제일 취급주게

첫째 알대장. 알대장이 알도 메꼭 알대장이 제일 취급주게. 그 젊은 사람이 뭐엔 해도 알대장신디 문저 들러 가고. 그다음은 대장으라이. 알대장은 젼 취급디, 한 사름베끼 안 허니까. 열 사름, 스무 사름 해도 알대장은 한 사름.

원대장은 그디 주동허는 사름. 내가, 원대장은 내가 혼번 해 보겠다 허민 그 사람이 돈 ㄴ튼 거 문딱 준비해 놔 가지고 그렇게 허는 거주. 원대장.

젼물 주는 사름은 젼대장

그다음엔 젼대장, 젼. 젼대장이라고 젼물 주는 사름. 젼물 주는 사름이 항상 보통 세 사름 험니다. 젼대장이 어디 가도 세 사름. 세 사름 허는디 두 사름은 오시¹²⁾가 두 개로, 한 사름은 교대, 딱 한 사름, 한 사름이 또 한 멧 번 들르민 또 한 번 교대. 거 젼대장 나도 오 래 헛는디, 그 인녕이¹³⁾엔 현 그디 가서 내가 젼대장으로 진급시켜 주난 헛는디 내가 일꾼 허다가 다른 일꾼도 나보다 나 다 연영이 연상이우다. 네 설, 세 설 연상 두 설, 내보다 네 설 우이 사름 김○진이, 다음 송○병이라고 세 설 우이고. 다음은 홍○병이라고 나보

12) '오시'는 녹인 젼물을 길어 나르는 질그릇이다. '오시장테'라고도 한다.

13) '인녕이'는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을 이른다.



불미 재현 행사에서의 윤문수 씨
(윤문수 씨 소장)

다는 두 설 우이고 그 사람네 뭐 해도 나보다 나가, 나 젼대장 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디서 나가 젼대장 질 헛어. 처암엔 일당 그렇게 차이가 큼니다. 젼대장이나 알대장은 그건 다 ㄴ찌 ㄴ튼 대장끼리 ㄴ튼 거난. 우리가 이틀에 혼 쩍 험니다. 혼

쨍 허민 이틀. 하룬 준비만 허고 그 이틀날 물만 주민 다 나오는 거. 하루에 한 육백 갠 해야 오백 갠 풀 거니까. 혼 육백 개나. 육백 개 정도. 주로 보섭 불미가 우리 많이 해수다.

독대장은 둘이 보통 허는디

거기에서 우리 젼대장 다음은 독대장도 있습니다. 독대장은 둘이 보통 허는디 독대장은, 독대장은 독¹⁴⁾도 설치도 잘, 나가 뵈는디 저 독을 용광로라고, 옛날엔 독이라고 헛는디 용광로. 용광로 설치를 잘 해야 돼니까 췌를 잘 녹여야 돼. 그 질떡대장은 그거 아무

14) '독'은 불미마당에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말한다.

라도 허니까. 질떡대장¹⁵⁾은 그 하르방이 자기대로. 불미 부는 건 거의 기계로. 옛날엔 해도, 이젠 기계로 허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 할 땐, 그땐 아마 발동기, 발동기가 고장 나 가지고 중간에 아이 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녀민 췌 녹이다근에 중단돼 불민 안 돼지.

보섭으로 일당 반양 선세도 주곡

그때 우리도 그래도 우리 인부들은 보섭으로만 일당 받습니다. 돈으로 는, 거의 물주들은 돈으로만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 돈으로 받으민 우리 쓸 거 게민 돈으로 사야 돼냐? 우리가 그거 반양 선세도 주곡 뭐 허지, 그니까 알대장이나 젓대장.



윤문수 씨가 제작한 '보섭'

(받은 보섭은) 열하나. 이틀에 열하나. 다음 일꾼은 이틀에 으섯 개. 또 하일군은 이틀에 네 개. 그렇게 차이가 크지.

보섭 텅이 지프는 사람 자기 집이서 쓸 거니까 하루만 일허겠다고 와서 허민 보섭 하나베끼 안 줘. 보섭 하나. 그렇게 불미마당이

15) '질떡대장'은 주형 속 표면에 목탄 가루를 물에 타서 칠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당이 그렇게.

불미해도 남양직능에, 길 만드는 남양직능. 남양직능에도 멧 해 텅기고, 산방석재에도 멧 년 텅기고. 불미할 때 안 가는 거지, 그딴. 불미할 때 으라 날 안 허니까 그땐 아니 텅겨 불고. 불미허는 건 일당이 크니까.

장사허는 사람덜 돈 버는 거

(보섭 하나에) 그때도 뭐 내가 보통 그땐 이것이 오만 원 헛던가. 나가 두 번 장사를 해 봤어요, 나가. 일 끝나게 돼니까. 두 번 헛는데, 하르방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장사허는 사람덜 돈 버는 거. 나가 일당을 받아 가지고 두 번 현 거 스물두 겔 받으니까 집에 쓸 거 두 개 놔두고 갖거든. 마께 굶고 헨 딱 갖는디 텅겨 보니까 안 돼 겿어. ㄱ만이 보니까 이제 노인덜 하영 앓앙 노는 디, 큰 폭낭 아래 간 그디 간 하나 품 시작허니까 하르방덜이 통대 ㄱ정 와서 영 맞좌 보명 덕수 보섭, 덕수 보섭 맞텐 나가 만든 거옐 덕수 보섭. 그래서 내가 보섭 다 손 봐 준 거여. 그니까 뭐 다음부편 두 번 갖는디 다음은 딱 알아 불어 가지고 가든 보섭 잇는 사람도 또 사는 거야. 그땐 오만 원 허민 오만 원 내지 십만 원이야. 장사허레 가민 오만 원 뭐, 아무 소리 안 행 오만 원. 아메도 하나에 그때도 하나민 하루 일당.

보섭 하나 잘 써야 삼 년. 거자 이 년. 봄인, 봄이 옛날 밭 갈 땐 밭 많이 가니까 많이 가는 사람은 뭐.

보섭 텡인 궤양 쓰민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쓰는 거

보섭 만들젠 허민 텡이가 잇어야 돼어, 텡이. 쥬 쳐암 텡이. 텡이 도 흑을 이겨 가지고. 흑 꾸잉 만드는데 나도 저기, 거기 가서도 텡이 혼 열 개 멘들아 낫는다. 텡인 흑으로 해서 텡일 만들민 알텡이, 옷텡이 해서 혼 삼백 개 정돈 만들어야. 알텡이나 옷텡이나 같이 만들어. 흑으로, 흑을 이겨서. 이겨 논 다음에. 다음에 저 보섭 들어 갈 디 요걸 흑으로 또 나가 만들어 뭐해 낫는다, 그걸 놔 가지고 현 다음에 그 우에다 베니다¹⁶⁾ 해서 또 딱 그 둘레만 만딱 해 가지고.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보관 중인 ‘보섭 텡이’

16) ‘베니다’는 얇게 썬 나무 널빤지를 나뭇결이 서로 엇갈리게 여러 겹 붙여 만든 널빤지인 ‘합판’을 말한다.

썩허게. 그다음엔 그걸 떼 가지고 물론 다음엔 딱 물론 다음에 또 가까야 돼. 그 자귀(로)나. 그건 보섭 허는 거만이라. 현 다음엔 또 그걸 보섭 텡이부터 멘들아 낵 보섭 텡이가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쓰는 거주. 고대로만, 궤양 쓰민 그렇게 오래 쓰는 거주.

궤야 텡이가 부서지지 안헤

만든 다음엔 물론 다음엔, 만든 다음엔 또 굽니다, 궤. 쪼끔 궤. 군 다음엔 옷텡이, 알텡이 딱 맞아야 돼니까 밀어야 되고. 밀어 가지고 튀어난 딴 가까 불고, 그렇게 해 가민 밀어 가민 즈연적 그것이 골라지는 거지. 그렇게 밀지 안허영 육으로만 밀어야지. 아메나 밀어도 안 돼어. 게서 영 봐 가지고 두 개가 옷텡이, 알텡이 잘 맞았는데, 잘 맞지 안허민 글로 물 주면 물 새어 부니까 안 돼주. 게서 것도 알텡이 만드는데도 궤서 만드는데, 궤야 이것이 부서지지 안헤서 뭐 허기 때문에 굽지 안헌 건 그자 허민 늘 타져 불고 뭐 허니까 안 돼지.

숯 바슴 뺏아 가지고 알 멘들앙

보섭 알은, 옛날부터 숯불미 헤나니까 숯불미 헤난 그 바슴¹⁷⁾,

17) ‘바슴’은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술을 만드는데, 흙으로 된 거푸집을 말한다.

옛날엔 많이 허니까 것을 가서 물어 분 생이라. 물어 불민 그 사름
덜이 알아 가지고 그걸 파다가 뺏아 가지고 굴민 모살이 돼는디 우
리 허는 사름은 그런 걸 허다가 잘 모르니까 그걸 허다가 버치니까
뭐 그 사름. 그것이 마루가 잘 나옵니다. 그 솟불미 헤난 거 다 웬
거, 귀 낭, 귀난 흑이라야 귀 난 거라야 돼니까 거 파단 귀난, 솟 헤
난 거 몬 구헤다가 굴아 가지고. 굴아 가지고 체로 친 다음에 이젠
토물이라고 멘듭니다, 토물. 토물이라고 흑물, 토물. 촌흑물 거 서
터 가지고 마치 범벅이엔 흡니까? 헤 가지고 것도 알맞게 딱. 너미
질문, 이것이 플르문 너미 강해 불고, 또 너미 물이 적게 노민 또 이
것이 약하고. 딱 알맞게 걸 헤서 건 일꾼들이 건 험주게. 조금 뭐 현
사름덜은 시킴만 허고 일꾼들이. 힘드는 건 일꾼이 헤나민 힘들고
그 물 주는 건 켓대장들이 힘들고 그렇게, 그렇게.

알을 췌물 들어갈 만이만 가깝니다

알을 이젠, 그 알 헤 가지고 알을 만드는 디 텡이 옷다가 텡이 놔
가지고 몰래 그 안에 탁 집어 넣니다. 딱 집어 놓 다음에 옷텡이면
옷텡이 갖다 놓고 알텡인 또 알대장이 뜬다고 알 뜬다고 굴읍니다.
이 췌손으로 헤서 눌러 주고 물 줄 디만 만들고. 게서 조금 이제 그
냥 그대로 그만 헤서 좀 몰라 가민 흰히 알아지니까. 그냥 몰래니
까, 끄트머린 알브니까 빨리 모르니까 몰라 가민 이젠 빼는 거. 몰
래, 몰래 빼어내 가지고 뺀 다음에 또 흐끔 몰르민 가깝니다, 몰래.

췌손으로나 뭐 건 뭐 아무거로라도 가깝도 가깝만 허민 돼니까. 가
끄는디 왜 가끄느냐? 그디가 췌물 들어갈 만이만 가깝니다.

알 헤다가 셔난 자리에 똑 갖다 놓는 거라

그리고 이거 얇게 쪼그만허게 그렇게 가끈 다음엔 것다가 세웁
니다, 이제. 혼 이백 개, 삼백 개 허민 딱 멧 사름. 이젠 게고 이것이
하나만 바짜져 불어도 안 됩니다. 삼백 개민 삼백 개, 꼭 자기 자리
에 갖다 놔야 돼어. 게난 한 멧 사름이 아이 놔 갖다만 놓고 한 사름
은 세우고 딱 세운 다음에, 멧 개씩 딱 세운 다음에 냅을 헤다가, 냅
들어갈 만이 세와야지. 냅을 구워야 돼니까 알을 구워야 돼니까 딱
현 다음엔 그 세운 다음엔 위에다 마물쩍¹⁸⁾이라고 찍을 더읍니다.
이 뱃 나민 그날 밤에 불, 불 놔 가지고 뒷날은 그 알 헤다가 잘 자
기 놔난 똑 셔난 자리에 똑 갖다 놓는 거라. 그니까 이거 셔튼 사름
은 일꾼덜도 바짜지민, 하나 바짜지민 백 개 다 바짜지니까 딱 순
서대로 여기 거 하나 굽다가, 만약에 요디 알이 없다, 실패헤 불었
다 허민 그디 실패헛다고 돌세기라도 딱 놔. 건 공간으로 내 불고.

18) '마물쩍'은 웅기 그릇에 췌물을 받고 더운 기운이 올라오지 않도록 뿌리는
재를 말한다.

알뎡인 초불 알, 두불 알까지 있어

(뎡이는) 그날 하루에도 두 번 줍니다. 게난 알뎡인 초불 알, 두불 알까지 있어. 두불 알. 왜냐하면 거 처음에 박을 때도 그렇게 두불 박아야 돼. 뎡이 삼백, 육백 개 멘들젠 허면 두불 박아야 육백 개 될 거 아니냐. 초불 박았다 딱 세와 놓고 세운 다음에 또 박아 가지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세우고. 물 줄 때도 그렇게 두불 알 박은 거 부터 문여 물 준 다음엔 또 빠두고 또 따로 곳당 끼왕 또 물 주고. 그거 뭐 헐 뎡 세불까지도 해 봤습니다. 근디 세불까지 좋지 안헐 디다. 세불까지 뎡이 뭐 허니까 그것이 철 거튼 것이 잘 안 나와. 제대로 안 나와.

똑딱불민 이거 사람 혼자로만 힘쓰니까

디딤불미¹⁹⁾라고 해서 나도 그디, 나가 그 뭐 재현 행사하는 디 안 들어간 디가 엇수다. 집 이는 것도 다 강 해 보고. 디딤불미, 청탁불미²⁰⁾ 뭐. 우리가 것도 어린 때, 아주 아주 옛날에. 아메도 혼 백

19) ‘디딤불미’는 땅바닥에 장방형 골을 파서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고 그 위에 골에 맞는 널빤지를 걸쳐 놓아 양쪽에 세 명씩 서서 발로 디딤서 바람을 일으키는 불미를 말한다.

20) ‘청탁불미’는 풀무 안에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판인 ‘청탁’이 있는 풀무를 말한다.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 중 ‘디딤불미’ 시연

년, 이백 년 전이 그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 우에서 뭐 허민 그 우에서 기생덜 와서 춤추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똑딱불민 이거 사람 혼자로만 힘쓰니까. 똑딱불미²¹⁾도 우리도 뭐 헛는데 똑딱불미엔 해 가지고 적게 하는 거 똑딱불미주. 우리가 것도 해 봤는디 똑딱불미에서 그거 해도 뱃 하나하고 보섭 하나만 도가니로.

21) ‘똑딱불미’는 한두 명이 손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불미를 말한다.

풍로를 셋둑에 딱 연결해 브름으로 쉼 녹이는 거

여기서 이제 풍로엔 해 가지고 풍로, 브름으로 풍로에 숨 고망을 뭐 가지고 딱 연결되는 거. 셋둑에 딱 연결해. 연결해 가지고 글로 브름 일으키는 셋둑에 들어가면 브름으로 쉼 녹이는 거주.

(바람 통로는) 땅에도 돼주. 그 기둥이 많이 올라오니까 독 엠엔 가면 흐끔 노퍼야지. 아래 뭐 바뵤 가지고. 도당이 좋긴 도당, 덕수 할 땐 도당이 아니고 뭐 그거 뭐로 만들었는가? 도당²²⁾이 제라허게 도당 좋습니다. 도당이 좋지, 판 건 불 피와 가민 불 부터 버리면 안 됩니다. 고무나 뭐 ㄴ튼 건. 이제, 제주에, 부산서 저런 걸로 만들었신가, 췌물이나 저 뭐 허면 털어지민 거 녹아 불민 고망 터정 안 돼지.

그냥 도당으로 그레만 연결허민. 연결만 허민 돼주, 연결만. 연결허는 딴 가민 그 두꺼이만 가민 백돌, 백돌이나 뭐 해근에 고망을 뜯라 가지고 혼 요만인 백돌로 막아야 돼어. 백돌로 세우고 그 ㄴ진 백돌로 막아야지, 거 췌물이라도 뭐 허민 녹아 불민 안 됩니까. 백돌로 막는 거. 백돌로 막은 다음엔 우이다 뭐 딱 지들화야 그 브름이 불어 가민 그 백돌도 테어날 수도, 브름 불려 날 수가 있으니까 췌로만 딱.

22) '도당'은 포르투갈어 'tutanaga(동, 아연, 니켈의 합금)'의 일본식 표현 'トタン'에서 온 말로 '함석'을 말한다.



‘독’에 연결된 파이프

셋둑부터 문저 멘들아

(독은) 알독, 셋둑, 웃둑 합니다. 세 가지. 셋둑부터 문저 멘들긴 멘들아 놓니다. 옛날엔 우리가 할 땐 도당으로 헛는디 이제 재현 행사할 땐 그냥 행사가 족으니까 도로무강으로 만들야. 저것도 도당이라, 췌 도당. 췌 도당으로 해서 한 일 메다 혼 삼십 둘레가. 그 거 현 다음에 옛날 요샌 이 모든 물자가 조니까지, 옛날엔 백돌, 백돌 ㄴ루로 해근에, 백돌을 뺏아 가지고 백돌 ㄴ를 멘들앗어. 백돌 ㄴ를 해 가지고 촌혹 물, 출혹 물에 해 가지고 율이 부췌 다음에 백돌을 굶다 부칩니다, 백돌. 백돌 돌아가면서 췌 부췌 다음엔, 내일은

헌다 허민 오늘은 알둑을 멘드는
거야. 알둑 멘든 다음에 셋둑 멘들
앗던 걸 그 알둑 우터레 궂다 놓니
다. 궂다 놓젠 허민, 우리 헐 땀 옛날
엔 이 사름덜 자기 일로 알아근에
이렇게 모였는디 이 우리가 많이
헌 그 뭇 참 나가 들어가지고 서울
서 온다고 해서 빌어서 허니까 힘
을 내지 못허니까 들르지 못허는
거라. 양쪽으로 혼 보통 칠팔 명은



결합하기 전의 '셋둑'

잇어야 그거 메어다가 알둑 우터레
갖다 놓는다. 셋둑은 크니까. 게서 혼뭇 큰 사름은 뭇 그냥 들르고
죽은 사름은 그냥 어깨에 메곡 허는디 힘 안 줘 불민 혼 사람만 헝
이것이 안 돼지. 게난 이젠 걸 뭇엔 허니까 포크레인 올리젠 갖다
남수게게.

셋둑에서 췌물이 느령 알둑에서 내리민 빠는 거

(둑의 구조는) 안에 틀립니다. 아랫둑은 구조가 아랫둑은 췌물이
빠지는 디 잇고 깨스 빠는 디 잇고. 게난 구멍이 두 개.

또 셋둑은 브름 집어 놓는 디가 잇고 하나만. 브름 집어 놔만 허
민 댜니까. 또 옷둑을 그대로 그대로 우이 건 그대로 건성으로 뭇

해도 ㄹ찌 보줄 헤 줘야 이거 췌 ㄹ뽏 거 숯 ㄹ뽏 거 올리게 댜니까
그거 둑에만. 게난 알둑, 옷둑, 셋둑.

게난 알둑허고 옷둑 사이엔 그 백돌 ㄹ루 해서 질기게 해서 잘
부췌야 댜는디 우이 건 그냥 춘흑으로만 해도 뷌니다. 강한 걸로
헤야 췌물이, 췌물이 주로 셋둑에서 췌물이 느령 알둑에서 내리민
빠는 거. 우이 건 그냥 그자 보호헤 주는 거. 우이 둑에서 올려야 췌
나 숯이나 그 우이서 내려가는 거 닥으민 또 더 올리고 더 올리고.
계속 올려야. 게서 거기서 하루종일 올리는 겁주게.

숯 혼 두 박세기 올리민 췌 혼 박세기

숯허고 췌 가찌 댜야지게. 숯, 숯이 혼 두 박세기 올리민 췌 혼 박
세기, 박세기로. 이젠 숯이 좋아 노니까, 그뻐 숯이 나쁘니까. 숯도
나쁘고 발동기도 안 댜니까 옛날은 뭇 헛는디 이제는 발동기 ㄹ뽏
거 잘 댜니까 뭇 백 번이라도 멘들 수 있어. 잘 댜니까.

둑도 달아야 췌가 잘 녹지

그거 둑을 헌 다음엔 그 저녁에부뻐 귀야 뷌니다. 불 때는 게 아
니고 그냥 그 청록고망²³⁾으로 해서 불 집어놔근에 그 안에 낭을 놔
가지고 굽기 시작허는 거라. 왜 굽느냐, 이것이 둑도 이것이 달아

23) '청록고망'은 용광로에서 잡다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하여 낸 구멍이다.

야 췌가 잘 녹지, 그거 달지 아녀민
거 청록, 저 백돌ㄱ루 행 부쩍 것이
니까 건 막 잘 귀야, 깨끗하게. 우로.
(나무를) 딱 집어 논 다음엔 청록고
망으론 불만 글로 집어넣는 거라.

체암에. 그, 이튿날은 그 조금 현
다음엔 청록고망으로 똑 손 들어갈
만이 청록고망은 허니까 그 안에
그 흑 ㄱ튼 거 뭐 허멍 떨어진 거 시
민 다 파내 불고. 그 뒷날은 허게 돼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독’에 ‘췌’를 넣는 모습

민 또 낭을 또 집어노민 돼. 좋은, 좋
은 걸로. 셋독 중간만이 낭은 집어 논다는 거라. 딱 현 그다음엔 솟
을 너야 돼어. 솟, 체암에 헐 땀 솟이 많이 든다. 혼 가땡이 정도 들
어. 솟 다, 낭이 다 부트민 솟에 불 부트게.

독을 잘 싸민 오 년ㄱ지도 쓸 수가 있주

덕수선 다, 덕수서 허는 불민 다, 다 끝난 다음엔 낭 갖다가 한쪽
에 둘씩이나 뭐 허영 셋독에 대서 밀어 불어요. 밀든 그냥 쓰러집
니다. 물, 물 ㄱ당 지청 정리헤야 바카쓰²⁴⁾로라도. 셋독에 물. 주로

24) ‘바카쓰’는 양동이, 물통 등을 가리키는 ‘bucket’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셋독. 셋독에 왜 주느냐? 요것이 물 췌 놔둬야 내년 쓸라민 요것이
깨끗해야 빨리 내년에 쓰기가 좋으니까. 한 번 허민 깨끗이 다 허
민 조금 시아게²⁵⁾만 허민 독 안 싸도 돼니까. 허물어진 것만 고치
민 돼니까. 게난 독을 잘 싸민 혼 삼 년, 오 년ㄱ지도 쓸 수가 있주.
알독은 매해마다. 그거 고쳐야 돼고. 알독은 그췌록 뭐허지 안헛니
다. 췌물 그디 받는 거니까 건.

청록고망으로 불을 또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딱 현 다음엔 시작허게 돼민 이제 그 청록고망으로
불을 또 집어넣는 거야. 그 전추록, 전날추록. 집어노민 녹기 시작
허민 십오 분, 십오 분만 허영 불 시작허영 부르기 시작허민 삼십
분만 돼민 췌물이 녹기, 녹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낭을 ㄱ찌 놔서 불부치기 시작해서 뭐 헤 가민 다
그냥 불부텅 다 빠집니다, 빠져. 다 불부떠 불민 거 뭐 아무것도 엇
으민 나가.

셋독에서가 일로 브름 집어놓는 거

(나무와 솟을) 우에는 집어놈만 허는 거. 이제 그렇게 현 다음엔 풍
루엔 현 거, 풍루. 브름으로 행 브름을 집어 놔 시작허면 그거 풍루

25) ‘시아게’는 일본어 ‘しあげ’로 일의 마무리, 마지막 손질 등을 말한다.

고망이 봐집니다. 셋둑에. 이것이 셋둑 이건 알둑인다. 이디서 올리민 셋둑에서가 일로 브름, 일로 브름 집어놓는 거.

이건 췌물고망이고 이딘 청록고망이고

이것이 물, 췌물 빠는 디. 올로, 올로 청록고망으로, 옆으로. 췌물 나오는 디 이것. 이것이 뢰면. 요거, 요것이 중간에 요거, 요것이 셋둑. 게난 요 우이서 올라 가지고 이디 꺾을, 췌나 솟이나 집어노민 불부 뜨는 거난. 이건 췌물고망²⁶⁾이고



췌물이 나오는 '췌물고망'

이딘 청록고망이고, 이거 췌물. 일로 췌물 허게 뢰민 낭으로 박아져 여긴 구멍을 막아 뵙니다. 청록고망은 미리 이렇게 청록고망은 미리 막고 내중에야 췌물 나오기 시작허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췌물 나오는 거 보민 췌물이 제대로 나와가야 막아야. 제대로 안 나오민 나쁜 췌물 나오게 내부는 거라. 내분 다음에 좋은 췌물이 나오민 그때 막아. 막은 다음 싹 청소해 놓고 문딱 준비뵈면 다음엔 글루후젠 췌물 빠기 시작허는 거. 그래서 췌물 빠는 거고.

26) '췌물고망'은 용광로의 췌물이 나오는 구멍으로 '잔치구멍'이라고도 한다.

췌물 빠는 막댕인 무드리

무드리²⁷⁾라고 잇어, 무드리. 무드리엔 험니다. 췌물 빠는 거 보고 무드리. 빠는 그 막댕이 보고. 보통 이 막댕이도 므른 낭으로 만들어야지 진 낭, 젖은 낭으로 허민 안 뢰어. 므른 낭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드리'

물마개 혹은 ㄱ스락 ㅎ뽀뽀 더 뵙

물 헌 다음엔 또 물마개²⁸⁾가 잇습니다. 한 오시가 뢰어 가민 물마개 헤다가 딱 막아 놓는 거라. 흑이라도 물마개 흑도 뽀로 만들어야 뢰어. 그 ㄱ스 흑이라도 ㄱ스락을 ㅎ뽀뽀 더 많이 뵙 가지고. 물마개 흑이라고. 딱 막은 다음엔 한 오시 뢰어 가민 겉로 막은 다음엔 가서 다 줘다가 또 갖다 노민 또 물 빠고, 물 빠뵈면 또 오시 대민 또 또 막고. 막앗다 뽀다 막앗다 뽀다.

27) '무드리'는 용광로가 나오는 구멍을 뚫는 막대기를 말한다.

28) '물마개'는 용광로를 통해 췌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흑으로 만든 마개다.

오시 하나 들르민 나가 혼 열세 개깃진 물 쫓다고

(오시를) 들르는 것ᄇ란 오시틀레²⁹⁾엔 험니다, 오시틀레. 틀레 해 근에 들르고 옆에 오시바테³⁰⁾. 바테 행 옆이 놔야 손 안 뜨겁고. 오시바테에 해서 들르고.

그렇게 헌 다음엔, 구운 다음에 또 제자리에 궂다 놓고. 군 다음에 거 다 이제 물³¹⁾ 안 세게꾸리 만든 다음엔 췌물 녹임 시작허민 텡이, 일꾼들은 텡이 지프고 췌대장들은 이제 물 빠서 물 주고. 게난 오시 두 갠 계속해야 혼 세 시간, 이 물을 한 육백 개 다 줘야 돼니까 두 사름은 계속 물 줘야 돼. 게난 오시, 오시로 으숫 개 이상 해 가민 허리가 아픍니다. 그것에 들러 텡기니까. 게니까 으숫 개 이상 돼 가민 교대. 혼 사름 교대허는 사름, 돌아가면서 세 사름이 그렇게.

췌물 놓는 거 물 준텐. 게난 췌물 주는 것도 서툼민 안 됩니다. 물에 따라서 빨리 줄 때 잇고, 천천히 줄 때 잇고. 물이, 물이 좋으믄 천천히 줘도 돼고 물이 나쁜 땐 빨리 줘야 돼고. 우리 게난 오시 하나 들르민 나가 혼 열세 개깃진 쫓다고. 난 모른디 아이고, 열세 개

29) ‘오시틀레’는 췌물을 길어 나르는 ‘오시장테’를 운반하기 위해 짚으로 만든 운반 도구다.

30) ‘오시바테’는 췌물을 길어 나르는 ‘오시장테’ 아래에 받치는 짚으로 만든 받침이다.

31) ‘물’은 췌물 가리키는 말이다.



윤문수 씨가 사용하던 ‘오시’

깃장 쫓다고. 그렇게 보통 열하나 이렇게 줍니다. 것도 헛치지 안 허고 똑 알맞게 줘야 여러 개 주지. 하나에 갓당 하나 비와 불고, 어떤 서툼 사름은 텡이 지픈 사름 손에도 막 비와 불고, 술 먹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는 사름덜은 막 비와 부니까.

좋은 췌물은 말갱, 하얗게 보여야

췌가 뭐해 가민 십 도, 천 도, 천 도만 돼민 녹긴 험니다. 녹는디 천 도, 천오백 도 이상 돼야, 이천 도깃지 돼야 돼지. 체암에 나올 땐 빨강케 나오주게, 빨강케, 췌물. 빨강케. 게난 빨강케 나온 건 안 됩니다. 빨강케 나오믄 이제 거트민 탁배기, 탁배기추룩 우이서 비

우민 그냥 내려가질 안허거든. 혼 이천 도 돼민 물이, 물 모양으로 말짱, 하얗게, 희게 보여야 돼. 췌물이 희게 보여야. 게난 천천히 쥐도 돼고. 그렇게 천오백 도 뭐 천, 물이 약현 거 빨리 쥐야 돼. 빨리 주지 안허민 오시에서 몰라 불어. 물 주기 전이 그냥 돼 불어. 이천 도 돼나민 물 하나 쥐도 오시가 판짜힙니다. 하나도 오시에 물이 안 부떠.

물이 잘 식은 다음에 떼야 곱지

그거 솟이나 보섭이나 물이 젤 식은 다음에 떼야 곱지. 경 안 허민 곱지 안힙니다. 물이 잘 식어야 곱지 췌물 식기도 전이민 벌경허영. 한 삼십 분 이상 잇어야. 그냥 아무 걸로라도 그 마께로라도 율이, 율이 딱 현 다음엔, 딱 허는데 나옵니다. 율이만. 율이 그 장뒤³²⁾영 만들앙, 흑으로 장될 허는데 장뒤현 다음에 장뒤흑만 벌르민 딱 나와요.

그축 허니까 기술자엔 허는 거주. 땡이 부땡 보섭 멧 개 안 돼주게. 허지 말아야주. 헐치치도 말고 뱀겨 불지도 말고. 그러니까 보섭텡이 이 오시로 하나 들렁 가민 열두 개깃진 만들어야 기술자지.

32) '장뒤'는 보섭의 위와 아래의 거꾸집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흠을 말한다.

무췌를 빌레 우이 낳 메로 벌르주게

옛날엔 아메도 우리가 이제 뭐 허든, 그 일본 배에 그 저 배덜 부서진 거 그런 거 현 거 ㄴ뽀든, 무췌라야 돼니까. 벌러져야. 벌러야 췌 녹이니까. 요즘은 뭐 정철,³³⁾ 정철도 나오는 거 가튼디 정철론 안 헤 봤습니다. 우리, 우리 덕수서 허는 건 다 무췌로만. 벌러야, 벌렁 녹여야.

일꾼덜이 다 벌르주게. 메로 아래가 저 빌레, 돌 우이 낳. 게난 그디서 뭐 현 사름덜 그냥 돌아가명. 전날은 준비하는 날은, 전날이니까 전날은 췌만 벌르고 행 다 준비만 허니까.

불미허당 췌가 존 걸로만 모양 도가니벳

도가니로, 도가니 멘들아 가지고 도가니에 췌물을 놔 가지고 녹여 가지고 허는 거. 거 왜 그러냐 허니까, 그니까 벳이, 차이가 도가니벳³⁴⁾이라고 허는 건, 도가니벳은 한 오십만 원 가민 그대로 큰 불미현 건 십 만 원베끼 안 가. 한 오 배, 사 배, 오 배 비싸.

도가니 현 건 췌가 좋은 걸로만 해서 현 거니까. 건디 그거 도가니벳보단도 무시거 스텐³⁵⁾벳 나니까 더 좁디다. 나도 직접으로 뭐

33) '정철'은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한 시우쇠를 말한다. 달리 숙철이라고도 한다.

34) '도가니벳'은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으로 주문 제작하는 벳을 말한다.

35) '스텐'은 '스테인리스(stainless)'의 일본식 표현이다.

해서 헤 뵈는디 그냥 불미엔 잇다근에 잘못허민 췌 나쁜 걸로 헤 노민 그냥 그릇만 굶으고 그게 넘어가질 안헤. 흑 부떠근에. 흑이 부평. 췌가 조른 삭삭 넘어가는다.

(도가니벧은) 자기가 가서 자기가 해서 그, 그디서 돈만 줘 가지고 췌 자기가 골랑 가고. 췌가 많이 엇으니까 불미허당 췌가 존 걸로 만, 췌가 옛날에도 췌 다 췌 벌러 가지고만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 좋은 건 알아집니다. 이제 사름도 알 건가? 굶으면, 굶으면 딱 절 잇는 거, 절. 딱 절이 있어근에 그냥 췌가 아니고 절이, 딱 절이 잇는 거. 그런 췌로 골령 헤사 췌가 흑이 잘 넘어가주.



질먹을 골고루 바르는 '돌레질'

돌레 돌르는 건 몰래부터

돌렌 췌로 만들주. 돌렌 췌로 행 그것이 딱 그 젼철³⁶⁾이민 젼 철 딱 알맞게 만들앙. 다 이거 만든 다음엔 돌레³⁷⁾를 돌른 다음엔, 돌레를 돌르는 데 처음엔 모래부터. 모래부터 헤야 이거

질기지. 고갱³⁸⁾ 허민 고갱만은 안 돼고 몰래, 몰래 아까 골앗주마

36) '젠철'은 술 중에 가장 작은 용달술을 말한다.

37) '돌레'는 주형 표면에 목탄 가루를 물에 타서 칠하는 쇠로 만든 도구이다.

는 이 보섭 발 허듯이 몰래 그 물에 타 가지고 몰래를 돌른 다음엔 초불, 초불 부쥔 다음엔 그 다음에 고갱. 옛날 고갱, 옛날엔 솟이, 솟구루엔 헤신디 그걸 헤 뵈 또 우에 시아게³⁹⁾ 딱 헌 다음엔 우알탱이 해서 합장이라고, 그 두 개 다 헌 다음엔 췌물 고 망을 하나만 놔두고 다 막아 버 리는 거야. 막은 다음엔, 혼 삼 일 후엔 췌물고망을 또 새로 잘 만드는 거야. 잘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다, 이거 만들앙 놔두민 뭐 한 달이 돼고 열흘이 돼고 일 없는 거라. 나가 만들어 놓 것도 이제 혼 십 년 이상 췌 거 나가 덕수에 이실 건디.



'돌레질'을 끝낸 모습

탱인 보섭 탱이엔 허고 바슴은 솟 바슴이엔 허고

탱인 보섭 탱이엔 허고, 바슴은 솟 바슴이엔 허고. 솟 허민 옛날

38) '고갱'은 일본어 'こくえん'에서 온 말로 흑연을 말한다.

39) '시아게'는 일본어 'しあげ'로 일의 마무리, 마지막 손질 등을 말한다.

에, 옛날에 우리도 솥불미 허민 솥만 허고 옛날엔. 보섭불미 허민 보섭만 헛거든. 왜냐허민 복잡해서. 텡이만 마당에 텡이 한 삼백 개 만들민 마당으로 하난디. 삼백 개 눌젠 허민 이것이 텡이 영 가르쳐 놔야지, 가르치민 육백 개가 되는 건디. 게니까 옛날엔 보섭 불미 허민 보섭 불미, 벳허민, 침 솥 불미 허민 솥만.

(보섭을) 일부러 크게 만들젠 허민 텡이를 크게 만들어야. 그런 우리가 한 멧 개 그런 것도 멧 개. 보섭 크게 헐에. 크게 보섭을, 왜냐 허면 그것도 저 지슬밧이나 뉘이는 텡겨 보민 다 알아지주. 크게 나오니까.

췌물이 제일, 텡이도 중요허고

췌물이 제일 (중요해.) 텡이도 중요허고, 텡이도 다 다 중요허지 뉘. 텡이도 중요허고 알도 중요허고, 알만 잘못 멘들아 불민 안 뉘고. 다 중요허고, 다 맞아야. 췌물도 잘 줘야 뉘고, 물도 잘 줘야 뉘고.

보섭은 봄에 천 개 가을에 천 개 만들어

내가 어린 때도. 우리가 허는디 보통 일 년 네 번 헐니다. 네 번. 봄 불미해서 봄에 두 번. 가을 들민 가을에 두 번. 이것이 보섭이 엇어 난 해야지, 재료가 엇어야 풀아 먹어질 거니까. 겨울엔 안 허고. 이게 가을 들영, 밧 농사가 봄에 허고 가을에 허니깐. 일기도 그때가 좋고 허니까.

일 년에 천 개. 아니, 아니. 두 번에 천 개. 봄에 천 개. 또 가을에 천 개. (두 번은) 부쳐 낱 해야주. 사 일 허는 거지. 하루 준비허민 그 뒷날은 췌물 궂다 주고. 다른 것도 한 번 해 낱 또 궂다 주고. 두 번 허민 천 개 나오니까.

텡이 가을에췌물 멘들었다가 겨울엔 손 보는 거만

(텡이는) 미리 미리. 겨울에. 가을에췌물 멘들다가 겨울엔 손 보는 거만 겨울에 손 봐. 텡이 아메도 한 삼백 갠 잇어야 뉘. 삼백 개민 두 불이주. 두 불 해야 육백 개거든. 육백 개 그디서 안 되는 것이 잇는 거라. 파치가 잇으니까 그래서 오백 개 잡아 가지고 천 개라.

덕수 보섭은 좀 옥아미췌

우리 어린 때 솥불미가 허고. 나도 어릴 때, 솥불미 허는 건 솥불 혼 번 습아 봄베끼 안 허고. 그건 일본 놈덜이 망해 버려. 그건 많이 헐라고 해도 췌도 많이 들고 허니까. 보섭은 해마다 가니까 두 해, 오래가야 삼 년베긴 못 가. 다 다여 부니까. 보섭이 게난 덕수 보섭이 알아줍니다, 최고, 덕수 보섭은. 게난 하르방덜, 노인덜이 나도 혼 번 덕수 보섭 나도 일당 받은 거 가지고 혼 번 장서 가 뉘는디 딱 하르방덜이 통대⁴⁰⁾ 놔 가지고 딱 허민 통대 다 허니까.

40) '통대'는 담배통과 물부리 사이에 끼워 맞추는 가느다란 대를 말한다.

통대 허는 거 보섭 딱 놔 보민, 이거 덕수 보섭 맞이나 틀리냐. 딱 알앙, 계난 덕수 보섭은 좀 옥아마썰, 옥아. 끄트머리가 땅에 안 들고 흐뭇 올라오게. 통대 노민 이것이 통대가 안 부트니까. 통대 부트지 안헤야 이거 덕수 보섭으로 알지. 나도 육지 보섭을 봤는디 육지 보섭은 가다⁴¹⁾ 잇으니까 구썩허니까. 그디가 구썩허니까 땅에만 들지 우이로 올라오지 안허주. 나도 해당 우리 매부도 주고, 매부가 청순⁴²⁾디 매부도 주고 우리 처남, 동생, 동생 주민 이거 주민 “야, 이거 어디 보섭이냐?” 노래 불러. 밧 갈기가 그렇게 좋아.

웬 우리 거보다 곱 큰 웬디 밧을 갈지 못허는 거라

그래서 나가 밧을, 그렇게 해 봐수다. 밧을 가는디, 밧 갈아 가난 어떤 옆이 사름이, 우리 세계 분인디 ㄱ만이 산 밧 가는 것만 보는 거라. 밧 갈앙 딱 해 봐서 “아저씨, 우리 밧 가는 거 혼 번 봐 줘서.” 허멍 허니까. 간 보니까 웬 우리 거보다 곱 크고, 큰 웬디 밧을 갈지 못허는 거라. 말썬 보니까 벳이 안 좋아. 이런 거, 이런 벳 곳다근에 밧 갈렌 허난 그릇만 굿영. 그릇만 굿영. 쉼도 둥기지, 보섭아올라 행, 계난 흑이 팔팔 잘 넘어가고 해야 쉼이 잘 둥기고.

41) ‘가다’는 일본어 ‘かた[型]’로 ‘모양’, ‘본’, ‘거푸집’ 등을 말한다.

42) ‘청수’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를 말한다.

내일 허게 돼민 독 앞이 가서 뭐 제지낸다고

불미혈 뎀 아메도 내일 허게 돼민 이제 제지낸텐 허는디. 독 앞이 가서 뭐 제지낸다고. 그때 우리가 두 번 해 봐신가? 그냥 뭐에 올려근에 그디서 대강 술만 올령, 절만 허는 거주. 제지내는 건 밤이. 밤이 허니까 우리 이따근에 뭐허는 잘 안 봤는디, 우리 행사할 때만 두 번인가 우리 이장이, 이장이 뭐 해근에.

옛날엔 저 부인덜 뎡기민 안 뎡다고. 부인, 여자덜 뎡기민 안 뎡다고. 여자덜 안 뎡어.



〈덕수리 민속 보존회〉에서 제를 지내기 위해 벌여 놓은 ‘제물’

손가락이 이거 다 뎡신뎡 불언

그서툰 사름은 (다치거나) 경해도 우린. 아니 그리고 우리가 뭐 허는디 그냥 카 불주. 그냥 카 불주. 옛날엔 장갑이 어디? 그대로 뭐. 그니까 내가 옛날에 뭐 허니까 손, 손금이 고생행 하나도 엇주. 손가락이 이거 다 뎡신 뎡 불언.



윤문수 씨의 ‘손’

숯은 안 만들고 불무 살리니까 제우제우

우리가 이것도 시민회관에 방앗돌 굴리는 거구나. 방앗돌 굴리는 거 시민회관에 들어가려고 허니까 문이 야트니까 들어가지 못 허연. 그디에서 그디 가서 톱으로 잘라 가지고 들어가, 안네 갓단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시연도 해 봤어.

불미허는 건 우리 허는, 그 사름이 흥쑼 머리가 똑똑해. 어떻게 허는고 허니까 자기네 시기는 대로만 허라고 해 가지고 숯에, 숯에 다 휘발유를 서터 불었어. 휘발유 갓당 조금 행 뭐 현 때나 시작 해가건 거 올리라고 해서 올려가니까 불이 이만씩 뭐 허니까 우리가 갓는디 기자들이 딱 사는 거냐, 우리가 기자들이 뭐 못 들어오



〈덕수리 민속 보존회〉 회원들과 윤문수 씨

고, 기자들 다 그렇게 해서 시연했어.

숯은 저 돌, 돌 공원, 돌 공원 그디 채암에 헐 때 그디 오라고 해서 그디 가서 만든 거. 숯은 안 만들고 그 뭐만. 그니까 불무 살리니까 제우제우 만들안 거.

젊은 아이덜 금년에 해 본다고 허니까 그르쳐 줄 걸로 했는디

이제 우린 그 전 하던 뭇들은 다 설러 부니까 젊은 아이덜 금년에 해 본다고 허니까 그르쳐 줄 걸로 했는디. 그디서 오랜, 와 달라고 허민 가야지 뭐. 거난 미리 시작허젠 허민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어. 그 바숨 그튼 건 미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를 지켜보는 윤문수 씨

리 만들영 몰려 봐야지. 미리 안 만들민 그때 돼민 바빠서 안 돼어.

(불미할 때) 기분 좋은 건 아메도 그때 뭐 잘행, 우리가 일헌 땀 그 ○현이엔 현 사람이 똑 뭐허게 돼민 이녁 그 매부, 매부가, 뭐 그디 질떡대장, 질떡대장도 잇고 뭐 허고 현디 딱 어두와 가민 집이 보 냉 자리 허민 보통 얼마 해당 자리 해근에 잘 맥여야 웬텐 허멍.

쳇 번 들어온 송칩이 하르부지가 허다가 덕수 사름덜이 하게 된 거지

안덕면 덕수리 김통립



김통립(1947년생) 씨는 몇 대에 걸쳐 덕수에서 살아온 토박이이다. 불미일에 종사하는 집안 어른들이 많았으며, 본인 또한 스무 살 무렵부터 작은아버지의 방앗간 일을 돕다 불미일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덕수리 민속 보존 재현 행사에서 독대장을 맡으며, 후대에 불미에 대한 기억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갔다.

2023년 9월 8일, 안덕면 덕수리 제보자 댁에서 김통립 씨를 만나 덕수에 처음 불미가 들어온 이야기부터 하나씩 풀어갔다. 김통립 씨는 우리에게 다른 지역과 흙이 달라 덕수만의 불미가 가능했던 일,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부산 지역으로 배를 타고 나간 일, 불미 일을 맡았던 각 대장들의 이름들과 역할까지 상세히 구술해 주었다. 특히 독의 구조와 만드는 방법, 이후 불미가 끝난 후 독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까지 설명해 줘 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더불어 덕수에도 있었던 '독탁불미'를 제보해 다양한 양상의 덕수 불미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재현 행사로만 이어가고 있는 불미에 대한 염려, 불미를 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내용 등을 통해 앞으로 불미 전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도 불메헤났지

아, (부모님은) 여기서 농사베끼 더 지어게? (아버지도) 불메헤났지. 근디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 아마 아버지네가 헤난 거 같아. (집안이 원래 불미를) 헛엇는데.

여기 쳇 번 들어온 하르부지는 송칩이 하르부지라고. 그 하르부지가 허다가 덕수 사름덜이 많이 배운 거 ㄴ타. 그게 전통이 똥 내

려오는 그때, 그자 허단 말째라 가니까 혼 뗏 사람씩 가보엔 허단
덜. 다 뜨로 떠어전에 개인이 마탕허게 뵈 거지. 우리가 나가 난 후
에는 좀 옥았다 헐 때에 아는 거는 솟불메 허는 거를 딱 혼 번베긴
못 봤어. 우리는. 뭘 그 하르부지가 쳇 번에는 어디 서쪽에서 허단
흑 따란 이따장 왓단 말을 듣고. 송칩이 하르방인디 낙천 그쪽에서
허난 안 뵈 갖고, 또 이쪽으로 찾아왔다고 그때 말하느디.

일 년에 봄 나민 보섭을 만들주게

일 년에 봄 나민 보섭을 만들주게. 게면은 한 칠 일간이면은 한
번 오닐 가다를 만들면은 내일 또 불리고. 그거 불린다는 말은 만
드는 거지. 계속 그추룩 허면 불메를 한 네 번, 세 번 그 사이에 그
렇게 만들안에 보섭이 한 칠백 개. 한 해 봄에만 만드는 게. 가을에
또 그렇게 허영은에 한 칠팔백 개씩 만들앙 나오는 거지.

밖에 가다 만든 건 여러 번 쓸 수 잇는고. 안에 가다가 잇어. 모살
헤 갖고 그 안터레 만들앙 거를 까까서 또 집어낭 췌물을 집어 노
면은 뵈는 건디. 큰 가다는 만들면 여러 번 쓸 수 잇어. 비만 안 맞
고 잘 하면은. (그 다음 췌물 놓는 거를) 연타, 계속허지. 또 다음 날 가
달 또 만들야. 가달 안에 박앙은에 만들면은 쪽허게 세우면은 그게
좀 말라야 뵈주게. 그 말랑은에 행 밤에는 그걸 차례로 쪽 놓지 안허
믄 안 뵈, 것도. 번호 순으로 쪽 그대로 그 놔진 차례로 허는 거주게.

그난 것따 보섭 탕이라고 허느디, 탕이가 쪽 논 차례로 그대로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제작한 ‘보섭 탕이’

가 그 알 쪽 놓주게. 그 알이라고 허주게 것따라. 그걸 쪽 노면은 이
제 밤에는 그 우이 불을 붙일 거라. 나무 싹 깔아 놓고. 불부청 마르
민 이제 한 열 시, 열한 시쯤에 불부쳐야 그것이 식어근에 아침에
꺼내갈 수가 잇주게. 정행 오후 한 두 시, 네 시나 이런 때 기계로
살랑 그거 만들 췌를 녹이는 거지.

그동안 만들믄은 여기 할머니네나 이런 분들이 나강 가정 정 나
강 팔고. 이 동네 분들이 많이 그 할망덜이 쳐 지고 나가서 팔아. 그
때는 이런 칠물점이 없엇거든. 칠물점이 었으난에 그걸 정 강 팔곡
행 허면은 이 동네 사름덜이 이제 보섭이 었다 치면은 가을나민 또
만드는 거지.

독대장, 젓대장, 알대장이렌 허여

젓물 녹이는 사름한티는 독대장이렌 허여. 또 젓물 받아가는 사람보고는 젓대장이엔 허곡. 알 까끄는 사름이 알대장이라고 허곡. 그 막는 사람도 한 분 있어. 불 구멍 막는 사람이 잇곡 허는디. 그게 다 끝나쨌 허믄 어떤 때는 어두울 때도 잇지. 밤이 깊엉은에. 어둑도록 허는디 그때는 전기도 없을 때난에. 불 들렁도 하곡.

열아홉 켤 때부터 불미힐 때마다 계속 보고

나는 작은 세 번쨌 아버지 혼자 오야지⁴³⁾가 뒹고. 저 밑에는 개발대 공장이라고 해영은에 또 잇주. 갱 두 밧디서 허는데. 나는 작은아버지 집이니까 어릴 때부터 방앗간 일을 좀 많이 했으니까. 옛날은 다 여기서 방아를 켰으니까. 그거를 나가 했으니까 불미힐 때마다 계속 보고, 같이 뭐 만드는 것도 해 보곡 행. 나는 한 스무 쉼, 열아홉 켤 때부터 그 방앗간을 다녔지.

(방앗간하고 불미간은) ㄴ튼 거. 쌀 까끄는 디 ㄴ치 현 거지. 불미힐 때는 방아를 안 찌고. (일년에 봄, 가을에만) 그런 식으로 허는 거. 그때 온도가 적합한 모양이라, 게난. 여기도 그런 기계가 없으면 또 못 허지. 딴 사람은 하고 싶어도. (불미 기계랑 방앗간 기계랑) 똑 ㄴ트지.

43) '오야지'는 일본어 'おやじ[親父]'로 직장의 책임자, 가게 주인, 노인 등을 말한다.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사용하는 '풍구'

엔진. (엔진으로 바람 일으켜) 하는 거지.

개발대 공장은 여러 사름이 허는 거지

오야지 ㄴ라 원대장이엔 허는 거지. 옛날에는 가보엔도 헛갯지, 가보 둘이가. 가보도 서이도 가보 허고. (가보는) 같이허는 거. 그췌 룯도 헛주마는 우리가 알건이는 작은아버지 혼자 헛고. 밑에는 개발대 공장이니까 저건 여러 사름이 허는 거지. 부락에 개발대라고 있었어. 요 학교 뒤에. 이제 ㄴ트믄 임원덜 그런 사람덜이 모아서 현 건지 몰르갯어 나는. 거 췌금 우에서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혼자 허는.

산방 둘레 삼 키로 이내 흑이라야 돼

흑은 촌흑이 산방 둘레를 한 삼 키로(km) 이내 안에에 흑이라야 돼. 알, 덩이를 만드는 거. 그디를 벗어나면은 안 된다고 해 갖고. 그 흑을 동대합실 (동부락 입구) 우리 밭디서도 많이 파고. 나가 아버지한테 그거 물려받은 밭인디 그 밭디만 강 들고 파온 거라. 아버지가 우리 낳기 전에 헛던 게 옛날에 요 학교 밑에 물통이 하나 있었어. 그디서만 흑 파니까 물통이 돼 갖고 아버지 이름 굴으멍 누구에 물통 허더라고. 우리가 판 거니까.



거푸집 제작에 쓰이는 덕수리 '촌흑'

알 굽는 흑이 또 틀려

알 굽는 흑이 또 틀려. 거는 약간 모래 서꺼질 듯한 건디. 그때 당시에 어디 갓냐른 화순 바다옴에 황개창이라고 잇일 거라. 해군부대로 축항이 짝 나 있어. 그 산 독에 밤이 가서 파오는 거야. 모르게 파 와야 돼지. 누게 알면은 못 파게 허니까. (그 흑은) 조금 폭석지면서도 모살같이 좀 부드러와.

흑을 물에 헤영은에 풀을 만들앙 덩이에 담는 거지

흑 판 거를 도라무통 반착짜리에 놓고, 저어 갖고 풀을 만드는 거지. 물을 헤영은에 풀을 만들앙 그레 놔근에 서끄는 거라. (황개창에서 가져온 흑이영) 이디 밭디서 판 흑이영 합쳐. 물 놔근에 막 저. 물 만들어 낱 풀 쭈듯. 그축 만들앙 그 물을 체로 걸러야 돼. 비와 불면 안 돼. 흑을 체로 걸러근에 만들주게. 게민 아주 엄청나. 물을 만들 아야 돼. 아주 알게. 텅어리지게꾸리 혈러고. (흑이) 비삭비삭허주게. 그난 그거를 놔 갖고 사름 서너 이가 젓으른 흑이 엄청 많주게. 그걸로 행은에 알 박으메, 사름이.

서끄는 게 아니고 물만 벗영 짜내는 거지 물만. 그걸 막 젓으면서. 황개창에서 ㅓ져온 흑허고 여기서 판 흑은 풀 쭈듯이. 그 풀을 만들락 풀허듯 허는 거지. (불 솟는 건 아니고) 물 낱 막 젓어. 그게 싹 흑을 문짝허게 빠져. 돌맹이 가튼 거 다 체로 행 걸러 가민. 그것이 풀 대신 쓰는 거지. 이제 사는 ㅓ트민 풀. 그걸 버무령은에 덩이에

걸 담는 거지. 혼 줍씩 주먹 썰게 허든 두 번, 세 번 반양 싹 까까 불면은 흑이 나왕.

(뎡이 흑은) 밧디 흑 파오면은 보리 ㄱ스락 놓고 안 짤른 거 그냥 옛날에는. ㄱ스락만 행 낱 소로 블라야 돼. 소로 블라낱은에 나무로 만든 가다가 있어. 가다 하영은에 흑을 낱 뽕으면은 안에 또 보섭 닳은 거 놓곡 행 블르면은 그 가다가 나와. 거 떼곡 헤근에 계속. 거는 한 번 만들면은 아마 한 이삼 년은 쓰니까. (불에) 구워. 뎡이는 멧 번이라도 쓸 수 있고, 이 안에 거는. 알은 혼 번뿐 못 쓰는 거.

뎡이는 내년에 헐 거 올리 만들어야 돼

이제 한 멧 분간 놔뒀당 세와. 세우든 그 알 안에 것이 톱 털어져. 질떡이라고 있어, 까만 질떡. 그거를 발랑 놔두면은 그것은(뎡이는) 안 부트주게.

뎡이는 미리 만들어야 돼. 내년에 헐 거 올리 이때 만들어야 돼. 만들앙 놔두면은 겨울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빌영 그거를 전부 까끄면서 가다를 잘 땀나 안 땀나 칼 가정 까까. 자로 쪽 까까. 까까 내영 났다가 다음 봄에 쓰쟁 허든 거를 막 모는 거주게. 막 말랐으니까.

그 안에 뎡이 만들 때는 소나무 저 젓가락보다 더 굵지. 이렇게 세 개를 놔. 그축 허면 건 깨지진 안해. 만들앙 나오민은 이제 비 안 오는 디레 창고 ㄱ튼 디 잘 놔뒀다가. 겨울 들면은 앳앙은에 그걸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제작한 ‘보섭 뎡이’

옆이 다듬는 거지, 땅에 헐 거니까. 이제 ㄱ트민 좋은 것들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땅에다 막 가다를 만들어 놓주게. 경허면 그걸 다듬아근에 났당 봄 나면은 조금 더 말리는 거지. 그것에다가 흑연 가루 탕은에 질떡을 블르민 완성돼는 거지게.

(알은) 봄 낱 헐 거. 내일부터 헐 거든 오늘부터 준비헤영 저 모래는 즉시, 그날 박아야 돼. 그날 만들아야 축축헌 기가 잇곡 담는 거주게.

숯은 부산까지 가서 가져와야 돼

지들커가 많이 들어, 췌가 문제주. 또 숯. 숯은 여기서는 못 허고 부산까지 가서 가져와야 돼. 그때 당시엔 (부산) 일산서 들어왔는데.



‘바슴’, ‘데미’ 등을 굽는 데에 쓰이는 장작

우리 정도 머리에는 이렇게 올리면은 머리가 팍팍 물어. 딱 그 솥에 머리가 끼어. 그것이 제라힌 거라. 옛날에는 여기 솥으로 헛덴 허여. 겐디 그거는 큰 불메가 안 돼주게. 많이 만들지 못허는 거주게. 나무는 그때가 도토리 나무. 그런 나무로 헛덴은 허는디. 그거는 뭐 우리가 안 봐 보니까 잘 모르고 (부산에서) 솥 사온다는 거 알고. (질떡도) 부산서 가정 왓곡. 또 백돌. 그건 독 안에 싸는 거. 그거까지는 (부산에서) 가져와야 돼.

(물건은) 배로 가져와야지. 우리도 여기서 텡길 땀 배가 있었지. (옛날에 풍선으로 갖다 왔저 헛게마는)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고. 나가 한 스무 살 정도 7장은 그것을 인정헤여. (육십칠 년)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걸로. 그 전에 헛 거는 몰르고.

췌는 고물상에서 무췌로만 골렷당은에 가져와

췌 ㄴ튼 거는 여기(에도) 고물상은 그때 있었던 모양이라. 고물상 ㄴ튼 디 부탁 행 놔뒀다가 무췌로만 골렷당은에 가져오는 거지. 무췌 아니면 정철은 못 녹여, 힘들어근에. 췌는 여기 근방에 돌아다니면서 좀 모집헛 오면은 아는 사름은 아는디. 그 췌를 딱 깨면은 좋은 췌가 나오는 게 잇는 모양이라. 게면은 따로 골렷 놔뒀다가 벳을 만들야. 보섭허고 벳허고 맞아야 뽕주게. 게난 그거를 골렷다가 죽은 불메. 조그만헛 독 만들앙은에 거기서. 이녁이 쓸라고 특별하게 또 그것도 만들야.



고철을 모아둔 트럭

알대장, 독대장, 젓대장 또 나머지는 질떡대장

아침에는 사람덜이 한 십이 명 오지. 그른 각자가 대장마다 다 맏겨. 췌 부술 사람은 췌 부수곡, 숯 허는 사람은 숯 부수곡. 경헝은 에 전부 다 준비헝당 기계 살리면은 할 거난에. 기계 살리면 한 십 오 분 내지 이십 분이든 췌물이 나오주게. 췌물 나오면은 준비헝 허 쟁 허든 복잡허긴 헝 거지. 탱이 지픈 사름은 노도 꼬왕은에 그 끈 멘들어야 돼고. 또 물 줘 가민 나무 두 개 가정 서서 알 튀어나오지 못허게 지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난 사람 으라 가지로 분산 돼지.

(불미일허는 사람) 특별헌 말은 엇을 거라 그게. 젓대장. 뭐 그축 불 린. 이름으로 불르곡 그추록 헝. (알대장, 독대장, 젓대장) 또 나머지는 질떡대장. 세 사람, 네 사람 돼주게. 질떡대장은 혼자 허곡. 알도 까 끄는 사람이 으라 사름이 잇어야 돼, 그게. 젓대장도 혼 서이, 너이 는 잇어야 돼고. 혼자만은 그 췌를 못 들르니까. 무거웁 이게. (불미 마당에)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마는 개인이 헝 적에는 사람 많이 빌 면은 일당이 많이 나가니까. 많이 못 허영 십이 명.

독은 허쟁 허민 뱅허게 돌아가멍 백돌로 쌓아

이제 시작허쟁 허면은 이제 혼 한 시간 남앗저 헝 때 정도 돼면 은 췌 놓곡, 숯 놓곡, 췌 놓곡, 숯 놓곡. 안에는 나무가 놔야 돼. 제일 밑에는. 이제 혼 시간 정도 남앗다 하면 불을 부쳐야 돼. 거기다가.

독 세 개. 독은 허쟁 허민 뱅허게 돌아가멍 백돌로 쌓아. 백돌로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 때의 '독'



쌓앙은에 준비 딱 돼면은 헝 정낭 이라고 헤 갖고, 나무 긴 거. 거 두 개로 헤영 베를 무경은에 들렁 그 기 올려놔. 알대장 알독 우트레. 경 올려 노쟁 허민 같이 서너 이가 일 로 오주게. 일로 너이, 일로 너이, 일 로 너이 헤영 같이 들렁 거기다가 올려 놔서. 그 우이 또 족은 독은 경 무겁지 안허니까. 두이, 서이나 들렁 올려 놔지고. 정낭 이만이 독진 거 허영 길게 헝은에 베를 무 경은에 올려 놓고. 그민 다 헝 거주게.

기계 살류라 헝 다음, 십오 분 정도 후 췌가 물 녹앙 내려와

독깡장 올려 노면은, 장작을 밑에 독 안터레 집어놔서 쭉허게 놓 으면 그다음 숯 비와. 그다음 췌 놔. 경헝당 또 숯 놓곡, 췌 놓곡 허 든 계속 올라가 끝까지. 계속 올라갓다가 기계 불미 시작허자 허민 불 알로 강 혼 시간 전이 부쳐야 돼. 것이 알로 숯에 불부트면서 계 속 올라가지게. 이제랑 기계 살류라 허면은 기계 살좌. 게민 한 십 오 분 정도만 있으면은 췌가 물 녹앙 내려와 다.



‘불미공예’ 재현 중 ‘췌’가 녹았는지를 확인하는 모습

(기계하고 독하고 사이에 연결하는) 파이프. 옛날 우리가 보면은 어디 무슨 폭탄에 총 닮아 베. 요만썩 이만썩 긴 거 그거를 이어 왕은에 저 촌흑으로 헤영, 거기 베 다 감양은에 촌흑으로 딱 막주게.

셋둑도 바람 들어가는 디다가 넓게 헤영 그 구멍으로 이제 나무를 쭈실 수 잇게꾸리 터야 돼. 텃당 더끄곡, 텃당 더끄곡 헤야 돼. 한 번썩 그걸 봐야 돼. 거기 백돌로 낵 놔뒀다근에 한 번썩 그거 보면 여기가 바람이 계속 들어가면은 새카마 불어. 그 안에 솟이. 녹으면서 떨어지는 게. 게른 나무로 영 안트레 드물라 줘야 돼. 드물라 주면은 것이 환허게 또 돼지.

경행은에 허면은 이젠 췌대장이 물 그냥 텅 내버리는 거라. 췌

물 계속 나오는 거 흥끔 보다가 이제는 막아라 하면 막양. 막는 분 그 사람한테. 그다음 이제 오실 가져 왕 톱 대면은 그 사람이 이녁 냥으로 또 구멍을 뚫어, 오시 ㄱ정은 사람이. 그 사람덜은 눈으로 보면 이것이 물이 좋다 궂다 허는 걸 다 알아내. 나쁘민은 막양은에 강 비와 불곡 땀더레. 비와 뒹근에 새로 왕 조금 더 잇당 왕 봐, 또 받아. 경행 허든 계속 우트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나오주게. 오시 두 개로도 막양은에 강 비와 주곡.

보섭 칠백 개 정도를 만들어 내어

텅이 지프는 사람덜이 딱 준 비행 잇다가 이제 한 너이, 다섯 썩은 있어야 돼어. 딱 지평은에 가 민 들렁 발로 눌러야 돼주. 쪼금 잇다가 열어. <덕수리 마을회> 소장 ‘보섭’ 보섭이 웬가, 안 돼도 그건 부수는 거고. 췌스랑 으로 그걸 궂당 흥 밧더레 모아놔. 안 웬 건 이쪽더레 낵은에 부사 불 걸로 허곡. 이자 완성웬 거주게. (보섭이 잘 웬 건) 갓다 놓곡. 삼으로도 앓져 가곡. (실패작은) 요썩썩에 낵은에. 그건 뿌사 버릴 거니까. 계속 행 칠백 개 정도를 만들어 내어. 한 번 하든 한 칠, 팔 일 헤여.



알만 구우민 웬는 거, 텅이는 안 구는 거

불 허는 건 주인이 허는 거니까. 그 알만 강 구우민 웬는 거게. 텅

이는 안 굽고. (헝이는) 계속 쓰는 건디 질먹칠을 한 번 싹싹싹 헤 노민 저 뚜껑허곡 그걸 마주 이렇게. 저 그슨새라고 있어, 쥘 헛단 거. 그거를 쪽 길양 양옆으로 이렇게 세와. 불부청 내버리민은 계속 세와 가. 게믄은 질먹칠한 거 말라 버려. 그난 헝이는 안 구는 거.

알은 가다 박앗당 빠냈으니까 그거 다 다듬아야 돼. 그걸 박양은 에 툇치믄 툇 떨어지믄 나와. 게믄 발에 툇 영 놔. 또 뒤로 가면서 사름이 양쪽으로 싹싹 다듬아. 쪽 다듬곡 낭 놔두민 차례로 전부 돌아가믄 많으면 한 이백 개, 삼백 개 돼지게. 다 다듬으면은 이제 날라 오라 헤 갖고 저기 누게 강 불살를 때가 잇어. 불살를 때 강은 에 츠레로 쪽쪽 나오는 거라. 그거 노면서 나무를 7는 거지. 그 위 술잎 7튼 거 많이 더평. 그다음은 이제는 잘 엇는디 쥘. 그거를 싹 우이 더꺼 놔뉘. 경 헛당 밤 열흔 시만 돼가믄은 주인이 강 걸 불부쳐 불어. 알만 불부치는 거. (다음 날 아침) 꺼내는 거지. 재는 오시 들르는 사람이 물 받양 나오면은 그거를 더퍼 줘야 얼굴에 불이 덮질 안허주게. 오시도 흐끔 영 놔뉘야 돼. 경허믄 다 돼는 거지.

뚝은 도라무통 잘라 갖고 만든 거

(뚝은) 도라무통⁴⁴⁾. 잘라 갖고 만든 거. (백돌) 돌아가면서 싹 거지.

44) '도라무통'은 일본어 'doramu+桶'으로 '드럼통(drum桶)'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보관하고 있는 '알독'

(도라무통) 아랫 거를 반착 잘라야 돼. 그다음 온채. 그다음 거 또 반착. 두 개 높이지. 우엿 거는 쉼을 받아주는 거주게. 받양 나뉘당 알독에서가 녹기 시작해. 두 번째 뚝에서가 녹아가면서 알르레 내려오는 거라.

알독은 백돌로 쌍 아래 모살을 질아

(알독은) 밑에 백돌로 쌍. 그다음은 아래 모살을 질아. 모살 길양 비숫허게 여기가 구멍 있으면 여기는 쪼금 높아. 이 구멍은 주시⁴⁵⁾ 빼

45) '주시'는 찌꺼기를 이르는 말이다.

는 디라. 요기로 흙땀 야프고 여긴 좀 높이 구멍을 뚫어. 게은 여기 비스듬하게 만들아야 돼. 이레 내려가게꾸리. 요기는 주시 빼는 데.

여긴 켜물 일로 나오는 디. 요기는 마물이라고 허주게. 그때 당시는 뭐가 었으난 큰 솟 잇어. 그디다가 흑을 ㄱ스락 놓고 막 다진 거라. 너무 흑만 구멍 막으면은 구멍이 안 뚫어져. (흑은) ㄱ스락 많이 놓고 반죽을 해야 돼.

(아래 독) 바닥은 그냥 굴르믄 돼고. 독 앓지는 데는 좀 노프곡 여긴 사름이 들어갓다 나왔다 헤지게 좀 파 여긴. 앞이만 파믄 돼. (오시를 대는) 요딜 요렇게 파주. 팡 여기 동글렁. 여기 허믄 받아지게꾸리. 그냥 땅을 파믄 돼는 거. (땅바닥에 알독) 낱은에 여길 파는 거지. 게민 이쪽으론 또 올려 노민 두 번째 독에 구멍이 었엉 바람 들어가게 만들곡.

무드리 코지 내왕 팍 찢르믄 구멍이 터져

여기 보믄 무드리라고 해 갓고 나무 이만치 질게 헤영은에 흑을 거기다가 블라. 중앙에 만들양은에, 발랑은에 이디 막을 준비헸다가 그만하민 뒤에 놀르민 이 구멍이 막아져. 이것이 ㄱ스락을 하영안 노면은 구멍이 막음 잘 안 뚫버져. 또 뚫루곡 계속 거기를 뚫러야 돼.

(뚫르는 건) 무드리 나무 길게 만들양은에 코지 내왕은에 팍 찢르믄 터져 이게. 이 막는 코지는 틀리곡 뚫브는 것도 틀려. (무드리가)



‘무드리’로 구멍 뚫기

이런 건 여라 개주. 다 나무. 나무 까꾼 거이. (이커는) 소나무 깎는 건디 파작한 놈 헤당은에.

독은 셋독이 제일 중요허주

(셋독은) 구멍에다가 여기 파이프를 잇어 주주게. 잇어 주민 여기 다 백돌로 막아. 백돌로 막으면은 이제 가끔 잇다가 백돌 빼뒤근에 보니까 새카망헤시믄 나무로 밀려 줘. 막히지 않게, 재 ㄱ튼 것들. 경행 또 더퍼 버리곡. 이거 끼우난 요기 트게 만들어 주주게.

췌 받아져 거기가 췌 ㄱ튼 거, 솟 ㄱ튼 거 낱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도 허영 도라무통 하나 놔근에 올라가근에 췌를 비와 주곡.

또 잘 안 내려가 가면은 나무로 쭈서 주곡. 똑은 셋둑이 제일 중요 허주.

내일 허젠 허믄 독대장이 독을 다 보수해야 돼

(독은) 또 쓰지. 살짝 눅저 갖고. 그난 긴 나무덜을 행 놔두는 거지. 여기서 멀리 허는 거를. 둘이가 서너이가 모아정 밀리긴 밀려. 어떤 땐 돌 ㄴ튼 거만이라도 툭허게 깨지게꾸리. 두 개 분리돼게꾸리. 막 오래 헤가면 이것이 부터 불어. 알둑허고 셋둑허고 문. 경허믄 돌 큰 거 하나 갖다 넣은에 그레 툭 허게 굴리면은 탁 헤싸지주게. 엄청나게 덤지, 그거는. 그 나무 긴 거 갖다가 허는 거니까. 이것도 오늘 했으니까 내일 허젠 허믄 독대장이 이거를 또 다 보수해야 돼. 아침에 강은에 보민이 주시도 막 부터 잇고 허니까 걸 전부 끌로 다듬아근에. 뭐 현 디는 백돌 ㄴ루라고 잇어. 걸로 발라도 주고. 백돌가루가 푸대로 팔아. (백돌을) 뿌성도 허긴 허는디. 파는 것도 잇고 허니까 없을 때는 흐썰썩 뿌성도 허는디. 없을 때는 엇날에 질먹도 솟을 뿌서서 헛덴 허주게.

(똑 세 개를 부쳐 노면) 그 우에 놀 적에 흑을 놔. 동글락허게 놔믄 그기다가 딱 노는 거지. 쟁 발라 버리는 거지. 돌아가면서 뽕 발라. 또 내일 헐 건디 아침에 가서 보수를 해야 돼. 아침부터 불미허는 건 아니니까. 오후쭈 부쳐 허는 거니까 계속.

솟불미는 어린 때 한 번 봄뿐이고

솟은 우리가 안허나고. 요번에 어디 간 쪼금 헛는디, 저 공원에 간에. 그거 헐 적에는 것도 가다가 잇주게. 가다 허는 건 우리가 헤난 가다에다가 씨왕, 또 가다를 많이 만들어 내야 돼. 이것도 아까 식으로 보섭이나 똑같지. 그건 돌레 돌리는 거 잇주게. 돌레 돌령은에 맨짝허게 흑에 노면서 돌령은에 두 개 부치곡 행 허는디. 이번에 재작년 가을이, 재작년 더 뽕 거 닳다. 그때에 난 멧 번을 허긴 헛는데 건 독 때문. 나가 좀 안 뽕다고 봐지는디, 췌도 안 돼고. 우리는 췌가 너무 뚜꺼워도 안 돼주게. 이번 현 건 보니까 다 췌도 주물공장에서 가져온 게 니귀반득헌 거를 녹히는 것도 힘들고.

(솟불미는) 누게 허는 거는 어린 때 한 번 봄뿐이고, 그다음부터 조함원에서가 많이 헛주게. 재현 행사허면서. 만드는 건 똑 ㄴ타.

보섭은 안 구워도 돼는디, 솟은 밤새낭 구워야 돼

(보섭과 솟은 땡이, 바슴) 그것만 틀리는 거지. 근데 그 대신에 불을 더 때야 된다는 거. 보섭 땡이는 안 구워도 돼는디. (솟 바슴은) 두 개를 부치곡 밤새낭 구워야 돼. 그건 한 네 시간, 다섯 시간 구워야 돼. 소나무 장작 ㄴ튼 거 요즘은 소나무는 못 허니까 숙대나무로 허는디, 거기는 나무가 많이 들어가야 돼. 멧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 나무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일 헐 거면 오늘 밤에 혼 아홉 시부터 한, 두 시까지는 해야 돼.



‘화덕’에서 구워지는 ‘숯 바슴’

또 가다가 한 두 달, 석 달 전이부터 만들앙 막 말려야 돼어. (숯 바슴은) 혼 짝만 쓰는 거. 혼 짝은 깨는 거. 거기다가 또 만들아야 돼. 그 짝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주게. 꼭 그 짝이 그 짝에 맞아야 돼. 어렵지게, 것도.

알 까끄는 거는 챗번 보면서 까끄는 거지

(알 깎는 건 돛배 칼이) 아니지. 나가 그걸 만들앗다가 많이 다 줘 불 잇는디. 요번에 멧 년 전이 (재현 행사 준비) 그때 만들앗는데 알븐 쉼을 코지나게 만들안에 쪼금 오그려 칼을 만들앗어. 그런 걸로 까근에 허곡. 까끄는 것도 뒤흘쪽으로는 사람이 지퍼사 서서 노면 요디는

안 까깁 잇어야 돼. 노면은 요디가 들러져야 돼니까. 이렇게 들러져야 쉼물이 들어가지. 우이도 마찬가지로. 우이도 헐 때는 흑 쉼영은에 가운데 톱 허게 백돌 놔야 돼. 양옆으로 들러지게끔.

(근데 배포롱처럼 붙이는 거는) 두께도 보고 알로는 물 들어가렌 바타 주곡. 까끄는 거는 챗 번 잇일 때에 그걸 보면서 까끄는 거지. 톱 잡앙은에 속, 속, 속 까까 노면 요디가 안 까까진 거 아니이. 지퍼 버리니까. 그 두께를 봐야 돼.

(불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대장이 제일 잘 헤야지. 손기술도 좋아야 되고.

디딤불미 옛날 건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그전에는 아마 디딤발을 바람을 허긴 현 모양이라. (디딤불미) 그런 식으로도. 옛날 건 모르지 우리가. (기계 쓸 때부터) 그때부터, 우린 그때부터 봤주. 이제 사람덜은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재현 행사) 거는 아니라. 그건 거짓이고.

흑 파났던 바티 덕수 차부 우녜 쪽

(아부지 밭이) 덕수 차부라 바로. 차부 우녜 쪽인디, 우리 아부지 이름이 두 개 잇었어. ○택이 행 ○택이통 헤났어. 경 옛날 사람덜 막 불러났어. 호적 이름은 ○철인디. 계난 이름이 두 개잇던 모양이라, 그때 당시에. 그것 판 것도 우리는 모르지. 겐디 거기가 엄청 깊었

어. 물은 떠당 먹어놔는다. 이제 신호등 잇는 쪽에.

재현 행사도 옛날식 그대로 해야 될 거

(지금 재현 행사는) 신식으로 허는 따문 잘 안 돼는 거 다향. 어디 육지 제라게 솟 만드는 데들 견학덜 갖다 와난에 그 사람덜신디 강판 완에 그런 식으로 몬 허긴 헛 거 가튼디. 난 그런 걸로 헤서는 안 된다. 재현 행사도 옛날식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 것이 재현이지. 신 가다로 몬 만들면 뭐 그제.



〈덕수리 민속 보존회〉 회원들의 '불미공예' 재현

(지금은) 부락에서 허는 일이난 난 이제 관련 아니난 모르고. 처음 헛 때는 헛지. 그때는 나도 여기서 독대장도 헛주게. 여기서 헛 때는. 운동장에서는 간 안 헤곡. 여기 원래 집 앞이서 헛주게. 이제 사람덜 더 잘 알아. 더 잘 아는 사람덜 잇어 부난 안 헛어. 아는 사람덜이 해야주. 모른 사람덜이 허든 돼? 이제 신세대로 잘 알아 부난 게. 몬딱 콤퓨터로.

(재현 행사를 마지막으로 참여한 게) 한 팔십이 년도 정도 다향, 나 생각에. 그때 허다가 경운기 나와 버리니까 칠십 년도부터 경운기가 나왔주게. 게난에 우리 세 번째 아버지가 안 허켄 허니까. 우리 저 오춘이 있어. 오춘이 게몬 이녁 강 한 번 헤 보켄 허명 그디 강 삼년을 헛어. 칠십, 팔십이 년도 삼 년도 이 사이일 거라. 그때 헛시난 김○수 기자가 완에 멧 번 왔었어, 거기. 이번 올 때랑은 그디서 일 허는 사람덜이 제지낼 거 상 오랜 허난 상 왓더라고 거기. 아침에 다 제지내주게.

독 앞이 가 갖고 거기서 제지내

새벽에 허젠 허든 새벽에 그 제를 지내주게. 보섭 불 다 부쳐 낵. (알 다 구워난) 그다음에. 그날 밤에 그 아침 돼면 강 제지내. 밥허곡 그런 고기, 생선. 위에 술 ㄱ튼 거. 과일 쪼금 놓곡 허는. 그런데 그 때는 과일도 많이 없었으니까 밀감이나 하나 올리곡 헛겟지 뭐. (돼지머리) 그런 거는 안 올려 봤어. 그축 행은에 독 앞이 가 갖고 거기



〈덕수리 마을회〉가 준비한 제물(祭物)

서 제지내. (문전상 허듯이) 그렇지. (절도 하고) 그거지. 그때는 이름이 없고 그냥. 이제야 지은 거지, 여기서.

일당으로 지프는 사람덜은 두 개 정도, 대장덜이 세 개 그저가

(옛날 보섭 팔 때) 구루마로 많이 갖어. 흔 멧 사람이든 이녁 만들고 행 팔레 많이 나가곡 허는디. 또 어무니가 헐 때는 어디 한림쪽에 사람이 왕 많이 가져갔더라고. 가격은 모르큰게. 잘 허면은 대장덜이 (보섭) 한 세 개, 아니든 네 개 그저가실 거라. 하루에 한 세 개. 게든 그 부모덜이 팔레 가곡 허는 거주. 여자덜. 알 지프는 사람이나 텅이 지프는 사람덜은 두 개 정도나 하나 정도베끼 안 줬어. (대장

이) 세 개. (그 사람넌) 이름 엇어. 옆이 다 사니까 기냥 뭐 현 사람만 그때도 빌어. 그때 당시엔 사람덜이 참 힘도 좋은 사람덜이랴어. 다 이만척 행 등치가 좋고 일도 잘허는 사람덜이랴주게. 게난 그 사람덜 모양 오면 누게 허든 딱 거기에 나왕 허곡. 사계 갈 때는 나가 다 데령 가고 헛지마는.

좋은 점은 나야 방앗간 일허는 사람이난 그디 일허멍 허곡. 한 달에 얼마, 보리로 한 섬씩 받지. (보섭) 그거는 안 받지. 우린 거기 고정 인부니까. 거기 방앗간 인부니까. 그거나 그거나 거기 일만 허면 뉘는 거 아니라? (더 힘들고 위험해도) 그건 뭐 마찬가지지. (보리 한 섬은) 공장 일헌 값이주. 일허멍 같이 강 난 했으니까. 대장덜은 (보섭 스무 개) 다 줘야 돼지.

덕수 삼촌이 사계로 내려간 불미대장 헛어

(사계에서 헐 때는) 나 독대장 헛지, 그때도. (삼촌이) 덕수서 살아났는데, 사계로 내려간 방에공장을 헛었어. 원래는 우리가 사계에서 올라왔주게. 옛날에 하르부지 때는 사계에서 이리 올라온 거 그타. 게난 나도 그거는 확실하게 몰라. 우리가 한 오 대 뉘난게. 나 들은 거는. 사계가 우리 켜당이 많으니까. (사계 불미대장) 그분이 우리 덕수 살았주게. 이디 살단 또 사계 내려간 거라. 거기서 방에공장 헛는디, 옴로 내려가면은 군도로라고 있어. 마지막에 그 우에 밧 하나 빌어 갖고 거기서 헛어. 덕수 사람 여기 살단 내려갔지. 지금 어

디 박물관에 뭐가 있을 거라. 마지막에 헐 때라, 재현이여 뭐여 허는 걸 했으니까. 나영은 오손이주게.

떡수 보섭은 췌가 아주 강허니까 풀 잘 찢라지지

딴 디 보섭은 만드아 나온 거 보면은 이디 영 허면은 이 바우가 멘짝헤 버리고. (떡수) 보섭은 췌가 아주 강허니까 우리 보섭이 툭툭 툭툭 두드리민 이게 톱니가 댜. 그러니까 가면서 풀 잘 찢라지지. 그게 딴 췌는 정철 식으로 나왔더라고 보니까. (정철은) 더 강허지. 그거는 가다로 딱딱 행 나온 거니까. 읍이가 멘짝헤 붙어. (떡수 보섭) 그 전이는 그게 안 나와났지, 중간에서야 나와실 거라. 육지서는 솟 이건 보섭이건 여기서 헤 갖고 제주도 일대를 다 맥여실 건디.

췌물 들르는 사람덜이 더운 거 들렁가젠 허믄 췌 힘들지

작업이 힘든 거는 엇주마는 췌물 들르는 사람덜이 췌 힘들지. 더운 거 들렁 가젠 허믄. (오시는) 흑으로 만든 거. (뎡이 만드는 흙) ㄱ튼 거. 그릇도 이렇게 쪽 물 내려가게 헤 가지고.

(오시 드는) 거는 췌로 영 기댁은에 여기다가 저 독에 노 꼬왕은에 허곡. 그다음 여기 전부 노 꼬아야 댜. 노를 감앙. 요런 식으로 댜 거라. 게믄 여긴 전부 노로 감앙 흑 막 맥여. 흑을 맥여 이렇게 찢 찢. 흑 맥영은에 안에 노민 들리지게꾸리. 요디만 췌. 당시 가멩이 노. (나룩짚 노) 걸로만 감앙. 뎡이 멘든 흑 여기 좀 오무룩허주게. 게



〈떡수리 민속 재현 행사〉 중 ‘보섭’에 ‘췌물’ 붓기 시연

믄 여기다가 멩석을 찢라서 놔. 여기도 찢랑 농곡 여기도 찢랑 농 들리지게꾸리, 뜨겁지 안허게. 여기도 열 받으니까. (손 잡는 디) 거 기만 쪼금 트는 거지, 더꺼지게. 일로 더꺼지게 끼우면 일로 영 더 꺼저.

방앗간 기계로 불미헐 때는 가마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방앗간에) 돌기가 엄청 크주게. 까끄는 거 우이 비차가 있어. 그거 끼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위험헤, 그거는. 것도 불미허는 그때 그걸 끼와야 댜거든. 그난 완전히 기계 꺼 두고 사람 행은에 좀 이거 돌려 달렷 행 그걸 끼와냥 기계를 살려

야 돼. 불미할 때는 그냥 풀무에 가마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지. (그
른)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지. 뜯 거 까끄는 건 다 벨트, 그 가와가
벧겨 두고. 뽕 옆에 놔두고 그것만 돌리는 거지. (디딤불미, 손불미 이
후에는) 엔진 기계 있는 거. 우리 마지막까지 할 때는 경운기가 나왔
으니까 경운기로 가정 가서 했어. 경운기 충분해. 그디 사계 강 할
적에 나 경운기 가정 갔어.

불미마당은 봄에 허는 게 좋지

가을 나면 또 하고. 추수하기 전이. 이제쯤 될 거라. 하여튼 막 덩
지는 안해. 그때도 해 보면. (추석) 그 정도 될 거라. 그때는 고구마
를 많이 했고, 유채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늦어 그거는. 출 ㄱ튼
것도 허주마는 남자덜은 강 별로 허질 안허난게.

(가을보단) 봄에 허는 게 좋긴 좋지, 더. 초봄에 허니까 덩질 안했
지. 온도가 어느 정도 맞고.

(불미마당) 정리할 때는 집주인이 사람을 빌영 정리를 해야 돼, 그
오야지가. 해나면은 댕이 ㄱ튼 거를 전부 집 안터레 갖다놔야 돼니
까. 막 우터레 쌓이니까 그렇게 만허지 안해. 독은 베깃데 놔뒀도
돼고. 또 다듬아서 또 쓰기만 허든 돼는 거니까.

불 튀민 약도 엮고

(불미마당에서) 불 튀민 다치지. 우린 안 튀영 다친 덴 엮인다. (치료

방법) 그런 거는 엮지 뭐. 허당 다치든 자기만 손해지 뭐. 거긴 약도
엮고, 뭐 그때는 뭐. 흑으로라도 문대는베끼 뭐.

갈중이 새것들은 불 맞아도 튀어

갈중이 입지. 그때 제라한 갈중이. 그때가 제라한 갈중이덜이주
게. 감으로 완전 들인 것들이고, 이제 허는 거사 커피 냥 만드는 거
고. 땀 나도 이 몸에 안 부르고, 또 불 해도 잘 튀어 버리고. 저 새것
들은 불 맞아도 튀어. 막 물론 거는 부터도 새거 입은 건 딱 맞이민
떨어져. 그땐 장갑도 엮지. 흑 가튼 거 문대기. (형쥬 감겨나) 그런
건 안 허고 흑을 문대겨. 신발에는 멍석 이만이 올라오게꾸리 짤라
갖고 부청 무겨. (고무신 신영은에 그 우트레) 무경은에. 튀어도 안 다치
지. 그거 흑 흑끔 발라근에. (모자 ㄱ튼 거는) 페랭이만.



'갈중이'를 입고 '불미공예'를 준비하는 <덕수리 민속 보존회> 송이철 팀장

다 시경 김녕도 강 헛덴 말도 들어져

(이동 불미) 하르부지 때는 헛지. 김녕도 강 헛덴 말도 들어져, 우리가. 여기서 행 몬 가정 간에. 보섭 멘들러 가낫덴 말 들었어. 그디서 팔고 그렇게 허지. (혹 등) 다 시경 가야지. (이익이) 남으난 갓갓지 뭐. 그디 강 메칠 밤 자면서 헛갓지. 그런 말 들어질 거라. (웁기는 과정에서) 깨지지는 안허지. 구루마에다 툅툅 시경. (김녕 갔다는) 그런 말은 들어졌던 거 닐아.

이제 보단야 불미 시절이 더 좋지

(불미하덴) 그때 시절이 더 좋지, 이제 보단야. 이제는 모든 게 너무 발달돼 노니까. 편안해도 안허다 우린.

우린 그때 당시엔 보리 갈아 불면은 심어 버리면은 오 월달⁴⁶진 아무것도 헛 일이 없잖아. 약도 안 헛거든, 그때는. 또 오 월달 낭 비어근에 타작은 메타기만 허민 돼는 건디. 이제는 이거 매일 밧디 가야 돼는디? 하우스는 안 해도 밧디 풀도 가근에 허곡, 덤불도 비곡. 약 허는 것도 힘들어. 우린 약 허면서 모욕을 허잖아, 겐로. (옛날엔) 약 안 행 허는디 뭐.

덕수도 독닥불미엔 대장간 잇어났어

(덕수도) 대장간 잇어났어.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여기 누게 윤호경이라고 가이 조금 헛났어. 우리 갑장도. 여기 요쪽에 살아. 보

섭, 골쟁이 ㄱ튼 건 잘 만들 거라. (윤 대장) 경은 안 불러. 여기는 호미치고 골쟁이, 켜이 ㄱ튼 거 그런 거 만들앗엇어. 쉼스랑은 못만들어실 거라. (대장간을 옛날엔) 불미황이엔 허는 건 아니고 독닥불미엔 헤나신가? 독닥불미엔 헤나실 거라게. (윤호경 대장간에는 화덕) 그런 거 잇어. (모루 두드리고) 헤났어. 겐디 지금은 다 치와 불영 없을 거라.

우리는 그기 안 가지. 우리는 상 오지 강. 베리레 가기야 가는다. 그딘 이녁냥으로 만들앙 허긴 헛더라. 그 전에 나가 영 헤 보면은 고구스⁴⁶)를 좀 달렌 헛 때가 있었어. 숯이 고구스엔 허주게. ㄱ저 가는 거 보니까 그런 거를 헴구나 행 나가 생각헛. 놀렌 안 가 봤어. 안 베령 (집에서) 갈앙도 쓰곡. 강 사당도 쓰곡 허는 거지. 우리 방앗간 헛 때도 모슬포 사름이 완에 나대도 만들고 헤났어. (덕수 와서) 우리 방앗간 인부로 와 갖고. 나하고 둘이가 인부를 헤났어. 대장간 헤난 사람. 돌아가션. 게난 요디 잇엇던 하르부지 돌아가셨주마는 그분은 그런 거 많이 만들앗엇고. 아까 골은 그 친구⁴⁷) 아버지도 그걸 만들어났을 거라.

46) '고구스'는 '코크스'를 일컫는 말인 것 같다. '코크스'는 석탄을 가공해 만드는 연료를 말한다.

47) 안덕면 덕수리의 제보자 윤호경 씨를 말한다.

불미허는 거 눈은 익곡 손은 설곡

안덕면 덕수리 김동권



김동권 씨(1938년생)는 덕수리 향장으로 덕수리의 전통과 예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을 일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는 마을의 어른이다.

직접 불미를 했던 대장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보았던 불미마당의 기억과 재현 행사를 준비했던 경험 등 덕수리 불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다. 86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하신 데다가 운동, 동문회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분이려 약속 날짜를 잡기 힘들었다. 그러다 덕수리 불미 재현 행사를 한 달 앞둔 2023년 9월 8일에 덕수리 마을회관에서 어렵게 김동권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김동권 씨가 어렸을 때 불미마당에서 '뽕이'를 주워 와 자신만의 '동솥'을 만들었다고 한다. 덕수 사람들은 술이나 보섭을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불미마당에서 흘린 싯조각인 '뽕이'를 주워 모았다가 불미마당이 열리면 필요한 솥이나 보섭을 만들어 달라 했다고 한다. 또한 솔 거꾸집인 '솥 바슴'을 구울 때는 솔잎을 많이 사용했는데 마을에서 솔잎을 많이 쌓는 것을 보면 불미마당을 준비하는 때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작은아버지 부탁으로 '솥 바슴'을 굽는 하나의 어귀를 맡아서 밤새 불을 지켰던 경험도 말씀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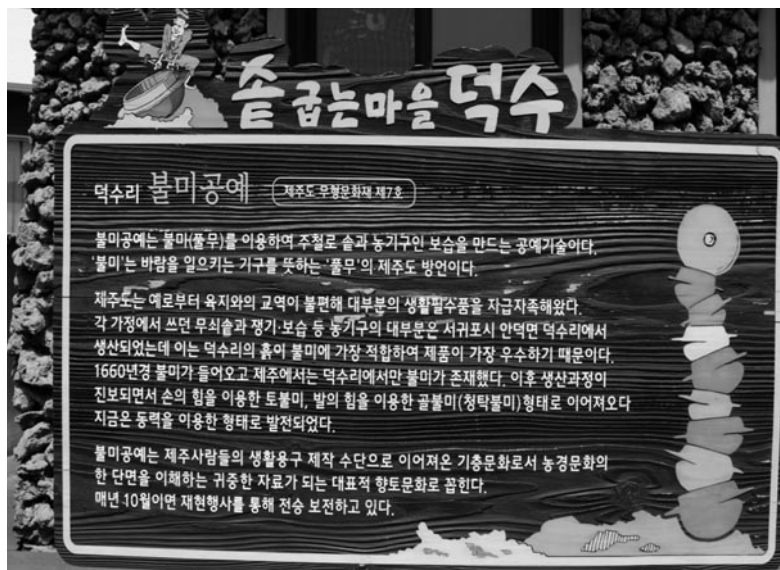
1980년대 덕수리 불미공예가 탐라문화제에 출전할 때나 문화재로 지정될 때에는 김동권 씨가 직접 공연에 참가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기획에도 참여하셨다고 한다.

덕수리 불미공예는 전승의 중심체인 기능 보유자를 지정할 수 없게 되자 2023년 덕수리 마을회를 기능 보유 단체로 인정받았다. 김동권 씨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이 '눈은 익곡, 손은 설곡' 하여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다고 걱정하셨다. 눈으로 본 것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당신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에 서투르다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없음이 아쉽다는 것이다.

인터뷰 후 김동권 씨를 다시 만난 건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장에서다. 방앗돌 굴리는 소리 시연 행사에서 하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나타난 김 씨는, 불미 재현 장소에 와서도 걱정 어린 눈빛으로 불미 재현 모습을 바라보며 덕수리 민속과 전통의 현장을 지키고 계셨다.

불미를 덕수에 시작한 게 한 삼백오십 년 쯤

불미를 맨 처음 덕수에 시작하게 된 것은. 으, 지금부터 한 삼백오십 년 쯤, 임진왜란 때 송희립 장군이라고 있어, 이순신 장군을 옆에서 보좌하던 송희립 장군이 잇었는데, 송희립 장군 후손인



‘덕수리 불미공예’에 관한 안내판

데 바로 직 후손. 아마 송, 송희립 장군이 그, 거북선 만들면서 그 주물 기술을 아마 가족에게 전수헌 거 같애. 게서 그 후대에 세 자, 만 자라는 분이 여기에 와 가지고 제주 와서 그, 그분이 오면서 진도 와서, 진도 와도 땅이 적당한 데가 없고. 게서 제주도에 와 가지고 맨 처음 저, 낙천. 그 청수엔 헌 디 거기 와 가지고 하니까 불이, 흑이 톱 텔 거 가트거든. 그래서 딱 췌를 녹여서 불, 불어 보니까 흑이 타 불어. 안 돼. 게서 이젠 차, 다음 본 것이 그니까 거기선 딱 한번 해서 실패해서 바로 와 불고. 게서 덕수 와 가지고 딱 헤영 허니까 흑이 안 타거든. 천 도 이상 돼는 췌물이 들어 가지고 흑이 안 타야 돼어. 이게 안 타, 안 타고 그게 고정 돼고 가만히 있어야 돼. 게서, 그게 게 덕수에 와서 딱 허니까 딱 맞거든. 그래서 이제 덕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삼방덜은 새당이엔 안 행 신당 덕수렌 헤어

제주도에선 솟이나 보섭을 덕수배긴 안 헤거든. 켜디 덕수가 옛날에는 그 고려시대 산방촌인가 그때부터 산방촌에서 속헷다가 이제 이조시대 와선 덕수, 서광, 동광을 하나로 붙여 가지고 자단리, 자단리라고 헷주. 자단리라고 허다가 이젠 중간에 덕수로 개명해 가지고. 서광은 서광, 광평 뒀 건곤동 이렇게 바파지듯이 바파져 가지고 덕수리 그다음엔 새당이엔 헷다가 얼마 건, 한 십 년인가 이십 년도 안 갓어. 켜 그다음 덕수로 개명헷주. 게서 새당이 신

당이주, 신당. 신당이 새 신 제. 저, 집 당 제 해 가지고 새 신, 신당 이라는데 신당 덕수, 그게 새당이엔 말이주. 심방덜은 신당 덕수렌 해. 새당이엔 아니 곱아. 심방 말미 본풀이 허잖아게. 심방 본풀이 헐 땀 새당이엔 안 허여. 신당 덕수렌 해여. 경허곡 한문으로 표시 헐 땀 꼭 신당이엔 쓰곡.

성냥곽추룩 생긴 거 널판을 밀리면 바람이 들어가곡

불미를 어떤 형태로 헛냐든 옛날에는 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완전히 사람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헛거든. 게서 토불미라고 해 가지고 이제 성냥곽추룩 생긴 건데. 양쪽으로 칸을 갈라 가지고 그 널판을 밀리면은 바람이 들어가게 뒤편 한쪽은 열리고 한 쪽은 막아지고 허면서 교대로 허면서 이렇게 허거든. 그래서 우리 저 천구백칠십육 년도에 그 탐라문화제 때 그걸 작품을 해 가지고 서 탐라문화제에 가서 우수상, 최우수상 받아 가지고.

대정골 기생을 불러와서 발판불미 가운데서 춤추게 하고

그다음에 해방, 사십오 년에 해방이니까 한 사십이 년도에 좀 일, 이 년도에 부산을 가 보니까 부산에선, 사람이 육 명이 발판을 불러 가서 허거든. 이게 토불미보단 혼 거의 십 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발판불미로 해 가지고 그 발판이 짝 들어오니까 그 때부터 많은 양이 생산됐지. 물론 기계 생산보단 안 따르지마는. 게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 중 '디딤불미' 시연

서 이게 발판불미로 해 가지고 그게 워낙 힘드니까 대정골⁴⁸⁾ 가면 기생이 항상 잇었거든. 그 기생을 불러와 하루 일당 줘 가지고 불러와서 가운데 와서 춤추게 하고, 그른 힘든 사람에게 가서 손도 잡아 주면서, 오늘 밤 나하고 연애하자고 하면서 그리허든. 힘을 다 줘서. 그 우리 할아버지 직접 그걸 허니까 그걸 곤는다. 그렇게 해서 힘 모자란 사람 힘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해서 헛다고 해서 발 불미 하다가.

48) '대정골'은 대정현성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의 대정읍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일대를 말한다.

아, 저 그게 사십삼 년이 아니고 아니구나. 한 삼십 년대 초, 이십 년도 말 그때 해 가지고 밭불미 허다가 그다음 해방 직전이니까 한 사십 년대 초에는 기계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젠 그 기계가 맨 처음에 뭐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 기계를 가져가서 그때는 기계로 풍기를 돌려 가지고 그 바람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턴 보섭이고 솟이고, 뭐 보섭 멧 백 개씩 뭐 솟은 뭐 멧 십 개씩 만들었거든.

혼자허민 독불미, 합쳐서 허는 건 젓불미

지금 내가 알거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불마당⁴⁹⁾이 세 개 있어, 세 개. 겐디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있어. 여러 개 있는데, 그땐 불미를 어떤 식으로 헛냐면은 서이나 너이 해서 합, 저 주식회사 식으로 합작해 가지고 자본 같이 출연해 가지고서 허는 식이 있었는데, 웬만허민 거의 팔구십 프로는 한 사람이 출, 저, 자본 대고, 그래서 혼자 독불미⁵⁰⁾ 허여. 그걸 독불미. 그 다 합쳐서 허는 거 젓불미⁵¹⁾ 그렇게 허거든. 제⁵²⁾, 젓불미, 계, 계 이젠, 계가 제주도 말로

49) '불마당'은 술이나 보습을 만드는 '불미마당'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50) '독불미'는 술이나 보습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한 명이 내놓아서 하는 것을 말한다.

51) '젓불미'는 술이나 보습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여러 명이 내놓아서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 제, 젓불미.

젓불미는 한 십 프로 베긴 안 돼고, 열 번이든 혼 번 정도 젓불미 허고. 건 돈 엇은 사람덜 기술은 잇지, 돈은 없으니까 이젠 모여 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코크스⁵³⁾ 허고 췌 들르는 게 어려웠거든. 게서 그걸 사 오게 돼민 부산 강 사 오꼭 다 이렇게 헛거든. 옛날 풍선으로 다니면서.

불미터가 학교 뒤에 두 밭다가 잇고

거난 이제 불미를 허면 불미터가 이제 학교 뒤에 두 밭다가 잇고. 또 동부락이 저, 강○건이 부인이 사는 디 거기가 불미마당 잇고. 그 불미를 이제 옛날에는 일 년 내내 불미를 만들어. 그 솟을, 그 바습을. 그 바습이 한 번 만들면 그게 췌물 들어갈 때까지 한 이 개월 이상 걸려. 웨 그리 걸리냐면 그때는 뭐 다 만들어 가지고 비 오민 이영, 느람지 해 가지고 더뻗다가 또 날 좋으민 풀고. 그래서 그걸 물리우는다, 물리우면서 그, 찬, 흑을 이길 때 저 지푸라기를 많이 넣어 가지고서 벌어지지 못하게 허긴 허거든. 겐디 계도 금

52) '제'는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인 '계'의 제주어다.

53) '코크스'는 석탄을 가공해서 만든 연료로서 불미마당에서 쇠를 녹일 때 사용한다.

이, 금 나. 게민 그걸 또 메꾸곡, 그걸 메꾸곡. 그, 금이 완전히 말라서 없을 때까지 해야 돼.

지금은 불미마당 흔적이 엇주게

불미마당. 불마당도 해. 불마당이엔 헌디, 불마당은 건, 재기 곤젠 곤는 소리고 불미마당, 불미마당. 불미마당은 고정돼 가지고 항상 거기만 헛어. 세 군데가 이제, 저 학교 뒤에 두 밧디 있어. 지금 흔적도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 집도 지영, 집도 다 지어 불곡. 저 동부락도 집 지영, 흔 군데 잇었는데 집 지어 불곡. 그 웨에도 요기, 요기도 불미마당이고 저기도 불미마당이고, 옛날 우리가 모를 때 불미마당 있어. 불미마당 잇는데, 그 지금은 터가 엇주게. 흔적이, 흔적이 없어.

독은 이제 불미혜나쁜 해삿당 벽돌 쌍 허곡

불미마당은 딱 불미만 허게 웨민, 그디 독, 독에서, 용광로이, 용광로. 췌 녹인 그것이 딱 장치 돼 있어. 갱 밀창은 저 그대로 뒹다가 그냥 항상 그 창, 밀창 놓는 디는 항상 그대로 가만 잇주게. 게형 그다 허물어근에 딱 이렇게 무끄민 이, 이걸 항상 밀창 두 개 이걸 보통 두 개나 세 겹 낚는디, 밀창 놓는 디는 항상 만드는 딱 다듬어 있어. (눌굽추록) 그추록 딱 다 있어. 갱 독은 이제 불미혜나쁜 해싸가지고 거 다 털어서 청록⁵⁴)이영 다 떼고 헛당 또 새로 저, 벽돌 쌍 허

곡 허는디. 그 기초는 다 가만히 잇주게. 가만히 잇영 만날 그 우에 계속 놓지. (불미마당을 하려고 하면) 조건 엇어. 조건 엇는디 야튼 좀, 좀 시원해야주, 조금. 어디 막아지지 안헤고 조금, 조금 시원해야 돼곡. 공간이 있어야 돼곡. 충분히 솟 짝 놓으면서 허곡.

뽕롱이 튀민 쪽 발로 땡겨다가 모이는 거라

뽕롱이⁵⁵), 뽕롱이엔 헌 거는, 뽕을 의미허냐면 뽕롱이엔 헌 건 그 실탄을 제주 사투리로 뽕롱이엔 허여. 실탄. 총 쏘는 저. 겐디 그 췌물이 픽허게 튀민 총알 나가는 듯이 픽 픽 튀주게. 게난 뽕롱이, 뽕롱이엔 허는디. 뽕롱이를 주워서 모이면은 그게 췌니까 흑과 틀리잖아이. 게 췌 모이니까 그게 동그랑헌 것도 잇곡 납작헌 것도 잇곡 여러 가지 형태로 웨는디 그걸 다 주워. 게난 그 불마당에 아무라도 강은에 주울 수가 없어. 다칠 수 잇곡, 위험허니까 못 허게 해. 겐디 게도 어떻 행 눈치 보멍 행 그걸, 그걸 좇어다가 모였다가 저 부치기⁵⁶)를 허는 거주게. 그 (불미) 헛 때 이제 가서 뽕롱이 좇으라, 뽕롱이 좇으라. 그 뽕롱이 좇으라 헤영. 그 뽕롱이가 픽픽 튀거

54) '청록'은 췌물을 녹일 때 나오는 불순물을 말한다.

55) '뽕롱이'는 보통 총의 실탄을 말하는데 불미마당에서는 췌물이 흘러내려 굳은 췌조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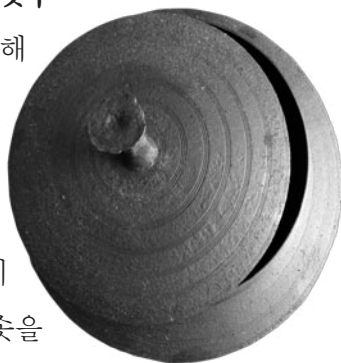
56) '부치기'는 '불미마당'이 열릴 때 개인적으로 췌덩이를 가지고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의 술이나 보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든 물. 그든 췌방울이 그제 콩알만씩 현, 뭐 대추알만씩 이렇게 튀어. 여기 가든 그걸 찢신이 그때는 다른 신이 없었으니까 찢신 낭, 저 게다, 나무로 만든 신 이런 거베긴 없으니까 이젠 찢신에 물 적성 하든 항상 발 축축허거든. 그든 튀민 빨간 거 튀민 식자마자 쪽 땡겨서 발로 땡겨다가. 땡기든지 밀리든지 그렇게 허면 그걸 모이는 거라.

웅조리 하나 부치기 허젠 헐에 맨들아낫주

우리가 그 한 여섯 설, 일곱 설 때는 해방 전이니까 이제 지금 동부락에 이제 불미마당이 있었는데, 그 불미마당에 서 우리가 직접 불미를 허는디, 그때 할 아버지가 그 불마당에 솥을 다섯 갓 부치길 헐어, 부치기. 부치기는 뭐냐면은 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인이 불에서 물을 주면은 그 물 준 값을 부담해 가지고 부치는 거라. 게서 잘 돼면 다행이고 안 돼면은 또, 오히려 손해보꼭 경해.

불미헐 때마다 가서 (뽕롱이를) 모이면 깡통 저 그땐 나무 그릇이 보통이니까 나무 그릇, 나무 그릇에 걸 모였다가 그 무게가 이제 솥 하나 정도 돼면은 그 정도 돼면은 이젠 주인한테 가서 “췌 이거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제작한 ‘솥’

부치기 허쿠다.” 허민 “무신거 허젠?” 허민 솥이 여러 가지 있어. 제일 작은 게 웅조리, 웅조리는 반찬 허는 거주게. 그다음 서도테기, 다도테기, 말치, 두말띠기 보통 이 다섯 가지라, 옛날 사이즈 별로이. 게난 그 웅조리엔 현 게 제일 작은 거주게. 제일 작은 요만인 현 거. 반찬 허는 거. 췌 웅조리 하나 난 부치기 헤 가지고 할아버지가 만들어 줘 가지고 헤서 헤 봤는데. 웅조리 하나 만들언에 나가 만든 건 아니고 난 뽕롱이 줏으니까. 이젠 그걸로 헐에 웅조리 하나 부치기 허젠 헐에 겐 하나 헤낫주게. 그제, 그제 한, 일곱 살 때. 해방 전이.

췌를 솥 하나 헐 양만큼 당허꼭 바슴은 자기대로 만들영

부치기라고 헤서 이제, 그 불미 주인이 불밑 다 출령 허거든. 불미 출령 허는디. 이제 솥을 하나, 두 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췌가 잇꼭, 췌 이서야, 다른 거 솥은 엇어도 돼. 솥은 저 주인이 다 허니까. 췌를 똑 당헤야 돼. 자기 췌를 가져다가 솥 하나 헐 양만큼 그걸 내 놓꼭 또 그 솥 바슴은, 바슴이엔 현 건 그 저 그 뭐, 거꾸집이지. 바슴은 자기대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 가지고, 자기대로 만들어 가지고 딱 그기 가서 췌 물만. 그 췌 물을 녹, 녹여서 현 그 수공만 지불 허면 돼는 거고. 게 안허민 또 일헤 줘야 일. 일을 혼 이틀이든 이틀 헤 주고, 게서 솥을 하나, 두 개 허꼭. 게 인력으로 헤 주든지 아니면 뭐 돈으로 허는디. 그때 거의 다 인력으로. 인력으로 메틀 일 헤 주꼭 “나 솥 두어 개 부쳐 줘서.” 허든 “경 허여.” 허꼭.

덕수 사름은 솥 사지 안헤여, 다 부치기로

(덕수 사름들은) 자기 솥 사지 안헤여. 우리도 장가가서 참, 오십팔 년에 장가갓지 만 솥을 다섯 개 딱 앓져. 겐디 아, 네 개 앓졌구나, 네 개. 두말띠긴 안 앓 지고, 말치, 말치만 앓져. 말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치, 서도테기, 다도 테기, 웅조리 해 가지고. 솥 네 개만 앓져, 완전히 췌솥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 완전히 췌솥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 살림했지. 그땐 또 살레라고 해서 살 레. 살레 알지? 살레 나무 이렇게 만 들어 가지고 아, 사이에 대나무로 이렇게 댜 거 있어. 게서, 그 우에 한 층게 댜 큰 그릇 놓고 다음 죽은 거 놓고 해서 췌 허엿는데, 그렇게 허곡 댜 우에는 문 달린, 문 달리게 했어. 게서 그디는 반찬 그릇 거 넣고 쥐 같은 거 못 들어가게. 그렇게 했주. 으, 그렇게 해서 불 보, 보리찜 때곡 댜 술입 때곡 허면서 밥해 먹곡 행 살안.

(우리 집 솥은) 다 부치기, 부치기로. 그때는 겨난 저, 과부덜 이런 사름덜은 못 허잖아이. 댜 못 허주게, 일 못 허니까 댜, 사고. 안 그 런 사름은 일만, 인력 잇는 사름은 다 부치기 했어. 왜냐면 불미에 서 일허면은 돈 안 들어도 댜니까 그 솥을 만들면 댜고. 솥도 만드 는 것도 잘 만드는 사름신디 강 그, “저 바슴 만들어 줘서.” 허민, 만



〈덕수리 민속 보존회〉에서 보관 중인 ‘솥’

들어 주거든게. 그 댜 인력을 갓든지 아무 댜 허다 못 행 보리 한 댜 를 주든지 해서. 게서 만들엉 그걸 다 허영 췌 당헛당. 게서 췌물이 들어갈 잘 들어가근이 솥이 잘 댜민 건 댜 거고.

제일 많이 만드는 건 다도테기, 서도테기, 말치 솥

다도테기 게난, 웅조린 혼 댜 들주게. 혼 댜. 다도테기는 두 댜 드 는 거. 서도테기 석 댜 드는 거. 그다음 말치는 혼 말 드는 거. 그다 음 두말띠기는 두 말 드는 거. 게곡 두말띠기 우에도 큰 건 잇어. 겐 디 그것은 큰 솥 해서 댜드는데, 큰 솥은 여기서 만들기 힘들었어. 제일 많이 만드는 건 다도테기, 서도테기, 말치. 말치, 그거 제일 많 이 만들었어. 꼭 쓰니까. 사름 많이 허민 말치에 밥을 해야 댜곡. 사 람 죽으민 서도테기에 해야 댜곡. 보통 둘, 두 가시나, 세 식구 사는 댜 다도테기 허곡. 게민 충분 먹주게. 경 허곡 게난 경 저 다도테기 에 밥 허게 댜민 말치에 국을, 저 서도테기에 국을 끌리곡. 게난 하 난 밥 하난 국 하난 반찬 그렇게.

솥이 댜 가당 잘못 댜 걸 간쟁이엔 허주게

만약에 솥이 안 댜서 안에 들어가서 췌, 췌물이 다 안 들어갈 수 가 있어. 다 안 들어갈 수 잇곡, 또 터져볼 수도 잇곡. 경행 터지는 것이 제일 댜 헌데, 터진 건 게도 다음에라도 댜 허지만 그 췌물이 안 들어가서 잘 댜다가 안 들어가서 허민 이건 방법이 없어. 이젠

부쉬야지, 벌러 붙어야지 뭐. 게서 지금도 불미허다 보민 가끔 췌물 안 들어간 게 많이 나와. 게민 그건 잘 안 돼민 간쟁이⁵⁷⁾엔도 허곡 간전이엔도 허곡. 그 솟이 돼 가당 안 췌 것이 그런 걸, 잘못 췌 걸 간쟁이엔 허주게, 간쟁이. 간전 췌저, 간쟁이 췌저.

양은그릇이 나오고 해 가니까 솟불민 사양길

그 후에 쪽허게 허다가 솟불미는 차츰 차츰 떨어졌어, 왜냐면은 육지서 양은그릇이 나오고 해 가니까 솟이, 불민 사양길 들어 가지고 많이 안 만들었어. 해방 직전⁷⁷진 많이 만들다가 해방 후엔 그 게 차츰차츰 덜 만들다가 이젠 한 사십칠 년, 팔 년, 사십칠 년도까지 만들었는가? 하튼 해방되는 해까지 만들고 그다음부터 거의 솟은 안 만들었어.

해방 직전 추력으로 솟, 보섭 운반허고

솟은 우리가 해방, 마지막 저, 사십팔 년도 사십구 년돈가, 사삼 사건 직전에 그때 크게 불미를 해 가지고 그땐 추력이 있었어, 추력. 추력이 지금 저 덕천에 가서 이디 덕수 분인데, 원래 덕수 분인

57) ‘간쟁이’는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췌물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거나 잘못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술을 말한다.

데 덕천에 가 가지고 자손이 저, 생겨 가지고 거기서 자손이 추력 해서 헛엇고, 사계 분이 하나 덕수, 덕수 분인데, 사계 가서 살았는데 그분도 추력을 해났고. 해방 직전에 그 추력들이 아주 솟을 만들민 또 운반허고 보섭도 운반허고 해났주.

경운기 트랙타 나오니까 보섭도 완전히 췌나 불었어

(솟이나 보섭) 못 쓰게 돼민 그거 다 새로 녹여서 보섭, 보섭 만들고. 경해서 하튼 우리가 천구백칠십 년, 칠십 년 중반 칠십 년대 이상 돼 가니까 췌이 나오냐면 경운기가 나왔거든. 이 경운기 나오니까 이젠 이 밭 가는 게 좀, 쪼끔씩 덜 했어. 스몓 게니까 보섭 소모가, 소모가 덜 뻬히거든. 그다음엔 칠십 년 후반 팔십년 초 돼니까 트랙타가 나오니까 트랙타가 동네 하나씩, 두 개씩 나오니까 이, 그때부터 보섭, 췌기 사용이 혼 밭 가는 디 오십 프로 이상 감소췌주게. 게니까 이젠 또 그만큼 저, 수요가 안 돼거든. 공급은 남는데 수요가 안 돼니까 이젠, 그다음 팔십 년 중반 후반 돼 가니까 완전히 췌나 불었어. 췌날 수밖에. 소모가 안 돼는데, 뭐 어뻬허여.

불미 안 태운 원대장은 비 오라근에 중간에 건장허곡

(솟바숨을) 완전히 만들어 노면은 그다음엔 날짜 언제 불미허다 허면 불미를 허는데. 불미힐 땐 날짜가 좋아야 돼. 비가 오면 안 돼. 겐디 그 불미 잘 티운 사람은 날 비 하영 완직허다 헤도, 비 아니 오

메. 갱 비 아니 오곡. 딱 좋암직헌디도 불미 안 태운 사름은 비 오라 근에 불미도 중간에 건장허곡. 비 오민 건장허주게. 건장이엔 현 건 중단헤야 돼. 중단헛당 다음 또 날 조민 허곡. 원대장게. 원대장이 곧 불미 주인이주 뭐. 원대장은 거 그자 우리가 멘드는 거 원대장이주, 원대장이엔 말 안 헛어. 불미 주인. 누게 오늘, 불미 주인 누 게라, 허민 누게가 불미 주인. 게튼 불미 주인이 사름 사서 바숨 만 들곡 돈 당허영.

불미 잘 태운 사름은 비왓직허당도 날씨가 좋아 불어

요디 여기 송○심이엔 그 하르부지는 워낙 불미를 잘 태와 가지고 날이 어중간헤여. “양, 비왓직허우다양.” 허민 “비 아니 올 거라.” 날씨가 좋아 불어. 다른 사름은 불미 안 태운 사름은 “아, 날씨 좋양 좋을로구나.”, “예, 좋암직허우다.” 경허당 보민 비 와 불곡. 경해서 안 태운 사름은 불미헛어. 게난 송○심이 그 어른은 불미해서 워낙 잘 돼니까 불미 태와 노니까 당장 엽전을 그냥 이디 창, 드러 창 텅 겨가민 “돈 흐썸 썸서.” 허민 “경허여. 게민 얼메?” 허민 “얼메 썸서.”, 갱 “폐지 씨.” 허민 이제 씨. 영 돈 물 기한 돼민 “저 돈이 엇언에, 어 뎡 허코마썸?” 허민, 게 “어뎡 허젠?” 허민 “저 어느 밧을 마뜩서.” 경허여. 게민 허곡. 밧이 백 개도 더 더. 하튼 그 어른은 불미해서 부자로 일평생을 산 사람이주.

보섭헛 뎡 알을 가까 가지고 사이에 췌물 들어가게끔

불미마당 기억은 엇고, 저 불미, 난 일 안 헤나니까 우리도 헌디 불미마당은 그 저 그 옛날 발판불미는 우리가 안 봐나니까이. 그건 모르고. 기계불미만 기억, 춤 딱 보니까 기계불미만 헛는다. 기계 불미 허민 그디 일허는 사름이 다 직업 저, 기능별로 틀려. 게서 췌 대장, 췌대장은 보통 췌물을 저 주곡 허는 사람이주게. 또 독대장은 솟 넣곡 췌 노면서 췌물 조정허면서 허는 그런 사름이고. 그다음 보섭헛 뎡 알대장이라고 해서, 보섭 이렇게 보섭이 이렇게 기면 여기에 보섭 모양을 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넣어. 게서 넣어서 그걸 가까 가지고 나중에 그거 담아 가지고 사이에 췌물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딱 주면 그 알 공간만 말고는 나머지 췌로 돼거든. 그러면 그 알만 빠 불민 갱 보섭이 똥, 저 쟁, 쟁기에 메울 수가 잇게 똥어. 그렇게 해서 알대장, 알대장.

느 무슨 질떡대장 헤샤?

또 질떡대장이라고 잇어. 질떡은 뭐냐든 꺼멍헌 거. 우리 어렸을 때는 저 흑연으로 많이 하고 아, 흑연 잇잖아. 연필, 연필심이. 으, 그 흑연으로 하다가 헛는데.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소나무 솟, 소나무 가지를 태와 가지고 그것을 재가 다 돼지 양게 꺼떻게 꺼면 상태에서 걸 꺼 가지고 걸 뺏아서 가루로 만들어. 게민 그것에 솟 가다 딱 만, 바숨 딱 만들든 이젠 초불은 그 적이라고 해서 적, 그 불

미 저 흑, 썬 닿아난 거. 그것을 부셔 가지
고 그걸 아주 가늘게 멘들어서 그걸 체
로 쳐 가지고 그걸로 초불 다 돌려 가
지고 매끈하게 해도 안 돼민 그다음
은 그 질먹을 넣어 가지고 질먹 불라
서 뱅뱅 돌려 가지고 그 가다로 솟 형
태를 만들거든. 형태를 만드는데 그 질,
저 질먹이엔 흰 거 그거 흑, 흑연 들어간 디



가 썬물 바로 닿은 디. 그래서 흑이, 돌레질을 하기 위해 반죽한 '질먹'
그것이 매끈하게 되면 썬물 들어가
서 매끈하게 되는 거. 경헌디 그건, 기능별로 다 틀려. 게서 질먹대
장 행은에 밧 하나 샅저. 누게, 질먹대장, 질먹대장 허민 그 좀 옷도
더럽고 뭐 이러주게. 계속 그 꺼멍헌 걸. 게민 이 손에서 만져서 어
디 ㄱ료우민 이렇게 굵으민 이디 거멍허고. 게난 질먹대장은 요새
들 저 우리 어린 때는 얼굴 거멍 칠허민 “느 무슨 질먹대장 해샤?”
경형 경형 허주게. 얼, 얼굴 거멍허니 솟 거슴 무치민 “어따, 질먹대
장 헛구나.” 경형 해낫주. 갱 “무사 질먹 칠해시?” 허곡. 경형 질먹대
장 허곡.

동네 사름덜은 기술이 잇고 다른 사름덜은 날름이나 허고

그 기능자들은 거의 그 기능은 잇어도 돈 없어 가지고 맨날 그기

서 일헤. 일 년 아마 한 이백 일 이상 일허주게, 비 안 온 날은 허니
까. 게곡 비 온 날은 집안에서 그 바슴 만들곡. 겨난 덕수에서 그 불
밀허기 때문에 그 불미 보유, 기능자덜은 돈을 벌엇주게. 다른 데
서는 안 오곡. (다른 지역에서는) 안 와. 이 동네 사름덜도 남는디 뭐.
동네 사름덜은 기술이 잇고 다른 사름덜은 기술이 엇는디 와서 뭐
헤? 뭐 무슨 날름이나 허는 거베끼 더.

산방 뒤흘에 속 구린 밧 흑이 제일 좋아

흑을 잘 이겨야 돼, 흑을. 겨난 불미허젠 허민 우선 흑을 좋은 디
강 흑을 파야 돼, 흑을. 흑을 파는디 요 동네 가면은 속 구린 땅이
저, 알 구린 디엔도 허곡 헌디 그 지경을. 흑이 제일 좋으니까 흑을
파곡 그디 다음에 돌 놓곡 흑을 파곡 돌 놓곡 전체적으로 허다 보
니까 밧 전체가 흑을 다 파곡 돌만 다 들어갓지. 게서 그 우에 이제
그 보통 건물이 요 정도 돼서 그다음 밑에 찰흑이거든게. 게니까
건물을 거뒀다가 돌로 더프곡, 더프곡 헤 가지고 우엔 밧 갈아 먹
곡, 한쪽은 파면서 또 허곡게. 경해서 그 속 빈 밧이엔도 허곡 속 구
린 밧이엔도 허곡 해낫주게. 그런 디가 많이 있어. 켜디 지금은 산
방 뒤흘에 그디 흑이 제일 좋아. 그디 공사가 뭐 확정 들어와서 헐
때는 그디서 헤다가 헛는데. 요 중간은 웃디 강 좀 헤실 거라.

췌물이 들어가믄 흑이 푸닥푸닥푸닥 타 불어

그 이디 밧디 그거 황토. 덕수만 잇는 게 아니라, 같은 색깔 모양 이 비슷해도 그 성분이 틀려, 성질이. 게 췌물이 들어가믄 췌물 그 흑이 푸닥푸닥푸닥 저 타 버려서 부삭부삭 헤 불어. 덕수 흑은 딱 불미 물 줘도 타지 안허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췌가 그냥 그디서 췌물이 굳어져 가지고 솟이 뛴는 거주게. 게난, 흑, 흑 뭐 코크스나 건 다 사 온 거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잇는 건디. 겐디 원자 재 이거 틀이 흑이 나야 뛴거든. 흑이 그걸로 잘못 만들민 아무 소 용 엇으니까 뛴. 아무리 물 줘도 소용 엇으니까. 게난 흑이 좋아, 흑 이 좋아야.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구워낸 ‘숯 바슴’

덕천도 헛저 뉼 낙천도 헛저 허는디 흑이 딱 맞은 딘 덕수배끼

낙천리⁵⁸⁾ 거기 불미 다 거 혼 번해서 실패허니까 거기 흑이 안 맞아 가지고 바로 이디 와 불엇는디. 경해서민 거기 계속 허지, 왜 여기 와. 거기서 뉼 사람덜 헤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헛는디 허멍 뉼, 덕수 오랑 껍 소리도 안 헤. 그 사람덜 판 데 강 거 허지. 게니까 송씨가 오난에 맨 처음에 송씨가 뉼 그디 하나 살아? 다 이디 와서 살지. 아홉 못, 아홉 곳 딱로 헛 허주게. 겐디 그거 흑 파난 불미헤 난 흑 판 거 당추 아니주.

덕천⁵⁹⁾은 게 덕천은 나의 고조하르부지 동생이 이제 ○자 락이 란 분이 잇는데 그분허고 덕천에 간 분이 허고 어릴 때 아주 친헛 어. 겐데 그 여기서 워낙 살기가 힘들어 노니까 “우리 혼 번 나가 자.” 해서 한 이십 대 때 둘리가 아주 친허니까 같이 매일 밤 ㄱ치 자곡 낮인 일허곡 허단 밤인 ㄱ치 자명 허단에. “야, 이거 뉼, 안 뉼 켜. ㄱ치 나가게.” 게서 우리 고조하르부지 동생은 저 어림비⁶⁰⁾라 는 디 갓어. 애월읍 어림비, 어도 가서 떨어지곡.

“난 저레 더 가 보켜.” 허난에 “경 허여.” 행. 갱 그분은 송씨, 송씨

58) ‘낙천리’는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를 말하는 것으로 제주에서는 여기서 처음 불미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59) ‘덕천’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를 말하는 것으로 덕수리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보섭불미’를 했다고 한다.

60) ‘어림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옛 이름이다.

는 덕천 가서 떨어지고. 그 송○인 씨라고 제주시 자꾸 해난 분인디. 그분 증조, 고조하르방인가? 겐디 덕천에 가서 허다가 이제 덕천은 덕수서 불밀 혼 기술이 잇으니까 덕천이 돼카 부텐 해서 허니까 덕천은 안 돼 가지고. 덕천에서 일행 여, 여기서 사람 갖주게. 기술자덜 가 가지고 덕천 흑으로 해 부니까 안 돼서 실패헐. 그래서 덕천도 헛저, 뭇 낙천도 헛저 허는디 그건 덕천에서 낙천은 성공치 못헌 디. 게서 낙천도 이제 우리 기록상 낙천이 먼저 헛젠 허주게. 게민 자기네, 자기네 땅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헛디 거긴 거, 안 돼. 흑이 안 돼. 흑이 딱 맞은 딴 덕수베끼 엇어.

(덕천) 그디 간 분은 이름 모르겟는디 이디. 우리 고조하르부지는 ○ 제 인이고. 동생은 ○ 제 락. 그 하르방 친구가 송씨주게. 게난 우리 하르방은 돌리가 밤이 저, 나, 나가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난 이디서 살켜.” 헛 그디서 살고. 또 그 송씨 하르방은 간 현 것이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살, 저, 살아 보젠 텡기다가 덕천에 가서 이제 정착헌 거라. 게서 덕천에서 정착해 가지고 그 후손들이 여길 나들엇 거든. 나들면서 불미허는 거 보니깐 아 거기도 뽕직허거든. 게서 여기 기술자들이 가 가지고 허니까 안 돼. 안 돼서 왔어. 것도 얼마 오래 안 해연 한 천구백이십 년대 말. 게서 내려와 불엇지.

참나무로 해서 백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켜를 녹였어

그때 재료는 뭐냐면 켜는 물론이지마는 백탄⁶¹⁾, 한라산에 백탄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마련해 둔 ‘장작’

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백탄으로 그걸로 켜를 녹였어. 백탄이라는 켜이 있어. 그 한라산에서 저, 참나무로 해서 백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게 칼로리, 열이 많거든, 열량이 많아. 그래서 켜를 녹일 수 있어. 아니든 웬만한 건 켜를 녹일 수 엇거든게. 그래서 그, 그걸로 백탄을 때 가지고서 켜를 만드는데, 그때는 많이 만들지 못헛어. 왜냐면 사람이 일을 허기 때문에. 게서 보섭도 뭇 개 뭇, 켜도 뭇 개 헛는데. 이제 코크스엔 그것이 옛날은 백탄으로 켜를 녹이주

61) ‘백탄’은 색깔이 흰 빛을 띠며 화력이 센 참숯이다. 일주일 정도 숯가마에서 불을 때면서 구운 숯으로 ‘곰숯’이라고도 한다.

만, 코크스라고 해서 석탄으로 만든 거 있어. 그게 한 팔천 키로, 팔천 칼로리 나오는데, 열량이. 그렇게 화력이 썬주게. 겐 그걸로 췌 녹이고 지금도 그걸로 허주마는. 췌 해서 육지 가서 사오곡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췌도 사오곡 해. 또 제주에서 사간 보섭, 솟 못 쓰게 돼민 다 또 여기 오는 거라.

(진을케) 독에 놀 것도 처음에 불 났을 때 장작, 그 열 잘 나는 장작, 소나무 장작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코크스 불이 붙음 시작하면 나무는 필요가 없어. 코크스만 코크스하고 췌하고. 그 코크스가 워낙 열량이 좋거든. 게 처음에 코크스를 녹일 때 장작을 들여 놔, 처음에. 장작 처음에 뭐 혼 혼 줄레, 혼 줄레도 안 들겠다. 혼 줄레엔 헌 건 사람 한 발 딱 한 발, 혼 뽕 해 가지고서 그걸 둘레로 허는 걸 혼 줄레엔 허주게. 겐디 혼 줄레민 뭘 충분. 게민 우선 코크스에 불 탐 시작하면 그다음서부터 췌 들이치면 코크스 놓곡 췌 놓곡. 코크스 노민 코크스에서 처음 들어간 거 녹이면서 다음 것을 들어간 건 또 다음에 췌물 녹이면서 허민.

솔박췌엔 헌 건 췌가 좀 연혀여

췌가 우리가 알기로는 저 어디고 포항, 췌부리 축제라고 있어. 췌부리 축제. 췌부리 축제 거기서 거기는 그 야산에 잇는 선철을 헤다가, 저 철광석을 헤다가 췌를 만들어. 선철 해, 선철 해. 췌 만 들민 그것은 이제 전국 용광로 잇는 디 다 갖주게. 겐디 우리도 어

렸을 때 솔박췌라고 했어, 솔박췌. 솔박췌엔 헌 건 그 저 뭐야? 곡식 담을 때 솔박 잇잖아. 딱 그런 형태. 그보단 작지만 그런 형태로 딱 댜 게 있어. 그렇게 생긴 췌를 여기서 허민 그거 췌가 그 질이 좀 안 좋텐 해여. 게서 제일 좋은 건 기계 부속 벌러진 거. 그런 것이 제일 좋았는데, 그다음 이 보섭 췌 벌러진 거 이런 거 허곡 그다음엔 그 저 솔박췌엔 헌 건 그건 그 포항서 나온 건디 좀 췌가 질이 좀 연혀여. 기계 부속, 가구 부속, 저 농기 부속 다 그거주. 지금도 이거는 저 뭐 분무기 벌러진 거, 기계 벌러진 거, 분무기 벌러진 거 그런 거 다. 겐디 저 솔박췌도 이 저 선철도 가져당 쓰긴 췌. 많이 있어.

풍선 대절행 부산 가근에 코크스하고 췌 시켜 왔젠

발동선은 얼마 난 때 오래지 안허주게. 물론 따지민 오래 뻬주마는. 보통 여기서 우리 어렸을 때도 부산 나갈 때 풍선, 풍선. 모슬포도 가곡, 제주시에도 가고, 서귀포서도 가곡 했는데 다 풍선으로 다 뉘주, 옛날은. 뭘 저 동일리 우리 동창 임○이라고 그 아방은 배를 저 대마도 가 가지고 배 사서 부산 왕 또 이디 와근이 게영 배 오랑 상 오랑 폴랑 또 강 상 오랑 폴곡 그런 식으로 했어. 그런 식으로 헌디 이제 여기서 풍선 사계에서 풍선 큰 거 요즘에 ㄱ트민 한 백 톤, 백 톤 안 뉘겠다. 혼 사오십 톤, 오십 톤췌 뉘 거. 그런 것들 두어 개 췌 잇어났어. 겐디 것도 어선 잇곡 화물선 잇주게. 옛날도 겐디 어선은 그, 그 그렇게 큰 어선이 별로 없었어.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에서 사용되는 ‘코크스’

큰 어선이 필요 엇엇주게. 갯 화물선 풍선에 풍선이라고 헛주. 보통 풍선 그것ㄴ라 풍선, 왜냐면 바람 힘으로 가기 때문에 풍선, 풍선 해. 화물선 해도 그것도 부산ㄴ지 가곡. 게민 그 천구백이십 년, 십 년대, 이십 년대는 기계선이 엇으니까 다 저 풍선만 탕겨. 게다가 그다음 혼 이십 년대 이상 돼 가니까 이젠 아, 이십 년대, 천구 백십 년, 한일합방, 한일합방 후에 일본, 한일합방 그 당시부터 일본 저, 부산광 일본은 뭐로 탕겐다. 기계선 탕겐다. 근디 보통 이 화물선은 엇엇주게. 화물선 엇으니까 풍선으로 행 부산 강 해 오곡. 우리가 듣기로도 풍선 대절행 부산 가근에 코크스허고 췌 시꺼 왓젠 말을 들엇주게.

풍선이 바람만 잘 맞으면 기계보다 빨라, 기계보다 빨라. 풍선이 워낙 바람만 잘 맞으면은 기, 기계보다 빨른덴 허여. 보통 십 볼트 이상 나가. 바람, 저 옛날에 바람 잘 맞으면 기계, 기계선이 쫓아지나, 못 쫓아.

숯 바숨은 봄에 맨들엉 가을 돼민 벌러진 디 맥이곡

숯도 이제 흑, 존 흑을 어떻게 허느냐. 좋은 흑을 파다 그다음 잘 이경, 경 이제 보통 이때 바숨을 잘 만들야. 이때 뭐이냐면 가을에 저 건조허니까, 가을에. 초가을에 만들어 가지고 원랜 봄부터 만들긴 만들어. 봄부터 만드는데, 이때 돼민 베꼈디 나오랑 두불, 세불 손 불 때주게. 게난 봄에 맨들엉 나뒹당 여름에 여름 지나근에 가을 돼민 이젠 또 벌러진 디 맥이곡 헤근에 가을, 불미도 가을에 잘 허곡. 가을 보통 뭐, 가을, 겨울, 초겨울, 가을에 많이 헛주 뭐. 날씨가 그 왜냐면 봄에 여름에는 우천이 잦을 수가 잇거든게. 게 가을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제작해 둔 ‘숯 바숨’

에 댜면 보통 날씨가 댜, 메칠씩 좋거든. 이제 흑을 허민 이젠 흑을 잘 이겨 가지고 흑 이기는 거, 또 첫째 그 잘 이기민 그다음엔 그걸 바숨 굿새 거림이엔 거, 것에 딱 앓져 가지고 그것에 바숨을 쪽 멘 들어 가거든. 쪽 입저근에 겨형 그게 몰르곡, 몰르곡.

(불미를 허는 거) 댜 시간이 아니라 으라 날 걸리주게. 기간이 오래 걸려. 웨냐민 흑을 이기민 흑을 이경 이렇게 쌓아 올려. 쌓아 올려 놔두곡 옆으로 띠면서 바숨을 만들어. 경 흐루 혼, 흐루에 뭐 당장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걸쳐 놓고 해서 만들어. 계속 만들어야 댜. 겐 것도 혼 번에 다 멘들지 못해.

돌레로 초불 뱅 돌르곡 다음엔 질먹으로 돌령

두 번, 세 번에 멘들앙 이젠 완전히 만들어 노민 이젠 그다음 돌라근에. 그, 저 적으로 초불 돌르곡 흑연 저, 질먹을 두 번 돌랑 계영 그다음 부치주게. 다 몰르민 이젠 그다음엔 솟을, 바숨을 돌르는 거라, 돌라, 돌른덴 헤여, 돌레⁶²⁾로. 돌레엔 현 거 췌로 동그랴게 반달 영 댜 거 잇는다. 그걸 해서 이제 그 적. 아까 알 박아진 디 적이지. 적, 적 현 것을 그 저 바숨 우이 노면서 그걸로 돌려. 돌리민 이젠 바숨은 손으로 멘든 거니까 지픈 야픈 디 허지만, 이거 돌리면 메끈

62) '돌레'는 술을 만들 때 거푸집 표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목탄 가루 물인 '질먹'을 바르는 쇠로 만든 도구다.



‘돌레질’하는 모습

해. 쪽 그튼 길리로 댜거든. 콤파스로 해서 뱅 돌리민 딱 댜거든. 그런 식으로 딱 댜. 게서 이젠 적으로 이젠 처음엔 초불 딱 현 다음엔 그것이 다 몰르민 이젠 다음은 마지막으로 흑연을 저. 질먹으로 해서 질먹에 다 돌령. 겨형 이젠 딱허게 부쳐. 우알 부쳐야주게. 윽으로 저 솟천 잇잖아. 가에, 들르는. 거 뱅 돌아가게 허곡, 우에 거 허곡. 다 딱로 댜니까 이젠 부쳐서 딱허게 멩글앙 그다음

엔 그 우에 또 흑으로 더 잘 우알 부친 딜 또 더 흑을 맥이주게. 그걸 또 몰류와. 완전히 말려. 그런디, 그땐 저 구겨지니까 뭐 대충 몰려도 댜기도 허곡. 경형 더 이상 금이 안 난다 허민 이젠 완료댜 거. 이제 불미허게 댜민 전날, 보통 전날, 식으민 안 댜니까. 전날 그걸 구워. 불미 전날. 갱 전날 밤이 구워 가지고 다음 날 허주게.

술 비어 가몬 누구네 불미허젠 햅구나

솟 구는 건, 굽는 건, 건 기술자 필요 없어. 불만, 불만 보멍 뿔감만 잘 대민 댜. 뿔감 잘 대멍 옆으로 불이 잘 나가는 거, 아니 나가는 거 그것만 잘 보면 댜. 게난 뉘 그, 그 불 숨을 때는 그 옛날에 부

지, 부지깽이 잇잖아, 부지깽이. 부지깽이 그 불 때는 부지깽이. 부지깽이 닳은 거 긴 거 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 솔가지, 솔가지도 통 못으로 행 거의 반못씩 혼 번 담양 허민, 걸 이레 저레 열 혼 번에 분산행 주게. 게민 골고리 불이 잘 타면은 골고리 익어. 혼 쪽으로 만 타민 안 돼고. 겨곡 덩어리지믄 또 연기 난단 말이여. 연기 안 나 게 허곡 행 게난 그건 뭐 보문서 허민 되는 거니까. 건 기술이 필요 엇곡 겨난 건 줌 아니 장, 밤 고생허멍 줌 아니 자민 되는 거.

흐루 밤으로 다 안 돼. 그저 보통 혼 다섯 시간 내지 일곱 시간. 게난 땀감이 좋으민은 혼 다섯 시간에도 땀 수 잇곡. 게 지금은 장 작 때니까 혼 뭐 두세 시간 땀신가? 그때는 장작이 경 엇었주게. 게



〈덕수리 민속 보존회〉의 송이철 팀장이 '숯 바슴'을 굽는 화덕을 지키고 있는 모습

속 땀감을 쓰니까 게난, 솔입, 솔 가지 다 신 거, 솔입 해서 걸 산더 미추룩 데겨. 짝 데겨당 허민 솔, 솔 비어 가믄 아, 저기 숯 굽젠 험 구나 경헤. 경 숯, 불미마당 율이 숯 저, 솔가지 하영 놀민, 저 누구 네 불미허젠 험구나 행 딱 짐작했주게.

혼 어귀에 보통 숯이 네 개, 다섯 개 들어가주게

혼 사름이 두 어귀 더 이상 못 봐. 겐디 우리 어린 사람은 저 하 나베끼 안 보주게. 게민 우리 작은아부진 불 어귀 두 개, 세 개 마타 근에 날궤라 하나 보라 헤영. 경형 헤낫주게.

불미 크기에 따라서 그 불미를 으라 시간 허영 재료 준비허곡 다



'화덕' 내 굽기 전의 '숯 바슴'

행. 바습이영 하영 현 사름은 오래 허곡. 경 아녕 현 현 사름은, 겐디 보통 열다섯 어권 돼주게. 열셋, 불 때는 어귀가. 게민 그 안네 보통 솟이 네 개, 다섯 개 들어가주게. 게민 열 개민 오십 개, 다섯 개민 칠십 개 뭐, 현 칠 팔십 개. 겐디 보통 칠팔십 개 보통 헛주게. 밑에 솟허곡 뚜껑허곡 다 허영 허주게. 다 허난 그게, 크기별로 딱 허민 큰 솟, 작은 솟, 큰 솟도 뚜껑 놓앙 허민 그게 다 워낙 익숙으니까 불 안 새게끔 다, 다 놔져.

날그라 현 어귀 마탕 밤이 허렌

솟불밑 허젠 허민 요디 우리 나도 흐룻밤 불미, 솟을 귀났는다. 솟불미허젠 허민 솟을 구워. 겐디 구운 게, 다이로 만들엉 짝 행 길 게 해근에 한 잘현 사람 두 어귀. 어귀엔 현 건 불 뿔 두 곳, 두 개, 두 밧디. 게아녀른 현 어귀 경허주게. 게민 우리 작은아부진 두어, 저 세 어귀 마타근에 경 날굴아 오라, 오라, 현나 마탕 밤이 허렌 헤영. 게민 밤이 이제 오랑 그디 강 불 때곡 헛게. 겐디 뿔감은 물론 주인이 다 당허주마는 불 한 사름이 다 못 허니까 다 책임들어서 어느 굴, 어느 굴 행 다 마탕 허주게. 게민 밤이 생 그걸 줌 안 자면 서 불 때야 돼. 게서 그 흑이 별절게 익어야 돼어. 별절게 다 익어. 그, 흑이 뭐 것도 뻗 백도 돼겠지, 아마. 경행 게서 흑 딱 보면 흑이 다 익었으면 이건 그만 헤영 딱 딱 허고. 덜 익은 솟은 더 때곡. 게 해서 겐 부지런히 잘 땀 사름은 일찍 쫓나고, 일찍 쫓나야 뭐 한, 이

삼십 분 현 시간이주. 경현디 늦게 현 사름은 또 뭐 질 말제 허메, 간세다리해근에.

넙적허게 헤 가지고 가운디 고망 뿔라서 불망개

경해서 저 또 흑시 불도 솟이 저, 솟을 다 안 뿔면은 넙적허게 헤 가지고 가운디 고망 뿔라 가지고서 불망개⁶³⁾, 불망개 옆이 툅툅 놔. 게민 불이 도망가지 안허게. 불이 어디 새지 안해서 솟에 가게 끄 해서 그런 걸 사이 사이. 흑으로, 찰흑으로. 찰흑으로 납적허게



‘화덕’ 위에 올려진 ‘불망개’

63) ‘불망개’는 솟 거꾸집을 구울 때 사용하는 흙으로 만든 덮개로 ‘불펜’이라고도 한다.

만들어 가지고서. 게서 솟광 솟 사이에 빈틈이 이신 디 걸 우에 막아. 게민 이게 막 이렇게 막아져. 경행 막아지민 그 가운딘 저, 고망이 뜰라져서 글로 뵈이 나게 공기도 나가곡 허게 뵈 거주게. 경허민 저 그건 혼 번 헤나민 자꾸, 여러 번 쓸 수 있어. 게곡 솟바숨은 혼 번 만들민 밑에, 밑에 거림이엔 혼 게 있어. 솟 거림. 거림은 계속 쓸 수 잇곡. 다른 건 혼 번 쓰민 걸로 쫓.

거림 기초로 바숨 만들주

겨난 거림은 혼 번 써도 또 다음 그 거림 우에, 게 거림 우에 그 거림을 기초로 해서 바숨 만들주게. 게 거림 행은 맨 밑에 이제 췌, 저 발, 발이라 헐까. 발 세 개 잇주게. 이렇게 세 밧디 있어, 이렇게 튀어나온 저 바숨에서 바투는 거. 붙어 잇는 거 그거 붙어 잇는 것이 거림이엔 현디 거림은 항상 쓰곡. 우에 나머지는 계속 만들, 혼 번 헤나민 부서 뒤근에 만들곡 만들곡 허난에 그 솟 허민 밑창이주게, 밑창. 밑창은 계속 쓸 수 있어. 건 벌러 불지 아녀니까. 옆에 천은 다 벌러야 돼니까.

췌물 빙젠 허민 덜 구워진 때는 터져 불어

바숨을 구워야, 그 열을 받아놔야 췌물 들어가도 독이 안 터져. 게 가지고 그 그걸 바숨을 맨들아서 그걸 몰류면서 벌러지민 또 거기 메꾸고, 메꾸고 허면서 해서 완전히 몰라서 메꿔 저, 실금이 하

나토 엇이 해야 이젠 다 므른 거거든. 경행 완전히 완성뵈 거라. 게민 이젠 그거 이젠 그레 물, 췌물 빙젠 허민 그대로 덜 구워진 때는 터져 불어. 덜 구워지민. 게난 바숨을 완전 귀, 밤이 바숨 귀. 바숨 귀근에 허민 여기서도 이제 계속 바숨 껌주마는. 게서 딱 봐 가지고 별경게 다 익으면 잘 익으면 그때 익엇젠 허여. 잘 구웠젠 허지 안 허곡 “어, 잘 익엇저.” 경허민 그 잘 익은 굴덕은 그만허곡. 또 덜 익은 굴덕은 계속 때곡. 그게 재수 나뻡 바람이 들어오는 코지나, 말하자면 바람이 없다가 바람이 들어오는 코지는 불 밀리잖아. 밀리민 건 더 오래 때야 돼. 열이, 글로 집중이 안 돼거든. 열이 딴 데가 불어. 게문 열이, 열이 한 군데 집중돼야 돼는디. 분산돼 불민 그 딴 더 때곡 해서 솟이 다, 바숨이 다 익으면은 딱 중단헐당 다 하민 뵈날 이시면 츠레로, 솟 츠레로 췌놔. 솟 췌놔 가지고 이젠 틀레라고 해서 솟 바숨이 이거 솟 바숨이 딱 노민 이거 옆으로 딱 눅져야 주. 게민 긴 나무 두 개로 딱 헤 가지고 딱 해서 고정시켜. 사름이 딱 잡아. 겨형 그 구멍으로 이제 췌물, 저기 췌물헐, 췌물 다 들어가민 이젠 또 풀곡 다음 것에 허곡 다음 것에 허곡.

그 바숨에 고망은 무습⁶⁴⁾이 무습. 물 들어강 췌물 들어간 디 무습. 거 원래는 이 저 나쁜 말로 물썩이엔 허주게. 물썩이엔 물 들어

64) ‘무습’은 솥 거푸집인 ‘솥 바숨’의 췌물을 넣는 구멍을 말한다.

가는 씹이엔 허는디, 그것을 순화시경 무습, 무습 허주게. 바습에 구멍. 췌물 들어가는 구멍 건 무습.

그스락 노면서 풀 좋게 잘 이겨야 돼어

예를 들어서 보습을 만들젠 하면은 흑을 파와. 흑을 팡 이젠 흑을 그스락, 제일 그스락 많이 썼어. 그스락 노면서 그걸 아주 끈기, 저 풀 좋게 잘 이겨야 돼어. 딱 허민 딱딱 부틀 정도로. 잘 이겨 가지고 완전히 잘 이기면은 이젠 그걸로 이젠, 보습 탱이를 만들어. 탱이엔 허른 보습 틀라 탱이엔 허주게. 보습 탱이. 탱일 만드는데, 탱이 안에 나무를, 나뭇가지를 짝 놔. 왜 나뭇가지 노냐믄 벌려져서 또, 또로 저 털어지지 못하게. 게서 보습탱이엔 그 소굽에 낭 놔 가



‘춘흑’ 위에 뿌려진 ‘그스락’

지고 보습 탱이를 만들어서 밀창허고 우이허고. 알탱이, 웃탱이 허주게. 게난에 알탱이는 저 밀창이고 우이 탱이는 뚜껑이고. 그래서 이젠 그걸 멩글아. 그걸 멩글앙 다 물류와. 물령 이젠 또 걸 구워.

적을 막 뺏앙 범벅추룩 반죽해 가지고 알 박주게

게민 이제 불미허게 돼민 불미 하루 아시날썸에, 전날썸에 그 저 불미해서 혼 번 타난 그 솟 바습 부순 것을 적이엔 허주게, 적. 이름을 적이엔 허주게. 그 적을 막 뺏아. 뺏앙 그걸 체로 쳐 가지고 가늘게 저, 저 막 그늘젠 아니고. 체로 쳐 가지고 그걸 물에 놔 가지고 반죽허여. 반죽해서 이제 알을 박아. 이제 밑에 거허고 우에 거 딱 부쳐 가지고 이젠 그디에 알을 박아. 적을 잘 쳐서 걸 돼게 범벅추룩 맨들어 가지고 이젠 알 박주게. 알 박아서 이젠 알 박으민 조금 있으민 이젠, 그게 굳어지거든. 굳어지민 이젠 뚜껑 딱 때렁 이거 살짝이 잇으민 톡허게 세와져, 그게. 밑에 세와지민 이젠 그것이, 그 알은 똑 그 안에 들어가지. 다른 디 들어가민 안 돼 붙어. 틀려 붙어. 게난 꼭 그 알은 그 고망에 들어가야 돼는 거라.

알대장이 췌물 들어갈 디 보멍 알을 가까

게난 그 앞이서 딱 놔근에 이젠 그걸 그 알대장이 알을 가끄는 거라. 알 가까 가지고 췌물이 어딘 많이 들어갈 디 어딘 족게 헐 디 해서 그 알을 많이 까끄민 그딘 췌물 많이 들어갈 디. 겨난에 밀창

은 조금 많이 들어가야주게. 밑창은 좀 깊이, 깊이 파곡. 윗이는 압게 가까야, 많이 까끄지 안해야 옆이가 좀 날카롭게 돼거든. 게서 이제 알을 잘 까까 가지고 이젠 불미혈 때 딱허게 인부가 강 보섭 텡이 딱 아래로 놔 가지고서 이젠 그다음 또 알 박아 가지고 알에 밑에도 받침을 놔야 돼. 딱 부떠 불민 췌물이 안 들거든. 게니까 공간 내워서 받침. 흑으로 것도. 흑으로 받침 해서 아래 놓곡 우이 놓곡. 경허민 이제 공간이 생겨.

텡이는 내일 불미혈 거다 허민 오늘 저녁 밤이 해 저사 불 때

텡이는 내일 불미혈 거다 게민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밤이 해 저사. 해, 해 질 무렵 불 때. 쟁 널 아침 멧 시깁지 땡 거 허민 딱허게



밤새 '숫바슴'을 굽고 있는 화덕

새벽 멧 시깁지 땡 거 허민 저녁이 해 진 후에 때주게. 쟁 밤이만 때어. 게난에 밤이 때영 허민 밤이 쫓나니까. 아까 곤지 안했어. 다섯 시간, 일곱 시간이주게. 게니깐 해 정 후제 다섯 시간이든 뭐 혼 새벽 두 시, 세 시민 쫓나잖아. 게민 아침이 빨라, 빨라야 일고여덟 시 전에는, 못 허니까. 게문 그 사이에는 식어. 식으민, 운반허민 이리 저리 옮겨지민 돼.

게난 텡이는 뜨뜻할수록 좋아. 구울 솥을 구운 거. 게난 오늘 구워서 널모리는 못 써. 물을 안 받을 수 있어, 식어 불면. 겨난 완전히 식으민 안 돼. 게난 텡이 저, 금년 멩글앙 내년에 뭐, 모른 사람은 아따 금년 남은 걸랑 내년에 허주. 건 모르는 소리. 약간 젓어도 안 돼. 겨난 잘 끌르곡, 뜨거울수록 좋아.

아침부터 췌물 녹임 시작허민 텡이 굳 거 물 다 주민 되는 거

췌 녹이는 거 그날 하루에. 아침이 시작허민 불 땡 시작허민 뭐 와랑와랑 불 때근에 이젠 흑, 저 췌 놓곡 흑 아이, 저 코크스, 코크스 놓곡 그다음에 또 췌 놓곡. 게영 바람 강도 허곡 안네 그 뿔이 바람스가 맞아야주게. 너무 췌도 안 돼곡, 또 약허민 또 췌가 녹지 안해 불곡. 경 이리 보면서 강도를 다 마지막 돌, 벽돌 하날 딱 들러다가 보면 그 안에 다 용광로 안에 볼 수 있어. 경 더뽏닥 열엇닥 허는디. 게영 바람이 너무 췌민 약간 바람이 새게끔 만들곡 바람이 약허민 딱 밀봉허곡 저 막아 불곡. 게형 허주게. 경허민 그날 아침부

터 췌물 녹임 시작하민 그자. 땡이 군 거 다 물 다 주민 그자 다 뉘는 거.

청록은 뉘 죽이나 알븐 범벅 닙으메

계속 밑으로 물은 빠지곡 청록이엔 헌 건 떠. 청록은 가벼우니까 떠. 처음에 청록구멍이라고 해서 옆으로 청록을 꺼내는 디가 있어, 따로. 코크스, 코크스가 탄 재.

청록이 날카로워. 청록이 벌르면은 나중에 벌르면 그게 돌보단 더 날카롭다고, 유리 모양으로. 나올 땐 범벅 닙으메, 범벅. 알븐 좀 저 뉘죽. 뉘죽이나 알븐 범벅추록. 아이, 범벅보단 뉘죽이 맞갓다. 뉘죽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우이로 부치면서 나올, 꺼낼 수가 있어. 꺼내민 밑에는 췌물만 아져. 경행 이젠 그 저 고지에 그 췌물 뜰르는 거⁶⁵라 고지엔 허주게, 고지. 고지로 췌물 구멍 뜰러 가지고 흑으로 막은 거, 구멍 뜰러 빼면 췌물이 짹 나오주게.

벗짚 태운 마물을 탁 노면 사람에게 열이 차단뉘

췌물 나오민 오시라고 해서 췌물 주는 거 잇잖아이. 그 오시 이렇게 받아, 그걸 반양. 겐디 그 췌물 우에 뉘를 놔야 뉘냐면 마물⁶⁵⁾

65) '마물'은 솥이나 보섭을 만들기 위해 췌물을 받아서 옮길 때 불기운을 막을 수 있도록 췌물 위에 뿌리는 재를 말한다. 주로 벗짚을 태워서 사용한다.



'벗짚' 태우기

이라고 해서 짚, 벗짚, 벗짚 태운 걸 우에 놔야 뉘거든. 그래서 열을 방지허는 거라. 경 안 허민 췌물 허민 사람이 뜨거, 뜨거워서 아무도 못 헤. 그 췌물 다 받으면 그다음에 옆에 마물이라고 해서 그 벗짚 태운 것을 탁 노면, 더뜨면 사람에게 열이 차단뉘. 갱 그걸 으저 강 짹 해주게. 게 안 허민 그 마물 안 노면 사람이 들, 들 수가 없어, 열기로. 겨난 옛날도 다 연구하면서 이거, 이거 어떡허면 뉘냐 해서 그 벗짚은 또 췌물이 먼저 들어가지 벗짚은 안 들어가거든. (췌물 나오는 구멍은) 췌물고냥, 췌물고냥이엔 헤.

췌물 다 들어가민 알을 바친 사름이 다듬아 줘야

알광 저 보섭땡이에서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 물, 췌물 들어가게. 그렇게 맨들아 가지고 이젠 뚜껑 딱 더궙. 그자 맞줄 저, 맞

줄. 밧줄 해근에 보섭이 밑에 딱 걸어 가지고 밧로 딱 밟아. 밧로 딱 밟으면 이젠 한 사람은 보섭 알이 딱 밖으로 빠져 나와지게 나무 때기로 딱 막아, 이렇게. 막으면 옆으로 췌물 다 주거든. 췌물 다 들어가면 이젠 딱 그거 낵 이 알을 바친 사름이 췌물 이거 다듬아 줘야 돼. 나중에 췌물 다 거, 싹 절단해 줘야 글로 이젠 나중에 보섭 다듬어도 잘 나오주게. 경형 딱 하민 그다음은 놔둬 또 다음 거 하고 놔둬 다음 거. 게난 이제 이렇게 텅이를 쭉 놓거든, 쭉 놔. 게민 알 담아근에 폭 낵 행 쭉 노민 이제 그다음부터 췌물들 다 이거 이렇게 들렁 밧줄로 딱 해영 밧로 딱 밟앙, 이렇게 해면은 췌물 주민 또 싹 다듬으고 그다음도 쭉허게 행, 나중에 췌물 굳어지민 이젠 뚜껑만 올앙 특허민 그냥 보섭이 탁탁 나오주게. 보섭이 탁탁 나오면은 이젠 보섭 그 보, 보면서 잘 뵈 건 더 다듬으멍 바로 따로 놓곡. 아니 뵈 건 또 재활용으로 들어가 불곡. 경형 허민 잘뵈 건 이젠 또 그 그땐 옛날은 다 가마니에 담았어. 가마니에. 거 가마니에 다 담아 가지고 수정 세면서 가마니 담아서 그다음 운반허곡. 쟁 폴레도 가곡.

보섭 장시 언제 오카마썸

보섭, 이제 쟁기 밑에 그자 흑을 갈, 파는 거. 그게 제주도에서 덕수에베끼 안 만드니까 제주도 전체를 덕수가 담당을, 저 수요를 했어. 공급했거든. 그래서 그 주로 보섭불미를 하면 불미허민 보섭불

미 해. 보섭불미를 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보섭을 생산하면은 이젠 또 이 동네에서 이제 보섭을 파는 사름이 있어. 파는 사름이 그 한 번 생산헌 걸 뭇, 백 개든 백 개씩, 전체 받을 수 잇고. 백 개씩 나눠서 이제 사 가지고 제주도에 다 돌아가면서 이제 운반허는 거라.

운반 그때는 차도 추럭도 엇엇기 때문에 우마차에, 우마차. 이제 또 타이야, 타이야도 다 고무 다이아가 아니고 옛날 달구지라고 잇어. 육지에 가끔 저 연속극에 보른 달구지 나오는데. 그 땅에 다아지는 건 와라고 하는데, 와는 췌데 나머지 받침은 다 췌로, 저 나무로 만들거든. 그래서 그게 아무리 해도 저, 저 췌로 만드는 거만 못 허니까 많이 못 실러. 그리고 잘못허당 고장 나민 또 그거 수리한다고 해고. 또 길이 지금추룩 길이 아니고 완전히 돌길, 자갈길 이거든. 이렇게 허다가 툭 떨어지민 또 나갈 수도 잇곡 했어. 그런 길로 해서 제주도엘 다 운반해 놔.

운반해 낵 이젠 어느 마을에 가민 딱 주인을 정허여. 쟁 그디 비왕 자면서 그 집이서 보섭 팔거든. 게민 그 마을에서 보섭이 필요한 사람은 다 그 사름신디 오랑 부탁을 해여. “보섭 장시, 보섭 장시 언제 오카마썸?” 허민, “무사?” 허민 “보섭 문, 문 다연마썸.” 보섭은 다 문, 문드러졌텐 헌 건 다연, “다 닳아 가지고 보섭 하나 사야쿠다.” 허민 경허렌 행. “언제썸 저, 올 거라.” 허민, 게민 그때랑 하나 구허쿠텐 행.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팔기도 하고.

구루마로 중간에 딱 푸면 지게에 정 강 풀앗주

(보섭 팔레 땡기는 것도) 덕수 사름. 마지막으로 팔레 땡긴 사름은 이제 박○택이라고 나이가 지금 (살아 있으면) 한 백삼십 땡나? 백, 백, 혼 백이십쯤 땡겏다. 그분이 보섭 제일 많이 풀레 땡견. 제주도 전체. 그분이 최고로 보, 보섭 많이 팔아실 거라. 젊었을 때부터 보섭 풀레 땡겏주게. 나이 젊은 땡 돈 저, 보섭 장시 많이 헛주. 구루마, 구루마. 게난 운반해 주는 사름은 구루마를 어디까지 시켜다 주민 쫓이고. 그다음 그기선 예를 들어서 사계, 덕수, 이제 서광 헤민 덕수 쪽에 와 가지고 허곡 사계도 정 가곡 서광도 정 가면서 풀앗주. 지게에 정 가근에, 지게 정 간. 겨난 혼 밭디서 오민 그걸 구루마가 고정웨영 쓰는 게 아니라 구루마로 혼 번 시켜 가든 걸로 쫓. 쟁 또 다른 디 와, 오곡 허주게. 게민 그디서 사이, 중간 중간 잡아가지고 중간에서 딱 푸면 이젠 그, 그걸 그 이웃 밑에 정 땡기면서 풀앗주.

덕수리 보섭은 작으니까 자갈광 자갈 사이도 갈 수 잇곡

덕수 보섭이야, 제주도에 보섭 덕수베끼 없었어. 육지 보섭은 육, 육지 보섭은 땅이 제주하고 틀려서 워낙 커. 이만이 넓곡 이 정도 길게 허는디 제주 보섭은 요 정도지, 요 정도. 요 정도 딱헝 쟁기 앞이만 탁 거 끼어져서 그래서 작으니까, 앞이 작으니까 자갈 트망도 들어가면서 갈 수 잇곡. 자갈광 자갈 사이에도 갈 수 잇곡 헛디.

그 육지 보섭은 여기서 저, 우리 사계 살 때 육지 쟁기 해 와 가지고 서 써 보렝 헝 왔는디 아무도 뭐 안 썼어. 맞질 안해. 게곡 제주도는 자갈밭이 어긴 디 그땡 딴 뒤에 양깃머리라고 해서 뒤에 손잡이 두 개 딱 잇거든. 겐디 육지 것은 가운데 하나베끼 없어, 이렇게. 게도 육지는 자갈 없는 땅이거든. 밋밋 땅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쉼만 잘 바로 가든 뭐 작작허게 땡. 겨난 쟁기 헝 오민 쟁기가 자갈이 워낙 딱딱 짜민 서로 딱 엉키민 쟁기 안 들어가. 게민 사람이 배로 힘을 늘르멍 걸 밀려, 밀려야 쟁기가 들어가.

사계리의 임 대장 불미간

불미는, 저 대장간은 덕수는 대장간이 별로 없었어. 옛날도 우리가 알건이는 듣지도 안헛는데. 대정골 저 사계, 이 임 대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혼 스물, 서른, 스물다섯, 서른. 서른 이전에 돌아갓구나. 그때는 촌에서 언제 대장간을 가냐면은 검질 메기 직전에 글쟁이 베리레. 그다음 출 비기 직전에 호미 베리레. 게서 대장간을 집마다 가. 집마다 못 가민 부짚이라도 헝 다 헝은 에, 강 글쟁이 베리곡, 새로 땡글아 오곡, 다 허곡 호미도 베리곡 다 형. 게민 일 년 쓰면 호미가 막 무끼민 새로 베리곡. 게형 헛디 그 쉼, 대장간은 모양도 잘 만들곡 헛지만 제일 기술이 그 쉼 물에 해 가지고 쉼 그 달구는 거. 쉼 등그는 것을 잘 등가야. 그 뭐 빨리 등가 불민은 잘못허민 이 툷아져 불어. 툷아져 불곡. 또 늦게 등그민

이게 튼아지지 아녀곡 오그라 불어. 겨난 그 췌물을 맞게, 잘 맞춰야주게. 게 사계 임 대장이 최고로 우린 잘 맞춰서 그디 강 허는디.

화순 곤물동 이 대장의 불미간

또 저 곤물 이대장이라고 잇었어. 게 거기가 화순 곤물, 곤물동. 골물동에 이대장. 거기 가는 사름은 거기 가서 해 오곡. 겐디 우린 이 사계 임 대장신디 쪽 갖주. 게서 그때는 불미가 (손으로 미는 동작을 하면서) 이거주게, 이거, 이거.

다 이걸로 이걸로. 청탁불미라 가지고. 이걸로 불미허멍 글로 뭐 기계 요새추룩 뭐 기계로 해서 허는 게 아니고 다 이거 손불미. 게 헤영 거기서 췌 이 달귀 가지고 걸로 때령 낫도 만들곡, 호미도 만들곡, 호미 저 뭐야. 굴쟁이도 만들곡 다 헐, 베림도 허곡. 간 사람이 해 주기도 허곡. 주로 옆이 사름이 다른 사름이 뭐. 이건 이 사름은 이것만 꺼내곡 때리곡 물 맞추곡 그것만 허주.

숫구멍 막는 숫마개가 청탁불미 딱 출령

(손불미와 청탁불미) ㄴ튼 거. 청탁불미가 으라 가지라. 왜냐면이 그 각 마을에 숫구멍 잇잖아. 구멍이 터지믄 구멍 막으레 뎡기는 사람 덜이 잇었어. “숫구멍, 숫구멍 막읍서, 숫구멍 막읍서.” 헤근에 그 어느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민 우리 집이 딱 오랑 기일 정허 거든. “집 흐끔 빌립서.” 허민 “경허여.” 허영. 게민 거기서 딱 그 불

미를, 마당을 출려, 불미를. 청탁불미 딱 출령 이젠 도가니도 흑으로 행 요만이 저 요 모자 혼 두 개 정도 크기 헤영, 도가니 헤 가지고. 게영 청탁불미가 이걸로 계속허주게. 이걸로 계속허믄 녹이면서 낫도 녹영 췌물도 받, 숫구멍도 막곡 또 뭐 터진 그릇 ㄴ튼 거, 만약 췌그릇 ㄴ튼 거 터지민 이거 문딱 막으멍. 겐 그런 사람 ㄴ라 숫마개⁶⁶⁾엔 허주, 숫마개. “숫마개 왔저. 우리 집이 숫마개 왔저.” 게곡 잘못허당 숫 터질 거 아니라? 터지민 못 쓰잖아. 게민 숫 못 쓰면 밥해 먹기가 힘드니까. 걸 어디 강 “숫마개 어디 엇언고마썸?” 허민 “어디 가. 어디 갖어, 어디 강 시민 셔.” 허영. 경허영 막으레 뎡기곡. 겐 숫마개 오면은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살아. 마을에서 일주일, 열흘 살곡.

청탁불미 바람 소리가 호로롱 탕탕 후루룩 탁탁

나무통이 잇어. 나무통. 나무통에서 이렇게 허믄 이렇게 뎡겨도 브름이 나가고, 밀어도 브름이 나가곡 허게 췌어. 게니까 안네 저 뭐야, 우리. 옆에 자루통에 두 개 해서 고망 두 개. 게서 이거 뎡기민 뎡겨도 바람이 나가곡. 이거 청탁불미. 청탁불미엔 헐, 손불미엔은 손불미엔은 잘 아녀. 이것만 대장간에서도 이거 허고 또 숫마

66) ‘숫마개’는 쇠를 녹여 터진 솥이나 쇠그릇의 구멍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솥땀장이를 말한다.

개도 이거 아주 소형 작게. 길이 요만한 거. 요만이현 거 해근에 허곡게. 정 탱겨, 이거를. 솟마개는 이거 정 탱겨. 단지 뭐만 허면은 저도가니허고 요거허곡 솟허고만 가정 탱기니까. 겨고, 저, 이 아연 그 뽏고. 연철 ㄱ튼 거 낚 ㄱ튼 거 좀 아정 탱기곡.

어디 집안 마리, 마당 옆이 그냥 톱 놔근 집 빌리민 그디서 그디서 허민, 호로롱 탕탕 소리가, 소리가 나주게. 호로롱 탕탕 호로롱 탕탕, 후루룩 탁탁, 후루룩 탁탁 허주게, 바람 소리가. 쟁 그 안에 그 뽏이엔 허나. 아이, 표준어를 잊어뽏저. 그 우리, 저 심장에도 잇잖아게. 뽏 이쪽 들어갔다, 이쪽 들어갈 때 열어 주곡 또 이쪽 나갈 뽏 막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름이 일로 들어갈 뽏 브름이 구멍으로 나가곡. 일로 새지 못허게 또 막, 이 막아 주곡 이렇게, 이렇게 허는 게 잇어. 우리 발판불미도 다 그렇게 뽏 원리가. 이쪽 꺾 불민 이것이 열리곡 이딘 저 들러진 딴 막아지곡. 이런 식으로 켜. 것도 다 그 원리주. 게난 뽏길 때 또 브름 나가곡 밀 때 또 브름 나가곡.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런 식으로 허는디 저 대장간에선 율이서 브름 저 푸꺼 주는, 브름 푸꺼 주는 사름은 또로 앓아근에 계속 이것만 허곡. 대장간은 이거 두드리곡 집어 넣곡 뽏기곡 뽏 만들곡 췌물로 췌 맞추곡 경허곡.

대장간이엔 안 해근에 불미황

(대장간을) 불미황이렌 해, 불미황. 그거 불미황이 불미방이, 방이

황으로 변헌 거주게. 불미방, 불미방 우리 어릴 때 또 나이 많은 사람덜 다 불미황이엔 허지 다 불미방, 불미마당이엔, 찜, 저 불미. 대장간이엔 안 해, 대장간 말은 안 허여. 쟈디 그디 불미황에 사름은 대장이엔 헛어. 대장. 이 대장, 박 대장, 뽏 임 대장 행. 게서 그, 그 사름 ㄱ란 대장이엔 허는디 그 대장간이엔 안 해근에 불미황허여.

작산 ㅈ본 들이고 허영 제도 안 지넬 말이라

(불미하기 전날) 제지넬어. 재현 행사도 옛날 해나니까 걸 허는 건디. 제지넬어. 그냥 그 저 무슨 뽏 축, 축 잇영 허는 것이 아니고. 제식이, 제례식이 잇어서가 아니고 저 뽏지머리 올리고 해 가지고서,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 전날 제지내는 모습

제일 중요헌 것이 저 용광로주게, 불독. 불독 앞이허곡 기계허곡. 발동기 기계허곡 해근에 저 그냥 절허곡 잔만 올려. 축 그런 건 안 허고.

과일 올리고게, 헤어도. 밥하고 국은 안 올려. 고사상. 우리가 본 건 그냥 상에 저 머리, 돼지머리허곡, 과일 허곡. 저 과일도 여라 가지 안 올려. 옛날은 저 어려우니까 유자 집마다 거의 잇으니까 유자 그자 올리곡. 젠디 제주에 우리 어린 땐 사과가 없었어. 육지서 들어오민 잘허민 도시에나 사과 있었지. 시골쪽에는 사과가 어디? 우리 초등학교 일학년 때 첨 사과 맛 봤어. 해언 귀. 내가 알, 기억으론 구워서 올린 거 닮아, 한 마리. 신위를 단신으로 보주게, 단신으로. 용광로에, 불독 잘 돼게 해 줘센 해근에. 췌 잘 녹게 해 줘센 허는 거고. 발동기는 “기계 고장 엇이 잘해 주세요.” 허는 거고.

보통 새벽에 헛어. 이것도 조용헛 때 헛주게. 요새도 그 우리 어린 때 보면 차, 택시덜 허는 사람덜 제 꼭 지냈어. 초하루 뭐 보름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위해서지. 신이 거기 딱 뭐 잇다고 해서 지방 쓰고, 이런 건 없어. 지방도 안 써. 게 신이 딱 시민 지방 쓰잖아 이. 지방 써서 누구, 누굴 신위. 뭐 이름 표시헛 수 잇는디, 그 엇이 그냥 저 제물만 올려서 절만 헛. 불미허민 제지내신가? 허면 언치 낙 제 헛어. 게 경허주. 불미제엔도 안 허곡 제, 불미 잘 돼젠 젤 지 내알 건디 허민 벌써 다 지냈어게. “아이, 그 저 작산 즈본 들이고 허영게 제도 안 지낼 말이라?” 허멍 경.

제지낼 때 ㄱ튼 때 여자덜 얼르지 말렌 해

여잔 관계 엇어. 여잔 관계 없는디, 젠디 여자 헛 일이 없어. 계난 여자가 갈 일이 없어. 젠디 여자덜도 뭐 강 무슨 저, 식사도 내 놓곡 여자 다 다니주, 무슨 뭐. 젠디 제지낼 땐 여자는 안 가. 제지낼 때, 여, 여자가 필요 엇주게. 음식 출리는 건 다 여자가 출리지. 출린디, 출려 노민 그자 날라당 절허는 것사 뭐 남자덜이 다 허주, 여자덜이 강 무슨, 뭐 해. 젠디 불마당에 여자들은 강 저 준 일 ㄱ튼 거, 무슨 거 가져오렌 허민 가져오고 다 해, 다 헛어.

특별히 금기허는 건 엇어. 젠디 금기헛 때도 잇어. 금기헛 때는 아침에 제지낼 때 ㄱ튼 때 여자덜 얼르지 말렌 해. 그런 거 왜에는 뭐 심부름 뭐 여자덜이 무시거 뭐 남자덜이 뭐 밥, 여자덜이 밥 출력곡 다 허주.

창감산이는 불 나민 땡지 두루막을 입엇 나와

그 저 우리 우스갯말로 창감산⁶⁷⁾이는 놈이 집이, 옆이 불 나민 땡지 두루막을 입엇 나와. 땡지 두루막은, 땡지가 불난 디 가민 타 불잖아. 제일 잘 타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거 안 돼겟고. 가만히 사서 보멍, 불 타는 거 보멍. 게 덕수에선 “어디 불 낫다!” 하민

67) ‘창감산’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감산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너나 없어 그냥 다 나가. 다 나가서 그땐 물이 없으니까 집에 물항하고 물하고 오줌도 꼭 모여서 오줌항에, 오줌 모여. 게문 오줌 집마다 잇는 거 다 오줌이고 똥이고 다 퍼, 퍼가근에 그냥 지붕 우이 사람덜이 올라가고 멍석 싹 깔민 그 우이 불타지 못하게 뜯으멍, 물 주멍 해근에 다 허영. 게서 덕수는 전소시킨 예가 없어, 집을. 전소뎌 건 사삼사건 때 그때는 할 수 었이 뭐 사름이 방화, 방화 못 했으니까. 경 안 해영 불 딱 닳다 허민 똥 아멩흔 집도 집을 살려 내니까. 게서 덕수 사람덜은 불은 무서워허질 안헛주. 불미해서 매 날 불과 싸움이니까. 여튼 덕수는 그거 하나는 특별허주.

(불미마당에서 불이 나는) 그럴 일이 었주게. 게곡 거 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불타게 허지 안해. 게곡 불탈 게 었주게, 불탈 게. 웨 없냐면 단지 집허곡 불마당은 집도 별로 었어. 굴뚝허고 그냥 짝 그거에 코크스, 쉼 똥 이런 것만 잇고, 바숨 ㄱ튼 거 이런 것만 짝 이신디 똥 불탈 게 똥 잇어? 짚을커는 아싯날 다 때 불거든게. 솟 허든 아싯날 다 때영 남은 것도 별로 안 남아.

재현 행사 시작한 지가 금년이 딱 삼십 년 돼주

게난 팔십 년도에 대통령상 받았주게. 대통령상은 그 방앗돌 노래로 해 가지고서 대통령상 받안에 그 대통령상 받곡. 그 후엔 저 탐라문화제도 별로 안 허곡 한라문화제 이런 것이 중간에 없었어. 없으니까 이젠 덕수도 이젠 아무것도 없었주게. 없었다가 나중에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 중 '불미공예' 시연

그 재현하면서 지금 딱 삼십 년 돼주. 금년 삼십 회니까. 시작한 지가, 재현 행사 시작한 지가, 딱 삼십, 금년 삼십 회니까 그때는 내가 연출을 다 헛주게.

연출해연 불미고, 저 게난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웨 여기서 그걸 알게 똥냐면은 그 탐라문화제 그 똥고 토불미, 토불미 우수상 받았지, 그다음 또 발판불미 우수상 받았지. 게 다음에 나갈 게 없어.

그때 제주대학교 김○돈 교수가 여기 와서 지도할 땐디 앉아서 다 우리 임원덜 앓았는데, “야, 이거 덕수에 과거에 집단적으로 일 허면서 똥 해난 행사 ㄱ튼 거 우리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자료를 발굴허자.” 해 가지고 발굴을 허는디 하르부지 살아 게실 때니까

“하르부지, 저 혹시 옛날 사람덜 많이 해근에 뭐 노래 부르멍 일해 난 거 엇수과?” 허난에 “무사 엇어? 잇주.” 허난에 “뿔이우파?” 허난에 저 동물방에 저 알동산에서 멩글안에 알엉에서 멩글안에 거 꺾어 오면서 전 강장이라고 해서 그 발 저는 사름을 전, 전 사름이엔 허주게. 발 절, 절름발이. 전 강장이라는 사름이 앞에 상 선소리허민 뒤에서 다 혼 믱음으로 소리 허멍 돌을 꺾어 왔다 이거야 게, 방에를 들여 왔다. 아, 게 그 말 들어가지고 아, 뿔다 해 가지고 다음, 다음날 헐 때 야, 이만저만해서 이런 자료가 잇는디 이거 어떻 허냐 해서 김○돈 교수가 탁 치면서 바로 그거라고.

경행 이젠 그디 헐 수 없이 하르부지가 불미 노래를 워낙 잘허고 참 이제도 그 하르방 소리 듣고 싶은데. 그 하르방신디 나 그 하르방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 중 ‘불미노래’ 시연



〈방앗돌 굴리는 노래〉 대통령상 수상을 기록한 벽화

신디 “혹시 옛날 관덕정 짓을 때 연자방 느리는 소리 알아지파?” 허난 “압주게, 나가 허어나신디마썸.” 행. 켜 그 곡에, 그 곡에 가사만 딱 부쳐 가지고 허니까 이제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그걸 만들었어. 게서 이제 팔십 년대 저 그 저 뭐 탐라문화제에서 세 번째 나가 가지고 삼 연속 저 최우수상 받았주게. 켜 그다음엔 전국대회 제주서 허게 댜니까 이젠 칠십구 년도에 우승해 가지고 팔십 년도에 전국대회 나갈 때 덕수서 그걸 나가게 댜. 켜 나가니까 대통령상 받았주게.

칠십육 년에 토불미로 상 받고, 그다음 칠 년에 발판불미. 그다음 방앗돌 굴리는 노래로 팔 년인가 구 년인가 하여튼 팔십년 대에

대통령상 받았으니까. 그다음 또 팔십일 년도에 인천대회 가서 또 문공부장관상 받고. 집줄 놓는, 집줄 놓는 노래. 나가든 야튼 장려, 장려 이상은 다 받았주.

덕수리 마을로 해서 그걸 재현하려고

이제 완전히 이거(불미) 없어지고 기술자덜 다 거의 다 가 불고 했는디, 이제 재현 행사할 때 맨 처음에 송영, 저 송영화 씨라고 그 하르부지가 기능자 저, 기능 보유자였는데, 그 하르부지는 어릴 때부터 불미마당에서 자라 가지고 만능이야. 불무엔 현 건 다 허메. 다 할 수 잇는 사름이여. 게 그 사름이 살아 있을 때는 그분이 친구



〈덕수리 민속 보존회〉가 다 구워진 ‘숫 바슴’을 꺼내는 모습



백이십이 년생이니까 이제 한 팔십 좀 넘어서 돌아 갔나, 돌아가 불고 그다음에 윤문수가 했는디 명맥을 이어오다가 윤문수 씨가 또 환자가 되는 바람에 기술자가 없어졌어. 기술자가 없어졌다가 이젠 또 불미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다 허던 사름이니까 그 서로 의논하면서 해 가지고 이젠 기능을 이제 살려봐 가지고 게서 이젠 개인이 아니고 마을, 덕수리 마을로 해서 기능, 문화 뭐야. 뭐엔 허나, 그 기능 보유자 그걸 덕수리 마을로 헐. 게서 이제 단체로 했는디. 지금 젊은 사름덜이 열성적으로 이제 그걸 재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잇어.

젊은 사름덜이 이젠 허니까 나도 다행으로 생각허는다. 뭐 우리는 불미는 눈은 익곡, 손은 설곡. 눈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곡, 만들진 못해. 만들믄 안 돼곡. 게서 눈은 익곡 손 설어 가지고 허는데. 걸 게도 봐난 것에 참고로 행 굴아 주곡 허는다, 앞으로 아마 가네덜 열심히 허민 잘될 거라. 게곡 계속 그거 재현 행사를 지원해 주니까.

불밋케 밀렛당 땡기민 청탁으로 막아정 일로 브름 나오곡

안덕면 덕수리 윤호경



윤호경 씨(1947년생)는 직업적으로 대장간을 운영하며 대장장이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덕수리 마을 사람들의 호미와 낫을 베풀어 주는 일과 직접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제작해 썼던 분이다. 안덕면 덕수리 김통립 씨의 소개를 받고, 연락을 취해 덕수리 민속 재현 행사가 열리는 2023년 10월 7일과 8일에 제보자의 집을 찾아 아내 김옥자 씨(1950년생)와 함께 덕수리 불미마당과 불미왕에 대한 일을 들을 수 있었다.

윤호경 씨는 일본에서 군수공장에 다녔던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와서 낫과 호미를 만드시고, 술과 보습을 만드는 ‘불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아버지께서 하는 모습을 뒤에 서서 구경한 것이 대장간 일의 시작이었다. 김을 매거나 꼴을 베는 철이 다가오면 호미나 낫을 버리기 위해 솜씨 좋은 윤호경 씨 집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불미마당의 일도, 대장간일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경험이 곧 기술이라고 말했다.

윤호경 씨는 대장간과 불미마당, 그리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망치로 똑똑 두드리니까 ‘똑딱불미’, 도가니를 사용해서 ‘도가닛불미’, 세 명씩 양쪽에 서서 한쪽 발로 밟는 ‘디딤불미’, 바람을 막는 기능을 하는 ‘청탁’이 들어 있는 풀무를 사용해서 ‘청탁불미’ 등 용어도 쉽게 알려 주셨다. 특히 손풀무의 하나인 ‘불밋케’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나무로 가운데가 뚫려 있는 틀을 만들어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바람을 일으키는 펌프식 구조를 가진 불밋케의 모습을 다음의 구술 자료를 통해 한눈에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장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담금질이다. 불에 달군 쇠를 물이나 기름에

담가 단련시키는 것으로 이 과정을 '야끼 놓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장장이의 기술이다. 지금도 농기구나 연장이 무더지면 버려서 쓰는데 특히 덕수리는 자갈밭이 많아서 새 호미를 사와도 조금 오그라지게 만들어 써야 한다고 했다.

윤호경 씨 덕 마당 한쪽에는 아직도 화덕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창고 어딘가에 모루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석공일을 할 때 썼던 연장과 아버지, 윤호경 씨가 제작한 다양한 농기구들도 꺼내 보여 주셨다.

윤호경 씨는 자신이 쓸 농기구를 만들면서 몇 개 더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고 농기구를 버려 달라는 부탁을 마다하지 못해 화덕에 불을 피웠을 뿐이라며 대가를 받는 등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누군가 대장간 일을 배우러 온다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면서, 혹시 온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겠다면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아버지가 장검덜 만드는 디 기술자라낫주게

(대장간 일) 그거 곧쟁 흥민 아버지, 아버지가 일본 가 가지곡 그 옛날에 일본 가 가지고 그 저, 군수품 납품하는 디, 일본 군인이나 경찰 장검덜 거 만드는 디 기술자라낫주게. 계난 그거 흥다가 이제 이 제주도 고향에 들어와 흥난에 여기선 저 그대에 그 사삼사건도 나곡 뭐 흥연 그대에 아버지가 내중에주마는 거기서 그 철공장에 일해나니까 그 사삼사건 때 창도 멘들안 내놓고 그레 난 거 닙아. 우린 사삼사건 때 나 부난 건 모르주게. 경헨 쪽 흥난에 여기선 촌이니까 저 이딴말로 곧주. 골쟁이, 호미. 저 낮은 호미엿 헤근에 낫

윤호경 씨 아버지가 제작한 '빈철'



그런 것들이나 촌이난 그런 거 헛주게. 경허고 이 덕수에는 이 저 불마당 헤 가지고 그 솟도 흥곡, 보섭, 벳 무슨 그 지지면은 빈철, 그런 거 전부 흥니까 거기도 나강 일흥곡 헨에 허난. 옛날엔 그츝 록 헤연 계난 이디 그 산업, 산업이 덕수에 일어난 거주게. 계난 그 때에 이제 헤 가지고, 계난 글로 후에 이젠 흥연 난 어리곡 뭐 헨 흥 품 커 가니까 아버지 흥는 디.

나무 흥 짐 정 와근에 골쟁이 멘들아가곡

(시작은) 멧 슬 때나마나 이디서 덕수에서 나곡 허난게 아버지 허 여가난, 뒤에 상 어릴 때부터 구경은 헛주게. 어떻게 흥는 거. 계영 허영 흥면은, 그거 흥쟁 허면은 이 봄 나근에 여름 검질메쟁 흥른 골쟁이 베리레 와, 이 동네사름덜이. 베리레 오민 그거 그대는 여

기 이제 그 솟도 아니혹 허난에, 이상헌 말 다했다 영터리로 허는 거주. 나무, 굴쟁이를 베리러 오쟁 허민 그 베리러 오는 사름이 나무를 혼 짐 지고 와. 진을커 해서 췌를 베려야 허니까. 경형 혼 짐 정 와근에 굴쟁이 멘들아 가곡, 저 뭐 헤여근에 혹.

굴쟁이 하나 베려가는 디 걸보리 돼악세기로 두 개

굴쟁이혹 낫 ㄴ튼 거 그런 거, 그런 거 헛주게. 풀 게 아니고, 만들어야 저 동네 사름신디 하나 쥐 불곡 만들어야주게. 만드는 것도 뭐 베리는 거나 간단헤여. 게난 그 말을 굴으민 웃을지도 모르주마는 저 옛날 그 저 박 돼악세기. 돼악세기 알지? 돼악세기. 솔박 보다 죽은 거, 돼악세기. 게난에 그거 굴쟁이 하나 베려가는 디 그 보리, 걸보리 다했 거 돼악세기로 두 개. 두 개 반앙 거 굴쟁이 하나 베려 췌어. 돈도 안 받곡. 아버지 흘 땀 경 받았주게.

우리 흘 때도 그자 “ㄴ정 갑서.” 행. 다 동네 사름이난 뭐 거 돈 받곡 무신 거 저 헤여? 게난 우스운 말로 저 촌이난 식구 하곡 혼 딴 굴쟁이를 많이 베려가야 혼 사름이 하나난. 겐디 예를 들엉 혼 혼 집이 열 개도 베려가는 사름도 있어. 저 굴쟁이를, 식구 한 디. 겐디 이거 동네난 “외상!” 허민, “돈 없어.” 걸로 췌이주. 거 흘 무신게 못 댜. 자기가 쓰자고 흘 때에 와근에 안 헌 사름은 왕 부땡 ㄴ치 헤여 가민 글로 췌이주, 무슨 돈 받으멍 뭐 헤엿어.

불 부뜨는 거 영 왕 보면은 불 혼을 알아 가지고

겨난 우리 아버지도 이디 완 허난에 불미히는 디, 그디 종사헤연에 이제 불미히는 기술자가 댜 거주게. 게난 그 옛날 하르방덜 이디 그 불미히는데 그때는 이 하르방덜이 계속 혼는 따문, 경험으로 그 기술을 배운 거. 거 누게가 헤여근에 ㄴ르쳐 주질 안헤여. 쟁 형 혼영 솟 바슴도 헤여근에 저 그 불을 저 솔입 헤당 눌엉 ㄴ뵈당 그 불 부찌면은 솟 바슴 굴 때는 혼 어귀 부찌면은, 예를 들어근에 뭐 잔철을 하나 주던가 그 부찔 사름, 그 돈으로 여산헤 가지고 예를 들엉 보섭이나 무슨 걸로 주는디 얼마 행 그걸 행 췌근에 걸 부찌는디 그때에 기술자 하르방덜은 이 불 부뜨는 거 영 왕 보면은 불 혼을, 보는 걸 경험으로 알아 가지고, 이 솟덕에는 그만 불 질으라. 불 습지 말앙 그만 끓으라 헤여근에 허민 솟덕을 영 담으로 막아. 경헤근에 그 웅기 귀내듯 쟁행 막아 불고. 다음은 봐 가지고 선 디는 더 불 습곡. 경헤근에 저 헤여.

요새 영 굴으민 육혈지 몰라도 이 기능 보유자로 혼 사름들은 다 영터리. 이것은 혼쟁 허민 진짜 제라허게 혼쟁 허민 경험으로 이젠 기계 돌려근에 다 췌 녹염주마는 거기 기계 돌령 헤도 그때 하르방네 흘 때 모양으로 잘혼질 못헤. 게난 다 경험으로 허는 거난에. 게난 그때 누게가 굴아? 그런 거 굴아 주곡 뭐 헛 사름이 엿주게. 그디 강 일허멍 다 경험으로 배왕, 거 혼 거.

낮인 나무 흐레 가곡, 밤이는 불 부찌고

우린 어려 부난 못 헐디, 그거 아무나 못 쥐, 안 쥐. 거기서, 이 사람은 잘 흐겟다 해근에 저 흐 사람 외엔 붙여 주지도 아녀곡, 저, 안 돼. 우린 어려 부난에 흐고 그 솟, 무신 거 헐 때에 구경은 많이 헛 주. 그 솟허곡 켜이. 겐 우리도 옥안에 저 뭐 헐, 흐끔 옥은 땀 저 이 제 저, 이태리⁶⁸⁾ 학교 서편이 집 지은 디가 불마당이라낫주게. 이 태리 그 저 뭐, 집 지은 디. 요 덕수. 그디가 불마당인디 그디 흘 때에 우리도 질 쫄병으로 가근에 영 보섭 그튼 거 흘 때 영 텡이 짚음



‘불마당’이 열리는 덕수리 민속 공연장

68) ‘이태리’는 덕수 초등학교 주변의 이태리마을 타운하우스를 말한다.

이라고 행 그거깻진 우리도 해 보긴 해연. 갱 흐연 허여신디, 그거 춤 아무나 못 해.

게난 그 보섭 흐는 것도 다 그 기술로, 다 해여근에 익숙은 사람은 그 잘허는디 서툰 사람은 저 시기도 안허곡. 경흐곡 옛날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주마는 옛날 흘 때는 예, 낮이는 동곳이 저 나무허레 가고. 군물왓, 그 우편이 동곳이 었어? 곳, 곳. 이제 조각 공원 헐 디. 동편이 조각공원 헐 디. 그디가 꽃이주, 동곳. 그디 나무 흐레 강, 나무 흐레 낮인 가곡, 밤이는 불미 출려 가지고, 저 밤 이는 불 부찌고.

폐촉폐촉 불이 보이민 도체빋불 낫저 해

불 부찌근에 불미 출령 불미해 가민 불마당에 불을 막 숨을 거 아니? 게민 저 다른 마을에선 불이 폐촉폐촉 허영 불을 보일 거 아니? 게난 송 도체비. 도체빋불 낫저 해, 다른 마을에 사람이. 경해서 송 도체비가 난 거. 게난 이 불미 그저온 하르방이 송씨주게. 송씨 하르방이 그저와 부난에 저 낙천인가 어디서. 경헐 그저와 부난에 경헐 도체비 말이 그 저 외방 사람덜이 저 도체비, 도체비, 도체비 말 나주. 덕수 사람은 도체비 말 안 곶아. 대장간을, 저 거세기 불미흐는 디 저 대장간은, 그 글자상으론 야장이주게. 야장. 야장인디 저 불미왕. 곶갱이 베리는 디. 곶갱이 베리는 디. 알기 쉽게 곶 곶아. 그냥 곶갱이 베리는 집. 누게네 집이 강 거 경 헛주, 우리 흘

때. 솟히는 딴 불마당. 게난 그런 거 옛날 말로 그런 거 어려와. 골
앗자 그런 거 자꾸 곤는 말 아니난 다 잊어 불어.

독을 녹지민 그디 불 부트단 찌끄레기 주어단도 해나고

조각공원에 그 불미 여기서 허여나난 그디 췌 녹이멍 해나민 그
고그스⁶⁹⁾ 해근에 저 허영 저 그 독을, 독을 녹지민 그디 불 부트단
찌끄레기 주어단도 해나고. 코고스, 코크스 그 옛날은 코크스 없어.
게난 막 옛날에 여기 솟, 이제 그 보섭, 벳 홀 때도 그디덤불미라고
행 발로 디디는 불미를 흐면은 그거 옛날엔 솟 귀 가지고, 솟으로
그거 발로 디던 저 불미를 헛쟁 해여. 또 팔월[팔월] 뒤편에 이제
그, 추분 뒤편 그 저 출 비영. 출 비어근에 흐쟁 허민 낮도 베리레
오면은 그런 식으로 허영 베려 드리곡 허영. 그거 베렷자 동네에서
무슨 돈을 경 하영 받거나 뭐 허지도 못허곡, 경행 춤 옛날엔 인정
상으로도 더러 베령도 줘 불곡 막 행 흐난에 출 비쟁 허민 그 호미
가 녹슬아야 일을 하영 허는 때문에 경행 베려 가곡. 경행 행 허단
에 아부지도 돌아가 불고 흐난에 이제 영 뒤으로 구경흐곡 해나난

69) ‘고그스’는 코크스를 말하는 것으로 석탄을 가공해 만든 연료다. 요즘 대장
간에서는 나무로 만든 솟 대신에 화력이 높은 코크스를 사용한다. 제보자는
‘고그스’, ‘코고스’ 등으로 발음했다.

저 나도 저 줌 골쟁이 ㄴ튼 건 거 쉬운 거니까 멘들아 가지고 이녁
이 사용헐려고 거 멘들앙 해엿주게.

덕수는 작지밧이난 골쟁이가 옥아야⁷⁰⁾

경허곡, 덕수는 작지밧이난 골쟁이가 저 땅에 잘 안 들어이. 그
모슬포 강 상 오메. 흐꿈 영 옥은 골쟁이가 덕순 잘 들어이. 덕수 땅
은 겨난게 상 왕 또 두들기주게. 이 뒤칩이 옛날 할망은 상 왕 또로
베려가. 덕수 지경엔(호미를) 흐꿈 오골게 해여이. 이 저 폭는 건 영
벌겨저이. 경해근에 이제 난 저 무신거 흐꿈 영 골쟁이 민적민적허
민 이디 췌물 빈찍빈찍허게 허잖아이. 경허민 하르방 공그스로, 그
칼 ㄴ는 공그스로 영 영 곁아 주민 코제비가 뽕뽕뽕 혈 거 아니?
요만쪽으로 영 오골게. 게난 그 폭는 건 흐꿈 요것이 영 오골게 아
녕 흐꿈 곤짜허게이, 작지밧은 흐꿈 안 들어이. 겨난 덕수 땅은이,
사계쪽은 어떻 아년디 겨난 흐꿈 오골게. 게민 이녁 생각에 아, 뒤편

70) 김옥자 씨 구술. 김옥자 씨(1950년생)는 윤호경 씨의 아내다. 사계리 출신
의 해녀로, 덕수리로 시집온 후 마을의 사정을 잘 알아가며 부녀회 활동은
물론 해마다 민속 재현 행사에 참석해 마을 지키기에 힘쓰고 있다. 윤호경
씨 인터뷰 당시 함께 그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덕수리 불미, 민속 재현 행
사 등에 대한 정보와 윤호경 씨가 채 기억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해 주었다. 다음에서 구술 내용 중 김옥자 씨가 말한 내용에는 각주를
달아 ‘김옥자 씨 구술’이라고 표기하도록 한다.



윤호경 씨의 '굴쟁이'

갯다 허민 다 뉘 거, 경해근에 이젠 이디가 뽕쩍뽕쩍 아녀이. 게민 또 공그스로 영영 편쩍 굴민 굴쟁이 빈쩍빈쩍. (공그스는) 신돌. 신돌에서 흥뽀 훑은 거. 경행 영 굴민 코지가 뽕쩍뽕쩍하게 행 이제 검질뽀 거.

오일시장 가민 다 잇곡 허난 설러 불언

게난 뉘 오일시장 가민 굴쟁이 푼는 것도 잇곡 허난 뉘 사당 해도 뉘주마는 경헛어. 게난 다른 것도 아녀고 그추룩 흥영 허단 그런 거 해 뵈자 뉘 돈도 뉘 것도 안 뉘곡, 것도 흥쟁 허민 업으로 저 대장간도 출리곡 행 해야 흥 거주. 그 거세기 경 아녀난 다 설러 불곡, 게난 그 앞으로 영 나와가난 오일시장 가민 뉘 전부 그런 거 엇질 아녕 다 잇곡 허난. 게난 설러 불언. 거, 경행 설러 불엿주.

숫 어디강 봉가단도 허고⁷¹⁾

나 (시집) 완에 저 ○환이 난 후제, 후제 설러수게. 게난 혼이, 칠 십 뉘 년도고. 혼 거의 저 팔십 년⁷²⁾진 헛. 어머니가 저기 이천육 년, 오 년도에 돌아가시난이 뉘 년 전이⁷³⁾기도 이⁷⁴⁾년 거 허연. 호랭이⁷⁵⁾로. 호랭이로 영 영 흥곡 허난. 다 이시난에. 숫 어디 강산디 숫 강 빌어다근에 요 중간⁷⁶⁾기도 허연. (코크스) 그거 봉가단도 해⁷⁷⁾낫어. 요 중간⁷⁸⁾기도 헛주게. 그것 간 해⁷⁹⁾난 것도 봉가단도 허고. (호랭이는) 저 거 세기. 풍기, 켜⁸⁰⁾만⁸¹⁾헛 거.

저디 서이, 이디 서이 사근에 발로 불르는 거 디뉘불미

(디뉘불미는) 그 저 틀을, 그, 엇날에는 틀을 뉘들앙 ⁸²⁾긔세 이. 불미, 불밧게 헛지? 그 원리나 똑같아. 것도. 발로, 발로 불르는 거. 저쪽으로 서이⁸³⁾썩, 흥 줄에. 저디 서이, 이디 서이 사근에 발로 불르는 거. 흥 착 발로. 이디 불르민 이디 올라오⁸⁴⁾곡, 경허민 이디 불르민 또 이디 올라오⁸⁵⁾곡 그 경허는 거. 육지 연자방아 모양으로 발로 불르는 거 선게. 그런 식으로. 바람은 ⁸⁶⁾긔세 이디 불밧게 모양으로 흥 밧⁸⁷⁾딜로 나올 거. 그디 이디 청⁸⁸⁾탁이 또 부⁸⁹⁾뉘 착, 착, 착, 착 흥게 뉘 잇어. (위⁹⁰⁾는) 더⁹¹⁾꺼져. 막아지⁹²⁾나마나 하여⁹³⁾튼, 하여⁹⁴⁾튼 그 엇날엔 그 ⁹⁵⁾긔세 곧

71) 김옥자 씨 구술.

72) 여기서 '호랭이'는 조그마한 풍기를 말한다.

듯이 웅 하는 식으로 저 잘 막았주게, 이디. 갱행 이디 그, 그것도 이, 이디 청탁불미나 똑ㄱ따, 원리는. 게난 이 가운디 청탁이 가근에 일로 브름이 나올 땐 이 청탁이 이레 부땡 막아정 이레 나오국 영 허게 돼주게.

이디 노민 저디 올라가곡⁷³⁾

사름 상 허는 건 재미나게 허곡 영영 허여 주는 건디, 옛날엔 기자 영 저 상 헛젠 헤라게. 이디 노민 저디 올라가곡. 게난 그 불뭇간 영 저 느네 브름 불민 광광 올라가지 아녀냐? 그거주게, 그거. 영 허민 북허게 올라가고 그거, 영 행 빠이쁘 모양으로 영 길게 돼 있어네이.

망치로 두드리민 독탁불미, 도가니 낱 췌 녹이민 도가닛불미

불뭇케로, 춤 그 골아가난에 독탁불미엔 허는 식으로 헤 가지고 그 저 보섭. (독탁불미는) 그 저 망치로 두드려 노난 독탁불미. 그게 골쟁이 베리쟁 허민 망치질 많이 헤야 헐 거 아니? 망치질 아녀민 골쟁이가 나오질 안허지. 게난 이디서 곧듯이 독탁불미, 독탁불미. 게난 그츄록 옛날 말로 그츄록.

도가닛불민, 이 저 뭇곡, ㄱ세추록 헤근에 이 독을 영 멘들앙 허 영 이만이 노프게 행 허민 그 뭇고. 보섭, 뱃은 아까 곧듯이 좋은 췌

73) 김옥자 씨 구술.



윤호경 씨 아버지가 제작한 '뱃'

로 허잖아. 저 흑 부트민, 소가 무거워근에 아니 허니까 부떠도 탁 탁 넘어가기 좋은 거 흥쟁 허민, 도가닛불미로 행 이디 도가니 영 놔 가지고 췌 녹이민 그 췌물이 돌아나지 못허게 도가니라는 게 있어. 이렇게 헤 가지고, 낱 췌도 이빠이⁷⁴⁾ 놔근에 허영 흥면은, 낱 흥민 그게 이걸로 불뭇케로, 녹여 가지고 보섭도 허고, 뱃도 멘들곡 갱 헛주게.

경허난 이것도 옛날 하르방덜은 우리 흥끔 옥을 때ㄱ지 허여낫 주게. 이 동네에서 게난 그거 흥 때엔 아이덜이영 쫓아가근에 영 뒤에 상 구경은 많이 헛어. 그릇, 도가니. 그건 욱지로 강 사와야 돼. 여기서 멘들지 못해. 욱지로 강. 덕수리 불미는 저 거세기, 도가니 불민 축소웤 거. 거난 보섭, 보섭. 예를 들어근에 저 이거 하나 녹이

74) '이빠이'는 일본어 'いっぱい'에서 온 말로 '가득', '있는 한도를 다하는 모양' 등을 뜻한다.

면은 보섭이 두 개 허곡, 뱃 하나 나오곡, 그거주게.

게난 곳세 독닥불미 말고, 저 거세기 도가닛불미엿 해근에 그 췌 녹여근에 그 보섭 뱃 멘들 댐 (불밋궤) 이걸로 헛주, 이걸로. 혼 사름 이 부는 거라, 이건. 겨난 이 궤가 족아야 브름이 잘 나와근에, 저 췌 녹이쟁 허민 브름 잘 나와야거든. 겨난 혼 사름이 이거 췌 녹여 근에 그 저 거세기 보섭, 뱃을 멘들쟁 허민 이것도 지쳐. 심들어.

불밋궤라고 해서 청탁 부트곡 현 거

옛날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불밋궤⁷⁵⁾라고 해서 궤, 궤짝 닳은 거 영 낱 뭉 허는 거. 갱행 불을, 저 바람을 내야 그, 불 살라근에 그 저 췌 구워근에 허는. 불밋궤, 청탁⁷⁶⁾ 부트곡 현 거. 청탁은 불밋궤 에 영, 이제 이렇게 해가민 이 뭉곡. 브름 내는 그 뽐뽐⁷⁷⁾ 모양으로 허면은 그 저 불밋궤엔 현 게 이렇게 해영 가운데로 바람 나오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밀리민 이 여기서 이레 막아정 청탁으로 이레

-
- 75) '불밋궤'는 손풀무의 한 종류로 불미를 할 때 사용하는 궤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76) '청탁'은 손풀무의 속에서 바람의 통로를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판으로 양철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 77) '뽐뽐'는 압력을 통하여 액체, 기체를 빨아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계인 '펌프(pump)'를 말한다.

막아져근에 바람 일로 나오곡, 뽐기민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저 그 나가. 옛날식으로 흥던 식으로 흥는 데는. 요샌 뭉 풍기 나오고 기계로 햄주마는 그게 엇, 엇어. 그걸로 저, 그 청탁불미로 해 가지고 아부지 흥 때는 그걸로 흥곡. 저 거세기 이제 그 게가난, 조금 뭉 해가난에 이저 풍기 영 손으로 돌려 가지고 그저 뭉 흥는 거 나오난에 그, 그런 걸 안 허곡, 겐 저 아부지 돌아가 불곡 뭉 해도 저 그, 그게 우리 집이 셔낫주게. 싯단 이거 해 봤자 무신 돈도 뤄곡 뭉 흥질 안허난 거 치와 분 거.

불밋궤허곡, 저 모리, 모리엿 해근에 그 큰 췌가 있어야 놉근에 두드려, 경형 허곡. 망치, 집게, 뭉 다 귀긏화야주. 저디 집겐 이제 두 개 남안. 새편척헤실 거라. 모린 저디, 저디 잇긴 잇주마는 요새 쓰지 아녀난에. 저디 큰 모린 저디 잇네. 거 그건 저 누게 빌리렌 헨 빌려 주난에 좇아왔주게. 건 옛날 아부지부떠 흥단 겨난에 좇아완 놉된. 게난 뭉 골동품으로도 뭉 뵤도 흥쟁 허민 흥주마는 그런 거 요샌, 요샌 젊은 사름들 그런 거 알도 못햄서.



윤호경 씨가 '모리'로 사용하던 '쇠뭉치'

영 밀렛당 땡길 때엔 이디 청탁이 막아지곡

(불밋케 부분 명칭) 따로따로 잇인디 뭐 거 자꾸 안 곁아나난 잇어불
언 확 알아지커라? 게난 저 불밋케 영 흐면은 이 케 율이 영 구레⁷⁸⁾
나오곡 이디 영 청탁 부찌곡, 이디 흐면은 거기 그 뭇고. 옛날에 식
으로 허는디 어디 쉼가죽이나 무슨 가죽 해근에 그 저 흐곡, 닥털
긋튼 거 막 꽃아 가지고 흐곡, 초 맥여야 돼. 이 바닥 이 케 안네. 영
흐쟁 허민 가벼워야 오래 허지. 초 맥이곡, 독 터럭 꽃으곡 해근에.

이것이 이츄록 이디 허민 뭇고, 저 거세기 이 브름 내우쟁 허민
이디 이렇게 해영 이 닥털을 이거 다 꽃곡. 공기, 공기 짹, 빠져나가
지 아녀게. 뽀뽀, 뽀뽀 식으로. 경 흐쟁 허민 영허곡, 이디 이런 식
으로 앞뒤로 고망이거든. 일로 잡아댕길 땐 일로 브름이 들어와야,
브름 해영 영 밀리쟁 허민 밀리민 이디 이거 더꺼정 청탁이가. 더
꺼저근에 율로 구멍 내우면은 일로 브름이 나오거든, 일로 땡기민.
땡길 땐 또 이거 영 밀렛당 땡길 때엔 이디 청탁이 막아지곡, 일로
브름 나오곡. 경해서 이 불밋케 그런 식으로 멘든 거. 게난 이거 가
운딜로 터 가지고 바람이 가운데로 와. 게난 청탁이 이디, 이디 청
탁이 부떠 잇주게. 겨난 청탁이 이거 시 밧디 부뜨는 거. 양철 긋튼
걸로. (들러젓당 닫아젓당) 그런 거. 그런 원리주게. 그거 소리 착착, 양
철 소리 나. 이거 흘 때.

78) '구레'는 풀무에서 화덕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 혹은 통로라고 했다.

쉐가죽 씌운 바위에 닥털 부찌고 낭엔 초 맥영

(안에) 딱 막아져야지. 합판 정도
흐면은 이디가 저 너미 얇아 불민
바람이 새어. (왓다 갓다) 경해야 바
람 날 거. (청탁은) 하나, 이디, 가운
디, 가운데 하나. 게난 세 개. 구멍만
이디 내고, 이디 해영. 이렇게 구레
가 나무로 멘들앙 부찌. 가운데로
다 나갈 거, 바람은. 게난 저레 밀려
근에 바람 일로 썩 나올 때 청탁이
일로 더꺼정 이레 못 하게 막는 거,
청탁은. 바람을 막는 거. 경헨 저 이
레 박 잡아댕길 땐 바람이 이레 나
오민, 또 이디 청탁이 이레 또 부땡 바람 막아. 겨난 하나로 이 저
뚝데레 뚝데레 바람이 들어와야 뿔 거주게. 경 안허민 저 바람을
일어날 수가 없잖아.



윤호경 씨가 '청탁불미'를 설명하는 모습

(케는) 낭으로. 뭐, 상관은 엇을 테주. 켄디 나무, 이거 흐는 딴 나
무가 좋은 나무라야 돼. 나무로 영 틀을 멘들앙. 이거 흐쟁 허민 이
디 가운데로 이 구멍 뚫버 가지고 이 자루가 잇어얄 거 아니? 일로
나오게, 경 허게 멘들쟁 허민 이거 그 뽀뽀 식으로 흐쟁 허민 어디
가죽, 쉼가죽이나 뭐 무슨 저. 나무로 틀 멘들아 놓곡 가죽으로 이

렇게 썩와야 바람 나게 좋게, 게난 초 맥이곡, 맥이곡, 읊이도 다 맥이곡. 뚜껑 더끄곡 갱 허근에 이, 저 뽕뽕 식으로 이거 멘든 거.

(닭털은) 이디, 이디. 가운데, 가운데. 췌가죽 현 우에, 닭털. 바위, 바위. 밑에도 다 꺾타야주. 사방이 이딘 뚝허민 영 두껍을 더퍼야 돼. 경 흥쟁 허민 그 닭털 부찌곡 가죽으로 흥 딴 저 사방 다 돌아가 명. 게난 이디 저 초 맥이는 건, 이 스방에 다 초 맥이는 건 이것이 가벼워야 한 사름이 흥쟁 허민 오래주게.

앗앙 흥젠 허민 납작허게 방석 깔앙

(화덕은) 독 멘들아야주게. 흑으로 해영 영, 츠레론 영 벽돌헤근에 영 화덕을 저 멘들아근에 바람 저디서 영 영 허민 바람 들어왕 여기서 불 살랑 췌를 익여야, 익여야 거 뭇이, 물건이 나오난에. 그 어디 육지 꺾트민 솟 상 흥주마는 옛날엔 여기서 솟 귀근에 그 나무로 허여 노난에, 솟도 귀근에 허민 췌가 익어? 우리는 그거 이따근에 흥번 흥는 거난 소규모주게, 받침대 놔야. 높이는 츠레로 흥쟁 허민 그거 사근에 집게질헐 만이 이만은 높아야주. 더 높아야, 상 흥쟁 허민. 게난 앗앙 흥쟁 허민 납작허게 헤근에 저 방석 깔앙 앗아근에 허곡.

(화덕은) 그건 이녁 냥으로. 저 바닥에. 저 무신거 흥꿈만 행 설러 불 건게, 영 땅 과근에 이레 영 브름 들어가게 헤여근에 흥곡, 영 앗아근에 흥 걸로 허영 방석 깔앙 앗앙. 경헤근에 허곡. (넓이는) 다라

만이 (높이는) 흥꿈, 흥꿈 높아야주게. 저 나무들 하영 농쟁 허민.

바람은, 바람은 이 철근 닳은 거 영 허여근에, 밑에 영 놔 이딜로 브름이 올라와야. 구멍 뚫라져. 이 우이서부터 솟을 나무, 높이는 많이 놔야. 게난 나무가 저 카야게 뚫 거. 그건 저디 큰 불미흥는 거나 뚝가따. 안으로나 바깥딜로나 흥 불르지 아녀민 브름 나가 불곡 불쩍 나가 불영.

영 동골락허게 돌 다근에 흑질허여⁷⁹⁾

(화덕을) 우리 경우엔이 돌, 헤끄만 현 거이 영 동골락허게 다주게이. 다근에 그 베끼딜로 흑질헤여, 안으로. 돌 동골락허게 돌 다근에 이 안으로 영 흑질헤영. 경헤영 이디 솟 놔근에 영 고망 뚫황 그디 브름허는 거이, 부건 헛저게. 우리 저 냥 아래서 헤낫저게. 솟 놀 때는 노프게 아녕 흥꿈만 허곡, 냥은 높이 놔야 냥이 하영 들어가. 냥이 하야 솟이 할 거난. 또로 솟 말앙 뚝 솟 닳은 거. 그건 뚝로 흥끄만 헤도 돼고. 게난 그거에 따라 그거 저거 허는 거. 냥은 냥을 굽젠 허민 그거 아궁이가.

브름 구레에 흑 불란에 새끼로 감아난

그 구레. 그 브름 구레영 헤근에. 그 길게. 바람 나가는 디 빠이쁘

79) 김옥자 씨 구술.

모냥으로 헌 거. 브름 구레엥 헌다게. 옛날은 그 저 나무로 영 허연에
흑 불란에 새끼로 감아난 거 다텐, 새끼로 흑 불랑. 옛날엔게, 그 저 영
아부지가 곤는 말이 경헝 새끼로 영 감양 흑 털어지지 못허게 경 헝
근에 저 헝난 거 다텐, 바람이난. 빠이쁘 모냥으로, 빠이쁘. 브름 구레.

빠이쁘, 굵은 빠이쁘. 이젠 좋은 것들 막 나오네. 그 풍로에 탁 부
찌민 뭐 기계로 돌리난 뭐 팡팡 댕주. 뽐, 뽐 내운 게 아니고 옛날엔
경헝에 불미를 헌 거. 게난 그 저 다른 게 아니고 경헝에 쉼을 녹영
그 물건을 멘들젠 허난 하르방네가 오죽 힘들어시크냐? 게난 그것
이 계속 헝난에 경험으로 그 저 물건을 멘들앙 푸는 거주.

모리도 이츠평 헌 쉼뭉텅이 ㄴ저다 뵈헝주게

(모리는) 쉼, 쉼뭉치. 모양은 그거 쉼뭉치난에 우리 이제 그 저 어
디. 철공소 허젠 허민 이젠 이런 거 나오난 사당 험주마는 옛날엔
이 우이 엇어근에 이츠평 헌 쉼뭉텅이. 쉼뭉텅이 ㄴ저다 뵈헝주
게. 게난 옛날도 다 이 저, 원처 업으로 허는 사름은 다 이런 거 다
구입헝단 허곡, 이 경 아녕 임시 헝당 치와 불 사름은 이 저, 이런
쉼뭉치 그런 거 저 들러다근에 ㄴ저난. 다른 게 아니고, 거난 아부
지가 허어나난 그거 등 뒤에서 구경헝나난 이런 거 알암주. 경 아
녀민 알 수가 엇주게.

(모리 밑에) 낭으로 받청도 허곡, 경 다 이녀 손에 맞게 헤야주게, 신
체에 맞게. 경 아녀민 그건 망치질허곡, 메질허곡 ㄴ는 거난에 그것

도 춤 이상헌 말로 위험헌 일이주게, 일이. 경허난에, 멍심헝 홀 거난
딱 맞게 헤사. 모든 게. (모리는) 보수, 보수헝 게 아니곡, 그거 멜라지
게 허여저? 파져도 그것 다 발류멍 다 허여. 탁탁 두드려 가민 경 패
이곡 뭐 허질 안허여. 게난 요새 나온 것덜은 그 멜라지지 안허여. 옛
날에도 뭐, 헝다근에 멜라지민 뭐 드리싸 뵈 다시 봉가당 허곡.

망치도 쇠곡 메도 쇠곡 다 귀긏춰야 뵈

망치도 여라 개 잇어야. 망친 뭐 하나 두 개로도 허엇주마는 뭐
크게 ㄴ질 안허난. 메도 쇠곡 다 귀긏춰야 뵈. 메 ㄴ민 큰 쉼 영 늘
류곡, 큰 쉼 홀 땀 땀 사름이 메질허곡, 집게잡인 또 집게만 잡곡,
경헝근에 ㄴ는 거. 게난 그거 메질도, 메질 ㄴ는 사름도 익숙어야 허



윤호경 씨가 사용하던 '망치'와 '집게'

주, 아무렇게나 두드려 태작해도 안 돼. 겨난 그건 다 철 공장 일하
젠 허민 메질허는 사름 트나곡, 집게젍인, 집게젍이 트나곡 다 트
나는 거. 겨난 흘 가지베끼 못허주게. 두 가지 헤져? 메질, 메질힐
때는 큰 마개로 쓰는 거. 나 혼자만 흘 때 큰 마개 써야주. 저 족은
마개론 썬가 늘어나질 아녀. 아멩 잘 귀워저도.

(집게) 우린, 난 멧 개 아년디 원처 그 업으로 허는 사름은 집게도
뭇 수정 엇이 헤야주게. 게난 큰 썬 힐 땐 집게도 입 큰 거, 족은 거
힐 땐 족은 입 작은 거, 게영 허곡, 저 여러 가지주게. 게난 족은 것
만 멘드는 게 아니고 큰 썬도 흥쟁 허민 집게도 큰 거 헤야 뉘고.

ㄱ뽕 기술로 해도 야끼가 잘 탈 때 잇곡, 안 탈 때 이신 모양이라
썬 야끼⁸⁰⁾ 놓는 거. 야끼 놓는 건 그게 기술이라. 그게 아버지가
근는 거 영 들영 보민 이 뉘고. 우리나라 봄, 가을 영 사계절 시난에
겨울철, 여름철 그 야끼 노는 것도 그때가 ㄱ뽕 기술로 해도 야끼
가 잘 탈 때 잇곡, 안 탈 때 이신 모양이라. 것도 기후 탓인 모양이
라. 그 야끼 노는 것도. 겨울, 춤 겨울(이 좋아). 모든 게, 그거 흥는 것
도 기후 차이가 좀 이신 것 닮아게. 온도. 탁 뉘 허여근에 허면은 경
행 허는 것 닮아. 겨난 그 우린 솔직히 말헤근에 등 뒤로 구경헿 흥

80) '야끼'는 일본어 '야키'에서 온 말로 '(날붙이의) 불림, 담금질'을 뜻한다.



윤호경 씨의 '담금질' 시연

곡 허난 우린 초보생이고, 아버지는 일본 간 그 군수 공장이나 다
름엇이 그 군납허는 디 공장에서 일헤나난.

해양허게 허면 강헤근에 잘못 허당 놀도 톤아지곡

(야끼 놓는 건) 칙허민 이 막 강허민 해양헤여, 그 저 썬가. 그다음
은 흥뽕 노리스롱허곡, 그 다음은 꺼멍헤근에 허는디 그걸 맞추는
게 기술이라. 이 그 독닥불미엔 그게 기술이라. 다른 거 멘드는 거
보단도 그걸 잘헤야 맞게 헤야 이 호미, 낫 ㄱ뽕 건 이 날이 오래 가

곡, 저 몰아지지 아녀근에 저 출 ㄴ쁜 거 비어도 오래 가곡 저 허는 거. 헤양허게 허면 강해근에 그 잘못 허당 놀도 툇아지곡 헤. 칼ㄴ 짜 저 그차지게 허쟁 허민 강해야지게. 아, 이딘 저, 강허지 안헤도 이 놀은 강헤여. 게난 그게 기술이난에 이거 전부 다 강헤 불민 골쟁이 박 줍아텡기민 딱 꺼꺼져 불겅? 게문 안 돼. 겨난 그게 기술인 모양. 게난, 골쟁이 멘들아도 그 영흔 디 얼마 독지게 안헤영 구부령 허민 납작허게 멘들곡 허난에 그겅.

경허여근에 허난, 이거 야끼 놓는 것도 코쟁이 쪽더렘 강허게 헤야 돼곡, 영 허여근에 놀 ㄴ쁜 딴 허곡, 저 이 뒤엔 그 윈 췌로 그대를 내불어야 돼주게. 경 안 행 골쟁이도 돌이나 걸리곡, 박박 줍아텡기민 강허민 다 거꺼져 불영 겹질 못 메. (집게를 잡으면) 땡겨. 쪽 땡겨. 이겅 영 영 헤근에 맞춰야. 흔 번에, 이젠 흔 번에 영 허영 안 돼. 영 영 보멍 몇 번 헤야. 게난 그, 그것이 기술이라. 흔 번에 돼느냐, 멧 번 헤야 돼느냐. 잘 멘들어야. 게난 그 물건을 잘 멘들아 봐도 이것이 실패허믄 거꺼절 부나, 놀 타져 부나 헤민 안 되는 거.

독닥불미 헤근에 물 맞추는 게 기술

기름으로 허는 건, 그 업으로 허는 사름덜은 그 저 기름으로 허주게. 게난 그 맞추는 게 기름으로 헤야 저 더, 저 좋아. 종고, 저 거세기 계속 기름으로만 허민 그 맞춤이, 저 강약을 맞춤이 쉽게 맞춰 가지. 거세기 돌챙이 연장도, 저 뿔고. 물에 동가, 물에 동가근에

그 허는디 그, 그것도 야끼를 잘 놓지 아녀민 저 야깁 잘 놓지 아녀민 거꺼져 불든지, 물러근에 재게 망가지던지 허여. 그것도 기술이, 게난 야끼 놓는 게 아무것도 다 기술이. 게난 그 저 돌챙이 연장도 저 기름에 동그지 아녕 이디서 저 거세기 이녁 베려근에 홀 때는 다 물에, 물에. 기름 출려근에 허지 안헤영.

게난 독닥불미 헤근에 이 물 맞추는 게 기술인 따문, 아니 헤나민 재주가 없어. 자꾸 자꾸 헤근에 경험으로 알아, 이것도. 견디 아니 허영 허어나민 야끼 놓지 못헤여근에 안 되는 거. 게난 이 자꾸 허는 사름은 그 경험으로 다 알주게. 이 기술이 생겨낭. 견디 물건은 영 잘 안 헤낭 허끔 헤가민 잘 멘들앗자 야깁 잘 봐야 돼. 이 모든 게. (야끼) 거, 일본말 님아. 야끼엔 현 게. 저 담금질허는 거. 담금질허는 게 야끼주. 담금질, 담금질, 췌를 담그는.

철공장에 기술잔 집게잡이, 메질허는 사름은 메질만 허곡

게난 그 베리레 온 사름. 그 사름이 이것 ㄴ라 이거 허렌 행, 불 꺼지민 못헐 겨난. 메질허는 사름, 크게 허쟁 허민. 집게 허민, 집게잡이에 메질허는 사름은 싯곡, 그 바람 내우곡 뭐 허는 건 기계로 허난에 저 최소한도 둘은 셔야주게. 경헤사 허주. 혼자만은. 요샌 다 기계로, 메도 기계로 허난 발로 불르민 다르르륵 허난에 혼자만도 돼는디 그때엔 경 혼자만 못 헐다게, 셔야주게. 옛날엔 그 사름이 다 메질이나 모든 게 사름이 허난, 으라이 셔야주. 저 거세기 집게



‘집게’ 사용법을 설명하는 윤호경 씨

도 철공장엔 집게덜도 호랭이주. 게난 철공장에 기술잔 집게쩍이가 기술자, 메질허는 사름은 거 메질만 허곡, 집게쩍이가.

불이 와랑와랑헤야저 췌 익을 거 아니

(베리는 것 차례차례) 뭐 어떻 이거 촌이난에 일허당이라도 와사주게, 헤 달랭 허민. 와근에, 불부떠. 이제 문 업적으로 안허난 문 분해시겨근에 독이영 풍기영 다 앓앗당 거 문 조립허곡 게 불 살라근에게 만들어 줘야주게. 췌 익으민, 어떻 허여 불 도리가. 게난 예를 들어근에 나무 잔잔헌 거 조각 놔근에 불 살라놔야지. 경행 불이 와랑와랑 헤야 그 저 뭐 큰 나무덜 부쩌근에 흐쟁 허민, 그 나무가

저 카근에 숯 모양으로 헤야 췌 익주게. 게난 그 불을 살라근에 오래 허여근에 흐쟁 허민 확허지 못헤. 췌가 익어야 물건이 나오난에. 게난 그 불 살르는 것도 그 저 거세기 오래여, 오래여, 저 흐쟁 허민. 게난 그 보리, 이제 그, 나무 잔잔헌 거 헤영 불 부쩌근에 흐민은 큰 나무가 부떠야, 부떠근에 그 숯 모양으로 불이 와랑와랑헤야저 췌 익을 거 아니? 쟁행 혼 시간 돼민 혼다게. 그 저 췌가 영 굵곡 저 큰 췌는 허여도 저 거세기, 작은 췌 굴쟁이 흐민 이추룩 게벼운 건 뭐 불 와랑와랑허민 잘 돼. 겨난 그, 그추룩 흐쟁 허민 이 똑이 흐끔 커야 돼. 똑 커야 나무 많이 진어. 카가명 흐젠 허민. 경헤근에 나무로만 흘 때 숯 그런 것 땔 때는 족아도 돼는디 저, 족으민 췌가 익지를 아녀.

화덕이나 똑이나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똑, 똑헤사 저 거세기, 불 그 와랑와랑허게 헤사게 췌가 익어근에 어떻 땔 멘드나 땔 흘 거주게. 경헤근에 흐영 저 멘들아 줘 불민, 저 가근에 씨 봐근에 뭐 좋으민 다시 올 거. 베리는 건, 베리는 건 두드려야게. 물에 들어갈 때는 다 멘들앙 저 곳흘 때 들어가는 거. (호미 만드는 쇠는) 이게 여긴 철근덜 많이 나오잖아. 철근도 영 민작헌 철근도 나오곡 흐난에 민작헌 것도 땨곡 뭐 철근도 두 가지. 강철 잇곡, 물렁물렁헌 거 잇곡 허난. 강철로 행.

집게로 웬착해영 췌가 잇이민 이걸 두드리는 거⁸¹⁾

나가 설명해 주저. 영 허민이, 영 허민 이거 화덕 아니가이? 완전 이거 귀시네이. 게난 집게로이, 이걸 웬착해영 집게로 췌가 잇어이, 그냥 이걸 두드리는 거. 딱로 두루 멘들아지민 딱로 헤여근에 또 멘들고, 또 허영 또 멘들곡 허영 행 침 이녀 생각에 뒤편은 그땐 이제 저 췌 물에이 물에 등강 이젠 완료뒤편이 이젠 요만인 즈룩이, 막때기, 게 헤근에 췌 불 구워근에 그 즈룩더레 영 끼와. 나도 뒤에 서 봤저게. 게난 이거 헤근에 왕 두루 헤지민 멧 번 귀야지. 딱딱 두드려근에 이녀 생각에 안 뒤편 또 영행 두드리곡 두드리곡 허영 이녀 생각에 뒤편 이젠 물에 킹이 췌 식여이, 경허민 이젠 즈룩 영 불 케왕 낭 즈룩 헤진 거에 고망더레 찢러근에 허민, 다 뒤편 거. 나도 영행 이제 영 불 살파난에, 난 것도 불어났주게. 불렌 허민 나도 불어났어. 어디 실 거라. 엇인가? 동글락허면서요디 영 브름 나오는 거 허곡 이디 영 영 영 영. 와근에 이녀 헐 때 그땐 흐뭇 나도 영 돌려났주. 나도 온 후제 허는 거 보난.

불이 떠근에 골쟁이도 멧 개 만들지 못해

(하루에 골쟁이) 그건 저 뭐 불도 좋곡 모든 거 해야 저 흐는다. 그 ㅁ저오곡 무신거 흘 때는 멧 개 만들지 못해, 불이 떠근에. 저 거세

81) 김옥자 씨 구술.

기 그 췌가 재게 익질 안허여. 솥으로 해야 자게 익어근에 딱딱딱 헤근에 만들민 하영 만들주마는. 게 업으로 저 철공장 헤근에 골쟁이 멘들곡 낫, 그 호미 멘드는 딴 많이 멘들아. 골쟁이 멧 개 멘들지 못허여.

게난 골쟁이도, 큰 골쟁이, 작은 골쟁이, 골쟁이도 차이가 잇주게. 게난 이 독닥불민 췌를 잘 익어근에 헤사 허는디 낭으로 허는 게 췌 익지 아년다게. 게난, 옛날 하르방덜은 골쟁이가 이만은 허게 길게 흐곡, 췌도 독진 걸로 흐곡, 이 우리 마을엔 저 거세기, 작, 자갈빚이 많으난에 골쟁이 약허민 저 검질 못 메. 게난 그츠록 멘들쟁 허민 얼메 멧 개 멘들지 못헌다게. 그 경헐 멧 개 하영 멘들지 못해도 그 어떻 어떻 멘들앙. 게난 이디선 골쟁이 흐곡, 저 호미. 그 출 빌 땐. 게난 그 말제사 성게덜 잡기 시작해 가난 그 골쟁이가 나 완에 헛주.

오월 장마 스시 뒤편가민 그때가 바쁘고

바쁘, 바쁘 때? 그 호미, 골쟁이 흘 땐 여름 검질메쟁 허민 봄이. 오월 장마 스시 뒤편가민게 옛날엔 그때 뒤편야 검질멜 거 아니? 그때가 바쁘고, 이젠 뭐, 스시절 다 바쁘난에, 이젠 가남 못 허주. 옛날엔 그때 출 비기 전이. 요 메칠만 추분 넘으민 추분 스시에 출 비주게, 아무 디도. 게난 그 전이 저 전이 다. 호미, 호미 엇이민 사오던지 뭐, 베리던지 해야주. 옛날엔 사오는 거보단도 베런 쓰곡 허

난. 계난 그 뭐 어디 집 짓어근에 업으로 허지 안허는 거난. 마당 ㄴ
 뜬 디서 흐난에 비 와 불민 흐지 못허주게.

마에 거자 불미일 헛주⁸²⁾

나 온 후젠 거의 마에 하영 헛주, 마에. 이추룩 바쁘지 아녀난, 마
 엔 흐끔 한결허지 안허느냐? 야, 누게 느 뭐 헤 도라 허민 “저 비 온
 다음 개거들랑 ㄴ정 읍서.” 행, 슷게이. 비 오당 개건 ㄴ정 읍서 행,
 마에 거자 허곡.

성게 굴쟁이 엇고 바당에도 밧디 걸로⁸³⁾

(굴쟁이를) 크게 멘들아 도렌 허는 사름도 잇어. 아이, 옛날엔게 아
 이덜토 검질메지 안헤샤게. 우리 혈 때가게, 무시거 서너 개씩게 현
 거주. 무신 경 업으로 멘들앙 허지 안허난게. 나 저 거세기 마농 검
 질 메는 거. 그런 거 헤낫저. 그건 쉽지. 저 바당에 저 성게 잡는 거.
 그 굴쟁이 해당 난 아방이 영 헤 쫓어이. 나 베와 주크라. 영 폐 준
 거이. 이제 마농 검질 멘다게. 여라, 나 거 베와 주마. 그거이 모슬
 포 강 사당, 사당 나 메기 좋게 이 아방이 폐와 줘. (성게 하는 것은) 흐
 끔 오글아이. 건디 이제 굳짜게 검질메기 좋게. 이 봐이, 이췌 굴쟁

82) 김옥자 씨 구술.

83) 김옥자 씨 구술.



김옥자 씨가 사용하던 ‘굴쟁이’

이는 흐끔 썸 넓지 아네샤이. 너브난 그 고망을 검
 질메 가면 비니루가 너미 터져이, 계난 그 바당엿
 굴쟁이 해당 그디만 쪽 허메. 고망으로 영 검질만
 꺼내게이. 비니루 안 썸운 딴 그거 흐민 큰 굴쟁이
 로 허고, 이제 비니루 영 썸울 거 아이가이? 거른
 검질이 뽕허게 나와이. 경허민 다른 건 썸 너버 부
 난. 계난 이건 만약 요디 굴쟁이, 요디 비닐 썸운
 고망으로 요 마농, 그 굴쟁이로 영허민 나와. 겨난

이제 저거 뚫은 건 몰라. 셋아덜, 아덜이 저 농협 저 기계 고치는 아
 이난 가이 빌언사 멘들아 와져신지 아방 빌언 멘들아신지. 이거 사
 오민 쭈쭈허게만 멘들민 뛴는 거난 건 나도 헤진다게. 영 흐끔 영 오
 근거 영 폐움만 허고. 그 성게 굴쟁이도이, 중간에야 사계도 나왔주
 이. 옛날 우리 배울 때는 그자 빗창만 헛주. 그 굴쟁이 안 나와낫어.
 밧디 거 들렁도 갖지. 가도이 경 굴쟁이 막 숙테기명 안 헤낫주게.

미역 빌 때는 이디 출 비는 호미 9정 간⁸⁴⁾

(낫은) 그때는 ㄴ따난. 이젠 흐끔 족게 험지? 그때 우리 엇이난.

84) 김옥자 씨 구술.

그 우린 미역만 허난, 그때는 미역 빌 때는 이디 출 비는 호미 으정 간. 중간엔이 호뽀م 죽게 헤여근에 이디 호뽀م 영 데실데실 즈룩 호뽀م 데실데실, 죽게 헤낫저, 중간에. 경헛주. 중간엔 호뽀م 죽게 멘들 안. 게 미역만 헐 때 거난게. 미역허고 몹. 이젠 엇텐 헤라마는. 톳 비는 건 이제도 맞디 허는 톳으로, 저 호미로 험고, 이제도. 나도 요 멧 년 전이ㄱ지 간 대력 어멍 대신 헤신디. 어무니 대신. 저 무신거 성제섬 ㄱ쁜 딴 밧을, 저 돌을 밧질 못허메, 나이 드난. 거난 대신 가근에.

호 번 알 구민 호 오백 개 이상을 허고

덕수 것은 그 알을 흐는디 이제 보섭 텡이가 백 개민, 예를 들영 백 개민 이거 그 알을 멧 번 헤 가지고, 오백 개민 오백 겔 멘들앙 이 알 굽는디 이렇게 알을 가끄곡 전부 헤여근에, 이 영 헤영 알 굽는디 그거 이 보섭 텡이에 맞게 딱, 번흔 부찌지 아녀도 딱 츠레로 이렇게 세와 가지고, 이 쪽쪽 세와 가지고. 이디 이 장작이나 무신 그 가는 나무로 이 딱 놔 가지고 알 세우곡, 또 나무 놓곡 헤 가지고. 경헤 가지고 이 알을 굽는데 읍으론 영 돌 놔 가지고 다 거세기 흑으로 다 막아근에 그 불짐이 바깳딜로 나가민 안 웰 거난 딱 막 아근에 경 알 구민 호 번 아니 흐는디. 호 오백 개 이상을 헤야 그 일꾼덜토 보섭으로 일당 벌곡. 경허곡 그 불미 출린 그 대장은 나 머지가 츠지허는디 경헛근에 헛주게.

거난 이거 헛 구민, 이 맨 우게는 찢, 찢 더꺼 가지고 불을 부찌. 경헛 밤이, 것도 밤이 불 부찌내근에 허영, 거 이제 내일은 기계 돌 령 불 헤여근에 저 췌물 녹영 호쟁 허민 이건 미룻 출령 밤이 불 부 찢 이건, 이건 식어야 운반헤근에 흘 거난에 식지 안허민 더운디 허지 못허주. 경헤근에 흐난 뒷날은 식으민 그거 헤여근에, 그 뒷 날 불리곡 뭐 헤여근에 흐는 거난에, 이것도 그 보섭 불미 영 무신 거 저 호쟁 허민 진짜로 복잡헌 거, 것도.

좋은 췌로 현 건 폴아도 돈을 더 받거든

이제 예를 들어근에 폴아도 돈을 더 받거든, 돈을 더 받아. 게난 큰 불미헐 때도 그 벳 멘들앙 나오주마는 나을 때는 거기도 그 이 모노 ㄱ쁜 거 좋은 췌만 올릴 때는 그때 물을 뽑은 것으로 벳 ㄱ쁜 거 멘들아. 게난 그 옛날 하르방덜이 다 경험으로 딱 딱 헤영 독대 장이, 독대장이 딱 올릴 땐 어떤 췌 올리라 딱 행, 딱 헐 때 뽑아내 민 벳 ㄱ쁜 거, 좋은 거 헐 때는 경헛 멘들아. 경 벳 멘들당 췌물 남 으민 보섭더레 영 흐면은 그때 보섭 그 췌 안 하르방덜은 그 좋은 보섭으로 뽑아 와. 췌 좋은 거, 일당.

불마당에 췌 좇언에 밧 산 사름도 잇고

어려 부난 하영 텡기지 (얹고). 이디 개인적으로 저 불마당 헤연 에 저 흘 땐 그땐 어린 때주마는 많이 구경갓주게. 그디 일흐지 안

해도 바꿨다 사근에 구경할 순 있어. 게난 어떻게는 거 영 가근에 보고. 그때엔 저 옛날에, 불마당에 그 췌 줏언에, 그 췌 줏은 거 불마당에 또 풀아근에 밧 산 사름도 있고, 경허곡. 그건 어떤 췌냐 하면은 이 췌물 주당 보민 흘리잖아. 흘리민 알르레 이 털어진 거. 그 거 식으민 그걸 줏어. 그 췌를, 그 일 아녀, 그디 일 안 허는 사름이 줍는 거 건. 일허곡, 그거 줏으민 안 돼주게, 못헤여. 게난 이것을 흘린 거 줏어근에 얼마 허민 옛날엔 영 저울로 저울여근에 거 얼마 헤영 돈 액수 계산헌 것 닐아. 경행 그거 풀아근에 저 밧도 사곡. 게난 그 불미힐 때는 사름이 잇는 대름 다 필요허거든, 게난 다 수작 업이난에. 게난 요새 ㄴ찌 뭐 기계로 힐 때도 아니고 헤 노난에.

경헤곡, 저 보섭도 헤영 텡이영 허민 췌ㄴ만헌 밧 ㄴ쁜 건 보섭 줍근에 밧허고 바꾸곡. 우린 경 안 헛주만, 우리 아버지가 그때엔 경헛젠. 그 옛날에도 이 불미허여근에 부제헛 건 원대장, 불미 흘려근에 흔 사름이 밧 샅지, 일꾼덜은 밧 못 사. 이 밥 먹기가 바쁜디 뭐.

췌물이 뜨민 구멍나게 돼 잇어

우리도 저 허여근에 이디서 불미힐 때 구경허민 저, 육지 가근에 저 솟도, 그뻔 고그스 헤다근에 힐 때난 솟도 사오곡, 췌도 구입헤 와야 돼. 아무 췌나 안 돼. 경 췌 녹이지 못헛, 요샌 제철소 시난 제철소에 녹이는 췌는 안 돼곡, 제철소에서 쉽게 녹이는 거. 이모노, 그런 췌를 구입헤 와야 그 물건이 잘 나오지, 저 이디선 그거 그때

흔번 헤근에 불 꺼근에 흥곡 흥는 딴 그 제철소에서 녹이는 췌로 으저 오민 물건이 안 나와. 녹이지 못헤여, 췌물을. 게난 췌물이 뜨민 구멍난 게 많이 나와 안 돼. 췌물이 뜨민 구멍나게 돼 잇어. 췌물 저, 느린 게 아니고. 췌가 잘 녹질 아녀. 녹질 안헌 거. “췌물 떠.” 허민 그거 췌물을 잘 녹이질 못헌 거. 경헤근에 췌물을 잘 녹은 건 그 이모노 흥민 어디 영 흥다근에 이 알르레 털어지민 튀어근에 옷이 구멍 나 불어야 그제 잘 녹은 물. 게난 그처럼 헤, 다른 거 아니.

췌물 잘 녹이지 못허민 간전이 나와

게난 이디도 허여근에 흥민 췌물 잘 녹이지 못허민 저 간전이, 간전이 나와. 간전인 구멍난 솟은 간전이 솟. 보섭도 구멍난 그 간전이 흔 건 상품이 안 뵈 거. 이 미짱 ㄴ트민 파치, 구멍 나난. (간전이말) 그거 아니. 달라. 게난 밀방에. 밀방에 저 흥는 디 밀방에에도 옛날 하르방덜 곤는 말 이디 이제 민속 무슨거 허난, 밀방에도 여 틀거리여, 무슨 그디 굴퓏이여, 무슨거 옛날 하르방덜 곤는 말덜. 몰라. 우리도 그때 들엇주마는 잇어불영 몰라.



〈덕수리 마을회〉 소장 ‘솟’

숫허곡 보섭 홀 때 확 멘들앙 자루만 낭으로 박으민 서들개

옛날 하르방덜은 서들개, 망치. 서들개 저디 숫불미 흐명 영 모 살에 갓다가 영 망치 모양으로 해근에 저 췌물 비와 낱 요레 영 나무 꼭허게 행 구멍 내울 걸로, 꼭 찢렁 이레 췌물 비와 낱두민 그개 서들개. 서들개 흐민 그거 요새 저디 강 들어봐. 서들개가 뭇이라? 허영 들어봐. 알 사름 드물 거라.

(망치와 서들개는) 뭐가 틀린 게 아니고 그거 저 일반 망치나 마찬가지로. 거난 옛날 하르방덜이 그거 그 망치가, 서들개가 망치주. 요딘 영 판뜯허곡, 이레 영 와가민 흐끔 영 저 칼 모양으로 저 쪼작해. 가운데 영 자루로 헐 디 고망. 그런 식으로 멘든 거. 조록도개, 망치만이 허고. 게난 그 저, 숫이나 이, 보섭이나 흐민 그 췌물 췌 허난에 이레도 나가곡 저레도 나가곡 허민 대강 흐끔 영 딱딱 두드려근

에 영 다듬아야주게, 모양을. 경허젠 허민 서들개로 딱딱 헛주, 옛날에. 그 전인 그 예를 들영 이 췌물 쥐근에 멘들앗주마는 이게 쉽주게. 그 정철로 철공장에 강 멘들쟁 허민 저 어려우난 이 불미허영 숫허곡 보섭 홀 땀 이디서 확 멘들앙 자루만 낭으로 박으민 서들개, 망치가 뽕 거. 경허난 멘들기 쉽주게, 췌물만 녹이민.



윤호경 씨의 '서들개'

(서들개는) 벌러, 벌러질 수도 있어. 게난 그 저 벌러질 수 셔도, 보섭 그튼 건 똑똑똑 흐는 건 벌러지질 안허주게. 게난 영해근에 이디 ㄱ똥허게 허여. 그런 식으로 멘들아. 게난 그 저 미신거 나무로 틀을 멘들앙. 나무로 틀을 멘들앙 그 보섭이나 그 불미홀 때엔 그 보섭은 저 모래로 알 박거든, 틀을. 틀레레 알 박앙 저 흐난에 그거 어디 영 모드레기 모양 놔뒀다근에. 그런 서들개 멘들 때에 그레 틀 놔근에 영 췌물 비우민 나올 거 아니? 모살광 틀 헤사게 그 망치 뿐이 나올 거 아니? 게난 영 모살더레 영 헤영, 쉽게. 게난 그 불미홀 때 그 보섭 땡이여 무슨거 허곡 다 허여근에 허민 게난 요새 우리 저디 저, 뭇고 숫 굽는 마을 헤영 그 간판 부짱근에 저 것도 저거 잘 아는 사람덜 허난산디 저것도 엉터리로 헛어.

꺾 부찌근에 저 췌물 못 내운텐

내일 (재현 행사) 홀 거민 저 독에 불 부짱? 독에도 불 부찌 잇지 아녀민 닐 췌, 췌 못 녹인다. 뚝을 경해야주. 게난 저 제철소에, 포항이나 저 광양이나 제철소에, 그 ㄱ루 그 뚝을 불 꺼근에, 그걸 수리 헤여근에 불부찌민 흐 들 동안. 불부찌근에 흐 들 동안 뚝을 말려야 췌물이 나와. 겨난 우리 저 어느 때 그 육지 간에 허연 그디 그 저 제철소에 그 사름이 나완에 설명허는 걸 들으난 흐 들 동안 불을 뚝에 꺾지 말앙 해야 췌물이 나오지, 꺾 부찌근에 저 췌물 못 내운텐. 겨난 이디도, 이디도 제철손 아니라도 췌물을 내우쟁 허민 오

늘, 어제부터라도 뚝에 불을 부쳐야 돼. 경 아녀근에 자기네가 무신 큰 기술잔 모냥으로 못허여. 절대, 건.

가을철 들어가민 솟 바슴을 멘들아야주게

팔월[팔월] 나민. 음력이주게. (솟 바슴) 멘들앙, 그걸 물류왕 다 저 창고에나 어디 이제 물류와근에 몬 놔뒀다근에 이 가을 들어근에 해가민 그 불미를 흥쟁 허민 저 뒗곡. 그 출리쟁 허민 솟 바슴 이제 돌루곡 몬 흥쟁 허민 저 틀을 몬 멘들아알 홀 거 아니? 바슴을. 쟁 해근에 흥쟁 허민 그 뭐 하루 이틀로는 안 뒗곡, 으라 날 걸리주게.

(솟 굽는 거는) 봄이. 봄이. 게난 그것은 이 팔월[팔월] 해영 이 가을 철 들어가민 이 솟 바슴, 솟 바슴을 그때 멘들아야주게. 그때에, 그 땐 요샌 뭐 기계 시난, 뭐 흥주마는 그땐 맨 사람 저 주장해근에 홀 때난.

덕수 지경 안에서 판 흑이라야 솟 바슴 허민 벌러지지도 아녀곡

흑 파다 낱 흑도 저 이기쟁 흥민 ㄴ스락 ㄴ정 오곡 쉼로 볼르곡 해근에. (ㄴ스락) 그거 해근에 쉼로 볼르곡 몬 행, 흑을 저 얼마만큼 행. 흑도 이 덕수 정상에서 판 흑이라야 춘흑, 덕수 지경 안에서. 쟁 행 판 흑이라야 불미해영 솟 바슴 허민 벌러지지도 아녀곡, 그 저 물건도 잘 나오곡 흥는디 저, 어디 예를 들어근에 신평에 춘흑 좋은 흑덜 잊지 안헤이? 그 흑은 오민 안 뒗어. 못 해. 맞지 아녀. 안

뒗. 겨난 저 이제 한질 넓혀 부난 해도 한질 넓히기 전이 그 골챙이 영 그 저 학교 앞이 그 물통이 다 불미허멍 흑 파 부난 물통이야. 게난 이 불미가 저 낙천서 송씨 하르방이 ㄴ저올 때에 이디 덕수 완에 흑을 첫째로 봐 가지고 덕수 들어온 거. 불밀 흥젠. 쟁헨에 흥엇 쟁 흥주게. 게난에 그 솟 바슴을 멘들앙.

우리 우녕팻도 불미허는 디 흑 팔앗젠⁸⁵⁾

우리 우녕팻 잇잖아이. 그디 땅, 흑 팔앗젠 막 헌다게. 불미허는 디 흑 팔앗젠. 나 “이디 무사 영 저 무시거 험수과?” 허난 흑 파 부난 쟁헨. 그디가 흥뽀 저 숨골 차이. 돌로 메와신 ㄴ라이. 아니. 물 이 스며들어.

솟 바슴 앓저와근에 불 숨는 거 솔입 흥 놀 다 든덴

몬 출려와야 불미를 흥는 거난에. 쟁헨 허민 장작도, 이 그 일 본말론 흥 다라가 뭐 얼마 행, 멧 다라 행 흥 놀 놀어 놓곡, 솔입도 흥 놀 놀어 놓곡, 예, 이제 가을 들어근에 흥민 미룻 찢도 얼마만큼 쓸 만이 사당은에 찢도 놓곡 다 출려 와야 불밀 뒗는 거. 그거, 몬 출려 놓지 아녀민 거 물건 엇으민 못허지게. 흥 다라는 그 양이 예,

85) 김옥자 씨 구술.



벧짚을 태운 '마물'

으섯 자, 으섯 자? 혼 칸, 혼 칸 딱 데며근에 으섯 자, 으섯 자가 혼 다라엔 해냐? 열두 자엔 해냐? 하여튼 경헌 거 멧 개 잇엉, 잇어야 불미가 되는 거. 게난 그 저 그 멧 다라가 서야주게. 경허난에 장작도 혼 놀이 들어. 불밀 크게 흥쟁 허민. 짚을커가 헤영 솔입도, 솔입으로 그 숯 바슴 앓져와근에 불 숨는 거난, 그거 혼 놀 다 든텐, 혼 번 흥쟁 허민.

경허곡 이제 그 뭇고. 짝 으져다근에 그 저 숯이 아니고, 알 굵는 우이 더꺼근에 불을 질렁. 나룩 짝. 이디 나룩 엇으난. 그거 더끄지 안헨 허난 가짜로 헤. 게난, 그 짝으로 허여근에 불 부떠근에 그 켈 3만이 모성 놔뒀당 그 저 마물이엔 헤근에 췌물 받으민, 오시에

그 췌물 우이 더끄지 아녀민 들렁 가쟁 허민 덥잖아. 그 마물로 막는 거. 췌헤근에 영 들러가근에 저 췌물 빙곡 흥난 그거 문딱 귀긋 추지 아녀민 못헤여.

바슴 돌루쟁 흥민 질먹을 놔근에 돌아야

질먹, 질먹은 뭇으로 멘드느냐 흥면은 그 낭 막 불부찌민 저 숯 모양으로 게스미⁸⁶⁾ 숯 모양으로 카다근에 남지 아녀? 그런 켜 이 돌 영 방엿흥 모양으로 파 가지고, 거기 놔근에 다 부수와. 저 망치



'질먹'을 만드는 과정

86) '게스미'는 '뜯숯'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어 '木炭(きずみ)'에서 온 말이다.

로, 나무 망치 영 크게 멘들아근에. 다 부수와근에 그제 질먹이 댜는 거. 체로 쳐근에. 나무 그 불 막 숨으민 게스미 나오잖아. 그걸 뵈아근에 그걸로 저 거세기, 질먹을 멘들아. 질먹 멘들앙 흐민게 그 바숨 돌루쟁 흐민 틀 헤근에 그 저 바숨 돌루쟁 흐민, 윽이서 불 숨아근에 바숨을 귀근에 뜨뜻하게 꿩 이레 돌루는 데를 ㄴ저다 ㄴ근에 처음엔 모래, 모래로 영 돌라냥 이제 또 질먹을 ㄴ근에 돌라근에 이젠 다 돌른 건 밖에 내냥 거 물리왕.

숫불 숨넙 흐민 흐 어귀에 영 흐 사름씩

(숫 바숨) 몰르민 그 이제 그 숫을 우알착 영 부찌근에 이제 흑으로 영 바숨을 멘들앙, 게난 윽으로 영 물 주는 구멍을 영 뿔렁 내불 엇다근에 이젠 그걸 다 부찌근에 걸 또 물류와. 몰라근에 이제 흐민 그걸 이제 어느 때 뉘어근에 이 숫 바숨 영 앓져야주게. 그걸 굽쟁 흐민, 바숨 굽쟁 흐민. 게민 그디 구멍난 디 영 흑으로 막아뉘근에. 숫 바숨을 영 큰 숫, 죽은 숫은 뭐 큰 말치, 다두테기, 서두테기, 뭐 잔철 경 시민. 큰 숫 영 앓져가는 트멍에 죽은 숫 잔철은 트멍더레 노멍 딱히게 그 앓져. 앓져근에 이젠 그 우티 그 저 숫두껍 영 동글락현 걸로 영 트멍덜 막으멍 행 딱히게 행 봉행 흑으로 막앙 봉헤근에 이젠, 멘들아 ㄴ근에 어느 날은 밤이 숫, 숫, 저 불 숨을 거. 이제 딱 정헤근에 허영 저 허면은 이젠 그디 술입으로 아져다근에 불부짚 시작허민 딱 시간에 부찌민 저 어느 때까지 부짚 걸로 딱

헤근에 흐민, 예를 들영 열두 시민, 열두 시 뉘민 끝 걸로 생각헤영 부찌는다. 저 술입 으저다근에 그 사름이 다 ㄴ뜨질 아녀지. 흐꿈 간세현 놉은 두루 숨곡, 부지런현 놉은 와랑와랑히게 숨으민 그것에 또 관계가 잇주게. 경행 흐민 그 하르방덜은 경험이란에 영 왕베려근에 저 불 잘 못 숨아가민 잘 숨으라 허멍 흐는 디도 잇곡, 경허영 시간 뉘민 이딘 ㄲ곡, 다 꺼근에 흐는다.

젯대장이 췌물 들렁 강 비울 때 오시에 마물을 걷어야

이젠 또 뉘날은 불리게 뉘민 그걸 몬 이제 올라근에 몬 저 췌물은 이제 기계로 돌리나 헤영 물, 이제 췌물을 녹이는 시간에 몬 바숨을 이제 하나씩 딱 뉘 밧디 딱 틀에, 딱히게 그 틀을 허여근에 그 밧 밧디 딱 헤영 농곡 숫두껍은 쭈런히 영 ㄴ근에 흐민, 건 납작히게 틀 아니허여도 뉘곡. 경헤근에 흐난에 이젠 췌물 나옴 시작허민 틀에 붓곡 흐민, 또 그 알 지프는 사름, 보섭힐 때 알 지프는 사름이 이제 그 췌물 들렁 강 젯대장이 췌물 들러 강 비우레 가민.

그 저 알 지프는 사름은 그 따라가근에 그 뭐 마물을 걷어야지. 오시에 마물을 영. 막댕이로. 막댕이 으정가근에, 낭 막댕이로 췌물을 영 흐민 그 뉘고. (고망) 그레 비우민 그 마물이 ㄴ췌물에 들어강 안 뉘지. 게난 영 테근에 그 바숨더레 영 비우민 처음엔 영 걷어췌근에 경행 비와가민 들어가지 아녀디. 게난 그디 흐젠 흐민 틀 잡는 사름, 뭐 알 지프는 사름, 뭐 여러 가지 다 도와 췌야 숫이 뉘

주. 흐 사람만 되는 거 아니주게. 경행 다 허여 노민, 이제 경허민 다시 그거 흐 건 어느 만큼 잇다근에 이제 내쳐 불곡, 이제 또 췌물 비울 바슴 으저당 또 낱 또 그런 식으로 헤영. 저 막 헤여근에 다 췌물 다 주민 이젠 낱홀 거 아니?

우이 바슴만 부수고 밀둥 바슴은 부수지 아녀

어느 만큼 시민 이제 그 저 솟은 모래 흐끔 식혀야주, 큰 솟덜이 곡 허난. 게 식여근에 흐민 영 그것도 영 까는 것도 그, 그디 일하는 사람 익숙은 사람덜이 까. 깔 때에 이 밀둥 바슴은 부수지 아녀. 거 부수와 불민 그게 가다니까, 그건 다시 흘 때 쓸 거난에 건 부수지 말곡 우잇 바슴만 부수와야 나오난, 영 부찢 디, 영 부찢 딜로 테여 근에 우이 솟만 들러내어근에 허는 거. 경헤근에 허민 저 낭으로 영, 솟 저 거세기 보섭으로 영 보섭 끼우곡 헤근에 저 마께츄록 허 게 허영, 그 솟 안에 그 바슴 영 흑덜 영 과내쟁 흐민 독독 찍어근에 과내근에 허영 솟이 잘 텀, 안 텀 그거 알아지주게. 경허여근에 말 제에 그 보섭 ㄱ뽀든 거 흐면은 서들개로 영 독독 헤여근에 다 저 율 이 영 나온 거 털어뒤근에. 밀창 부수민 거 멘들지 못헤. 그 밀창은 멧 번 쓰는 거. 그게 가다라. 그 밀창 부수는 건, 거 모른 놈들이여.

췌물 쥐 가민 알이 팍팍 솟으난 알 지퍼야

보섭 흐민 그, 보섭 탕이 영 쥼는 그 줄 으저근에 그 보섭 탕이 영

허민 이, 맨 뒤으론 이 발 낱경이로 딱 누들곡, 딱 베로 영행 흐민 그 췌물을, 췌대장이 물 들렁 왕 이레 영 저 보섭더레 쥐가민 알이 솟거든, 췌물 그 저 들어가가민. 알이 솟으난 빠져 불민 보섭이 안 돼. 겨난 막탱이로, 막탱이로 그 알을 지퍼. 지프지 아녀민 빠져 불민 보섭이 돼어? 안 텔 거. 게난 그게 그 알 지프는 거. 영 알 지퍼야 그게 들러지지 아녀. 췌물 쥐 가민 알이 팍팍 솟아. 게난 그 저 거세기 보섭 흘 땀 알 지프는 사람이 첫째 잘헤야 돼. 경 아녀민 보섭 다 저 미강 모냥으로 파치 멘들민 뭐 하나 풀아 먹지 못힐 거.

췌물 줄 때는 췌대장이 최고

저 바슴, 바슴 영 쥼는 거 아무나 시기지 못헤여. 그걸 심어야지. 겨난 그거 바슴도 저 거세기 그 틀에, 바슴 틀에만 쥼질 안허민 췌물 비와가민 바슴이 벌러지거든, 벌러져, 췌물 비와가민. 막탱이 아 니, 그 나무로 헤영 탁허게. 영 딱 이걸 게난 저 췌물을 비와가민 그 바슴이 벌러지주게. 영 영 마주댕 부짱 흑으로 영헌 디로 착착 나와. 게난 그거 바슴 틀에 놔근에 사람이 딱 잡아야 돼. 잡지 아녀민 안 돼, 게 착착 나와. 게난 그 저 췌대장이 바슴을 허영근에 그 물 줄 때는 췌대장도, 호랭이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주느냐에도 잇주 게. 그 물을 천천히 비우민 안 돼. 콧 헤여근에, 속도가 콧 들어가야 텔 때문에. 게난 제라허게 그 물건을 멘들쟁 허민 췌물 주민 탁 비우민, 비우민 똑ㄱ뜨게, 똑ㄱ뜨게. 좌악허게 들어가게 흐여근에. 게

난 그 보섭이나 그 췌물 줄 때는 췌대장이 저 최고.

재현 행사로 연습할 때는 췌물 천천히⁸⁷⁾

우리 저디 연습할 때는양. 연습할 때는양. 이걸 영 해민양 영 행
우리 영 행 심으메. 심으민 요디 왕 췌물 비웁수게. 나 심어났저. 재
연할 때, 재연할 때. 영 심으면 이디 왕 췌물 비운다. 그거 해났저.
아무튼 이디가 딱허게 집형 영 허든 이레 왕 췌물 비와. 영 잡앙 영
막탱이로. 경 게도 우린 연습할 땐 천천히.

좋은 췌로 해야 흑이 벅에 안 부땡

옛날엔 이 불밋케로 보섭도 많이 허곡, 벅허곡, 불밋케로 숯 고
그스 사다 봐근에 이 중간에 7지 해났주게, 옛날 하르방덜은. 불밋
케로 해여근에 보섭도 허곡, 벅도 허곡. 게난 벅 췌는 아주 좋은 췌
로 하르방덜이 탁 벌러근에 췌도 에, 일본말이지, 이모노⁸⁸⁾가. 일
본말로 그 이모노 해영 망치로 탁 두드렁 봐근에 벅, 췌 그런 거 다
글러낸 헛 거. 불미에, 좋은 췌로 해야, 이 덕수는 저 검은 흑이니까
그저 밧 갈 때 벅에 흑이 부뜨질 말아야 흘 거난에 좋은 췌로 해야

87) 김옥자 씨 구술.

88) '이모노'는 일본어 'いもの'로 '주물'을 뜻하나, 이 구술에서 제보자는 쇠의 한
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돼. 게난 그거 흑 안 부트게 흥쟁 허민 좋은 췌로 저 헤야 흑이 그 벳에 안 부땡 췌가 저 가볍게 땡긴다는 거지.

(이모노는) 이 우리가 이 덕수에서 흥긴 좋은 거. 그 이모노엔 흥 것은 저 주물로 다 물건을 멘든디 서들개 망치로 닥닥 부수민 와삭 와삭 부서지는 췌. 이디 옛날에 이 중간에 저 뿔고. 절간 감저 기계 멘들아난 거, 그게 이모놀 거라. 날 아니 통채, 전부, 그건 주물로 멘 들안 나온 거주게. 그게 이모놀 거라. 그런 췌라야 우리 덕수에선 재연 행사에도 물건이 나오주. 그 외에 정철 닳은 거 부땡 이디 직 물이엿 해근에 기계 부서진 거, 그건 녹이기 힘들어. 그건 벌러집 도 잘 아녀주마는 제철소에나 가야 췌물이 돼어. 경허난에 그런 췌로 구입헤 오민, 허영 와근에 불미흥젠 허민 원대장이 망허주게.

잘사는 하르방덜은 동자숫이엿 해근에 밥을 딱로

잔철, 웅조리. 그건 옛날 하르방덜 곤는 거. 그 웅조리엔 흥 거, 잔철이엔 허는 게. 췌끄만헌 숫이렌 난 잔철이렌 허는 거 닳아, 나 생각엔. 게난 그 잔철이엔 흥 게 옛날에는 이 여기 논이 엷으난 쌀 밥을 먹지 못헿주게, 부제칩이도. 게난 조팝이나. 저 보리밥도 부제칩인 잘 먹엇주마는 가난헌 집인 보리밥도 잘 먹지 못헿 조팝, 잘 락한 조팝이나 먹영 살아난에. 이젠 그, 웅조리엔 흥 그 족은 숫은 그 말치 율이나, 영 트명에 앓저 가지고 큰 숫디 불 습으멍도 허영 흥난, 우리 족은 냄비 허영 허듯이 그디, 곤썰, 흐린 좁썰 놔 가지고

동즈숫이엔 해근에. 동자숫이엿 해근에 밥을 딱로 허는 거라. 췌해 근에 잘사는 하르방덜은 하르방덜신데레 그레 그 밥을 ㄴ저가곡, 경 아년 사람덜은 “뽕 보리밥이고 조팝이곡 먹어라.” 경헿 저 흥연에. 그 부제칩이 하르방덜은 경 헤. 경헿 먹엇젠 헤. 게난 부제칩이 도 그 웅조리에 밥을 흥는 딴 부제칩, 그거 밥 못허는 딴 가난헌 사람. 게난, 시발췌. 예를 들영 불 큰 숫디 습으민게, 낭으로나 습으민 그 잉경이 땡겨도 밥 뷌주게, 췌끄만헌 숫은. (제일 큰 숫) 말치, 말치. 말치도 그 큰 게. 큰 숫, 족은 숫.

일급 받아오는 것도 보섭 멧 개 딱 정혜전

일급 받아오는 것도 췌대장이 최고로 받는 거. 받는 것도, 보섭 멧 개, 저 거세기, 멧 개 주는 거 딱 정혜전 잇주게. 난 우린 영 보섭, 영 텡이 지픈 건, 보섭 하나 두 개라. 흥루 가는 거. (일당) 하나 두 개. 경 허곡 췌대장은 으라 개 받아. 거난 그디도 다 계급이 잇영, 저 보섭 받는 것도 다 틀려, 불마당에. 우린 질 췌병이난 하나. 거난 흥루 론 못 헤. 흥루론 저 못 허는 거. 거 흥 번 불미흥쟁 허민 가근에 보섭 불미도 저 이삼 일 가야 뷌.

손등에도 멍석 찰라근에 스끼로 영 탁 무꺼야

옛날엔 그 허쟁 허민은 불마당이니깐 췌물 녹이곡 허난 사름에 췌물이 털어지민 상처날 거 아니라게, 거 데영. 데난 손등에도, 손도메⁸⁹⁾ 장갑 대신 그 손등에도 멍석 찰라근에 스끼로 영 탁 무꺼야 돼. 저 흑 불르곡 물 적진 거에 헤근에 이레 탁 불르곡 발등에도 탁 불르곡, 경형 딱허게 이 신 신어근에 영 저 새끼로 딱 졸라맹 경 하지 안허민 췌물 주다가 이레 췌물이 허르민. 이 발이 온전해? 췌물 들어근에 이길 순 없어. 게난 췌물 허는디, 췌물 허는디 무신거, 옷으로라도 막아야 췌 거 아니? (손토시) 이름 불르는 건. 잊어불언. 이제 ㄱ뜨민 토시, 장갑은 잊어. 장갑 대신 허는디 손등게, 뭇엔 곧 긴 골앗는디. 발등도 헤야주. 이레 영 멍석 영 질게 현 거 이레 탁 허여근에. 최소한도 일로 이레 신. 저 신은 우테레. 막아지게, 막아지게 탁허게. 탁 헤근에 사끼로 영헨 무경. 딱 무경. 행경 허듯. 행경 허듯. 그걸로 이 발등을 막는 거주게. 그거 막아사 췌대장이나 저 췌물 빙다근에 저 이레 췌물 털어젓쟁 헤근에 저 하지 못허주게. 췌대장은 탁 비우민 췌물이 털어지고 아무걸허고 비와야 헤.

89) '손도메'는 일할 때 소매를 가뜰하게 하고 그것이 해지거나 더러워지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매 위에 덧끼는 물건을 말한다.

젊은 사름덜 허난 뭇 허도 못허멍 숭만 털영

코크스는 이디 저 거세기, 뭇고. 저번엔 그 저 기술자 하르방덜 흘 때엔 솟도 멘들곡 다 저 허연에 보섭이영 물건이 팍팍 나왔주게. 겐디 이젠 젊은 사름덜 허난 뭇 허도 못허멍 이제, 숭만 털영. 다 이제도 저 헤염주게, 코크스로. 겐디 옛날에 저 낭 솟으로 흘 땀이 디 덤불미 흘 때 낭 솟 췌어. 이 중간에 흘 땀 기계 돌리곡, 전부 저 고 그스로 사당 육지 간. 게난 그 사당 헨. 겐디 재연 행사 흘 때도 이 고참덜 말을 듣질 아녕 자기 우김대로 허민 췌 녹이질 못헤여.

도가닛불미 허단 눈에 췌물 들언

다침도 헤. 어땡헌 처린 모른디 저 누게 ○○이 하르방, ○○이 하르방은 이 저 거세기 도가닛불미 허단에 이 눈에 췌물 들언. 눈



〈덕수리 민속 보존회〉에서 준비한 '코크스'

에 췌물 들었어 어떻사 허영 구안해신디 그때. 카 부난 윈. 이 췌물 들
언에. 계난 어떻, 눈공즈 ㄴ뜨 딴 상허지 아녀고 이디 이 술이 흐끔
영 튀어나났어, 그 옛날에. 요새 ㄴ뜨민 저 거세기, 요새 ㄴ뜨민 정
형외과 가민 뒤희주는.

뽕이 켜 거 그디 탁 낱 싸매 불라⁹⁰⁾

(화상에) 미신거 헛저. 뽕이 켜 거이, 뽕이 켜 거 그디 탁 낱 싸매
불라 경 해났어. 뽕이 켜 거. 뽕이게. 미뽕쟁이. 그레 낱 영 영 탁 부
췌 불라, 경도 해났어. 견디 이젠 게, 그땐 뒤희 약 었은 때난. 저 데영
게작힐 때, 그 물 빨아 먹으렌. 게작힐 때. 나 생각엔 게작허난에 흐
끔 토실토실허게 허여, 것이.

불미 찰리는 원대장이 제는 지내는 거

어떻 지내는 건 나가 지내보지 아녀난 건 정확히 곤지 못힐 거
고. 저 그 불미 찰리는 원대장이 건 허는 거. 아무나 흐지 안허여.
원대장이 허는 거. 그 불미 찰려근에 흐는 사름, 사장이주, 이제 ㄴ
트민. 그 사름이 켜 지나는 거. 대장간 허는 사름들? 그건 거 일 년
에 흐 번 험실 테주. 난 아녀. 예를 들영 그거 업으로 허는디, 계난

90) 김옥자 씨 구술.

다 다 아무 디도 마찬가지로 그 저 업으로 허는 딴 일 년에 흐 번은 험
실 거라.

원대장은 송침이가 하영 헌 거 닳아

우리 알기론, 그 하르방덜 다 죽어 불언. 이제 부제침이 영 곤는
거 보난, 이디 저 누게, ○○○ 그디 하르방네덜토 그 원대장 으라
번 해났고. 송○○, 송침이가 하영 헌 거 닳아, 영 보난 원대장. 경
허곡 우리 옥안은 사계 간 죽어 불엿주마는 김○○이 아방, ○○○이.
거기가 이 근간까지 불미헛주게. 그디가 허어나곡. 계난 이디서 흐
는 딴 누게 ○○○이 아방, 그디도 우리 어틸 땀 그디도, 저 김침이.
거기도 이녁냥으로 저 기계영 다 출련에 저 불미해났주게. 그때엔
저 석탄, 고그스가 아니고 석탄으로, 석탄만. ○○○이 셋아방, 셋아
방. 셋아방이 그디, 그 아시도 해나고. 저 거기도 다 불미덜 험 공장
찰리멍 해났주게. 켜 해어나고. 이 게나저나 송침이 하르방덜이 옛
날엔 그디서 불미도 오고 해노난 거기가 많이 헛주, 원대장은. 불
미해난 사름 다 죽어 불언게. 문딱 죽어 불언.

밥허곡 솟덩이 흐나 아기 난 집이 옷다 췌넌

제지나는 디 그런 말은 곱아났어. 할망덜이영 불미 안 해도. 저
예를 들영 어디 상이 낱 영장이 나면은 좋은데, 어디 생으로 아기
가 나던지 뒤희민 좋지 안헌땀 해여근에, 저 불미흐는 디 젊은 사

름 행 아기 나곡 뭐 허민 제지나난 디서 밥헛곡, 옛날이난 밥헛곡
 솟덩이 하나 놓곡 헤여근에 그 집이 옷다 젖텐 헤. 할망덜이 건 골
 아. 그건 어떻 현 이윤지 모르커라. 게난 아기가, 아기가 나 불곡 허
 민 이게 좋질 안행 비림 타는 모양이라. 영장 낭, 영장 나근에 저 비
 림 타듯이. 그 경 흐 뜻으로 똑 곤는 거 다향, 할망덜이.

(애기 난 집이) 그거 밥헛곡, 솟헛곡. 어떻 현 뜻산디 건 모르는 거
 주. 어떻 현 뜻이팡? 행, 영 흘 중 알아시민 들엉 나들 건디. 게난 그
 젊은 사름덜 아기 낳곡 허는 게 거 좋지 안헌 걸로 생각행. 그런 뜻
 인 거 같애.

젓단에 제라허게 정성 들여사주게

젓단에도이 헐 때이 여자덜 못 가게 험시네. 겨난, 젓단에 흘 땀 옛
 날엔 그디 저 거세기 남자들만, 제관덜만 가근에 허여근에. 경행 흐
 는디 이딘, 이젠 뭐 신식으로 막 여자도 가곡. 게난 이 말 ㄹ뜨민 젓
 단에도이 정성 들여. 젓단에, 젓단애가 제라허게 정성 들여사주게.

골갱이 사질 못허난 이녁냥으로 멘든 거주게

좋은 점 나쁜 점보단도 건 우스운 말로 이녁이 살젠 허난 허는
 거. 게난 옛날에도 돈이 필요헌디 돈이 었은디 예를 들어근에 사쟁
 허민 돈 쥐알 거 아니라? 게난 사질 못허난 이녁냥으로 멘들앙. 그
 런 거주게. 어떻 흘 수가 없어, 살쟁 허민. 겨난 멘들아근에 다 흐여

근에 저 흐 거주. 기분이 좋은 게 었주게. 기분이 그 좋으민 좋주마
 는 예, 예. 그디 간 헤 봐도 벨치 아년게, 경허민. 게난 동네서 인정상
 으로 그거 하나 그 사름이 주민 받주마는 주지 안행 공짜로 헤가쟁
 허민 그거 드렌도 못 허고 뭐 내불주, 뭐. 예를 들엉 ㄱ세 ㄱ듯이 그
 골갱이 열 개씩 헤영 부제침이덜은 그런 걸 잘 물쟁 흐질 안허여.

딱 저르진디이 무신 수고비도 안 주멍 배려 가⁹¹⁾

난 그때이 좋텐 허민 ㄱ어라. 이 ㄱ침이, 저 학교 ㄱ침이 이제 좋
 은 집 짓은 사름 살암서이. 그 사람네 하르바님이 ㄱ침이 살아났어
 이. 골갱이 완 배려 가이. 베리민 그 아들 이제 손지도 그 골갱이 썬
 에 아이고, 언니네 집이 간 저 골갱이 배령 오난 우리 하르방이 막
 좋텐 허멍 배려 와서민 배려 와서민 헤도 난 막 용심나. 딱 저르진
 디이 무신 수고비도 안 주멍이. 난 용심나젠 헤. “그거 언제헐 거?”,
 “언니, 골갱이 하르방 헤다 주난 막 좋안양.” 게문 나 거 싫어헤난.
 그거이 돈이라도 받아점시민. 아니게, 뭐 이제 ㄹ뜨민 음료수라도
 뭐 사오긴 사와실 거여게. 경 안 사오진 안헤실 거여마는 그땐게.
 경행 왕 그 사람덜 ㄹ찌 헤 부난 멧 개 ㄹ정 와근에 ㄹ찌 허영 가난.
 “고마와이, 조케 고마와이.” 경허민 걸로 ㄱ. 나 막 싫어헤난.

91) 김옥자 씨 구술.

납 ㄱ튼 거 녹영 먹통 도로기 멘들고

(대장간 일 배우러) 누게 오지 안허여. 혹시나 헤도 ㅎ지 말렐 허젠.
에, 에. 아니. 그거 곶아 주곡 뭐 혈 뿔이 아니. 기억에 남는 일은 뭐,
걸 하영 헤 봐야 남는 일도 싯곡 허주. 나 알아지는 ㅎ 곤는 거주.

(쇠) 녹이는 건 저 무신거 그 납 ㄱ튼 거 영 녹영 무슨거 영 멘들
앙 흘 땀 허고. 저 미신거 그 도로기. 먹통 도로기 멘들앙 ㅎ젠 허
난. 먹통, 그거 혈 때에 납 녹연에 영 낡 거 도레기 멘들앙 거 허영.
사온 건 낡 도레기에 헤영 오래민 벌러정 데껴 부난 그 쥬로 납으
로 영 녹영 부찌근에 헐 멘들아난 녹이는 건, 것베끼 아년. 옛날 하
르방덜 도가니불미로 뱃허곡 보섭 멘들안. 이녁 집이서. 집이선 거
저 크지 아녀난에, 독도 요만이 저 헐 거 허여근에 이만이만 높으
민 뒤난에, 그 도가니 ㅎ민게 뱃도 멘들곡, 보섭도 멘들곡 헤영 허
엿주게.

원대장안티 상 뱃 폴레 텅기는 거⁹²⁾

이제 ○○이 아방 뱃 폴레 텅기는 거 어떻헐 보섭, 어떻헐 멘들
안 폴으레 텅겨수과? 나 시집 온 후제. 저 보섭 폴레 갓저. 무시거
헛저. 이제 그 무시거 허는 아방. 아방 나 산 때 왓주, 겐디. 그 어룬

92) 김옥자 씨 구술.

폴레 갓젠 행. 나, 멘드는 건 안 들어보고 폴레 갓젠만.

숫불 솜암쟁 ㅎ민 줌 안 자곡 역불 구경을 허레 가낫주

(숫불미와 보섭불미) 건 딱로 헤. (쇠도) 똑ㄱ튼 거 아니. 저 뱃광 보섭
ㄱ튼 것도 이 좋은 쥬로 헤야, 숫도 좋은 걸로 허민 좋주마는 그거
그 많은 쥬를, 원대장이 쥬를 잘 구입헤 와야주게. 쟁행 인척이 곤
듯이 쥬 녹이지 못헐 거 ㄱ져오민 물건이 나오질 아녀.

(숫불미는) 어린 때 뱃주게. 어린 때 뱃, 난에, 우린 그디 가근에 일,
아으라부난 일을 못 헤. 경 ㅎ난에 우린 그 숫불미 저 ㅎ는 디 덕 앓
전에 그 숫불 솜는 거 구경을 헛주, 우린 그건 저 거세기 아으라부
난에 부찌질 아녀. 겨난 우린 그거 숫불 솜암쟁 ㅎ민 줌 안 자곡 역
불 그거 구경을 허레 가주게. 게난 가근에 불 부찌난 그 두 개 불 부
찌야 테주마는 그 미룻 부찌야 허.

낙천리 불미허는 디 초가집 짓으레 가난

덕수초등학교에 조정배, 낙천. 그 선생이 교장으로 완에 이제 ㅎ
연 덕수서 불미 재연허는 거 뱃 ㅎ난에 그 낙천서 이레 온 건 그 사
름네가 다 알고 ㅎ난에 그 덕수 ㅎ는 거 뱃 좇아갓잖아. 좇아간 ㅎ
난에 이 저 ○○이엔 ㅎ 분이 저 덕수 학부모 회장 ㅎ명 허난 그디
선생ㅎ곡 잘 아난에 그디 저 거세기 초가집 짓으레 나 간 초가집도
짓고 그디ㄱ지 가난. 간에 저 초가집도 그 요새 신식으로 짓질 아



니, 옛날 식으로. 그때 그 처음엔 흘 때 아홉굿 축제엔 헐에, 뭐 축제도 허곡 그 무슨거 프린트 헌 종이도 나오곡 헤신디. 쟁헤신디 이젠 그디 안 험구나.

대장간일 흐지 말랭 허젠

(이 일을 배우겠다고) 누게 오지 안허여. (하겠다고 해도) 흐지 말랭 허젠. 나 알아지는 흘 곤는 거주, 그 물론 것사 그 뭐 엉터리로 곤는 거 필요 엇어.

이디 한 대장은 마깨질 헤연에
담배통 만들곡 부시 만들곡

구좌읍 덕천리 이대진



이대진(1938년생, 호적상으로는 1939년생) 씨는 구좌읍 덕천리에서 태어나 줄곧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분이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 마을의 유래나 설화에 관련한 책이나 자료를 즐겨 접해 덕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가 구좌읍 덕천리를 찾은 건, 술이나 보습을 만드는 ‘불미’가 덕천리에서도 행해졌다고 듣고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다. 2023년 8월 10일 덕천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덕천리 전 노인회장인 이대진 씨를 만났다. 이 씨는 직접 술·보습·‘불미’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7세 무렵 동네 이장집에서 행해졌던 ‘불미’의 기억과 그의 아버지가 술과 보습 등을 팔러 다녔다는 말씀을 들려 주었다.

덕천리는 ‘큰곳도’라는 지역에서 ‘불미’가 행해졌다고 전해진다. 아쉽게도 ‘불미’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대진 씨에게서 4.3 전까지 덕천리에서 담배통이나 말 안장 등의 장식품 만들어 팔았던 덕천리 한 대장 이야기, 이 씨가 농기구를 버리러 다녔던 김녕 강 대장의 대장간에 대한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숯이나 벳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옛날에 불미하는 거) 봤어. 걸 어떻게 뵈냐면은 한 일곱 살인가, 여덟 살 때. 옛날은 그때 뭘 주사고? 그 천연두. 예방주사 노려 오거든, 이장칩이. 경행 (이장칩이) 가봤어. 그 옛날 어른덜한테 물어보니까 숯이, 숯허고 저 벳허고 그 쟁기에 들어가는 벳, 보섭 것이 아주 우수하게 나왔다고 해연. 쟁 덕천 사람덜 거, 젊은 사람덜은 그것을 제주도 각 처에 팔래 나간다고 해여. 쟁 그 숯이나 벳이나 그 보섭이나 아주 잘 만들었다고. 쟁디 그 양반은 경주 김썸디 그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 그 전으로부터 생긴 것 같다. 그분은 조천 사람이고, 원래. 조천 경주 김칩이 사람이고. 그래서 헛는데, 그 사람네도 여기 와서 멧 해 안 산 거 같다. 계난 그전에 사람이 허다가 나가니까 인계인수해서 온 거 같아요.

천오백 년도에 설촌이 돼서 불미를 했지

(불미터 옆) 거기에 한 천오백 년도에 그거 설촌이 돼서 멧 호는 안 살아도 불미를 했지 안허냐. 그래서 연결해 오다가 해방이 끝나니까 거 폐쇄가 됐지 않느냐. 또 어대악 뒤깁엔 가면은 거기도 한 천오륙백 년도 경에 설촌이 됐어, 김해 김씨가. 것도 조천 사람이라. 그 집안이 다 조천 사람인디, 그 나가 직접 거기 살던 자손을 만나서 친허니까 그 만나서 들어 보니까 그 자기네가 거기 살았다고 해서, 그 밭 소유를 나가 하고 있어, 이제도. 쟁허영 그 돌무덤에 간 보니까 기왓장들 있어. 그래서 그 집을 지었지 안허냐. 겨고 또 이 흘렛동산에 일찍이 그 주둔소라고 흘렛동산에 기왓공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 비슷한 시기에 다 뵈 게 아니냐. 그걸 얘기허는 겁니다.

아부지도 그걸 팔래 갔다 오고라

(불미 있어난 딘) 큰곳도. (그 옆에) 뵈밧은 웅기공장. (불미는) 숯허고 저 벳허고 보섭. (만드는 건 보지 못하고) 그때 혼 번 갔다 온 거뿐이쥬. 겨난 우리 아부지도 그걸 팔래 갔다 오고라고 허여이. 덕천 사람덜

거의 남자는 그디서 나는 그 물건을 가지고 전도적으로 그 팔레 갖
다고. 겨난 팔레 가는 것도 옛날은 지게에 정 가거든이. 아무것도
엇으니까 지게를 두 개에 현다고 허여이. 하나 어느 만쭈 가서 쉬
영, 그디 놔둬 다시 뒤돌아 오면서, 오는 시간은 좀 쉬는 거 아니?
짐을 안 지니까. 경형 다시 지영 강 또 그걸 넘어강 다시 허곡 허곡
헤영 갖다는 얘기야. 혼 사람이 지게 두 개 헤영. (숯은 만드는 데에 사
람) 많이 들주게. 그 흑을 꺾어서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다시 췌
물을 녹여서 그레 질어근에 허는 거거든. (그저 해난 사람) 엇주게. 사
삼사건도 난에 칠십스 년 뵈는디.

마깨질 해연에 담배통 만들곡 부시 만들곡

여기 한 대장은 옛날 사람이주, 사삼사건 전꺼지만 했으니까. 경
행 노령화 뵈난 김녕 간에 그 뭐 사삼사건 한 오십 년도 경에 돌아
갔어. 그분이, 그 자식도 엇고 자식도 일본에 가 부니까 부부만 살
다가 그냥 헤고, 그 주로 소공업, 소공업이라났주. 거 마깨질 해연
에 담배통 만들곡 부시 만들곡 거. 또 말 안장 그 장식품 잇지 안헤
여? 그런 거 만들언. 쟁 예쁘게 만들어났어, 건 뵈주. 그 해근에 거
옛날은 숯으로 했거든이. 숯에 그 저 췌를 녹여서 거 이 마깨로 톡
탁탁탁 해근에 그 모양을 만들엇주게. 거 바로 여기난. 우리 어린
때도 이 여름에는 이 구좌읍 전체 그소 말덜이 이 물을 맥엿주. 게
난 우리도 놀러 갈 때 엇으니까 그디 가근에 놀면서 그 할아버지

허는 거를 많이 구경을 했주. (담배통은) 그 필요헌 사람덜이 사례 와
실 테주, 소문이 나니까. 담배통. 입에 빠는 거갸지 만드는 거지. 가
운데 저 뭐, 대나무. (전체) 담뱃대. 옛날엔 다 물어났주. 옛날은 젊
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다 그 담뱃대로 했거든. 게난 지금 담배 나
온 거는 그땐 골련이엔 했거든, 골련. 것도 흔허지 안했거든. 아무
나 피우질 못 했어. 게난 다 담뱃대를 가지고 다녔어.

말 안장 장식품도 만들고

(한 대장) 불미터. 거 한 대장이 한○승이라. 원래 그 덕천 사난 덕
천 사람이주게. 거 하르부지가 어떻게 들어온 줄은 모르거든. 말 안
장. 그 말 안장이 그 가족으로 다 뵈 거거든이. 그디 장식품을 부쳐
야 것이 그 화려하게 보이고 또 앞에는 이렇게 헤서 그 넘어지지
안허게 그 턱을 만들아이. 그 전체를 말 안장 저, 뭐로 허주게. 장식
품으로 그것도 멘들고. (한 대장이 만든 말 안장 하고 다니던 사람들) 마을
에 잇어도 다 죽어 부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 잇긴 잇어
도 그걸 어떻게 그걸 이젠 다 죽어벤 후세들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가 물을 탕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것도 몰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
간에 일어난 일들도 잘 몰르는디, 옛날은. 그래도 나는 그 오래 사
니까 지금 얘기라도 허는 거지.

ㅁ릿돌 다 잇주게

(한 대장과 같이하던 사람) 거 몰라. 그 잇엇을런지도 모르주, 그거. 불 피우쟁 허민 자기가 기술자니까 그건 멘들아서 거 허민 뵈 거 아니? 망치도 있어야. 거 다 있는 거, ㅁ릿돌. 다 잇주게. ㅁ릿돌 잇어야 거 두드릴 거 아니?

김녕 간에 굴갱이 베리고

저 호미 가튼 거 굴갱이 가튼 거는 우리 김녕 간에 거 멘들고 그 디서 베리고 낫도 허곡 경헛주게. 그딘 큰 공장이. 대장간 잇어낫 주. (지금은) 엇어. 우리 그 김녕 간 거 열한 살 때 김녕 내려간에 오 년 동안 살고 여기 완 다시 올라와도 거기여 김녕 간 거 헛주게. 한 대장이라고⁹³⁾ 그 옛날 교회 앞이서 헛어.

김녕은 강 대장

김녕은 강 대장으로구나. 김녕 옛날 교회 잇엇어. 신산동에 그 저 초등학교 서쪽, 뒤 서쪽. 교회 바로 앞에 잇어낫어. (그 사람) 죽은 때 오래주. 아덜도 엇일 거라. 그디 혼 칠십 년도⁷⁷지 가실 거라. (강 대장이 덕천에 이동불미를) 아이, 안 해. 거기서도 바쁘디 거 이디 올 리

93) 김녕에 있던 대장장은 강 대장이다. 제보자가 구술 도중 발화 실수로 강 대장을 한 대장이라 부른 뒤 이어 발화 오류를 직접 수정했다.

가 잇어게? 또 무신 운반 기구도 엇고 아무것도 없는디 무신 등집 지어근에 이꺼지 와근에 여기 맞는 사람도 엇고게 허난 거기 뉘 동복, 김녕, 월정, 행원 그디 사람덜도만 해도 충분헌데.

낫 베리젠 불도 부꺼 주곡

직접 가근에 불도 부꺼 주곡 그 같이 협조를 해 줘야지게. 본인 엇이민은 아무렇게라도 “이거 뵈습니다.” 행 가정 가라고 해 불민. 이거 가만히 앉아서 그거 허는 동안은 지켜봐야 뵈어. 게민 호미, 굴갱이 ㅁ튼 건 별론디 낫이엔 헛 거 있어이. 사근에 이렇게 거, 출비는 거. 그거는 담금질도 잘 해야 뵈어. 호미도 담금질을 잘 허느냐 못 허느냐에서 달려 있어. 거 적당히 딱 맞춰서 그 기술자가 맞춰서 허긴 허는디, 본인이 없으면 아무렇게라도 헛 수가 있어이. 겨민 췌가 떠 불면은 얼마 못 쓰거든. 그 이것이 담금질을 잘못뵈서 허면은 이것이 췌가 다 뜯 췌거든. 그 바삭바삭 부서지는 췌가 아니고, 이 불에 갓다 오면 췌가 거 뉘 해 불거든이. 물렁지거든. 물렁진다는 게 그 뜯다는 얘기라이.

낫이 안 들민 베리레 가는 거

그 (베리는) 기간이 뉘 일 년도 가고 이 년도 가. 그 자기 쓸 만큼 써지민은 저, 담금질헌다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췌를 갈게 만들지 안허고 날쪽만 거 췌를 강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돼 가면은 낫이 안 들어. 그때는 가는 거야. (벼리는 값) 얼마 줬는지
거 알아지크라? 곡식은 안 허고 그자 돈으로. 거 뭐 동네 사람은 곡
식으로도 쥐실 테주게.

도체비 귀신 있다는 말 들었주

저 불미터엔 허는 디 그 도체비 귀신 있다는 말은 들었주. 계난
옛날 굿허민 막 그 메칠씩 허곡 그 경. 직접 허는 건 안 보고 어른덜
근는 얘기를 들었주.

어대악 주변 촌흑으로 불미현 거야

(불미) 흑이 그 화로 옆에 어대악 잇잖아? 그디 흑, 흑을 파다가
현 거야. 그디 흑 파다가 덕천 집덜 다 지은 거라. 옛날에게 돌담으
로 다와근에 흑질헤연에 그 살앗잖아이. 그, 그 흑으로 (불미) 전부
현 거야. 어대악, 웬밧도 잇긴 잇주마는 웬밧은 적은 부분이고, 일
부분이고, 어대악 주변이 그 전부 촌흑이거든. 계난 그걸로 기와도
굽고 불미터에 그 흑도 허고. 흑이 좋아.

낙천에서 불무를 오래했다는 흔적이 아홉 굵이주

한경면 낙천리 조정배



조정배 씨(1934년생)는 오대조(五代祖) 할아버지 때부터 낙천에 살고 있는 토박이이며, 한경면 낙천리의 향토지를 두 번에 걸쳐 저술할 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깊은 분이다. 안덕면 덕수리의 제보자 입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낙천 '조 교장' 선생님이요,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으나 낙천에서 불미를 재현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다.

2023년 8월 24일, 수소문 끝에 마을의 큰 어른인 조정배 씨를 만났다. 조 씨로부터 1670년에 송가금 할아버지가 입도해 낙천 불미가 시작됐다는 내용, 2003년 낙천에 불미 테마마을 유치를 위해 덕수리 기능 보유자를 초청해 준비해 오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 불을 다루는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도체비당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낙천 곳곳을 안내해 주시며 '불무'의 흔적인 아홉 곳과 낙천의 마지막 불미터인 새미왓물을 소개해 주는 조정배 씨를 통해 낙천리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송가금 할아버지가 불무를 목적으로 제주로 들어와

낙천이 이렇게 낙천이 마을이 성립됐게 된 동기가, 동기가 불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락이 성립이 된 걸로. 지금 그때 뭐 살아 계셔서 고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 이렇게 뭐 추측을 해서 얘기도 가능한데 그 송가금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그 천육백칠십 년경 아들 형제를 데려 가지고 이제 그 일단은 제주에 들어왔는데, 맨 처음 낙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 예, 저기, 저기 저 용선달이⁹⁴⁾라고 있어. 용선달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조수리

맨 처음 설촌 처음 근거지가 용선달이거든. 용선달인데, 용선달이에 와 가지고. 게니까 그 송가금 할아버지가 제주에 들어올 때 목적을 불무를 할 걸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불무를 할려면 흑이 중요하거든

그 우선은 불무를 할려면 그러면은 그 이 만들, 틀을 만들려 흑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주를 쪽 돌아보고 그 용선달에 와서 이제 얼마 동안 살면서 낙천에 와서 이제 이렇게 답사를, 요즘 말로 답사를 해 보니까 그게 찰흑[찰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제 그 관정을 헌 거예요. 그분이 그래 가지고 여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답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송가금 할아버지가 낙천에 정착을 해서

그 들어온 시기가 추측하건데 천육백칠십 년. 그러니까 그 송가금 할아버지 비석이 지금 저기 잇거든요, 저기 산양에. 산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들어온 연도는 거의 다 건 뭐 맞을 걸로 보고. 게서 형제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낙천에 정착을 하게 됐니까 낙천에는 그때 부락이 형성이 안 되고 그 조수리 하나의 섭동이었어.

94) '용선달이'는 한경면 중산간 4개 마을인 조수, 낙천, 저지, 청수의 설촌지를 말한다.

조수리에 예속돼 있는 이제 그 천미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낙천을. 천미동이라고 해서 천 자는 샘 천 자, 샘 천 자. 그래서 천리동이라고 했는데 그 천미동에 이제는 천리동도 형성되기 이전부터도 여기는 이 주변에, 주변에 이제 그 원주민들이 좀 군데, 군데 살았거든요? 부락이 형성되기 전에.

또 살게 된 동기는 지금 저쪽은 물은 안 났을런지 모르는데 요 거리 가운데 물이 있어요, 물. 저갈물이라고 해서 물이 있는데 거기다 물이 잇었기 때문에 천미동이라는 그 이름도 그 물이 있어서 천미동이라는 샘이 있다 해서 천미동이라 이렇게 지은 거 같아요, 추측해 보니까.

원주민들 포섭형 불무를 시작한 거죠

이제는 그 여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포섭하고 이제 불무를 시작한 거죠이. 게니깐 그 송가금 할아버지가 원래 그 불무에 대한 그런 깊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게니까 아마 맨 처음에는 켜이 가튼 것도 만들었을 거고 막 이력저력 허다가 그다음에 주로 그 해방 직전까지 그 불무가 낙천은 계속 일했는데. 주로 뭘 만들었냐면 솟히고, 솟. 무쇄 솟, 무쇄 솟히고 그 쟁기에 쓰는 벳하고 보습. 요런 거, 요런 거만 쪽 만들어서 했는데.

불무의 본고장은 낙천

지금 이 저 덕수는 지금도 불무 재현을 허거든. 불무를 재현하는데 우리는 해방이 되기 직전에 불무를 끝나 버리니까. 저기 덕수는 보통 새당이라고 해, 그 이름을. 새당. 새당 솟, 새당 보습,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켜디 거기서, 거기서는 이제 그 최근까지도 저걸 만드니까 낙천은 원래는 낙천이 이거 발사, 이 시작됐 곳인데도 불구하고 덕수는 끝까지 지금까지도 재현하니까 덕수가 불무의 고장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면 왜 덕수에 불무가 가게 됐냐면은 그 아들 형제 가운데 작은아들이 덕수에 장가를 들었어. 장가를 들어가 가지고, 이젠 거기 장가를 들게 됐니깐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이제 뺏고 거기 가서 그걸 전수를 헌 거지. 그러니까 덕수 또 덕수도 흠이 또 좋아요, 저기. 좋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거 덕수가 불무의 이제 그 본고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본고장은 낙천이고. 낙천, 그 할아버지 아들이 거기 가서 전수한 것이 현재에 이르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예.

불무했던 곳이 낙천, 덕수, 덕천 세 군데

덕천리도 불무한 데. 겨니깐 제주, 그 제주도지에 보면은 그 옛날 도지에 보면은 불무했던 곳이 낙천. 그다음 덕수, 덕천 세 군데. 켜디 그 세 군데 가운데 덕수는 낙천에서 전수내린 게 틀림없곡. 덕

천은 어디서 받는진 모르지. 게 낙천에서 누가 또 글로 뭐 전파가 됐는지 모르지마는 아무튼 옛날 불무했던 마을은 그 세 마을. 판 데는 불미한 데가 없고, 예.

(덕천은) 내중이지. 내중에. 게니깐 그 뭐 덕수에서 그게 그쪽으로 갖는지 그것도 모르죠. 워낙 오랜 옛날이라 버리니깐 몇 백 년 전 일인데 기록이 있으믄 헌데 기록도 없고 허니깐 뭐 알 방법이 없어요.

테마 마을 유치로 불미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천삼 년도에 이제 테마 마을을 유치하게 됐는데 그 제주도에 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저기 남제주군 온평인가? 거기 테마 마을 거기가 맨 처음이고, 그다음에 낙천이 이제 두 번째로 하는데 농업 기술센터에서가 걸 이제 알선을 했어, 낙천에서가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낙천이 원래는 뭐 지금도 워낙 작은 마을이지마는 그 우리 한경 십육 개 부락 가운데 세 번째로 작은, 꼬트머리로 세 번째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노인도 흔 삼십여 명밖에 지금 안 돼는 이제 그런 마을인데, 그 대신 그 마을은 작지마는 이 불무를 하면서 겨 니깐 조상들의 디엔에이(DNA)가 좀 잇는 거 같아요. 으, 게니까 그 불무를 할러든 저게 상당히 불을 다루는 그런 작업이 돼다 보니까. 워낙 그 단결심이 강하지 않고 하면은 걸 이룰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불무를 재현하게 된 건 그 테마 마을 그 관젠데 그런 테



낙천리 '저갈물'에 설치된 아홉곳 마을의 상징물

마 마을 유치할 때 테마 마을을 하게 됐면은 뭇을 할 거냐? 하는 거지. 우선 그 주 테마가 있어야 돼잖아요. 그래서 그 테마를 불무를 재현하겠다 했어이. 그래서 이젠 그럼 빨리 준비하도록 해서 우리가 육지가 가지고 이제 그 이 솟 만드는 그런 이 주물공장에 가서 이제 자문도 얻곡, 거기서 기술자도 오고 했는데, 그러믄 옛날 식 그 불무를 재현을 해야 될 건디 할려고 해도 여기 지금 사람덜은 모르잖아요. 흠 저긴 후배지마는 거기(덕수) 가서 이제 그. 기술 가

튼 거를 협조를 이제 받을 수밖에. 뭐 집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게서 불무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젊은 사람 숫자가 적어서 결국은 중단

테마 마을 시작한 다음에도 그걸 해서 그 쪼그만한 숫. 요즘 저 어디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쪼그만. 돌숫예. 그런 걸 만들어서 풀려고 했어. 풀려곡 허곡 그걸 재현하려고 허곡. 또 그런 시설도 다 갖추고. 해서 해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나이 많은 사람 숫자도 적지만은 젊은 사람이 숫자가 또 적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은 이걸 재현하려면 하루만 뭐 혼 달에 혼 번 허는 게 아니라 테마 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그걸 해야 될 건데 만약 그것에 매달리다 보면은 자기 생업에 지장이 많게 돼거든. 그렇게 해서 실은 다 준비는 다 해 놓고, 모든 기구를 다 갖추고. 그 옛날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또. 맨 처음은 그걸 흥쟁 했는데 하젠 해서 할려고 해 가지고 집도 이제 나지막하게 기와집도 짓고 해서 다 했다가 그건 도저히 안 돼겠다 해서 그러면 개량식으로 이제 그러든 숫 만드는 걸 해 보자 허다가 결국은 걸 중단해 불었어. 겨니깐 결국은 재현을 할, 허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출발했다가 걸 포기해 버린 거. 예, 게니깐 그게 이제 뭐 아무 흔적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불무 재현을 할려고 덕수에서 멧 사람 와났주

(테마 마을 조성 때 덕수) 거기서 현, 멧 사람 와났주게. 그디 아마 그게 그 이 저 전수자⁹⁵⁾로 돼 있을 거라, 그기. 그 키 쪼그만하고 한 그 학교, 초등학교, 지금 살았는지 모르겠네? 거기가 와서 집 지을 때라 이제 그 저 무슨 거 혈 때. 그때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 많이 그 일찍 말했지마는 그렇게 재현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인력 관계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이게 불 다루는 일이라 노니까. 그게 잘못 해서 아이덜 와서 체험, 만약 애들이 체험을 허겠다 해근에 그거 헛당. 잘못하든 큰 난리가 날 거 아니라. 게니까 그걸 못 현 거지.

불무의 흔적인 물 구덩이 아홉 곳

(이 동네에) 아예 대장간이 없었어요. 대장간 없고 불무만, 불무만 위주로 한 거죠. 건데 그 불무를 그 오래했다는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그 아홉 곳 마을이거든. 침 아홉 곳이거든, 아홉 곳. 그 물이 아홉 개라는 말인데. 그 맨 처음 아홉 곳 마을 흐니깐 그 육지서 특히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곳을 아홉 가지 흐는 동네니까. 이제 아, 그 오는 사람마다 걸 막 물어. 그래서 곳을 아홉 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 구덩이가 아홉 개가 있어 가지고 아홉 개라고 그런다. 그

95) 여기서의 전수자는 안덕면 덕수리의 제보자 윤문수 씨를 말한다.



낙천리 '아홉굿마을' 안내판

아홉 개 뜻이 보면은 이 물 구덩이라는 굿. 그 물 구덩이 굿. 또 영
어로 굿.

일곱 굿은 불무허는 데를 파서 물통이 돼고

흑을 겨난 그 파 버리면은 흑을 파야 뉘 거 아녓니까? 흑을 파다
가 그걸 이제 그 틀을 만들어야 뉘는데, 흑을 파서 막 저 찰 그 지금
그물 헌 디가 흑이 좀 깊어요. 흑이, 흑이 기쁘니까 흑을 파다 보면
은 파다가 갑자기 비가 와 버리거든. 비 오면 물 굴라 버릴 거 아니?
물. 갱 것이 물통이 돼 버린 거지. 건 자연적으로 그 옆에 또 이제
흑을 파꼭 경하다 보니까 저기가 지금 아홉 굿으로 돼 있는데,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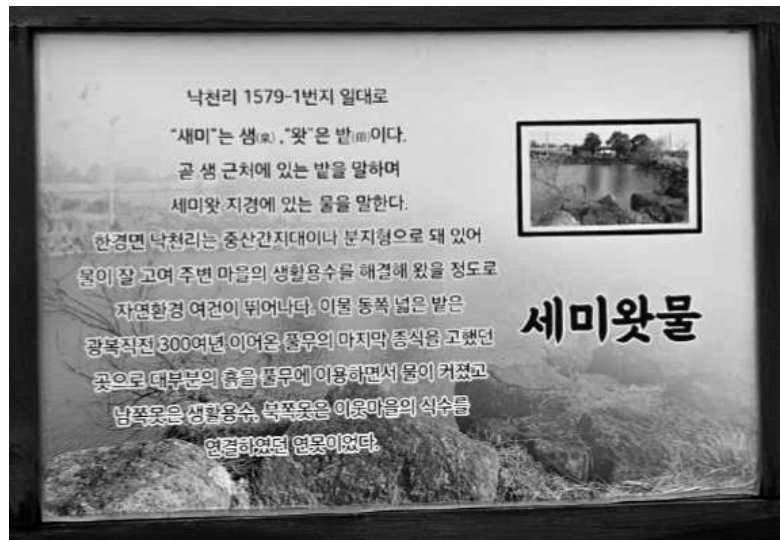
곱 굿은 그렇게 해서 물통이 돼고. 일곱 굿은, 일곱 굿은, 그렇게 불
무허는 데 파서 물통이 뉘었고, 두 굿은 일부러 이제 지금, 이 우리
한경 허면은 산간 부락이 우리 낙천, 조수, 저지, 청수, 산양 이렇게
뉘거든? 게면 이 산, 산간 부락에서 물이 제일 잘 고이는 데가 낙천
이라, 낙천. 겨니까 이 조수 사름이나 청수 사름, 저지 심지어는 저
지 사람들도 낙천에 와서 물을 다 길러 가거든. 게난 옛날 여인네
가 얼마나 고생을 헛쥔어요. 겨니깐 그 일곱 굿 물을 해서 이제 그
거를 헛는데 모자라니까 그 옆에 밧을 두 개를 기부받아 가지고. 이
제 그 뭐 그 기록들도 다 있는데 게서 또 물을 더 판 거지. 게니까
두 개는 의도적으로 모다 들어서 물을 만들고, 일곱 개는 불무를
하면서 흑을 파 버리는 데 자연적으로 물이 이제 고인 거라.

아홉 굿을 보여 줘야 돼기 때문에 물통을 또 만들었어

이제 그 조수나 저지나 청수 사름들이 와서 물을 쪽 헛다가 이젠
그다음 어승생 물이 그 이제 그 수도가 이제 이 낙천까지 왔거든
게. 오게 뉘니까 이제는 그 물이 필요 없잖아. 그게 필요 없으니깐
그때 그 신철주 군수는 당시 그 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리지 말
고, 그걸 이용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하나의
저수지로 만들자. 그걸 거 다 붙어 잇는 물이니까 중간에 것만 다
없애 버리든 뉘거든. 그러면 큰 저수지가 뉘 거 아니? 게서 저수지
를 이제 만들었지. 만들어서 그거 이젠 그거 쓰다가 아, 테마 마을

을 하게 됐니까, 아, 이젠 또 아홉 굿 마을을 하게 됐니까 명칭을 아홉 굿을 하게 됐니깐 아, 이 아홉 굿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견데 그 전에, 그 전에 그걸 파 버리니까 이제는 그 아홉 굿이라는 것을 이제 구경 온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아홉 굿이라고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 새물이라는 데 물이 네 개가 있었어. 네 개가 새물에도 있었는데 거기 논, 논을 사 가지고 또 물통을 또 만들었어. 만들어서 일곱 개로 해서 이젠 아, 이것이 저 아홉 개로 만들어서 이것이 아홉 굿이다.

실은 이건 원조는 아니고 원조는 따로 있지마는 이거, 이런 걸 가지고 아홉 굿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줬고. 그 설명



‘세미왓물’ 안내판

으로 좀 미흡하니까 이제는 재현을 하자 했어, 재현을. 게 재현을 해자 해서 지금 저기 가 보면은 물 아홉 개로 이제 재현은 돼 있지. 재현은 됐는데 옛 모습하고는 이걸 완전히 뜯 판으로 만들어 버렸. 내가 그림은 다 그려 줬는데, 그 업자들이 그렇게 경 경 막 공들영 흥쟁을 안 하거든. 쉽게 그냥 어떻 행 아홉 개만 멤대로 만든다 해 노니깐. 엉망으로 돼긴 돼도 지금 그거 아홉 개 물, 물통 이제 아홉 개, 이제 그 현, 형용은 갖춰 있어.

색깔이 붉으면서 찰진 흑이 좋은 흑

그 찰, 찰지다는 거지, 흑이. 겐데 화산토는 물을 해서 이렇게 아무리 이거를 저 뭐 그 뭐냐, 이 수제비 거튼 거 만들 때 허는 식으로 해 봐도 이렇게 이 찰지지. 집착력이 없는데, 응집력도 없고 점, 점, 점 그 그런 거 했어. 견데 이 찬흑은 색깔이 좀 붉으면서 이렇게 물 놔 가지고 이렇게 다루면은 그게 끈적끈적하지. 끈적끈적. 그래서 불을, 열을 가하더라도 그게 깨지거나 부서지질 안하니까 그래서 옹기를, 옹기라든지 옹기도 그렇게 해서 굽, 굽는 거고. 숯 가튼 것도 전부 다 틀을 그걸로 만들거든. 그걸 그거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주물을 이제 부어 가지고 이제 그 만든 게 그거니까. 게서 그 흑이 고산 지역이라든지 무릉 지역 그쪽에도 흑이 상당히 좋고. 또 특히 그 요즘 농사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이 마늘 가튼 거 감귤 가튼 거 맛이 찰흑[찰흑]에서 난 것이 훨씬 맛이 나. 당도가 높아, 당도가.

불무허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불무터는 알아

불무허는 걸 직접 본 기억은 없고, 그때는. 본 기억은 없고 불무허난 터다 해서 이제 그런 것은 맞죠. 봤는데 또 어린 때 뭐 그런 데 관심도 없고게. 관심,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뭐 들은 얘기들이죠, 대부분에.

낙천의 마지막 불미터는 새미왓, 논개논

불미터 그런 거, 흔적이 없어, 없어. 왜 흔적이 없냐면 이 밧을, 그 옛날 밧을, 그 옛날에 그 밧 가운데 그런 것들이 그 불미터가 있었는데 그 요즘 기계로 막 밧을 갈게 됐니까 그거 어지럽거든, 어지간히 게니까 다 없애 버린 거라. 다 없애 버린. 경 뭐 논개논. 저 어디고, 것도 다 잊어버림구나마는, 이제. 그 불미터가 흔 세 곤데. 그 새밧. 새밧이라고 아까 나가 이제 새미왓 아까 그 얘기했는데 새밧물 바로 그 옆에 큰 밧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마지막 그 낙천에 불미터가 그게 마지막 새미왓. 논개논. 으, 겨니깐 거기도 흙을 파 가지고 써 버리니까 물이 고일 거 아니라. 겨난 물이 고이니까 이젠 물 고이니까 거기를 이젠 논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게서 논개논 한 거.

불을 다루는 사람덜은 도체비당을 믿게끔 돼

당이 그 지금 당 없는 부락이 었주. 당 없는 부락은 없어. 우리도



그저 지금 저디 저 테마 마을 저기 가면은 그 뒤쪽에 당이 하나 있어. 건디 그 거기 하르방당, 하르방당 흐는디 그 오 일날, 오 일. ㅁ날, ㅁ날, ㅁ날만 이제 그 그레 가는 당인디. 그 이제 그 당을 도체비당이라고 보통 부르거든, 그 아는 사람들은. 건디 그 도체비, 도체비당은 역시 불무를 허는, 흐는 거 불을 다루는 사람덜은 다 도체비당을 그 믿게끔 돼 있는 거 같애.

저것이 이제 그 불무로 해서 생겨난 당이 아니냐 했고. 옛날은 또 도체비가 난다고도 막 해놔어. 도체비가 뭐 지금은 전기불 있어 노니까 그 존재가 없는데 그때는 그 그런 것도 있었고.

딴 부락으로 시집간 그런 여자분들이라든지 일본에 가 살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을 기억하는 거 많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보는 거지. 겨니까 우리 지금 우리 동네 사람, 저기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곡, 막 그 옛날에는 낙천 도체비당 해 불면은 여자들이 그 여자 구혼허레 왓당도 아, 그 먼 데서 아, 그 도체비는 그디 그 여자 그 데려오믄 안 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봤고, 지금도 이제 그 할머니들이 다 그런 말을 해. 아, 이제 그 이웃 부락에서덜토 아, 낙천 도체비당 거기 그 여자 데려오지 말라 이런 식.

동네 대장간이 없어 주로 한림에서 농기구 사와

예전에는 그 주로 한림에, 한림에 대장간이 있었어. 한림에, 한

림에 그. 한림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있었고⁹⁶⁾ 헌디 주로 거기 가서 했는데. 이제는 것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한림오일장에 가면은 그, 그 신문에도 막 나고 방송도 허고.⁹⁷⁾ 거기 가믄 다 해 주거든, 거기. 예. 거기. (예전에) 여기서는 솥 만드는 거 그 솥하고 뱃하고 그런 것만.

96) 한림읍 수원리의 제보자 조대옥·조영진 씨 아버지의 대장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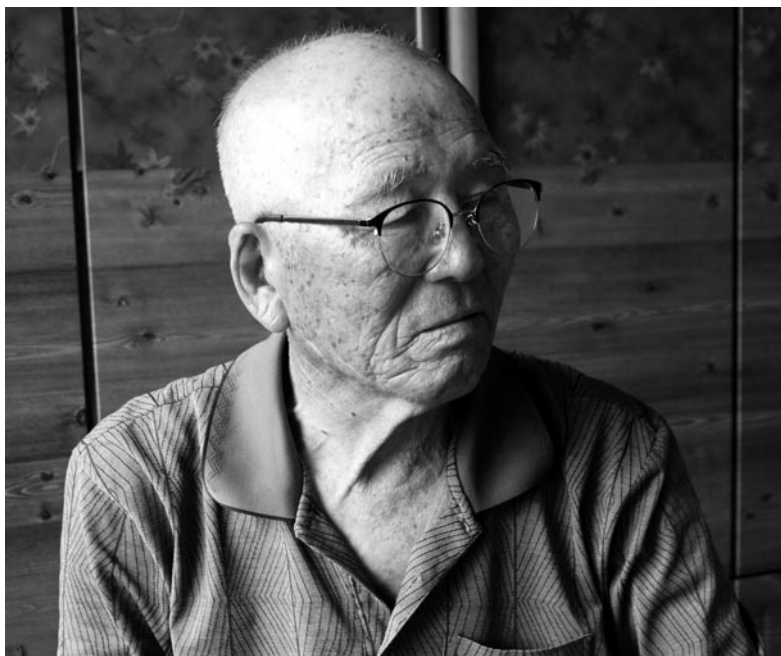
97) 한림읍 한림리의 제보자 이승태 씨의 대장간을 말한다.

II.

- 236 곶쟁이도 몽그라지믄 불에 구워근에
 한림읍 대림리 안영진
- 267 부지런한 아버지의 불메왕, 꼼꼼한 형이 이어받아
 한림리 수원리 조영진
- 294 아버지가 이 부근에서 담금질을 제일 잘한다고
 서귀포시 대포동 원천권

곶쟁이도 몽그라지든 불에 구워근에

한림읍 대림리 안영진



안영진(1939년생, 호적상으로는 1942년생) 씨는 1960년대 말까지 한림읍 대림리에서 농기구를 만들던 대장장이였다. 일제강점기 때 안영진 씨의 아버지는 일 본인이 운영하는 마차공장에서 일을 배웠다. 해방 이후 아버지가 직접 마차공장을 운영했는데, 안영진 씨가 열 몇 살 무렵에 돌아가셨다. 이후 안영진 씨는 형,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마차공장에서 대장간을 시작했다. 마차공장에서 불을 다루던 일이 대장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영진 씨는 군대에 가기 전 서른 살까지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고 버리는 일을 했다. 군대에 간 후 형님과 동생은 계속 대장간을 이어갔으나 안영진 씨는 제대 후 수산업 관련 일로 전업했다고 한다. 기계화로 농기구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대장간은 사양길로 접어들자 안 씨 형제가 운영했던 대장간도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문을 닫게 된다.

안영진 씨를 만난 건 2023년 5월 30일이다. 한림리 '불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안영진 씨 형제가 운영하던 대장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안영진 씨를 찾아갔다. 연락도 없이 댁을 방문했는데도 안 씨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안 씨에게서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고 버리는 과정, 담금질 기술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로 출장 '불미'를 나갔던 경험, 제작한 물건들을 시장으로 가는 차에 실어 보낸 뒤 시장까지 걸어가 팔았던 기억, 아버지가 했던 마차공장에서 마차 바퀴에 들어가는 쇠를 다뤘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마차공장을 상당히 크게 했었다고

우리 아버지는 저 마차공장. 옛날에는 마차가 상당히, 마차가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일본 시대부터 우리 아버지가 일본 사름

공장에 가서 일을 배웠어. 거기서 배워서 나와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했다고. 그때 거시기 허니까 일본 놈덜이 망했잖아. 일본 사람들 허다가 몸만 그 사람들 다 나가 부니까 아버지가 총 책임자가 됐니까. 아버지는 마차공장을 상당히 크게 했어요. 여기, 모실포, 서귀포까지. 그때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거시기 허니까 상당히 크게 했었다고. 그러다 보니깐 뭐 돈벌이도 좋지. 계속 공장을 구루마,⁹⁸⁾ 마차공장을 계속 했다고.

췌는 바퀴 제일 바깥에

(마차바퀴 만들 때 주재료는 나무) 그렇지. 췌는 제일 바깥에 그 돌아가면서 그것만 지금 췌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나무. 이것도 다 나무야. 바퀴가 나무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게 안 돼거든. 그니까 췌를 집어넣어서 바퀴가 돌아가면 췌찰단 말이야. 여기는 마차 이렇게 동글랑헌 것이 나무로 할 때는 돌아가지 못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곱에를 굵기를 해서, 여기 췌를 사이즈 맞게시리 해서 멘들아서.

가운데 췌에 요만씩 나무가 들어간다고

(나무 꺾는 일도) 다 헌 거지. 전부 다 허지. 공장에서 목수들이 겐다 멘든다고. 아까 그 동글랑헌 디도 이렇게 이렇게 췌 거를, 이게

98) '구루마'는 일본어 'くるま'에서 온 말로 '마차'를 말한다.



성읍민속촌 내에서 촬영한 '마차바퀴'

나무를 가지고 지금 (가운데는) 이거 췌로 췌데, 여기에 이렇게 허든 요만씩 해서 나무 들어간다고, 이렇게. 경해서 이거 나무 영 잡아 주는 걸, 여기서 이렇게 구멍 파서 이걸 잡아 줘. 이거 그렇게. 거든 나무허고 연결지잖아. 또 여기서 이거 이

레 연결지고, 이것도 이리 연결됐고. 경허든 이게 이 너비, 요 너베기 췌 거거든. 거든 이것이 두껍고, 거든 이게 여기에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췌 거 가지고 이추룩 허든 여기다가 췌를 이제는 요것이, 췌디 요거 할 때도 이것도 기술자가 기냥 허든 벗어져 분다 말이야. 췌하고 나무니까.

췌를 벌정케 익혀 가지고 씌워

(췌는) 재료가 옛날에도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잖아요. 이제 철물점 가든 두꺼운 거 이런 거 지금 팔아요, 두꺼운 것이. 그런 거 질게 나온단 말이야. 게든 그걸 동그렇게 이렇게 말아서 이걸 붙여요. 딱 이 사이즈 딱 맞게. 게서 이게 또 그냥 허든 크고, 그것도 기술.

이 췌를 바깥에 이 나무에 끼울라고 허든 그게 기술자가 허는 거야. 그거 그냥 거시기 허든 쪼아들기든 그게 빠져 붙잖아.

게니까 이걸 어떻게 허느냐. 이 췌를 불로 이 돌아가면서 요걸 이제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걸 장작으로 해서 그 췌를 벌겅게 익혀. 익혀 가지고 이레서 불 그 우에 썬워 가지고 딱 찢어서 물을 돌아가면서 조사면은⁹⁹⁾ 빨간 것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여진다고. 그래서 팡팡허는 거지. 바깥에 이걸 둥글럭케 헨 거를. 지금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사이즈 이추룩 헨 거 질게시리 지금 나와요. 그 사이즈를 딱 재근에, 그대로 쥘라근에 용접해서 둥그랗게 맨들아서. 그니까 그걸 기술자들이 아무나 허질 못한다 말이여. 겐 빨리 물을 돌아가면서 물을 빨리 쥐 불어야 나무가 안 타니까. 나무, 요디 이게 나무란 말이여, 요거 전부. 건디 요것이 불 들어가면 이것이 타지. 그러니까 벌겅헨 걸 바로 끼우면 딱 들어가면은 동작 빠르게 물을 그냥.

바닥에 돌을 놓고 췌를 올려

이런 땅에 여기만허게 이 저기 가트든 원형 뒤편에시리 해서 돌을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췌가 이제 둥글른 거 잇다면은 이디 돌에 요렇게 지금 걸쳐져야 댜다 말이야. 웨 그냐든 공간 없으면

99) ‘조사면은’은 ‘뿌리면’의 의미로 쓰였다.

불이 여기 거쳐가야 빨강케 이 밑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거시기 해서 나무를 이렇게 허든 이추룩 일로 불이 해야 이게 빨강케 달구니까.

뱅 돌아가면서 장작을 놓고 가마니를 더꺼

그다음에는 나무 장작을 이게 양쪽이란 말이야. 요것이 양쪽 바퀴 아니야.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디 불 때는 나무 장작 이걸 이추룩 전부 뱅 돌아가면서 그걸 거시기 허는 거야. 이렇게 불을 부쳐야 그걸 허지. 경허든 그걸 이제 불로 바깥에는 지금 이제 가마니 바깥으로는. 그디 불을 부쳐서 거시기 허든 빨강케 익으든 그거는 지금 이게 마지막 댜는 거야. (가마니는) 나무가 거시기 허든 그게 장작을 이 바깥으로 싸는 거야. 그렇게 해야 바람 불든 나무가 지금 나무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가마니를 더꺼. 나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총히 쌓앗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전부 바깥으로 쌓아.

바퀴 들어가는 거를 두 뱃디를 딱 헤 놔야

(바퀴에 췌는) 하나 허영 식힌 다음에 건 불이 있으니까 안 식잖아. 그다음에 또 다음 거. 겐디 그 바퀴를, 들어가는 거를, 두 뱃디를 딱 헤 놔야 댜단 말이여. 그렇게 해야 이거 하나 해근에 딱 그 물을 쥔 허민 하나 끝나고, 그다음 또 이거를 여기 헤 났으니까 이거를 또

허고. 두 밧디. 구루마가 바퀴가 두 개 아냐. 그러믄 두 개. 여기도 두 개 들어갓잖아. 여기 췌를 한 번에 두 개 들어간다고 했잖아. 두 개 들어가느냐. 양쪽이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는 우에 걸 지금 이게 둘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사이즈가 이 췌가 이디 가서 불 달 귀졌단 말이야. 그믄 우에 것만 싹 헛당. 들어가는 디 다 들어가믄 싹 식히고, 딱 허믄 끝나믄 또 그다음은 요디 가 췌.

양쪽 바퀴, 굵은 췌로 똑가트게

지금 요걸 가지고 이제는 이게 들어가게, 게난 요 사이즈, 마차에 양쪽 바퀴 아냐? 게민 여기 이른 것도 여기도 똑가트게. (바퀴 사이에 끼우는 봉은) 췌지. 그건 나무로 안 돼지. (마차에 들어가는 쇠는 바퀴와 봉) 그렇지, 췌는 그렇지. 그런데 그게 다 틀려. 여기는 이 요런 두 개 해 가지고, 요런 너비로 지금 둥글렁케시리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이렇게 굵은 췌로 해서 여기 맞게시리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싹 여길 들어가게시리 만들고.

재료 들어오는 건 내가 모르지

(마차 제작 재료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헛기 때문에 그런 건, 재료 들어오는 건, 우리가 그거 사고 허는 거는 아버지. 그때 그 일허는 거는 어릴 때 봐 왔지. 내가 직접 헨 것은 아니니까.

마차공장에서 대장간으로

(아버지 마차공장은) 오래 했어. 오래 했어. 그때는 나가 어리고 일본 시대는 그때는 지금 뭐 혼 열 여남은 살 췌 때라 노난 그때는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허고, 난중에 아버지가 거시기 해 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불무를 해서 삼 형제가 시작하게 췌췌. (내가) 한 열, 한 열댓 설까지는 (마차공장을) 했을 거야. 그때까지는 그거 헛고,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나이도 거시기, 그다음에는 우리 삼 형제가 이제는 말아서 하르 부지가 같이 헛다고. (마차공장 장소를 대장간으로) 그거는 맞질반이니까. 불무나 뭐나 똑같이, 그 췌 두드리는 거나 뭐이나 거 머리독이라고 다 있으니까. 그때는 거시기가 없고, 이 간판을 안 붙이고. (다른 사람들이) 대장간이라고 헛지.

(마차공장을 할 때 농기구 버리는 일) 그때는 안 했어. 그때는 워낙 증 말로 어두울 때라. 돈 버는 것이 정말 황황헛거든. 이거 허기 전에는, 저기 어릴 때는 열다섯에 배, 배에 밥허는 사름 허다가, 거기서 허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는 우리 삼 형제가 마트게 돼니까 나도 그걸 치우고 여기 와서 공장을 허기 시작한 거라.

오일장마다 팔레 뎡겼지

주로 만드는 거는 농기구지. 소시랑 그거 쓰는 거 전부. 겨울에는 지금 소시랑, 췌이, 호미, 굴쟁이 전부, 이 농부 쓰는 거는 전부

다 멘들앗지. 그러면은 그걸 오일장에마다 팔래 가. 그걸 멘들어 노민 어떡해? 여기서 거시기 상판이 없으니까. 오일장마다 그걸 싸가지고 전부 팔러 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가든 저기 저 하귀, 애월, 한림. 일로 가면은 신창, 고산까지 거기까지 그걸 멘들아근에 계속 팔러 땡겼지. 건디 그때는 워낙 없다 보니까 증말로 이 밥을 먹을라고 허면은 쌀이 없어 가지고 그걸 가서 팔아야. 팔면 저녁에는, 갈 때는 걸어서 가고 여기서 하귀까지. 아침 혼 세 시쯤에 걸기 시작해서. 팔 거는 이 저 차가 여기서 가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 여기 한림 장에 땡기는 차, 그 차에만 부쳐 두고 걸어서 가고. 또 올 때는 왜냐? 걸어서 오면 집잇 사람들이 밥을 먹을 시간, 빨리 와야 쌀 사고, 그걸 팔아서 판 걸, 판 그 돈 가지고 쌀 사 가지고 와야 여기서 이제는 밥을 해 먹으니까.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와, 올 때는. 갈 때는 걸어서 가곡. 여기서 제일 먼 데는 고산. 여기서 허든 저기 저 저 하귀. 건디 여기 애월 같은 디는 가차웁고, 가차운 데고, 여기서 하귀는 상당히 멀어.

일로 불 허든 이레 바람이 나오게끔

거기 다 화덕이 돼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저 불무가 이추룩 뒤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허든 일로 해서 흑으로 해서 이렇게 쌓았다고, 그리고 이데는 요렇게 불 피우게끔 돼 있어. 일로 불 허든 이레 바람이 나오게끔 뒤편이라고. (여기는) 흑 쌓아서 공기 통

허게 해서. (바람) 이레 나오게시리 여기서는 전부 도구덜 놓고 여기서 불 허든 올로 해서 흠 거시기. 여기를 불 아래 좀 거시기 이층, 층이 있어야 똬다고. 경허고 알로 재 허든 우리 연탄 재덜 알로 파고 허잖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췌 익으든 집게로 줍아서

(화덕 옆에) 도구지. 집게. (두드리는 판은) 그거는 또 여기 오면 또 이렇게. 여기 췌 익으든 췌를 해서 이렇게 집게로 해서 줍아서 여기 와서 때리는 거는, 이쪽으론 망치. 전부 다 거기. 여기는 집게. (저거 두드리는 판은) 머릿돌.

이추룩 혈 때 바람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밀었단. 그것도 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다 제작을 해서 그걸 헛다고. 그거는 한번 멘들면은 그제 얼마나 용량을 얼마나 크게 허느냐 해서 그걸 만들어. 신창에 가고 이추룩 현 때는 좀 족제. 그리고 여기서 딱 싱거서 허는 거는 거의 지금 이런 정도 (크게). 거든 이게 저기서 허든. 이런 식으로 경허든 이게 바람이 이추룩 혈 때 쑥 들어가고, 밀 때 쑥 들어가고 그렇게 헛다고 그렇게 장치가 됐어요. (불무) 그거는 이 대장 거시기 혈 때 췌를 이 저 낮, 소시랑 이런 거 멘들 때, 그거 익힐 때 그런 거 불무가 필요한 거야.

잘하는 사람이 집계질 하고

여기 한 사람, 불 허는 사람 (필요해). 경하고 최고 잘하는 사람이 장인, 그 사람이 이 거시기 하고. 이걸 기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집계질을 하지. 그다음에는 여기 와서 때린다고 여기 와서 허든 여기 와서 허든 여기서 두 사람이 메질을 헌다고. (장인은 집고 잡고 돌리고.) 게서 그거를 지금 호미, 저기 낮은 이런 식으로 뒤편 잇잖아. 처음에는 이거야. 빨간 거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멘들어야 뒤편잖아. 날 사게끔 하고. 그걸 전부 다 이걸 허는 사람이 하고 여기는 두드리는데 이 사람들도 기술자야. 왜? 맞아. 호미를 만들 때는 그걸 한 쪽에만 날 잇지. 이쪽은 없잖아. 호미 동글랑헌 거 이렇게 뒤편 거니까. 그렇게 할려면은 그걸 때리는 사람이 잘 때려야 된다고. 여기는 살리고 그걸 잇으니까 서이가 맞아. 건디 여기 때리는 사람 두 사람도 거시기 허는데 바벨 때는 한 사람도 헌다고.

뿔을 만드느냐에 따라 썰을 선정한다고

재료는 아무거나. 그거는 조금 약헌 거는 약헌 대로 재료가 여러 가지지. 그걸 보고 강하다, 뜨다 그런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건 뿔을 만드느냐에서 선정을 헌다고, 썰. 계민은 오늘 칼 멘든다 그러면 이 칼은, 날카로운 것은 썰이 좋은 썰을 해야 돼지. (칼은 좋은 쇠) 강한 거를 가지고. 그것이 기술자가 허는 거야. 이제 걸 거시기 해 보면 강한 거를 주로 보든 다 안다고, 기술자는. 주로 그때는, 우

리가 헐 때는 저기 자동차에 가든 부품, 저 자동차 그 밑에 들어가는 거시기 있어. (길쭉한) 그것을 이용했다고. 그것이 상당히 썰이 강해. 그걸 가지고 잘 조종을 해야 된다고 칼을 만듦을.

담금질을 잘해야 꺼꺼지지도 무끼지도 안하고

그걸 지금 칼을 만들어서 다 이제는 날 세우고, 갈고 전부 멘들 앓다든 그냥 뒤편 것이 아니야. 또 불에 들어가. 다 거시기 헌 다음에. 쓸 정도로 갈고 뒤편 이런 거 잘라정도 거시기 하고. 불을 조정을 잘해서 담금질이라고 해. 물에 담금질. 그걸 잘해야. 이게 그냥 발강헌 칼을 물에 그냥 담가 불은 바삭바삭 부러져, 날이. 근데 그거를 이 칼을 가지고 이추룩 물에 거시기 헐 때 조정을 잘해서 하든,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다 색깔 변해서 다 헌 다음에 나중에 담으든 그때는, 제대로 담으든 이렇게 때려도 안 꺼꺼지고 잘 무끼지도 안하고. 그게 기술자가 허는 거야.

불에 귀 가지고 썰을 잘라

(원 재료를) 그거를 불에 해서 귀 가지고 해서 때려서 그걸 잘랐주. 글썽, 이 썰을 거시기 헐 때 사이즈를 맞게시리 잘라야 된다고. 불 별경게 헌 거를, 그걸 자른 다음에 그거를 때려서 만들어서 건 거시기 허는 것이야. (자를 때는) 저기 이 날 뒤편 것이 있어. 여기가 빨강허게 뒤편 이 우이로 탁 탁 때려든 빨강허니까 잘라진다고. (이거는)

다가네¹⁰⁰⁾. 다가네라고 도끼 날, 꼭 도끼 날. 이레 때려 가면서 이렇게 허든 짝.

망치로 때리멍 모양을 멘든다고

(쇠) 이걸 가지고 이제는 구워서 이제는 둘이서 때리면서, 때리고 나 때리고, 때리고 해서 칼 거시기 해서 때리면서 이제는 칼 모양을 완전히 빨강혈 때까지 만든다고. 그면은 이게 한쪽은 얇고, 칼이 한쪽은 얇잖아. 이쪽은 두껍고. 그러니까 그게 불로 놓으면서 얇은 디는 때리면은 접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거시기 해서 이거를. 영허든 이제 이거는 칼자루 들어가는데, 그러든 이디가 얇거든. 얇은 데 요거를 잘 거시기 혈 데. 여기는 나무로 해서, 이거는 손잡이 해서 찢르는 것이라고.

(호미는) 어떠냐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허냐면 이걸 빨강게 구었으면은 동그랑헌 걸로 허면은 이거를 빨강게 허든 요런 식으로 망치로 때려서, 요 빨강게 구워. 요런 식으로 멘든다고. 요걸 동그랑게 이거 불에서 군 걸 가지고 이젠 요렇게 휘어. 영행 망치로 때리든게 삭삭 돌아간단 말이며, 그 빨강헌 거니까. 요런 형태를 만

100) '다가네'는 일본어 'たがね[鑿]'로 '장', '끌'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속의 표면을 깎거나 찍어서 문양을 만들거나 상감하는 데 쓰는 철강 공구 혹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이다.

든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켜데 그것도 이게 요런 정도, 이게 사이즈를 두꺼운 거는 너무 거시기 헌단 말이며. 칼이 죽은 칼, 큰 칼 혈 때 다 재료에 맞춰서 헛거든. 그 대신 때리면서 만들, 다 거시기 허긴 허지. 근데 같은 그 재료 보면서 다 헌다고. 그리고 이쭈룩 헌 걸 가지고 이 호미, 저 골쟁이, 여기선 골쟁이라고 허는데. 그거 허는 디도 이쭈룩헌 걸 가지고 다 멘든다고, 불로 때려 가지고.

골쟁이 멘들 때는 귀 가지고 모로 세워 가지고

이게 골쟁이 멘들 때는 이런 식으로 쥔다고. 요런 식으로 이제 멘든다고, 이렇게 질겐 안허는데 이걸 그리니까 거시기 허지. 그러면 요거를 이런 식까지 멘든다고. 그러면 이 여기를 귀 가지고 이제 모로 세워 가지고, 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든 이렇게 쥔면 이렇게 허든 동그랑게 쥔잖아.

여기를 이거(골쟁이) 머리가, 이거 여기를 구으든 이디를 헤 가든 머리 모양이 된다고. 경허든 요쭈룩 쥔 디 요걸 불로 해서 살짝 돌린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골쟁이가 영 사민 굽어지도록 멘들어. 요것이 이게 구쭈헌 것이 ㄱ로 쥔다고. 이거 하나 멘들라면은 (불에) 한 대여섯 번 들어가야 돼어.

이런 쥔로 소시랑을 멘들어야 돼

소시랑 이렇게 (납작하게) 쥔 걸 가지고 이런 쥔 가지고 소시랑을

멘들어야 돼. 겨문 (종이 자르듯) 이런 식으로 찢는다고, 요렇게. 이추룩 허면은 이제는 여기를 이거를 스타트가 여기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는 자리, 자루 들어가는. 근디 요기부터가 멘들고, 요디를 이추룩 허면 불로 허면, 요걸 어떤 식이 돼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소시랑이 이런 식으로 뒀단 말이야. 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른 이걸 불로 해서 이거 다 돌려.



안영진 씨가 '소시랑'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글쟁인 혼자라도 다 해

(글쟁인) 혼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불에서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가면 식어 붙잖아. 식으면 때리지 못한다고, 팡팡 해서 안 된다고. 익어야 지금,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해. 두 사람이 허면 빨리 돼잖아. 나 한번 때리민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지. (글쟁인) 혼자라도 가능하지. (두 사람은) 집게잡이하고, 메질하는 사람이지. 이게 뭐 혼자 칼이나 모든 것이 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야. 혼자라도 다 해. (소시랑은) 커도 썬에서 허는 거는 맞질반이라, 맞질반. 좀 시간이 조금 더 걸

리는 거뿐이지. 불에서 나오는 거니까. 것도 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니까 그게 그거는 왜 시간이 갖냐면 이 소시랑이 이게 이렇게 뒀으면 이거면 이걸 일자로 이렇게 질게 나온다고. 겨문 이걸 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이거 일 자(-) 뒀으면 이걸 옴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불로 귀서 똑같은 사이즈로 뒀게끔 해서 이렇게 귀. 겨문 여기 허고 여기 사이즈를 다 맞게시리 해야 화덕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날 달린 건 전부 담금질해

이거 칼, 칼 종류만 거시기(담금질) 하지, 이런 거는 별로. 소시랑 그런 거는 담금질 안 해. 건디 호미, 호미 이렇게 치는 거, 날 달린 거, 그런 거는 다 담금질해. 그게 제일 기술이, 그거 잘하는 사람이라야 딴 디서도 그거 잘하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담금질은) 뭐 작두, (호미, 칼) 그거 이렇게 허잖아. 날 아냐. 좌우간 날 잇는 건 전부 다.

돌에 쓰는 것도 담금질 잘 해야 돼

돌일허는 거는 그것도 기술자가 필요하지. 그 이제 정은 죽은 걸 집어 넣어서, 근데 여러 가지란 말이야, 것도. 손잡아서 이렇게 허는 그 꼬트머리가 다 돌에 쓰는 거니까 다 담금질을 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꼬트머리가 빨리 이거 한두 번이면 막 뭉개져 분단 말이야. 오고라져, 돌에 가서 이렇게 때리민. 건디 담금질 잘 허면은 이게 팡팡해서 이게 잘 안 휘어진단 말이야. 겐디 멘들 때도 잘

해야 되고, 담금질도 잘 해야 되고.

지름에는 담금질 안 해 봤어

(담금질은) 물론만. 지름으로 허면은 이, 주로 허는 것이 아까 그 칼, 그런 재료할 때는 기름에 담금질하지. 그렇지마는 나는 지름에는 안 해 봤어. 지름에 하면 썬가 연해진다는 말이 있고, 나는 해 본 사실이 없고.

담금질은 색깔을 보면서 조정해야지

그게 색깔을 보면서 한다니까. 빨강헌 거는 물에 노면은 까맣게 지잖아. 근데 그 색깔이 그 우이로 빨강해지면서 색깔이 나온다고 거든 그게 다 기술자가 허는 거라. 그게 만약에 우이로 거시기 해 불민 다음에 부러져도 우이로 거시기 하지. 알로 거시기 허면은 그 아래만 부러지잖아. 게민 그건 다음에 굴앙이라도 쓰고. (담금질할 때) 그런 걸 잘 조정해야지.

담금질한 다음에는 가는 거

건데 그게 거시기 헌 다음에는 일단 담금질 다 헌 다음에는 칼은 가는 거. 아래에 거시기 까맣게하시리 전부 다, 것이 잇잖아. 그걸 전부 다 이제는 그게 칼 같은 거. 썰젠 허민 문지가 없게 그걸 깨끗이 갈아야 웬단 말이여. (가는 건) 옛날에는 우리는 그때는 신돌 그

거베끼 없어. 근디 지금은 여러 가지 나와 있어. 그라인다 뭐 모든 것이 이제는 다 그런 게 나와 있어.

즈룩은 요 콧댕이 싹 허민

그거 다 거시기 하지. 칼 같은 거는 다 처음에는 거시기 헌 다음에 불로 요 꼬뜨머리만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허민 그냥 이디, 요디를 칼로 요런 식으로 잡거든. 그러면 요런 디 요기 꼬뜨머리 가서 딱 해서 싹 밀리민 요디 불이니까 나무에 싹 카면서 쑥 들어간다고. 경허민 그때 가서 즈룩이. 옛날엔 이런 식이고, 지금은 쉼로 이 즈룩을 전부 만들어. 나무로 해서 꼬뜨머리 카바¹⁰¹⁾ 쓰고 해서 궁기 해서, 옛날엔 이렇게 없어. 나무에 나무 같으면 그냥 불 가지고 쑥 해서 그냥 해서 끝났어. (즈룩은) 뭐 그냥 요 콧댕이 싹 허민 바로 그자 뭐.

때려서 날을 멘드는 게 베림이라는 거야

호미, 이런 걸 많이 가져왔거든. 가정 왕 허민 그거를 전부 허민 다 빼. 즈룩에서 빼야 불에 가서 그걸 이제는 새로 날을 멘드는 거야. 불 구민은 거 다 해서 이걸 때려. 그거 왜냐면은 신돌로 갈아 불고 허니까 막 뭉툰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귀 가지고 이제는 때려서

101) ‘카바’는 물건을 가리거나 썬는 ‘커버’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그거를 이제는 날을 멘들어. 그게 베림이라는 거야. 이렇게 자리가
 돼어 있으면 요디, 요디 두 번 들어간다고, 근디 보통 한 세 번, 잘
 콤콤이 허게 되면 서너 번 허게 된다고. 건 왜 그러냐? 이게 이 요
 령게 날 한 번 신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울통불통하믄 안 된다는
 말이야. 쓱 허게 골라야 돼. 그래야 갈아도 똑같이 갈아진다고. 만
 약에 여기가 노프게 뻗다믄은 그디만 갈아지고 밑에 날은 안 갈아
 진다고. 그니까 그런 거를 잘 해서 빨강혈 때 망치로 잘 두드려야
 된다고. 근데 보통 침 바쁠 때는 그렇게 해 줄라고 해도 못 허고. 사
 람이 (줄 서서 기다려). 전부 다 혼 부락 사름덜 그때는 하루에 비가 조
 금 이추룩 축축헌 날은 뭐 뭐 멧 십 명씩 왕.

호미 하나 베리는 디 보리로 얼마 규정이 돼 있어

게난 그걸 거시기 해근에 이제 담금질 다 허면은 여기서 기자 어
 디 한림 어디 멧 반 누구 해서 얼마 영 허여. 장부, 호미 하나 거시
 기 허는 디 쌀이 얼마 다 규정이 돼 있어. 하나 베리는 디 그때는 쌀
 로 아니고 저 보리, 보리. 보리로 그때 두 돼 받아신가 그럴 거야.
 경허믄 그때는 다 끝낭, 그거 해 췌 다 끝나민 나도 집이 와. 신창
 잇다가 이제는 여기 와서 보리 다 장만할 때는 여기서 보리 그걸
 수금허레 이제 니아까¹⁰²⁾ 꾹엿 돌아댱기면서 다. 게믄 가민 딱 “멧

102) ‘니아까’는 손수레인 ‘리어카’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말이우다.” 경허민 거기서 딱. 돌아댱기면서 그걸 허믄 멧 가마 저
 저, 멧 구루마 돼지. 혼 번 거시기 허는 디. (샅을 안 주는 사람은 없어.)
 나 신용보담도 절대 그런 거는 없어. 상당히 보리 한 줌이라도 더
 줄라고 허지. (받아 온 보리) 여기 가지고 오믄 그때는 팔지. 우리 외
 가, 우리 외가가 다 여기 살아. 겐 못살아 노니까, 농사 안 지으고
 허니까 그땐 오믄 멧 가마씩 그레도 주고, 서로가 느나 먹고.

자루는 내가 끼우곡 ㄱ는 것은 다 지가

(농기구 갈아 주고) 그런 건 없어. 딱 거시기 허믄 그거는. 또 그리고
 처음에 담금질허기 전에 불에서 나왕 식으믄 ㄱ는 것도 다 지가 다
 가서. (자루 끼우는 건) 내가 다 해 주고. 건디 골곡 허는 거는 다. 거민
 저디서 멧 사람이 샅앙덜 기냥 골곡. 건디 지금은 그라인다도 잇고
 뭐 거시기로도 잇고 싹싹싹 허는디, 그때는 죽으나 사나 신돌로 해
 야. 거민 그것도 신돌을 거친 거 잇곡 두 가지 잇주게. 경허민 그거
 처음은 “올로 험서.” 해근에 허곡 그다음엔 넘어가명.

쓰는 거 몽그라지믄 불에 구워근에 때려근에

좌우간 쓰는 거는 칼도 막 그냥 몽그라지믄 것도 맞질반, 그것도
 호미같이 때려근에 똑같이, 것도 허고. 좌우간 주로 지금 이 농기
 구 별로 판 거는 별로 없어. 만약에 소시랑이 요거 하나 지금 올로
 팔라져 불었다. 게믄 그건 쓰지 못허잖아. 그믄 그거 똑같이 이렇

게 맨들아 줘야. 불로 그걸 때려근에 그걸 사이즈를 다 맨들아 줘. 그런 것도 날 돋은 거는 다. 작두도 다 허고 또 작두도 만들기도 허고. (글쟁이도) 꼬뜨머리가 다 이 몽그라져 분다고. 땅에 이렇게 헤가든 이게 몽탁져 불잖아. 경허든 이거를 이제는 불에 구워근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돌리면서 허든 이제 요런 식으로 (뽕죽하계) 맨들아진다고. 경허든 지금 똑같이 새 거. 겨든 그게 글쟁이가 이게 그것도 사이즈가 다, 어느 정도 거시기 다 있어. 너무 번어도 안 돼고, 너무 옥아도 안 돼고.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잡아댕기고 거시기 허는 것도 다. 그런 거 저거 다 잘 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쌀도 주곡 허지. 이 저 이 땅 파는 이 저 글쟁이, 그거가 아이고, 쟁이. 그런 것도 다 몽그라지거든. 그런 것도 다 가져와근에 전부. 좌우간 쓰는 거는 거의 가져와.

젠노도 담금질 잘 허면서 다 만들고

젠노¹⁰³⁾ 그거는 돌 다듬는 거. 그것도 다 만들고 그추룩 했지. 근데 그게 아까 젠노엔 헌 거는 돌을 거시기 그 양쪽에 이추룩 허든 이 저 모서리가 그것도 잘 담금이 잘 돼야지, 게 아녀면 이게 이 거시기 해. 이게, 이것도 기술자들이 해야 돼. 이게 그러든 이게 이디

103) '젠노'는 일본어 'げんのう'에서 온 말로 '돌을 깎을 때 사용하는 큰 쇠파'를 말한다.

가 몽크러지면은 돌이 안 까까지거든. 그러면 그게 담금질을 잘 허면은 그게 덜, 가부라지긴 허지. 근데 덜 가부라지지, 탄 거보다도. 경허고 그거허고 징. 그거 이제 굵기덜, 돌을 큰 돌을 거시기 헐라면 이추룩 쏘는 거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만씩 헌 것덜. 건디 이런 것도 허고 이런 것도 여라 가지야. 이것이 큰 것도 있고, 사이즈 그냥 그 돌을 건 보통 돌 허는 사람들은 별로 어신디 크게 허는 사람들은 질게 그걸 굵기 여러 밧디서 비석 하나로 쩍. 헐라면은 여러 가지, 건디 그것도 징이 여러 가지 들어. 그것도 만들었어.

담금질 끝나는 다 끝나는 거주

(담금질) 거시기 허는 디는 뭐 한 두어 번 들엇당 나와근에 끝나기 시작허든, 두어 번 그디 헤영 나오든 불에 나오든 식어야 웬단 말 이어. 그 이제는 그걸 곶아. 그다음에 또 해근에 담금질허든 끝나. 건디 자리가 나쁘면은 그자 그 자리를 처음에 불 갈기 전에 전부 다 자루 그건 박아 주고. (두드리는 거) 다 해근에 이제 곶안에 담금질을 끝나는 다 끝나는 거야. 그든 끝나는 거야. 건디 그것도 그냥 여기서 갈아 불든 집이 강 며칠 잇당 보든 전부 녹나 분다고. 게난 그냥 가정 가야 돼. 여기서 처음에 둥근 다음엔. 그다음엔 집이 갓당 "내일 아침이 갈 거여." 허든 저녁에 갈앙 가는 거라. 건디 그 빨리 곶아 불든 날 꼬뜨머리 다 거시기 해 분다고, 녹 피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냥 가정 가야 돼.

농사철마다 출장을 땡기면서 베림해

여기서 그레 출장이 보리철, 조철 그때마다 이 출장을 땡기면서 일했어. 신창도 (대장간이) 없었어. 근데 신창 그 질 옆에 그디 지금 저, 지금 중학교 들어가는 디 거기 쪼그만헌 집을 하나 빌어 가지고 그때 한, 한 일 개월 정도니까. 그게 그 일을, 그게 꼭 해야 돼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릴 빌랴면은 무끼곡 그러니까 그걸 와서 베림이라고 불에서 그걸 해서 담그고 다 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또 보릴 비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걸 그디 가, 출장 나가서 그걸 했었어.

다음 해 또 스월달 돼민 또 신창 가근에

(신창) 일허는 디는 사름들 사는, 주막. 이 저 딱로 주막이 있던 마당이, 구석에 그런 디랴어. 머릿돌 같은 거는, 불미 그런 거는, 그디 나 거시기 (신창에서 불미) 헐 때는 다음에 가니까 그거는 그디 낱 놔둬. 내가 빌렸으니까 그 자런데 그대로. 그 대신 쓸로 마다리, 멧 마다리 줘, 그디 집 거시기 허는 디를. 게니까 내 마음대로. 거른 다음 해 또 스월달 돼민 또 그디 가근에. (모릇들은) 그디 놔둬.

젠디 내가 안 허다가, 다 군대 갔다 오고 모든 걸 거시기 (정리) 헐 다음에는 보니까. 어떻게 땡는지 몰라. 불무 머릿돌, 전부 다. 젠디 보니까 어디 조수, 조수에서 땡 해. 나가 그걸 이제 와서 내가 해서 뭐 하리? 건 뭐 돈도 돼지 않고. 지금 내가 필요허다면은 허지마는 바당 땡기면서 짐만 돼지, 필요 없거든. 신창베끼 안 갔어. 신창은

상당히 그디 먼 부락마다 다 오니까 혼자론 그것도 버쳐.

신창 갈 때마다 수양어머니가 밥해 주고

신창에 우리 어머니, 수양어머니가 참. 그 일을 혼자서, 총각 때 나가니까 밥을 못 해 먹지. 아침 일찍 오니까 일허다 오면 밥 먹어야지. 또 점심, 그걸 우리 신창 우리 수양어머니가 해 줬어. 거기는 아들이 성제, 딸 하나 이추록 있는데 큰아들은 일본에 살곡, 여기는 작은아들, 딸 하나, 어머니허고 할머니허고 해서 나까지 다섯 사름이 사는디, 그 어머니가 신창 갈 때마다 밥을 해 주고 그랬었다고.

농번기 삼사월에 바쁘지

(제일 바쁠 때는) 농번기지. 주로 지금 삼사월. 다 이걸 멘들어야, 해야 돼니까. 경허고 이 그리고 그 부담도 그걸 여유 있게 멘들어야. 젠디 난중에는 저 멘들아서 지금 공장에서 폐와났어. 장에 안 가근에 일헌 사름, 허레 왓당 호미도 상 가는 사름도 잇고, 골쟁이도 사 가는 사름 잇고, 공장에 그디 한쪽에 만들어서 걸 그추록 파는 거. 그걸 그추록 헛당 장날은 그걸 이제 싸근에 이제는 장에서 풀앙 올 때는 쌀 사곡.

불 거시기 허는 딴 흑이 최고야

(화덕에) 세멘¹⁰⁴⁾ 일절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세멘 돌은 불이 들어

가면 다 떼어져 분다고. 불 빨강케 해 가면은. 흑이 최고야. 근디 흑 에다가 이 저 수세, 저기 저 찍을 많이 놔 가지고. 건데 그게 이걸 이중 식으로 불 때는 디도 이렇게 높여근에 이렇게. 여기 이추록 해서 췌를 놔서, 겐디 이딘 재 파게 되고, 일로 경허믄 불 우에서 열 달여서 요렇게 전부 커. 크게시리해서 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 들지. 거믄 그게 연탄을 그 우에 딱 채워지게, 이디 우에. 이디 불, 일로 불 거시기 헌 디 가트믄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연기 나가 는 거거치 이렇게 췌로 해서 이런 식으로 멘들아서 해서 그디 그렇 게. 화덕이엔 헌 건 뭐 불 거시기 허는 걸 보고 화덕이엔 허는디. 화 리, 화덕 뭐 그런 우리 거시기 하면서는 거의 누구허고 뭐 거시기 말을 안 허고.

우리 모루는 용접행 부짚 거

(모루) 우리 거는 지금 상당히 선한 것이 어디 가도 그거는 선해. 율로 이렇게 딱 부러졌어요. 건디 그걸 거시기 허니까 용접 알쥬? 부짚 거, 이거 돌아가면서 부짚 거예요. 보믄 딱 알아요. 나무 저 큰 통나무 이런 거를 이 키에 맞춰서 다 해서 땅 파서 묻어. 그딜 그아 래를 내려가지 말아야 돼거든요. 걸 우에서 때리는 것이 안 내리 게. 게니까 그걸 아래 파 가지고 심어서 그걸 자릴 해서 우에도 움

104) '세멘'은 '시멘트'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직이지 못허게 다. 그 아까 이게 여기 이렇게 돼도 여기가 이거 요 령게 됐어요. 또 요디도 이런 식으로. 경허믄 이걸 나물 파근에 들 어가게시리 이딜, 이 자리를 들어가게시리 정확허게. 그렇게 해야 움직이지 않잖아.

숯을 쓸 만이 사당 허고

처음에는 숯을 썼어. 겐디 막 난중에는 이 저 고구스¹⁰⁵⁾. 고구스, 석탄. 그거. 고구스가 그거. 들어완. 겐데 그 전이는 숯을, 옛날에는 산에서 숯 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숯 꺾서 장날마다 풀레 와. 거믄 우리가 그걸 가마니에 크게 실은 거, 그거 혼 장 쓸 만이 이제는 사당 허고.

췌는 고물상에서 사지

거기는 그게 우리는 상대를 고물상을 상대허니까, 그런 거 들어 가니까. 필요헌 건 그기서 다 사지. 그러고 또 그다음에 췌 재료를 요새 집 짓는데 그 공고리¹⁰⁶⁾ 헌 데 이런 거 잇잖여. 공고리 묻는 거 말이야. 이런 거, 그것도 많이 썼어, 재료로. 그게 골갱이 멘들 때 그 걸로. 고물상에도 가고, 저런 거는 철물점, 그거 저 제철, 그거 합관

105) '고구스'는 석탄의 일종인 '코크스'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106) '공고리'는 일본어 'コンクリート'에서 온 말로, '콘크리트'를 말한다.

같은 거 췌 같은 거, 새 거 취급하는 디가 있어. 이제도 있을걸? 새 걸로 만들어서 주물 해서 나와. 그리고 그 주물, 그걸 주물이라는데 그건 췌를 녹이고 만든다는 건 그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 하고.

웃은 뭐 아무거나, 장갑 그런 게 어디

웃은 뭐 여기 마이갓빠¹⁰⁷⁾여 뭐여 그런 거 저런 것이 없어, 아무 것도. 그니까 이 불이 여기 막 그냥 불이. 이제거치 이 장갑 나오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그때는 조리¹⁰⁸⁾, 알아? 게다¹⁰⁹⁾. 이놈이 일본 시대. 그때는 그렇게 헐 때지, 무슨 뭐. 정말로 요새 사람덜 참 가만 이 젊은사람덜, 내가 이제 팔십으섯인데 젊은사람덜 허는 거 보든 참 너무 정말로 이제 이거, 아이구.

이디 짹 짹여전 땃 방울 꼬메져실 거라

췌 튀어 나와서 이디 짹 짹여전. 이거 세 번 일로 이까지 헐어. 이 거. 건데 것도 뭐 재수 좋으난 이거지. 그때 어릴 때, 그때 거시기

-
- 107) '마이갓빠'는 '양복 상의'를 가리키는 일본어 'かたまえ'와 '비옷'을 가리키는 일본어 'カッパ'를 섞어 쓴 듯하다.
- 108) '조리'는 일본어 'ぞうり'에서 온 말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신발을 말한다.
- 109) '게다'는 일본어 'げた'에서 온 말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서 신는 일본식 나막신을 말한다.

헐 때. 췌찬해여. 그냥 병원에 강 여기 땃 방울 꼬메져실 거라.

한 달에 두 번 보름날, 그믐날 제사를 지내

그거는 꼭 한 달에 두 번, 보름날 그믐날 제사를, 꼭 강 제사를. 이 때리는 디 이 앞에. 이디, 그디 가근에 상 자리 폐왕 상을 그디. 뭐, 보통 뭐 뭐 다 술, 다. (과일도 올리고), 다, 다. 경허고 딱 이 (똥지)머리, 머리 딱 올리고. 경허고 그거 헛젠 해도 사람 먹젠 거 허는 거 주, 무신 귀신 왕 먹는 거라게. 경허단 보든 그디 식구들허고. (제사는) 그날 아침에. 그냥 우리 그 식구들만 헛주게. 나 절허고 동생이 그냥 술 허고 거시기 해서 다 헛 다음에는 모든 걸 내가 다. 다 끝나면 술 음복 다 허든 그걸 허든 불무 잇는 가근에, 한 밧디 가근에 그 거 조금 떼어 놓고 이디. 그거는 판 사람은 모르겠는데 췌디 그거를 보면은 허기야, 다 사람이 먹기 위헌 거주 뭐.

형님, 동생, 나 모두 다 기술자지

(집계) 잡기는 다 잡았지. 형님이고 동생이고, 근데 우리 형님 군대가 불고 나 군대가 불고 허니까, 안 잡았으든 동생이 그 일을 못 헐 거 아냐? 다 기술자지. 그때가 내가 군대 간 보니까 내가 미군 부대 카추샤로 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이 나 허든 디 가서 줌 거시기 (불미일) 허고 잇더라고. 췌디 참 보니까 늘 안 똥고 그때는 나도 자리를 잡고, 그거 안 해도 살 정도가 똥니까. "너 알아

서 해라.” 해서 동생이 허다가 허든 기구, 망치 모든 거, 다 불무 다 나도 어떻게 댔는지 몰라. 동생이 허다가 걸 처리해 버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나는 수산업에 종사

그래서 나는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젠 배를 해서 거시기 현디 배도 해서 잘 댔어요. 근데 나는 (대장간을) 왜 안 했냐. 그때 동생하고 형님은 했지. 하르부지도 잇고 허니까. 나는 제외 아냐? 제외가 아니고, 없어도 운영은 돼잖아. 게니까 이렇게 같이 다 거시기 허지 말고, 수산업도 잘 허면은 켜찮으니까 나는 수산업에 종사하겠습시다. 그래서 나는 수산업에 들어갔지. 허기 시작허니까 잘 댔어요.

듣기에 거시기 했지만 저 불미쟁이라고

내가 헐 때는 듣기에 거시기 했지만 저 불미쟁이, 불무쟁이라고 했어. 건데 그게 듣기엔 상당히, 것도 다 기술적이란 말이야. 건디 첨 그렇게 또 일을 거시기 헐 때 보기에 천허게 좀 뵈다고, 옛날 사람들은. 근디 무당보다 그 무당보단 낫는디 조금 이 대장간에 불무쟁이들이 조금 낮게 뵈어.

그땐 아무것도 없으니 불이 밥이고 전부야

그런 건 정말로 이 말도 못 해, 불 앞에서 허는 거는. 여기도 불, 여기 가정 왕 여기도 불, 전부 다 거시긴데 무슨. 안 헐 수가 없지.

그때는 참, 이제는 옛날 생각허믄, 그때는 말이야 안 허믄 말야 죽으니까. 왜 그때는 बात, बा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밥이고 이 일이 전부야. 안 허믄 죽어. (먹을 게) 나는 디가 없으니까. 게믄 그거 해영 폴아근에 올 때는 그냥 버스 탕 왕 빨리 행 성들, 동생, 어멍, 하르방 다.

이젠 허젠도 안 허고 헐라고도 안 허고

이 보람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글로 기초가 돼니까 게도 연관이 돼거든. (아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젠 그것도 허젠도 못 허고, 헐라고도 안 허고, 헐 수도 없어요. 이게, 이게 불에서 허는 거고, 이게 상당히 위험헌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허는 걸 다 이렇게 꼽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게 다 불에서 다 형체를 멘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대장일) 지금 다 지금 없어지고 잇다고. 이제는 젊은 사름이 그런 걸 배울려고 안 헌다고. 불 앞에서, 더운 데서 허는 일을 안 헐라고 헌다고.

멘드는 걸 보민 땃 년 헌 사름 다 알지

근디 그게 딱 기술자가 볼 때는 아, 이 사름이 수준이 어느 정도다. 멘드는 거를 보고 다 판정헐 수가 있어요. 그걸 켜데 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농기구거든. 농사허는 데 꼭 필요헌 거거든. 경헌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멘들어야 돼. 너무 오그라져도 안 돼고 너무 벌어져도 안 돼고. 그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멘들어야. 그걸 삭 멘든 걸 보면서 판정을 하지. 저 내가 감독이면 그걸 감정을 허죠. 이걸 어떻게 어떻게 걸 딱 거세기 허믄 이걸 몇 년, 이걸 몇 년 헛사를 다 알지.

다시 일을 한다면 대장장이는 안 해

난 지금 헛다면은 수산업으로 들어가지, (불미) 그거는 안 해. 이제 점점, 아니 경헌다고 해도 이런 것을 배울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걸 헛다고 허는 건 점점 농사를 안 할려고들 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멘들어도 팔아먹기도 (어렵고).

부지런한 아버지의 불매왕,
꼼꼼한 형이 이어받아

한림읍 수원리 조영진



조영진 씨(1950년생)는 한림민속오일시장에 있는 대진철공소의 대장장이 조대옥 씨(1945년생)의 동생이며, 한림초등학교 앞에서 대장간을 하던 한림 토박이 조여길 씨(1898년생)의 아들이다.

한림리 제보자를 통한 정보와 제주의 불미 관련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수소문 끝에 2023년 5월 19일, 조대옥 씨(1945년생)를 만날 수 있었고, 이어 5월 30일에 조영진 씨를 만나 아버지와 형의 ‘불매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조여길 씨는 한림 내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손꼽는 ‘불미’ 장인이었다. 조여길 씨가 운영하던 대장간은 달리 부르는 이름 없이 그저 조 대장네였다. 조 대장네는 쇠를 녹여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히 제작해 주던 곳이었다. 농기구든 말할 필요도 없으며,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켓장석, 통췌, 물부리, 무당 칼 등도 조 대장네에서는 제작이 가능했다.

부지런한 성격에 불미 기술까지 뛰어난 조여길 씨가 돌아가시게 되자 맏아들 조대옥 씨(1945년생)가 남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버지의 대장간을 이어 운영하였다. 조대옥 씨 역시 아버지의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아 아버지의 명맥을 이어 한림 내 손님이 끊이지 않던 대장간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한림민속오일시장으로 대장간을 이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화덕에서 불순물이 채 제거되지 않은 쇠를 녹이다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조대옥 씨는 이 사고 이후 각막 이식을 세 차례나 받았고, 손에는 파편이 박혀 손을 온전하게 쓸 수 없게 되었으며, 말을 잘 못하게 되었다. 이후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망치질을 하고 집게질을 해나가면서 아내와 함께 다시 대장간을 운영해 오다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 가게 문을 닫았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누구보다 따스한 형을 기억하는 조영진 씨의 구술을 통해 한

림에서 성행했던 조 대장 부자의 대장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조대옥 씨에게는 지금도 언제 다시 대장간 문을 열 거냐며 그를 기다리는 해녀, 석공 등 단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몸은 자유롭지 못해도 마음은 늘 대진철공소로 향하는 조대옥 씨의 마음을, 동생인 자신은 안다는 조영진 씨의 말에서 불보다 더 뜨거운 형제 간의 우애를 느낄 수 있었다.

1898년생 아버지는 1958년까지 대장간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생년월일이 천팔백구십팔 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나이 차이가 이십 년 차이가 땀어. 그런데 이제 그 관둔 지는 아마도 천구백오십 년, 그때가 한 오십팔 년이나 오십구 년 정도에 관두지 안했나? 이제 우리 형이 물려받았거든요. 형이 물려받아 갖고 천구백육십삼 년에 돌아가셨나? 내가 중학교 이 학년 때. 천구백육십삼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니까 내가 열세 살이니까 중학교 이 학년 때죠. 중학교 이 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일) 거의 다 기억해요. 형이나 아버지나. 어렸지마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서부터 봐 왔으니까.

아버지의 대장간을 형이 이어받아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살았던, 내가 태어난 곳은 그 길이 돼 불었주마씨. 그러니까 그 길난 데서 이제 그때 양철집

이었는데. 이제 그 양철집에서 우리 태어났는데 거기서 헛거든마 씨. 정확한 그 헛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이 오늘까지 이러다가 내일 깨꼬닥하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 삼 년으로 볼 때 형이 그걸 맡아 갖고 헛거든요.

형이 어릴 때부터 그걸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난 싫어하고. 난 그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형이 그걸 하는 거 보면 막 꼼꼼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지켜서 봐요. 우리 아들이 잘하나 못하나 굉장히 웃는 모습이. 만족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난 그걸 봤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고, 형이 그걸 이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 보고 아, 이거 그때 당시에도 내가 어린 마음이지만 아,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더 그때 생각이.

(형님 말씀이 아버지는 반대했다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은 좋아했어요.

부지런한 아버지는 일어나면 대장간으로 가

베리는 일, 만드는 일 다 많이. 난 어릴 때는 놀랐더라고요. 그 만드는 거 보고. 저렇게 어떻게 만드나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좀 게으른 성격이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이라 일어나면 그 글로 가요. 가 갖고 이렇게 저기 만들고 그러는데 만드는 거 보면 아,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더라고요. 나는 성격이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도 이제 지나쳐 보고 그 당시에 그래도 눈이 있어 갖고 꼼꼼히 만든다.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꼼꼼히 만들지? 그런 생각하면서 보긴 봤죠. 신기로우니까.

(아버지는) 거의 혼자. 그리고 사람들 힘든 일 있으면 도움 청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돌 만드는 석수쟁이들, 돌쟁이라고 하는데 그 돌쟁이들이 뭘 만들어 오면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써야 하는 일들을 이제 할 때는 본인이 직접 메질도 하고 그런 사람. 직접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자기가 있어야 돼잖아요. 있으면서 “아, 이렇게 만들어 줘서.” 뭐 “저렇게 만들어 줘서.” 말을 해야 돼니까. 그런 사람 이용해서 같이 일하고 기술자는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만든 켓장석이 제일 기억나

아버지 내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켓장석이라고 알아져마씨? 이제 문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또 모양내잖아예. 그 켓장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만들고. 뭘로 만드는 거 하면. (그림을 그리며) 이런 식으로 헤 갖고 여기 못질 해 주고. 그 랫지, 못질 해 주고. 여기도 이제 모양내는 게 있수다. 여기 문에 보면 여기 또 여기저기 많이 있어마씨. 이외에도. 이거는 이제 통췌라고.

(켓장석 같은 건) 주문해마씨. 주문하지 안허믄 안 만들지마씨. 어



아버지가 만들던 '켓장석'을 그리는 조영진 씨

려운 거라. 그리고 하루 이틀에 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켓장석은 도라무통을 익혀 그림 그린 뒤 잘라

그 재료는 어디에서 구입하는가 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그 대포알 잇쥬? 그 껍데기가 신주¹¹⁰⁾로 뛴 있어마썸. 신주라고 해마썸. 철은 철이주마썸게. 그 뛴. 알다시피 뛴 그 원소 아, 압니까? 그 원소가. 신주라고 그걸 그게 황동이라고 해마썸. 황동. 신

110) '신주'는 낫쇠의 일본어 'しんちゅう[真鍮]'에서 온 말인 듯하다.

주는 아마도 일본 사람들 사용헐던 말 아닌가? 그게 그 대포알 껍데기라마썸. 그거 하나뛴 몇 개 만들엇주마썸.

켓장석은 도라무통. 그거 불에 반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처음으로 단조질을 해가면서 꺾가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편편하게 해 놓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 그려 놓고. 그 썸을 이렇게 그 작두질하는 그 작두 날이 잇어마썸. 이제 그걸로 이제 둥그렇게 자르려뛴 그걸로 이제 썸 잘라 뛴야지. 모양으로 이렇게. (자를 때도 불에 달궈야) 그렇지 않으면 안 잘라지니까. 어떤 힘으로 그거 잘라? 그러니까 그거 불로 익혀 갖고 모양을 이제 다 모양을 내놓고 잘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불에 구면서 모양을 내요. 모양 이제 완전히 여러 날 걸리겠쥬이? 그 모양 내려뛴 해 놓고 이제 못 박을 자리도 다 구멍 내줘야 뛴고, 그 못 박을 자리도 못 만들엇어요. 못을 어떤 식으로 만들엇냐 하면 못이 이렇게 생겠잖아예. 요 못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뚜껑을 이렇게 만들엇어요. 해 갖고 요거를 여기다 박은 거쥬. 안 만들뛴 안 뛴니까.

다 만든 켓장석에는 골탕을 칠하는 거

그 다 만들고 난 다음 그 옛날에는, 지금 이제 아스팔트칠 잇잖아요. 저 뛴 옛날에는 버렐던 칠인데 저 칠도 그때는 굉장히 귀헐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사와요. 그걸 깨 갖고 한 덩어리씩 사다가 불에다 녹혀요, 골탕. 그걸 깨 갖고 이제 불에 녹히면 질질 녹

잖아요? 녹을 때 붓 이렇게.

붓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돼지 잡을 때 그 털을 부탁해요. 그럼 붓을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갖고 그 이제 질질 녹는 그 골탕을 푹 찍어 갖고 그 켓장석을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칠다 돼 잇잖아요. 그거, 그거, 그거 식으면 전혀 저기 손에도 묻지 않고 좋아요. 그때 그게 잇더라고요.

은으로 이쁜 물부리를 만들던 아버지

저기 담배의 그 저기 뭐라고 합니까? 물부리, 그 저기 담배통 잇지예? 요렇게 생겨 갖고 쥘런, 그 밭에서 나는 저기 담배 이파리를 썰어 갖고 지, 지갑 만들어 갖고 지갑도 묘하게 만들어 갖고 돈지갑처럼 만들어 갖고 거기다 칼로 썰어 갖고 놓고, 그 담배 피우는 곰방대라고 하지예? 이제 요즘 말로. 이렇게 해서 여기 흡입, 이제 쪽 빨면 이렇게 잇는데. 여기 담배 놓고. 여기 담배 이렇게 막 이파리가 들어가지 안해수과예? 들어가면 이게 딱 차면 숨이 막히니까 안 돼니까 이게 또 저 뚫려 주는 기구가 있어요. 요런 기구. 이 구멍은, 실 꿰어근에 이제. 그 어디 담배 그 저기 지갑에 이걸 이제 실로 무끄지. 요거를 여기다 꺾 눌러줘야 저 솟으로 불붙이든 라이터로 불붙이든 하여튼 불붙여 갖고 담배를 피우거든마씨.

요 곰방대 여기까지 췌가 들어가고 이것도 거의. 거의 은으로. 요것도 요까지, 요까지 은으로 만들어. 모양도 참 이뻐요. 이거. 이

렇게 이게 대나무고. 검은 대나무 잇지예? 검은색 대나무. 대나무가 들어가. 게 요런 거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어마씨. 거의. 그리고 백철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만든 말 안장

또 뭐 만들었냐 하면 말 안장 잇죠? 말 안장도 만들었거든요? 기가 막혔어요. 그 말안장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나무로 만든 그 칼 잇죠? 그 사무라이들 쓰는 그런 칼도 우리 집에 있었고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제 잇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내버려 두고 간. 그 말 안장 잇죠? 말 안장도 그 순 가죽.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그 말 안장이 가죽으로 돼 잇더라고요. 아주 그냥 멋있어요. 요즘 그 저기 말 타는 그 말 안장은 상대가 안 돼죠. 이건 뭐 아주 그냥 뭐 좀 둔탁하죠. 그렇지만 멋있어요. 게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고.

우리 아버지가 만든 말 안장이 있었어요. 요렇게 헤 갖고 손, 손잡이도 잇고 현 거. 그런 것도 만들었거든요? 말 안장 만들려면 아마도 그런 재료(가죽)도 사 오지 안했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나 모르겠어요, 만드는 것만 봤지. 말 안장.

무당들이 쓰는 칼도 만들어

무당들 쓰는 또 칼 있죠? 뭐 시어나라 칼이고 해 갖고 그거 알아요? 소리 잘랑잘랑 댜면서 이제 허는 거? 그거 제일 잘 만들지 안 했나. 하여튼 다 잘 만들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신기스러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나 하고. 당시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당들 쓰는 칼. 어떤 건지 알지? 그거 양쪽 두 개 해 가고 그거.

그때 당시에는 별게 다 있었어요. 동전 있죠? 엽전. 엽전도 우리 집에 이제 그 무당 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같으면 보물인데 그게 한 몇 톨박씩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거를 녹혀 갖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보물이잖아요, 그거. 이게 뭐 하나에도 이제 엄청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몇 톨박씩 가져와요. 녹여 갖고 그 무당 칼 만들어 달라고.

어렸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정밀하니까. 옛날 사람 요즘 사람 정밀하게 만드는 거 보통 그렇게 요즘은 뭐 이제 물론 컴퓨터 시대겠지만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밀하게 만드는 거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거든요.

불미는 췌를 익혀 두들겨서 만드는 데

두드려서 만드는 걸 보고 단조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표준어예요, 단조라는 말은 표준어예요, 표준말. 그 단조를 사용하기 때문

에 췌에서 껌질이 일어나요. 불에 구워서 두드릴 때마다 껌질이 일어나요. 묘하게도 근데 은은 안 그렇더라고요. 껌질이 안 생겨요. 또 이제 구리, 동, 저기 저 무당들 춤추는 칼 것도 저기 그 껌질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동이나 그다음은 뭐 황동, 저기 뭐 동도 두 가지 있잖아요. 이제 췌 익혀 갖고 아까 단조로 두들겨서 만드는 데보고 불미라고.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거 다 만드는 대장간

그러니까 이제 만들었던 건 주로 이제 낫이 있고, 골쟁이. 그다음 췌시랑이라고 이 췌시랑. 그다음 곡쟁이. 또 뭐가, 하여튼 만드는 게 뭐 거멸장이라고 아세요? 거멸장은 어떤 건가 하면 옛날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이렇게 세워 놓고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여기다 박고 이 췌로 여기다 박고 해 버리면 움직이지 않지 안허파? 이걸 거멸장이라고 해마씨, 거멸장. 이거는 어떻게 생각나네. 이걸 못 빼기인데 철채로 쓰기도 하고 못 빼기로도 쓰고 이런 것도 만들고. 또 거멸장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 엄청.

하여튼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건 대장간에서 엄청 많이 만들었주마씨. 그게 기억엔 다 안 돼 잊주마는.

아버지의 불멧간에는 머릿돌, 망치, 폐

(아버지의 대장간은) 불멧간. 공간이 약 다섯 평 정도? 여기서부터

저 넓이.

거기 저기 영어로는 엠빌(anvil)이라고 하는데 그 머릿돌¹¹¹⁾이라고 합니다. 머릿돌 밑에 켓덩어리 잇잖아예. 여기는 빼쪽허고 여기는 구멍 네모난 구멍이 잇고 동그란 구멍이 잇고. 가운데는 이제 평평허게 헤 갖고 그 위에다 이제 뭐 만들어야 됩니까. 영어로 엠빌이라고 써졌을걸? 머릿돌이라고 불렀주마씨. 또 이제 머릿돌에 필요한 거는 이제 또 망치가 필요할 거고, 망치도 그때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망치, 지금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는데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망치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가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그거 철물점에서 지금 만 들고 팔더라고요. 그런 모양으로? 그런 망치 두 가지 종류. 그다음에 이제 췌가 이제 벌겍게 달아오르면 그 망치로만 이렇게 그 췌를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 메라는 게 있죠. 그걸 메라고 불려요.

풀무에는 바람이 새나가지 못하게 나무에도 털을 붙여

불 피우는 그 바람. 그거 잊어버렸네. 그 이게 쑥 밀면 앞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요 공간에 들어오고 그 갇혀, 갇혀졌던 거는 이제 숯불 잇는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 주는 거죠. 또 땡기면 또 여기

111) 조영진 씨는 인터뷰 내내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켓덩이인 ‘모루’를 ‘머릿돌’이라고 말했다.

갇혀져 잇는 바람이 쑥 빠져나오면서 그기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그. 풀문데 풀문데, 그 이름이 제주도 말로 잇는데? 불미렌 허지 안 헤마씨. 이름이 잇는데 (생각이 안 나). 크기는 어렸을 적엔 크게 보였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요만허지 안했을까?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제 하, 정말 사람들이 머리가 옛날도 좋은 것 같아요. 손잡이도 있죠. 달려 있죠.

(그림을 그리며) 어떤 모양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됩나?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요런 게 중간에 있어 갖고 요 옆으로는 뭐가 잇는가 하면 털이 붙어, 털이 붙어 잇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새나가지 못하게 나무에 여기도, 털이 붙여져 있어요. 요게 속으로 들어가 갖고 요것이 이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갖고 저걸 이 자루가 있어 갖고 요런 자루가 들어 있어요. 그니까 이게 이게 밀면 요게 요 속에 가로질러 들어가겠지예? 들어가 갖고 이제 쑥 밀면 옛날 성냥곽 그 쪼그마한 거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속에 공간이 생겨 갖고 밀면 그 공간에 있는 공기가 윗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또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그 여기 숯불 피워 놓은 데 잇잖아요. 다 요렇게 싸져 있죠.

숯불에 더렁더렁 불붙어 잇어

(숯불 피우는 데는) 잇는데 다 잊어불었수다게. 여기 이제 숯불이 이제 제주도 말로 더렁더렁 불붙어 잇지 안허과? 이제 구멍이 생

겨 갖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일로 바람 불어 주면 숯불이 필 거 아니잖? 저기서 막 힘 줘 갖고 하면은 바람이 연속으로 세계 들어올 거 아니라예? 천천히 하면 또 측 바람이 들어오꼭 그러니까 그걸로 조정하는 거지. 그니까 여기 이제 또 뚜껑이 있겠지. 열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 이제 뚜껑 닫으면 여기에 이제 아궁이처럼 여기가 이제 췌 가튼 거 놔 갖고. 바닥이 밑으로. 그니까 여기 이 숯불 밑에는 또 저기 저 우리 캠핑 가면은 숯불 그거 그냥 피우지 않고 밑에 깔아 주는 거 잊지 않으파? 그런 망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마씨. 석췌 없고 그 위에다 췌 놓고 이 췌를 지지는 거죠.

숯은 빨강게 익어도 밑에 췌는 녹지 안해

이제 이게 바람이 들어오지 안합니까예?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기 췌를 놔요, 이렇게. 이 췌를 놓으면 바람이 이제 들어오면, 이게 그러니까 바람은 이 췌 밑으로 들어오지예. 그러면 여기 숯불 놓으면, 숯을 놓으면 우리 생각에는 요 췌는 다 녹아버리지 않을까 하는데 녹지 않아요. 찬바람이 받고 들어오니까 여기는 숯불들이 숯들이 잇잖아요예? 숯들이 잇는데 숯은 빨강게 익어도 요 밑에 췌들은 녹지 안해요, 그대로. 그렇지만 영향은 많이 받죠. 그럴 거 아니예요? 아무래도 불덩어리가 잇는데. 근데 이 숯 위에다 내가 원하는 췌를 넣고 호미도 만들고 골쟁이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 불 피운 곳의 재도 퍼내야

(불은) 위로만 올라오게. 위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위에는 췌가 놓여져 잇잖아요. 그 우엔 숯이 놓여져 잇고. 그 주위는 다 막혀 잇는 거죠. 주위는 그래야 바람이 위로 올라오면 췌를 익히는 거죠. 흑. (주변은) 흑으로 했어요. 전부 흑이.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자꾸 갈아줬어요. 그거 뜯어 갖고 밑에 재도 퍼내야 돼잖아요. 숯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 있으면 재가 가득해요, 속에. 재만 잇는 게 아니라 췌도 구워서 녹은 게 아니라 췌도 껍질이 나와요.

담금질할 때는 돛도구리 사용했고

물통. 그 돛도구리라고 한 거 잊지양? 그게 담금질할 때. 그거 사용했고.

한쪽에는 집게, 한쪽에는 망치를

메질을 하면 이제 아버지는 집게, 불집게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걸 만든다. 만드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돼잖아요? 이렇게 만들려면 어디다 두들겨 줘야 웬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는 집게로 재료를 잡고. 한쪽 망치로는. 두들기는데 표시를 이쪽으로 때려라 이쪽으로 때려라 하고 그걸 저 신호를 보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일이 제대

로 땀 거 아녜니까?

그 망치로 만드는 데 세밀하게 땀 큰 망치로 상대방이 메 울어치는 거 이게 그걸로만 땀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윤곽이 나타나면 모양을 또, 또, 또, 또, 또 하고 이제 적은 망치로 만들어내야 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구가 많죠. 구멍 내려면 그 저기 저 요런 끝 같은 거 구멍도 내야 땀고, 또 구멍 그거 내놓으면 자루가 그렇게 쉽게 안 들어가니까 거기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그 동그란 걸로 이렇게 약간 두들겨 주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땀는 거죠.

필요한 모든 기구를 아버지가 만들어서

그런 기구들이 아버지 나름대로 많이 만들지. 땀 요만한 거서부터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집게도, 직접 만들면서 집게도, 왜 그런 큰 췌 이런 췌를 할 때는 집게도 커야 땀겠죠? 또 이게 도망가지 못하게 집게 모양도 이렇게 생겨 갖고 딱 집으면 이게 도망가. 둥그런 거라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땀잖아? 그렇게 또 해야 땀고. 또 땀 낮이나 골갱이, 호미, 골갱이를 만들 땀 손 짚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게도 조그마한 집게 해서 이렇게 잡고 망치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뽀족하게 내는 거죠.

요즘 많이 발전땀 갖고, 정말 옛날에는 선 이렇게 그을 때도 땀 줄을 튕겨서 땀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불빛으로 째 비추면 그 수평, 수평 같은 거를 기가 막히게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그

런 건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땀다는 거죠.

불미왕에는 아버지 말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해

아무나 땀 하는 거니까 그 불미왕이 와 갖고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대장간에 아버지 말고) 꼭 한 사람 필요해요. 메질할 때는 큰 일 할 때 꼭 필요한 거고, 그 사소한 거 이제 장식 가튼 거 만들 때, 췌장식 만들 때는 요 땀 부껴 주는 사람 있으면 하는 거죠. (저도) 엄청 땀췌. 어릴 때는 그거 땀췌. (메질) 그거는 힘이 안 땀지. 그 힘은 아버지가 시키지도 안땀고. 그거 허다가 넘어지라고? 그거 췌땀어리 이만한 췌땀어리인데 그걸 들고 내가 칠 수 있는 힘이 안 땀잖아요. 열 몇 살짜리가 그거 땀 내가 열세 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중학교 이 학년 때.

폭탄 사고 일어나 형이 다치고

(형이 대장간) 문 닫는 일은 한 번 있었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삼학년 땀가? 제 형이 일하다가 그 폭탄 사고 일어나 갖고. 지금 상처난 거 보셨어요? 그게 그때 그,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폭탄을 내버려 두고 간 거를 그걸 (가지고) 췌노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불에 구우니까 그게 불발탄이라, 그 아궁이에서 그 저기 불메하는 거기서 이제 숫불로 피우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터져 갖고 그냥 완전

히 이게 다.

그래 이제 물어봤어요, 형한테. 그 죽지 않고 살았는데 터질 때 느낌이 어떻더냐고. 그러니까 몸이 붕 뜨는 것 같드래요. 별 걸 다 물어봤어요. 하여튼 당시에 이걸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유, 그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고등학교 삼 학년 때. (형 이) 나보다 다섯 살 위거든요? 내가 열일곱 살이니까 스물두 살 때 죠. 내가 고등학교 삼 학년 때가 열일곱 살이었어요.

대진 철공소 이름은 내가 지었어

(대장간 이름) 거 내가 지었어요. 형이 조대옥이거든요. 내가 조영진이라, 대진 철공소로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허가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고 고물상 허가를 냈어요. 그때가 아마도 그.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고물상 허가 내라고 할 때가 언젠지 모르크라 게. (그 전에는 가게 이름) 없이 해온 거주마씨.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불메왕이 필요했주마씨

그 일 자체는 항상 잘 됐고 안 됐고 그냥 꾸준했어마씨. 먹고 사는 데 그냥 지장 없게 하고 그냥 처음에 옛날에는 돈 좀 버는 직업이었주마씨. 왜냐면 거기 안 가든 안 돼니까, 모든 일이. 농촌에서

옛날 중장비가 있었수과, 밭 가는 기계가 있었수광예? 대동기계에 서 막 이거 저거 막 나오니까 경운기 나와 갖고 막 췌도 필요 었이 그냥 막 갈지 안했수과? 근데 그런 게 생긴, 생기기 전에는 대장간 이 필요했주마씨. 불메왕이 필요했주마씨.

불에 녹지 않는 도가니에 췌물을 녹여

여기 그걸 도가니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싱크대 선반에 놓여 있는 수저통을 가리키며) 저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저렇게, 그 컵 처럼 생겼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도가니죠. 이 도가니를 이게 불에 녹지 않아요. 안 녹고 여기다가 췌물을 녹여 갖고 이 집게가 있어요. 여기 도가니를 집는 거. 딱 집는 집게 잇잖아요? 집게를 그. 집게 해 갖고 주르르 비우는 거죠.

(쇠를 녹일 때는) 거기 그 안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잘 녹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이것도 방법이 잇더라고요. 한꺼번에 놓으면 빨리 안 녹잖아요. 그럼 쪼끔 놓아 놓고 녹잖아요? 그 녹기 시작한 물에는 쉽게 놓으면 잘 녹아요. 췌가 녹기 시작하면예, 좌르르 녹아 버리니까 그게 시끄러운 기의. 그냥 녹아 버리니까. 아, 높은 건 연쇄 반응이라고 그럴까? 높기도 높지만 이게 한 번 녹기 시작하면 밑에까지 영향받는다는 거죠.

특별한 흑으로 만드는 도가니

(도가니를 만드는 재료는) 특별한 흑이라예. 근데 그거는 나 이젠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는데 그 타지 않는 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목욕탕에 가 보면 옛날에는 한증막이 아니라 목욕탕에 가면 그 물을 끓이기 위해서 보일러에 그 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벽돌을, 타지 안하는 벽돌이 있어요. 아, 내화벽돌, 내화벽돌이 있어요. 그 비슷한 그거예요.

내화벽돌은 제주도에 없고. 뭐 알다시피 뭐 옛날 항아리 구울 때도 보편은 저기 내화벽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흑으로 사용하지 안 했나? 일단 세워 놓고, 해 놓고 이제 거기 진입이 안 되도록 같이 모으면 그 멜라저근에 정말 도자기들 그거 다 멜라 불 거 아니라마 씨? 그렇게 하지는 안해주마씨. 하여튼 그 어떤 그 돌 같은 거라든지 잘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있었던 거 닮아예. 그런 걸 그 내화벽돌. 육지에는 잊지 안했을까? (도가니는 내화벽돌) 그거에 한 세 배 정도? 저기 저 포크 통만이 하지 안했을까?

옛날에는 틀 없이 두들겨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틀은 필요 없수다. 그 틀은 그냥 편편하면 돼니까, 그걸 두드려서 만드는 거니까. 당시에는 주물을 사용하지 안했으니까, 전부 단조로만 했으니까 두들겨서 만들었으니까 그 주물로 어떤 모양을 낸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못 했지.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

는데. 그런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대로 저기 윤곽만 내도 모양새만 내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사람들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거죠.

골갱이를 만들려면 재단을 해마씨

췌를 가져오면 우선 이것도 오늘날 말로 재단을 해마씨. 췌도 좋아야 돼니까. 이 췌가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이게 싹 담금질해 갖고 췌가 강해지는 게 있고 담금질해도 강해지지 안하는 췌가 있어마 씨. 게 강해지는 췌라야. 밭에 가서 이제 검질멜 때도 쉽게 검질메지고 하는데 그게 오그라지고 막 하면 그게 사람 짜증나지 안허파? 차라리 꺼꺼지면 더 나운데 꺼꺼지지도 안허고 막 휘어지고 뭐 하면.

이게 골갱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잊지 안허우파? 그럼 이렇게 잘르는 거라. 또 마찬가지로 이걸 해서 촘촘히 다 잘라내요. 그러면 잘라내면 이거 만들기 쉽지 안허우파? 때릴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두께도 맞아야 되고, 두께도 맞아야 되고 그 다근에 그 췌 그 다근에 그 불이 이거 불에 구우면 딱딱 하면서 이제 이게 거의 마음 속으로 재단해주마씨. 이 불 이렇게 피워 버리면 그게 그 재단이 뭐 그러 낫다고 해서 그게 보이, 보이지 않주마씨. 그러니까. 눈짐작으로.

그거 갖고 이제 모양내는 거주마씨게. 한 가지는 요런 끝이, 끝이 필요하죠. 여기 구멍이 자루가 잊지? 요기는. (도끼 모양으로 생겨

서) 두들기주.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자를 수 있죠. (부르는 이름은) 그냥 다가네¹¹²).

이거 즈룩이고양, 이렇게 만드는 거주마씨.

부끄는 사람, 메질허는 사람, 집게 잡는 사람

메, 메, 메가 있어야지. 그럼, 세 사람이 있어야 돼. 요거 부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고 메질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고 요거 이제 요거 불 달궈진 거랑 집게 잡고 요거 손 잡고 이렇게 대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크면 일단 알맞게 잘라내 버리주마씨? 헤 놓고 이제 저기. (쇠 자르려고 하면 ‘다가네’와) 집게. 예. 요거 잡아 주는 사람. 그니까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일 오야지¹¹³는 아마도 아버지죠.

담금질이 호랭이다

(담금질이 쇠를) 강하게 만들어. 그거를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담금질을 어느 만큼 잘해야 이게 꺼꺼지지도 안하고 오그라지

112) ‘다가네’는 일본어 ‘たがね[鑿]’로 ‘정’, ‘끌’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속의 표면을 깎거나 찍어서 문양을 만들거나 상감하는 데 쓰는 철강 공구 혹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이다.

113) ‘오야지’는 일본어 ‘おやじ[親父]’에서 온 말로 직장의 책임자, 가게 주인, 노인 등을 뜻한다.

지도 안허고. 다 해야 돼. 통쥬 무슨 뭐 저기 말 안장 같은 건 그런 게 필요 없고, 곰방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 외의 거는 전부 담금질 해야 돼. 골쟁이도 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주마씨. 또 돌 일하는 사람들 겐노, 망치, 끌 다 그게 담금질. 그래서 옛날 사람들 담금질이 호랭이라 허는 말 중요하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거든마씨. (호랭이는) 최고라는 얘기죠. 담금질이 최고다. 담금질이 호랭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마씨.

간단하게 불에 빨강게 익히지 않고 불그스름하게도 안 하고 더 그냥 거의 익지 않은 쥬 상태에서 담금질해마씨.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담금질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마씨. 그러니까 담금질을 하는 거죠.

자동차 쥬 갖고 여러 가지 만들주

쥬는 그러니까 보통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동차, 그 옛날에는 잘 분질러지지 안헤수과? 폐차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사다가. 그 차에 보면 샤프트 영어로, 그때 당시에 말로는 사우드라고 허는. 들어 봤어요? 그거는 이제 바퀴를 잡아 쥐 갖고 돌려 주는 거예요. 그 샤프트가 그 짐을 많이 실어. 옛날에는 짐을 많이 실었거든마씨. 그러니까 그 울통불통할 때 그런 데 가는데 견뎌 낼 수 있수과? 못 견뎌내면 그게 꺼꺼져 버리주마씨.

이런 쥬를 갖고 구하기가 쉬웠어요. 옛날에 이게 참 이게 분질러

지면, 이게 분질러지기가 쉽거든요. (쇠는) 고물상 가민 많았어마씨. 싸게 사고, 이런 거 갖고 췌시랑도 만들고, 췌이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만들주마씨.

방앗간 폐품 ㄱ레로 호미 갈아줘

호미를 다 만들지 안했수광? 그 즈록 박는 건 그거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요 모양으로 이제 호미를 만들어 놓으면, 그라인다 잊지 안허파? 옛날에는 뭐 이거 갈았지만 요즘은 그라인다에 탁 놓고 그냥 쪼르륵 가는 거죠. 그 갈기 쉽게 망치질을 다 해 놔마씨.

그 옛날 그 방앗간 우리가 보리쌀 찧을 때 방앗간에 가지 안헉니까 예? 방앗간에 가 보면, 그 속에 보면 그 갈아 주는 그 ㄱ레가 있수다. 막 거친 거, 그거를 방앗간에서 저기 얻어다가 그게 이제 거기서 갈아줘마씨.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사용하면 그걸 또 새 걸로 갈아야 돼어마씨, 방에가. 그래서 이제 그 폐품이 나온 걸로 하면 갈 때 잘 갈리주마씨, 그걸로 갈민. 이렇게 거친 게. 그 이게 신돌인데. 방앗간, 거친 거. 거칠어도 날은 서거든마씨. 그냥 일반 돌에서는 잘 안 갈리니까. (신돌) 저거는 뭐 이 저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주마씨.

물건 만드는 데 제일 필요한 건 사람

제일 필요한 기술은 거기, 대장간, 대장쟁이. 그 만드는 그 방법

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일머리를 알고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착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파? 알아들으민 그 알아들은 형체 만들기 시작할 때 틀림없이 그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아주. (그래서 아버지를) 조 대장이라고. 대장장이의 (대장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값과 벼리는 값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 그 돈은 다르게 받았주마씨.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모든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살면서 디스플레이션 해본 적은 없거든마씨. 지금까지 내가 살 정말 칠십 년 이상 살아왔지만예. 떨어지는 건 없었주마씨. 계속 오르기만 허었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 계속 올라 버리니까 하나 벼리는데 얼마, 하나 벼리는데 내년 되면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가격이 얼마나 정하는 게, 그 게. 쓸로도 받고, 대부분 돈으로 받았주마씨.

신창, 대정 가서 불미 해 봤다는 말 들었고

내 기억으로는 신창 장이 있었주마씨, 오일장. 그 장터도 지금도 그대로 있수다. 거기서 해 봤다라는 말 들었고. 뭐 대정도 가서 한번 해 봤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떡. 그리고 또 한림에서 주로 헐다고 볼 수 있주마씨.

형은 한림, 어디 제주시 장날, 그때 거기 대장장이들 그렇게 한

칸씩 이렇게 자리 줘주마씨. 그런데 우리도 자리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마디로 버천에 거기 못 갖추마씨.

우리가 제일 일차적으로 받았주마씨. 거기 대장장이 지금 하는 데가 두 개 잇잖아. 그 맨 앞에 잇는 게 우리 일 번이었기 때문에 맨 앞에 보면 그 과일장, 뭐 뽕튀기도 하고 허는 거 깔던데.

아버지는 일 년 내내 조끼에 고무신

이상한 조끼를 입었더라고요. 조끼라고 하지양? 그거 입고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우리 어머니도 그런 옷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일 년 내내 그 옷 입고. 신발 고무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워커) 그런 거 없고 앉아서.

화상 입는 일은 보통, 제지내는 일은 안 해

화상 입는 건 보통이라, 그걸 신경도 안 쓰잖아. 손에 보면 전부가 저기 불에 데인 자리인데 튀니까 여기 딱 상처 나면 뭐 그거 뭐 아랑곳하지 않주마씨. 놔두면 좋으니까. (제지내는) 그런 건 안 협디다예. 아, 그런 건 안 협니다. 그 아버지도 그건 안 협디다.

대장간 일은 으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다른 일 했으면 하는) 생각 자체를 못 했주마씨. 아버지 할 때도 그랬고 형 할 때도 그랬고 으레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인식이 백혀

갖고. 다른 일 거기서 나 자신은 그러지 안했어마씨. (난 전혀) 난 그거 아주 싫어서마씨.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생각은 했죠.

(부끄럽다는 생각은 없어.) 우리 형도 마찬가지로 뭐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동창들 우리 집으로 그냥 부르 물려와 갖고 항상 가득 갖추마씨, 이 친구들.

형한테 낫 만드는 거 참 내가 만들어 달라는 걸 막 생때 써 갖고 만들어 달라고 그제 켈 기억이 나네. 근데 형이 잘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 토끼 키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토끼 키우려면 그 저기 풀 비어야 돼잖아예. 아, 몇 번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주질 안하는 거예요. 이제 생때를 썼지, 그냥 아, 이제 나도 이제 곤조피우는 거지. 나중에 만들어 주더라고요.

형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나

(문 닫은 대장간) 지금 보류해 잇주마씨. 어떻게 될지는 형이 아마도 지금 건강해지면 또 나가서 (대장간 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미련이 남아 갖고. 형수는 “이제 끝났수다, 끝났수다.” 하는데 형은 아니라 형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우다. 식구 중에서는 밀접하게 나는 형이랑 말하는 사람.

아버지가 이 부근에서 담금질을 제일 잘한다고

서귀포시 대포동 원천권



원천권(1934년생) 씨는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일본에서 칠 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제주로 돌아와 석공일, 농사일을 하며 지낸 분이다. 원천권 씨의 아버지는 대포에서 대장간을 운영했고, 원천권 씨는 어린 시절 그 대장간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자라왔다. 원천권 씨가 스무 살이 되던 해까지 운영했던 이 대장간은 아버지가 예순두 살 무렵 돌아가시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023년 5월 30일, 서귀포시 대포동 원천권 씨의 댁에서 원천권 씨를 만나 곡진한 대장간의 옛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대장간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하던 시절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대장간 일이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직접 물건값을 받으러 다니던 기억, 뛰어난 손재주로 농기구부터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낸 아버지의 불미 실력, 아버지 대장간을 기억하며 소소하게 제를 지내는 이야기 등을 구술로 풀어내 주셨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을 뛰어넘어 섬세한 손길로 불밧간을 운영했던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원천권 씨의 삶을 구술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아버지 다리가 마비돼 불고 불밧간 시작한 거

(대장간은 옛날) 불밧간. 대장간이라는 소린 별로 안 들어 봤어. 불밧간, 불무간. 켜디 내가 듣기로 불밧간인데 요즘에는 불무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여? 옛날 불밧간 헛어.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손재주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애, 내 생각에 느낌이. 아무런 바탕도 없이 이제는 아마 그 나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저 제주도 말로 제밤이라고 그래. 요 건너 내창 따라 있었거든. 거기 제밤낭이 한 너댓 그루가 있었는데, 저 가을 때니까 거기에 가서 제밤 타 먹고 있었는디. 아마 옆에 동네 같이 잤던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 나뭇가지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가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래 하반신 마비는 아니고. 오른쪽,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이. 마비돼 붙었죠, 완전히.

요즘 같으면 목발 짚고 헤지마는 외나무 기둥 짚고 어찌, 어찌 고생하면서 할 일 없잖아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가. 동네 사람이 봐도. 그래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불밋간 일) 그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마 당신 생각대로 시작하긴 한 건데. 동네에도 없고. 그래서 한번 헤 보자 헤 가지고 시작했든 게 아마 어찌어찌헐 거 같습니다.

나가 이십 세까지는 아버지가 베리는 것 정도는 헛던가

우리는 부모네가 장애인이고, 집에 재산 없지. 그러니까 농사는 별로 안 지어진 셈이여. 그러나 (불미) 일을 헛기 때문에 나가 생각했을 때 집에서 농사짓는 거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들어.

나보다 아버지가 서른여섯 살 위에거든, 삼십육 년 차야. 나 하고. 호미, 골쟁이 ㄱ튼 거 베리는 것 정도는 아마 나가 이십 세 가까

이 됐을 때까지는 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 왜냐면 아버지가 예순 두 살에 돌아가셨거든. 내가 스무 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헛던가? 그니까 약 이십 세까지는 가까이 헛던.

불미는 일거리만 있으면 농사보다 생활이 나았다는 거

힘든 거야, 노동력에 비해서 수입이 없다는 거지. 나는 다행이라는 거는 그나마 그때는 농사지어 가지고 한 것보다는 일거리만 있으면 생활이 나았다는 거예요. 왜그냐? 단 백 원이라도 버는 돈, 농사지어서 수입이 얼마가 있겠어요? 단, 대포 같은 경우는 어부, 바다에서 나오는 거 그런 분들은 좀 여유가 있었지. 요즘은 또 농사일이 월등히 좋지마는 그때 생활로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우리 서너 식구가 먹고 살았으니까 뭐 잘 먹든 못 먹든, 못 먹은 거야 사실이지.

국민학교 갓다 오면 바람 부끄는 거 도와 주고

(어렸을 때부터 불미일) 물론 봤죠. 그때 참 초등학교가, 그때 국민학교에 내가. 그 학교 갓다 오면은 비석스러운 애긴디 환경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장간에 있는 동안만은 학교 갓다 오면 책보 풀러 본 역사가 없어요. 학교 갓다 던져 놓고는 와서 불, 그걸 부른다 그러거든요, 바람 부끄는 거. 고것도 도와 주고. 또 혼자서 그 망치질을 못 할 때, 큰 거 할 때는 못 하니까 요만한 메가 있어, 때리는 거. 어렸을 적부터 제가 그걸 도와 주기 시작할 게, 그걸 헛던 거예요.

근데 내 생각건데 형님은 별로 아버지를 도와 줬던 거 생각이 안 나. 형님은 어디 일을 한 거는 아니지마는 집에 별로 안 붙어. 집에 농사도 별로 없었으니까 크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루 서너 시간 도와 주면 용돈 오십 전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불을 부끄면은 나는 낮이나 골쟁이 같은 거를 작은 망치로 때릴려면 힘들잖아. 메라는 게 있어, 그 망치. 손망치보다 (더 큰 거) 가지고 난 때리는 거야. 어렸을 적부터 아마 열다섯 살? 내가 초등학교를 몇 년이냐면 열두 살에 들어갔어. 학업을 마치고 나오면 천상 아버지 밑에서 심부름하는데, 하루 서너 시간 도와 주면은 그때 오십 전인가 아버지가 줘, 용돈으로. 근데 결국 받아 봐야 그때 쓸 때가 있나, 과자가 파는 데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또 어머니한테 돌아가. 그냥 받는 기분 하나 없이. 그러면서 어찌어찌 생활한 게.

아버지 대신 베린 값 전부 장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가 했던 거로는 그때 현금이 어려우니까 또 동네 분들이 와서 호미나 골쟁이, 나대¹¹⁴⁾, 농기구 일체를 와서 수리도 하고

114) '나대'는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을 말한다.

만들어 가고 그러는데. 현찰로 주는 분, 나가 어렸을 때지마는 별로 못 봐 본 거 같아요. 단, 수당을 뭘로 줬느냐 하면은 보리. 가을 댜든 조, 고걸로 하나, 호미를 하나. 그땐 말로 베린다고 했는데 그 수선을 해 주면은 한 댜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한 댜와세기 정도 했던 거 같아요,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전부 장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 장부를 내가 전부 다 썼어. 가을 때면 그 수집도 내가 해야지. (그때 바로 값) 안 주지요. 외상으로 보리든 “뭣 댜 주쿠다.” 흥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포에 다 돌아가셨지만, 백오십 세 미만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내가 기억하는 걸로 하든 나보다 더 잘 알 사람 없을 것 같애. 이름, 성함을. 이제 가만히 앉아도 누구의 증조할아버진 성함이 어찌뉘고. 그거를 내 어려서부터 뭇십 년. 근 이십 년 가까이 계속 했으니까. 가까운 동네만 했고, 중문엿 분들도 다소 많이 왔어요. 중문에도 챙피한 거 무릅쓰고 그 곡식 뭇 댜 얻으러 다녔지, 나가.

농촌에서 쓰는 건 다, 배 짓는 디 쓰는 못도 만들어

(농기구) 제작, 수리 주로 그것뿐이지. 딱히 있어? 호미, 골쟁이. 하여튼 농촌에서 쓰는 기구는 다 했다고. 삽은 못 만들지. 따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끝다리가 넓으는. 요렇게 넓은 놈이 잇고, (하나 짜리) 그거는 쉼스랑이고. 굵은 건데, 넓은 건데. 어떤 것이냐 하면

나무 자루 박고 끝다리가 요런 거 있고. 하나는 완전 통으로 뚫 거여. 이렇게 말아 버린 거여. 말아 가지고 건 뭐라고 하나면 요거는 따비라.

하여튼 농촌에 농사지를 때 쓰는 거는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 아니야. 단 그 외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는 목수선 할 때 배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니깐 한 팔십 년도 초까지 아마 우리 동네에서 배를 지은 기억이 있는데. 배 짓는 데는 나무를 잘르면서 못이 필요하잖아. 일반 못, 요즘 나무에 집 짓는 디 쓰는 못은 못 쓰거든. 그거는 농기구 이외로 만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 저런 거를 아무런 도안도 없이 당신 머리에서 만들어 낸 거 보면 난 아버지도 대단하다 생각해. 그분들이 그 모형을 가져 오잖아? 못 쓰는 거 하나 이런 거다 가져오면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못 치문 그 못이 머리라고 그 대가리째. 팍팍 말로 대가 린디. 대가리 자체가 넓은 놈 있고, 좁은 놈도 있고. 한 세 가지 종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져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걸 만들었어요. 크게 많진 않지만 대포 어촌, 그때까지는 어촌이었으니까.

집게, 망치도 용도에 맞게끔 여러 가지

요즘 말로도 뭐라 그러지만 집게. 집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야. 자잘한 낫 같은 거, 호미 같은 거 베릴 때는 작은 집게가 있어야

뚫고. 쉼스랑이나 따비 ㄱ튼 거는 무겁고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집게 자체도 굵고 커야 뚫고. 그리고 그 이외로 집게 끝다리가 납적현 거는 호미 같은 거 베릴 때 있어야 뚫고. (굴쟁이) 그 자체가 뚫그란 거 있어. 요런 거를 잡으려면은 납적현 걸로 흐른 이걸 미끄럽잖아이. 뚫그란 식으로 뚫 거. 그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집게도 아마 여섯, 일곱 종류가 될 거예요.

큰 망치, 작은 망치. 또 한쪽 끝다리가 좀 뽀족한 놈이 있고. 한쪽은 뚫그랑흐른 때리고. 또 어떤 식으로 뚫냐든 망치 끝다리가 요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쉼스랑 같은 거는 발이 세 개니까 공간이, 간격이 좁으니까 그런 데 때릴 때는 그런 용도로. 하여튼 전부 할려면 세 개 가지고는 안 돼주마는.

화덕은 땅을 오목하니 파 가지고 흙 바람이 들어와야

화덕도 요즘 거나 옛날 거나 비슷할 거여마는. 땅을 조금 오목하니 파 가지고 바람 들어올 통로를 만들면은 옆에는 바윗덩어리, 돌맹이 같은 거 옆에 세워 놓고. 바람 통하는 틈 쉼 같은 거. 좀 가는 거로 한 너댓 개를 너 가지고 그 사이에는 뭘로 메꾸느냐, 자갈. 제주 말로 먹돌은 안 뚫고. 흙 보면 곰보돌, 그걸로 해서 튀질 않게. 먹돌, 저 탄탄한 돌들은 노른 팍팍 튀지. 게 저걸로 뿌쉬 가지고 공간을 어느 정도 메꿔 가지고 바람이 좀 크게 세게 탁 나와도 그 쉼가 안 달궈져.

(화덕은) 조금 오목하게 파면은 돌맹이를 세워. 저 넓적한 바위를 세워 가지고 막아붙어. 그러니 여기는 흠 바람이 들어와야 돼잖아. 그래서 요 사이는 돌맹이 잘잘하게 자갈 풀어 가지고 넣어서. 여기는 공간이 넓어. 왜냐면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화덕 큰 구멍은 흑으로 메꿔야지

(화덕) 옆에 흑은 그니까 큰 구멍은 흑으로 메꿔야지. 돌 눈 쪽에도 돌만 놓는 게 아니고 찰흙. 특별한 건 없고. 흑에 자갈 추려 가지고, 물에 버무려 가지고, 밑에 한 주먹 넣고 돌을 갖다 넣는 거야. 그래야 이게 또 공간이 돼잖아. 그냥 요기 밧디 이신 흑으로. 흑은 판 것 같지 안해서 불에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 같애.

숯은 요 위에 여기다가 (쇠 위에) 놓고. 그디서 불을 피워 놓고 그 위에다가 숯, 췌를 공간에다 넣는 거야. (재는) 한 일주일애 한 번이 란가, 한 오 일에 한 번이 란가. 그 재를 버려야 돼. (자갈돌) 들어내고. 불편하지, 삼, 사 일은. 재 청소한 다음에 다시 또 자갈 놓고. 요즘 말로 석쇄 만드는 식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간편해?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못 됐으니까.

석쇄 식으로 댄 거. 숯이 빠져 버리면 하나 놓을 수도 있고, 또 간격도 비틀어지믄 다시 또 고쳐놓 수 있고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틀은 하여튼 한 일주일 가까이를 그져.

풍구 밑 적에는 이쪽에, 땡길 적에는 이쪽 바람이 일로 오고

(풍구는) 반대 방향에서. (모양이) 다 네모지. 바람은 상대 쪽. 침, 망치질하는데 이쪽에 앉아 가지고 부끄면은 풍구 통로가 또 쪼그만 공간이 있어, 그디.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꺼꺼져, 그 풍구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리 오면은 췌가 달궈져. 겐디 요즘 전기로 하는 거나 화석 연료들, 연탄 같은 거 쓰는 데는 췌가 잘 달지마는 그때는 진짜 사람 힘으로만 하는 거지. 잘 달궈지지 않으니까 사람 손이 몇 배 더 든다는 거지.

(풍구는) 부끄면은 절반 찢라져 가지고 밑 적에는 이쪽에 이리 오고, 땡길 적에는 이쪽 바람이 일로 오고. 절반밖에 안 돼. 이게 딱 밑은 이쪽에서 압축되고, 땡기믄 여기서 압축되고. 우린 이것밖에 모르주. 잡아댕기믄, 압축되믄 이리 밀리게 뻤거든. 이리 밀리게 뻤믄 이레 바람이 들어오고, 저레 밀게 뻤믄 이건 닫아지고, 췌게 열리게 뻤고. 원리가 그렇게 댄 거.

아버지가 담금질을 제일 잘한다고 했어

아버지가 동네서도 여기가 잘한다는 말 듣기로. 호미를 만들면은 만든 거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소위 물에 담가 가지고, 그 강도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배운 것도 아니지마는 이 부근에서 담금질을 제일 잘한다고 했어.

동네 할아버지들의 행상으로 도일주하면서 팔아

봄, 이 보리철이 약 오 월, 이제 막 보리철이지. 이 월달, 삼 월달 돼면은 우리 동네 두서너 분 할아버지들도, 한 분이 아마 한 백 자루씩 들고, 짊어지고. 도 일주를 하면서 걸 팔아. 유일한 판매 수단이라는 게 그거였지, 그때는. 게문 그 사람들이 갖다 오면서 잘 하면 한 몇 자루 남을 적도 있고, 어떤 때 모자라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일 년에 두 번씩은 꼭 그 행상을 하거든. 우린 못 하니까, 동네 분들이. 팔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분들도 집에 있어 봐도 할 일도 없고 수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때 소득을 얼마씩 쫓는지 모르겠어, 분배를. 유일한 판매 수단이란 그거여. 집에서 팔고, 만들고.

의외로 이리로 찾아 오시는 분, 우리 집에서 했던 거 제일 먼 거리는 안덕면 쪽에서가 주로 많이 오셨어요. 안덕면도 해변 쪽엿 분 보단도, 구남 쪽에 저 덕수나. 덕수까지는 내가 온 기억을 확실히 알거든.

멧 년에 한 번 모릿돌 고칠 때가 대단하게 일이야

모릿돌은 근래에 거 같지 않고. 똥그랑한 게 아니고, 똥그랑한 경우도 있네. 우리가 쓰던 거는 사각이면서도.

여기서 때리다 보면은 아무거 같지 않아도, 계속 두들기고 맞고 하다 보면 우 표면이 벌어져. 소위 표고버섯 모양으로 형태가 돼.

갈라진 게 벌어지지. 그럼 어떻게 하나면은 한 멧 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이 너무 벌어져서 늘어진 모판이 벌어져도 판판해야 돼는데. 판판하지 않으면은 망치로 밀바닥 가서 때리면은 요 밑이 반반하지 않고 오므라지도록. 이거 고칠 때가 대단하게 일이야. 고칠 때 아버지 힘보다는 우리 동네, 그뻘 나이로는 젊었지. 젊은 분들이라 생각하지마는 요새는 아주 영감들인데 그분들 힘을 안 빌리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메질을 해 줘야 해니까. (불에) 익혀 가지고. (모루를 달구고) 얼마쯤 (화덕에 넣었다가). 힘들어, 그거는 자체 모릿돌이 없으니까 땅바닥에다 놓고 때리는 거야. 그거는 멧 년에 한 번이지. 한 달에 한 번하면 솟 값만도. 이거 한 번 (하려고 하면) 이제 솟한 가마니가 들어가 부는디.

모릿돌도 구멍이 잇지게

(모루도) 구멍이야 잇지게. 왜 그러냐면 일을 하게 되면, 저 따비 같은 것도 만들면은 자루 안 빠지게끔 요런 구멍을 뚫을 수 있어. 못질을 할라고. 그럴 땐 요 구멍에다 대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꼬치 하는데, 우리는. 그걸 대고 뚫지게, 메로 쳐 가지고. 그럴 때 반드시 요게 필요해. 이 밑에 나무는 쪼그만 원형이 아니고 좀 기다란 타원형으로 해야 돼. 그뻘 나무라는 게 그냥 이신 때니까. 소나무도 넣었고, 폭낭, 팽낭 주로 그걸로 했지. 제밤낭 아까 말로 그런 것들이나. 큰 나무 아니면 안 돼니까.

숯은 큰 자원이기 때문에 애끼지

(숯은) 일거리가 많으면 많이 하는데. 최대한 큰 자원이기 때문에 애끼잖아. 제밤낭 나무 같은 거는 막 큰 거니까 제밤낭이 많이 잘 썩어. 그럼 죽으니까 탄 나무보단 제밤낭은 생나무로 해서 태워도 이 불이 썩가 잘 달궈져, 썩어. 게난 그런 나뭇가지 서끄면서 어찌 어찌 하니까 숯은 애끼지, 상당히. 큰 거 할 때는 나무 해 봐야 필요가 없어. 호미나 글갱이 ㄴ튼 거 준준한 거 할 때는 나무도 ㄴ치 서꺼서 쓴다는 거지,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원시적이지게.

숯을 짚어지고 올 생각하든 기가 막히지

(숯을) 주로 사 오기를, 중문리 동네. 그 숯을 사 오려면 마음대로 있나? 엇지. 뭐 요즘같이 전화나 있나? 어떻게 해 가지고 잇는 거 수소문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가서 사 오는 거지. 주기적으로 가서 상점에 늘 잇는 거 모양 가서 사 올 수 잇는 때 사는 게 아니잖아. 나도 저 영남¹¹⁵⁾이라고 거기, 여긴 아마 여기서 십 킬로미터는 더 뵈 거예요, 저 영또 폭포 그 뒤에. (거기까지) 걸어가는 건 문제 아니지. 거기서 또 그걸 짚어지고 올 생각하든 기가 막히지.

115) '영남'은 서귀포시 영남동을 말한다. 중산간 마을로 서귀포시 신시가지 서북쪽에 있다.

췌는 어뢰 띄웠단 거, 철로 레일루 찢라내 가지고

내가 알기로 췌라고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잖아. 요즘이니까 내가 그 어뢰라는 걸 알지. 그때 말로 지뢰 했는데, 바다에서 일본 사람들이 배를 폭파시킬려고 요즘도 어뢰 쓰잖아? 어뢰 띄웠단 거 그게 불발돼 가지고, 그 속에 거 빠진 놈들이 구할 수가 잇었어, 바당에서가 아니고. 어찌다 보민 그렇게 이용했던 건데. 육지서도 구할 수 잇어 가지고. 한 멧 미리쫘 뵈는 건가? 한 오십 미리. 일 센치로 보면 영 점 오 센치 정도 뵈지. 영 점 삼 미리 정도. 그 췌가 아주 연한 질이야. 그걸 찢라 가지고 글갱이 ㄴ튼 거 아주 강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건 그런 걸로 하고.

주로 아버지가 췌던 췌 중에서 제일 췌찮다는 거는 요즘 레일루 잇지? 철로 레일루, 기차 철로가 아니고. 그 모양새는 뵈지마는 어디 탄광 ㄴ튼 데서 쓰던 연로 철로 같애. 아주 작아. 고거를 분해서 췌서, 우리 말로 찢라내 가지고.

짜르는 건 기계로 짜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다가네¹¹⁶⁾(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 말이겠지마는 징이라고 그러지. 약간 췌붙이에 망치 ㄴ튼. 자로 박아 가지고 그걸 또 망치로 (돌 깨는 것처럼) 메로 치

116) '다가네'는 일본어 'たがね[鑿]'로 '정', '끌'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속의 표면을 깎거나 찍어서 문양을 만들거나 상감하는 데 쓰는 철강 공구 혹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이다.

면 그게 어찌 어찌 조금씩 잘라져. 그 쉼로 만든 게 제일 호미가 좋아. 쉼 강해 가지고 주로 그걸로 호미를 만들었던 것 같애.

담금질은 경험으로 하는 거지

(물통도) 물도고리라고. 사각으로 돼 있어. 보통 아마 한 말 정도는 쉼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담금질 ㄴ튼 거 할 때.

(옛날엔 온도계도) 아무것도 없지. (불이 달궈졌는지는) 그거는 순수한 경험. 경흐믈 또 물에 담글 때도 이 정도 달궈지고 이 정도 쉼면은 어느 정도 물을 지치면 되겠다. 걸 아버지가 경험으로 하는 거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니까 담금질이 제일 철기구치고, 공구치고는 중요하다고, 과정이. 베리는 거는 어찌 어찌 하지마는 담금질이 그렇게 어렵대.

베리는 거 부탁한 사람이 부꺼 주니까 아버지 혼자도 충분

불에 달궈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원형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베리는 거지. (모루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리고. 그 물건 자체가 원형에서 제일 어느 정도 수축 잘 돼 있는 데론 아마 세 번, 네 번? 많이 가면 다섯 번 정도면은 그 바닥 안에 들어가지. 끝날 수도 있고, 아닌 거는 새로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것도 있었어. 왜냐면 때리다 보면 그런 원형이 비틀어져. 그럼 또 망치로 다시 또 꼬불리고, 원형대로 만들려면 모양도 중요하잖아.

베리는 거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분). 아버지 혼자만 있으면 의뢰한 사람, 부탁한 사람이 불무 부꺼 주니까. 부꺼 주고 다 베리고 나면 가는 것도 그 양반들이 본인이 와서 갖고. (가는 건) 요즘 신돌이 아니고 바웃돌 비슷한 돌들이야. 쪼끔 연한 거지마는.

(하나 베리는 값은) 길보리 도정 안 한 거 (하나). 가족 수에 따라서 하지마는 제일 많이 해 봐야 한 집에 가서 한 말 정도? 요즘 녀 돼. 제일 많이 받아오는 집이가 그 정도베끼 안 돼는 거 보면은 아마 그것도 얼마 안 쉼 것 같애.

여름 지나 출 빌 때 제일 바쁜 계절

가장 바쁘덴 하면 요즘 시기로 봐서 이, 삼 월 정도 돼지 않을까? 왜그냐 하면 여름, 봄이 지나면 농사철이 돼니까. 그때부터 해서 호미, 골쟁이가 제일 필요할 시기가 아니야? 또 호미 베리는 거 ㄴ튼 거는 여름 지나 가지고 출 빌 때 제일 바쁜 계절이라고 볼 수 있지.

(불미일) 요즘 공장 일모양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 또 계절 중으로 봄, 가을 주로 하니까. 농사철을 앞서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비오는 날은) 좋지. 시원하잖아? 암만 초집이라도 비는 안 맞잖아.

동네분들 빌어서 풍구 부끄고

종사하는 사람? 세 명이 필요 없잖아. (사람) 없을 때도 있지. 우

리가 왜냐면 호미 ㄱ튼 거 만들 때는 의뢰해는 사람이 없잖아이, 우리가 만들어야 파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저 풍구 부끄고. 집에 있을 때는 나도 해주마는 학교에나 가 버리고 하든 동네분들이 놀러 오면 그분들 빌어서 하고. 동네분들이 주로 힘을 많이 써주게.

작업복, 장갑이야 상상도 못 한 일이에요

작업복이라니. 작업복이 평상복이고. 장갑이야 상상도 못 한 일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아마 고무신은 별로 못 신어 봤을 거예요. 게다,¹¹⁷⁾ 나무 쪼가리 게다. 그때도 어려서도 난 나대로라도 좀 만들어서 게다 ㄱ튼 거는 만들어서 신었던 기억이 있어.

쑥 해서 침 딱 빨아 가지고 묶고 하는 거야

어휴, 많이 다쳤지. 여기던가? 어릴 때. 요게 그때는 아마 이 정도 찼을 거야. 아까 말로 어뢰 통을 갖다가 놓고 물 뜨는 것도 때리는데 솟 쪼가리가 딱 떨어지면서 나와 가지고 여길 잘라 불더라, 나 매질하는디.

병원이 어디 있어? 어휴, 아무것도 없을 때 저 쑥 해서 썩썩 침

딱 빨아 가지고 눌러서 썩 붙이고 묶고 하는 거야. (아버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지마는 조금씩 상처를 입은 건 뭐 여러 군데 있어.

명절 때 모릿돌 위주로 쌀밥 한 숟갈, 술 한 모금 놓고

크게 무당이나 데려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제사, 명절 때. 우린 제일 작은 집이니까 위에 선조들 제사는 없었지만 명절 때 같은 데는 저 쌀밥 한 숟갈 해 가지고 가서 술 한 모금 놓고 찌끄러. 이 모릿돌 위주로 해. 국은 안 하고. 그때 밥하고 제물. (빵) 그거지. 과일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개수가 많꼭 적고는 몰라도. (바닷고기도) 물론이지. 그건 그냥.

요즘도 고향에 하는 사람 있을 건데? 웬만한 집은 다 할 거예요. 나 제사를 안 한 지가 한 근 십 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들한테 매긴 지가. 아버지 옆 자리에 쪼맨 상을 차려 가지고 불무간에 하든 그걸 잊지 않으려고 나 할 때 끝내 헛거든. 내가 제사를 그만두게 됐니까 아들한테 주면서 “땀 거는 해도 거랑 하지 말아라, 이젠.” 아버지 그만됐으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했지.

옛날엔 불미쟁이렌 해 가지고 천대를 받은 거는 사실

글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거 침 쑥쓰러운 말인데 아들

117) ‘게다’는 일본어 ‘geta[下駄]’로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막신’을 말한다.

III.

들이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줄 알면은 안 좋게 볼 거예요. 요즘은 소위 장인이라고 국가에서도 우대를 해 주고 해주마는.

옛날엔 불미쟁이렌 해 가지고 일본 말로 천대를 받았어요, 근래 까지도. 무당하고는 틀리지마는 일반 평민하고는 자연히 그런 차별 대우를 받은 편이야. 그걸 조금 내가 서럽긴 하지. 그러나 나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나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요즘 실정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 전에 선생님이 그 인터뷰를 하겠다 할 때, 딴 사람 ㄴ트면 안 하겠다 거절했을 거여. 근데 난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재료든, 나쁜 자료든 간에 알려줄 수 있는 문제까지는 하자. 그래서 내가 응했던 거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조금 천대를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없는 사람 없주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겠다는 것부터가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가 여기 생활이 어때냐? 잘 사는 건 없는데 나 마음이 부자여.

314 보리 철 뉘른 닛 들렁 강은에 거 베려 줍센 허주게

한림읍 한림리 김중관

331 토평리 세 군데 불멧간, 오늘추룩 비 축축 올 때 가주

서귀포시 토평동 강성진·오남호·김응반

보리 철 돼튼 낫 들렁 강은에 거 베려 줍센 허주게

한림읍 한림리 김중관



김중관(1936년생) 씨는 한림읍 한수리에서 태어나, 한수리와 한림리가 접하는 지역을 생활권으로 살아왔다. 초등학교 졸업 후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6·25 전쟁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한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농사와 바닷일을 하며 소매업을 했고, 현재는 한림항 앞에서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다.

‘불미’ 조사를 하면서 김중관 씨를 찾은 건, 이전 다른 조사에서 김 씨를 만났을 때 김 씨가 수원철공소를 비롯한 한림리 근대 산업 시설 등 한림리의 근현대 생활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였다.

2023년 5월 30일 김중관 씨의 댁을 방문하여 한림리 인근에 있었던 대장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에 따르면 수원리에 방 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멍 난 술을 수리하는 일을 주로 했던 대장장이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세운 수원철공소는 배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곳으로, 해방 이후에는 김○문 씨, 그 아들이 이어 최근까지도 운영했었다고 한다. 대장간의 안영진 씨의 대장간은 농기구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버리는 곳이었다. 그 외에도 보습이나 벧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김○일, 한림초등학교 앞쪽에 있었던 조 대장(조여길 씨), 오일시장 안에 있었던 이○곤 씨 대장간 등이 한림리 인근에 있었다. 김중관 씨는 어렸을 때 봤던 대장간 내부의 모습, 대장장이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한림리의 옛 대장간을 그려 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보통 불미를 대장간이엔 허지

불미엔 말은 그렇게 잘 씨질 안헐지. 대장간이엔 허지. 보통 불미를 대장간이라고 허지. 불미, 불미는 잘 안 허주게. (어른들) 경허

주, 대장간. 간판이 었엇주게, 그때는. 간판이 없엇지. 누게네 집이, 그디 강 오렌 허든 그디 강 오고 경헛주. 그때는 간판이 었어시난.

수원에서 불미허는 분은 방 서방이라고

이 지역에 불미헛던 분들은이 우선은 수원철공소, 한수리에 잇는 수원철공소. 그디가 불미가 잇고. 수원 한수리 지경으로서는 수원에는 불미를 허는 분이 방 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일름은 모르는데, 육지 분인데 방 서방. 그분 죽은아들이 우리 또래야. 그 큰 아들은 우리보다 삼사 년 선배엿는데. 그 양반은 주로, 옛날은 솟도 이 우리 가마솟, 솟이 이제 알미늬솟이 아니고. 무쇄솟 아냐? 무쇄솟이 터진 것들이 가끔 잇거든. 그걸 그냥 던져 불질 안허고 쪼끔 기스¹¹⁸⁾ 나면은 그걸 땀질을 해서 이제 헤났어이. 게난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냐? 그 시대에는 아주 그 해방 직후에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에 어린아이 때니까. 그 시기는 오래 지속웨진 안헛어이. 그 후에는 뭐 터진 솟 허면서 그 썰 필요가 없엇주게. 그 얼마나 그 못 살 때라게.

118) '기스'는 일본어 '키즈'에서 온 말로 '어떤 물건의 이지러지거나 굽히거나 한 자국'을 의미한다.

어머니덜이 솟덜을 다 그레 ㄱ정 와

게난 그때 기억으로 우리가 막 어린 땡데 불미를 지네 집에서 허니깐 이 행상을 헛어이. 해서 우리 한수리면은 어디 그 저 동네 저 양지바른 데, 그 사람들 잘 탱기는 디 질곳에 그걸 갖다 놔 가지고 불미를, 이동식으로 이제 뒷에 시건 왓지. 이제 솟 고치레 왓젠 허든 동넛 어른덜이, 어머니덜이 솟덜을 다 그레 ㄱ정 와, 이제 터진 것들 집이 놔뒸다가. 게서 이제 쪽 허게 것도 이제 순번으로, 영 순번으로 이렇게 줄줄이 이제 그 솟을 놔, 이렇게.

수원 방 서방이 한수리 우리 동네에 와 가지고 이제 그 저 질 구석에. 조용헌 장소에 이제 딱 허면은 한수리 모살통이라고 해서 그디 사람들 잘 모이는 데 잇주게. 그러든 그디 그 카부¹¹⁹⁾에 노면은 동넛 어른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솟덜 갖당은에 그레 이레 노면은 그걸 이제 쪽 허게 놔 놔뒸. 허든 그 불미헤 가지고 췌물 헤 가지고 그걸 이제 막아.

우리 어린 때 그걸 뵈는데 뽕장으로 헤 가지고 어떻게 그걸 부음인가 허데, 그 해난 다음에. 저 막아난 다음에 뽕장으로 해서 그디 칠을 허는 걸 똑 봐난 기억이 있어. 그니까 그 뭐 무슨 때문에 허는진 모르지. 경해난 기억이 잇는데. 그거는 천구백사십 년대 아닌

119) '카부'는 '길이나 선 따위의 굽은 부분'을 의미하는 '커브'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가? 그 어렸을 때니까 해방 전후일 거야. 거난 오십 년대 돼 가든
그거 솟 막으면서 살아보진 안했주게. 그니까 아주 그 극빈헌 때
그 해난 기억이 있고.

수원철공소 건 제라헌 철공소

그 한수리 철공소에는 한수리는 수원철공소라고 해났는데. 수
원철공소는 건 제라헌 철공소니까 불미를 늘 해 가지고, 그디 이제
뭐 주물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가다¹²⁰⁾ 떠 가지고 뭐 만들
기도 허고이. 이제 그디 이렇게 그 저 췌물을 녹이는 이렇게 뿔이
있어이. 그레 췌 놔 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다 평은애, 이제 만들기
도 허고. 또 이제 뿔을 제작허젠 허민 췌 해 가지고 그레 불로 굽어
가지고 오그렛닥 폐왓닥도 허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봐났주. 그던
기계를 손보는 데니까이. 제작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던고? (솟
이나 그 보습 같은) 건 아니고. 주로 그때는 그 사람이 이 상대허는 게
배지. 수원철공소는 배 기계를 많이 고치고. 수원철공소는 뿔이 스
크류¹²¹⁾가 전문이었어. 스크류를 제작허진 못했을 거야, 저기서.

120) '가다'는 일본어 'かた'에서 온 말로 '형상, 모양, 틀'을 의미한다.

121) '스크류'는 배에 설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 듯하다. '스크루'를 말하는데,
'스크루'의 사전적 의미는 '회전축 끝에 나선면을 이루는 금속 날개가 달려
있어서 회전을 하면 무엇을 밀어 내는 힘이 생기는 장치'다.

뿔을 하튼 만들기는 만들었어, 건디 그것꺼지는.

일본인이 가면서 그 사람신디 넘긴 거지

(수원철공소) 저기가 만들어진 건, 일본 놈이 만든 거거든. 그러난
저건 천구백삼십 년대지. 여기 매립허면서 요 물땡크 할 그 무렵이
지. 경헌 거니까 우리가 낳기 전이, 혼 뗏 년 전에지. 건 일본 사람
이 만들어 가지고, 일본 놈이 사장이라났는데, 저 이제 김○문이는
그 육지 사람인데 그 밑에. 김○문이 전라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시다¹²²⁾로 저 공장에 잇었지. 근디 이제 해방땡어 가지고 일
본 놈이 가면서 저 사람신디 넘긴 거지. 그레 김○문이가 쪽 허다
가 이제 나중엔 아들꺼지 저걸 허단 이제 철공소가 그냥 불탄 없어
저 부니까.

김○홍이, ○홍이는 이제 살았주. ○홍이 아버지가 ○문이고,
○홍이허고 ○홍이 동생 ○범이라고 잇는데, ○범이도 저 철공소
를 조금 마탄 해났주. (처음서부터) 건 수원철공소. 저거는 유명허
여. 수원철공소는 제주도에서 철공소가 땡 개 엇일 때 저거는 잇
었던 디야.

122) '시다'는 일본어 'したばたらき'에서 온 말로, 일하는 사람의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대림리 대장간은 안영진 형제가 오랫동안 했주

여기는 지형은 한수리 가까운 데주마는 보통 우리 생활은 한수리권으로 해도 지형은 대림리라. 여기 한수리, 여기 한림 사이가 대림이 쪼끔 있어, 대림 사동이라고. 현재는 대림 지경이야. 대림 지경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던 분은 아버지가 안○춘이. 안○춘이는 이제 우리 아버지 때니까. 그분이 돌아가니까 그 후에 그 아들이 나보다 한 살 밑에하고 두 살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안○근이하고 안영진¹²³⁾이. 형제가 마타 가지고 이제 대장간을 오랫동안 했주. 경허난 그디는 위치는 여기 물탱크에서 가까운 데라났어. 근디 이제 그 사람네 사는 집도 그 바로 앞이야.

안영진이 대장간은 주로 농기구 만들었어

그분들은 제라헌 그 이제 대장간이지, 불미. 불미를 허는데 주로 농기구. 이제 낫, 칼, 이제 호미, 굴쟁이, 굴쟁이가 호미지. 굴쟁이. 그런 거, 이제 또 해녀들 저 전복 떼는 거 보고 뭐라고 허지? 비창, 그런 거. 켤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이 대게 이제 그런 걸 만들었어, 그 사람네는. 경헌디 그 사람네도 천구백스십 년대로 오십 년대 아들들까지는 허단 육십 년대 초췌 췌에 이제 사양기에 댜니까 그 후

123) '안영진'은 한림읍 대림리의 제보자를 말한다. 이 책의 236쪽에 안영진 씨를 인터뷰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에는 혼엇이 벨 재미가 없었거든. 경허난 자연히 그 사람네덜도 치워 불었지. 육십 년대까지는 했어. 거난 저 사람네는 아주 젊을 때야, 그때. 이제 우리 또래니까, 저 사람네 한 이십 대 때췌. 젊은 때 허다가 이제 저 사람네도 그걸로는 안 뵈직허니까 치워 댜 저 사람네도 어업도 허고 뵈 다른 직업을 선택해났주. 건디 저 사람네가 여기서는 오래 했어. 거난 아버지가 헤나고 하르부지도 그때, 거난 삼대가 ㄴ췌 살면서 운영해났주게.

안영진이 하르방이 팡 두드리곡

이디도 그 하르방이 나이가 만해도 아주 그 잘했어이. 그 아버지, 아버지가 그거 하니까 원래가 전문가니까 경행 그때 하르방이라도 두드리는 거 보든 말이지, 하르방이 그때 두드리는 걸 우리가 봤거든. 안○춘이 헐 때도 이제 그렇고. 거난 이제 손지들이 헐 때까지도 하르방이 헤나실 거여. 경허난 그때 침 불 만했주게. 영 탕 허든 독 독 허든 하르방이 팡 두드리고, 독 독 허든 팡 두드리곡 허든, 그 하르방이 얼마나 기운이 셔사 그 이만이 헐 망치, 췌망치 그 이걸 두드리젠 허든 그 막 큰 망치로 두드렸거든. 오오함마¹²⁴⁾라고 말이지. 경헌 걸 우리가 늘 봐났주게.

124) '오오함마'는 일본어 'おおハンマ'에서 온 말로 '돌을 깰 때 사용하는 큰 쇠망치'를 말한다.

대림사동 사름은 보섭하고 뱃 만들앙

대림사동 김○일이라고이. ○일이라고 현디, 그 사람은 보섭하고 뱃을 만들었어이. 그 사람은 주로 보른 보섭, 뱃을 만들앙 그 옆에 뱃이 섰는데, 뱃 구석에 이렇게 이제 진열행 놔두고 해놔주. (한림에서도 보섭, 뱃) 만들어놔주.

이 보섭은 제라허게 만드느 딘 저 덕수리, 그디 저 새당. 거기서 제라허게 만들고. 경허난 그디(새당) 보섭을 사당은에 이디 오랑 꼭 는 사람이 있어놔는데, 거기 새당 출신이 한수리에 살아 가지고 거 난 그디 강 사다근에 널 이디 오랑 풀면서 해놔주게. 허난 이디서 도 잠깐 만들었어.

(김○일은) 집에서, 요만한 창고 님은 데서. 이 사람도 원래 여기 출신은 아니야. 어디 대정 출신인가 웬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해방 직후에 한 사십 년대로 오십 년대 브듯 헛주. 경허당 이 사람도 다른 데 이사가 불고.

조 대장은 한림초등학교 앞이서

또 한림에 조 대장은 그 한림초등학교 앞쪽에 신작로 읍인데, 우리 초등학교 텅길 때 보면은 앓아 가지고 그냥 허는디, 그분도 주로 농기구 그때 만들었주. 경허고 허단 그 아들¹²⁵⁾이 나중엔 험선 게, 그 어른이 돌아가 부난. 아들이 한참 헛주. 현디 그분이 나중엔 보니까 설러 불언. (조 대장은) 아버지. 그 사람이 제라헌 조 대장이

주게. 일름은 내가 잘 모르크라. 우리 아버지 대 분이고, 그 조 대장 아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요새는 못 봐도 뱃 년 전이꺼지는 봐졌어. 그 후엔 그 사람이 어디서 헤난지 모르겠어. 게난 그때 우리 초등학교 텅길 때 그디 봐난 양이난 그 오죽 오랜 때라게. 오십 년도 전에니까.

조 대장만 대장이렌, 다른 사람은 일름 불렀주

다른 분들은 대장이렌 말을 못 들었어. 그 사람만 조 대장 말을 들었주. 이○권인 이○권이엔 허고. 저 대장이엔 못 들었어. 불미 쟁이 가튼 건 그런 말은 없고, 그 일름 그냥 불렀주. 안○춘이, 이○권이, 이 저 김○일이 뒹. 경허난 일름을 알암주. 누게 그 사람들 이 름 우리가 알아져게? 일름으로만.

옛날 오일시장 안네 이○곤이라는 분이 불무 해놔주

또 시장통에 이제 불미허던 분이 있었는데, 이디 시장통. 매일시 장 자리. 그디도 옛날에는 오일시장이랐어. 매일시장 자리가 옛날 에 오일시장 자리데, 그 안네 이○곤이라는 분이 불무를 해놔주. 그

125) 조 대장의 아들은 한림읍 수원리의 제보자 조대옥 씨를 말한다. 조대옥 씨와 그의 아버지 조 대장(조여길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의 267쪽, 조영진 씨 구술 자료에 실려 있다.

영감도 그냥 앉아서 주로 이제 저 뭐 낫 같은 거, 칼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주로. 그때 뭐 불미엔 헛자 제작하는 건 큰 다른 거는 별로 없었주게. 농기구 같은 거 뭐, 그런 거나베끼 무슨 다른 용품을 만들 방법이 없었지, 그때는. 그 양반은 천구백육십 년도 칠십년대꺼지는 안 가고 한 육십 년대까지는 헛주. 건 그 후에들은 대개 또 없어져 불었으니까.

불미 헛자게 지네 가족 정도

불미 헛자게 지네 가족. 이 영진이네는 지네 삼 부자(父子)에 이제 그난 손지꺼지 허난 서너 명이 잇고, 요 조 대장네도 뭐 헛자 부자 간 정도고, 요 시장통에 잇는 이○곤 씨는 지 혼자고, 시다¹²⁶⁾도 없었어, 그때 보면은. 그때는 뭐 그런 정도주. 수원 그 방 서방이런 허는 어른도 헛자 자기허고 사람을 하나 데령 왔던가. 그런 정도, 그자.

보리철이나 조철 돼든 낫 베리레 땡겨주

나가 직접 가 가지고, 저 농사 때에는 가 가지고, 어머니가 시키는 그 저 땡고? 낫, 호미, 보리철이나 조철 돼든. 이제 뭐 들렁 강은

126) '시다'는 일본어 'したばたらき'에서 온 말로 일하는 사람의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에, 그디 강은에 거 베려 줍센 허주게. 베리레 늘 땡겨주게. 강 이제 그레 놔두렌 혜영 놔뒀당 이제 오후 땡걸랑 좇으레 오랜 혜근에 허곡. 거든 나 혼자만 허는 게 아니라 으라 사람들이 강 허게 돼든 순번을, 것도 이제 그디 말경 놔두든, 그것도 이제 그 사람네는 이 베림만 혜여. 베림만 허든 이제, 그걸 이제 다시 그디 이제 같고 이제 허는 거는 본인이 헛다고. 그디 저 신돌이 시니까. 신돌이 쪽 허게 낳 놔두든 이제 그것들은 앗앙 이제 물로 행은에 다 지냥으로들이 제 그걸 베령 오주. 경행 우리가 강 거 다 혜났어.

이제들은 돈 쥘 시장에 강은에 사당은에 그냥 씨당은에 땡 허든 던져 불고 허주마는 그걸로 그냥 땡 년이라도 썼거든. 그 낫을 베리멍, 베리멍 땡 번이라도. 게난 봄이 돼든 보리 헐 때 허고, 가을 돼든 조 헐 때 허고, 죽장 혜났거든.

(쟁이나 굴쟁이) 건 베려 보진 아녀고. 그건 돼나마나 첨 꺼꺼지지 안허든 그냥 씨게 땡 거난. 이제 저 굴쟁이도 또 건 이 베릴 필요가 없주게. 낫은, 건 무끼면은 못 씨니까. 거난 굴쟁이 같은 거는 베려 본 도리가 없고 주로 낫. 주로 낫이고 칼 같은 것도 이제 씨는 칼도 무끼든 가서 허곡.

즈록도 시원치 앓으든 다 새로

또 옛날에는 즈록도 시원치 앓으든 가 가지고 다 새로 바꿨어이. 거니까 그디 소나무로 이렇게 요만썸, 요만썸 다 즈록을 만들엉 놔

뒷당. 그것도 그디서베끼 안 돼주게. 그거 즈룩이 깨지거나 어떻 허 게 쓰든 그디 강 탁 데껴 뒀은에 그디 불로 영 켜은에 그레 콕. 겨난 즈룩도 헐 걸 그디 다 만들엉 놔뒀. 만들엉 놔뒀당은에 꼭 찢러근 에 해 주꼭 경해났주게.

이녁냥으로 골앙

신들로만 골앗주. 구라인다¹²⁷⁾가 영 돌리는 것이, 돌리는 것도 똑 셔난 것도 닳다마는. 셔도 그거 헐 정도가 안 돼주게. 낫은 그냥 골주, 그걸로 해 가지고, 해 주지 안 허주게. 그땐 구라인다 잇긴 있었어. 잇긴 있어도 그걸로 그거 골멍 해 주젠 안 허거든. 지네 필요한 거 까끌 때만 그거 허지. 첼, 낫 거튼 거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녁냥으로 골앙 왔주.

이거 전체 일단, 이 불에 귀 가지고, 이젠 망치로 이제 지네가 다 손 봐 가지고 두드리면은 이거 이제 잇는 저 녹신 거 다 이제 없어 지고 깨끗허게 돼주게. 완전히 새 걸로 뒀는 거주. 경허든 그걸 이제 골주게. 골안 해났주게.

127) ‘구라인다’는 물건을 표면을 깎을 때 사용하는 ‘그라인더’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우리 헐 땀 베리는 값 멧 십 원

(낫 베리면) 돈 줏주, 그땐. 우리 헐 땀 돈 줏주. 그전엔 쓸 줏는지도 모르지마는, 우리 헐 땀 돈으로 그땐 멧 십 원이면 멧 십 원. 하여튼 돈 줏주. 정확한 건 옛날 돈이난 얼마사 받아신지 모르크라. (베리는 비용과 제작 비용 비교하면) 한 삼 분의 일 그 정도는 뒀지. 삼 분의 일 정도는 뒀을 거야. (베리는 건) 철마다. 보리철 뒀든 강 허여나든 그것이 무끼거든. 경허든 다시 씨기가 곤란허니까 경허든 또 조철 뒀든 강은에 또 해 오꼭. (낫 전에 맡기면) 오후에 좇아 가든지 경안 헌 사름은 듯네날 좇으레 가든지.

골갱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대장간에서) 낫도 만들고, 골갱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우리 사 용자들은 가서 이제 베려 오는 거고. 경 뒀지. 주물로 허는 거 봐 보 긴 봤주. 그 주물, 건 대장간마다 다 그 헐 거야. 그 주물 녹이는 그, 그 무슨 그 기구가 있어, 독특한 게. 그거 췌물 녹이는 그 화로가. 그것더레 놔근에 그걸로 이제 가다 떠 가지고 뒀들 만들기는 건 허 주. 허긴 허는디 건 뒀을 만들엇던고? 건 불미허는 디마다 그 기구 들은 다 있어.

흔쪽 구석에 불미가 잇고, 췌로 뒀 판이 있어이

대장간 흔쪽 구석에 불미가 잇고이, 이제 이 우선은 두드리는 것

보고 뭐 이제 켜로 켜. 그것이 우선 필요하니깐. 이렇게 켜 판이 있어, 켜로 켜 거. 영 이딘 뿔으로 바닷주마는. 이 판이 성은에 이걸로 여기에 이제 뿔을, 뿔을 이렇게 해여 오른 이디서 탁 탁 탁 탁 두드리고.

부걱부걱 해 가든 불이 일어나주게

불 피우는 그거는 당연히 있고. 불 피우는 다가 있고. 건 당연히, 이 저 이렇게 이렇게 푸꺼 가면은, 그 브름 푸끄는 거주게. 이거 영 영 영 영. 불미. 그거 불미, 뿔이엔 헌다마는. 경허든 영 켜 걸로 부걱부걱 해 가든 이제 일로 브름이 영 들어오면은 이디 이제 켜들이 첨 저 무슨 그 연료가, 숯 거든 거 시면은 이것이 이렇게 불이 일어나주게, 이것이 불미주게. 이것이 불미, 이건 화로가 켜 철이지. (화로는) 바닥이 아니고. 요것이 어떻게 켜느냐 허든은 바닥이 아니고 요렇게 이 불미를 이렇게 허면은 일로는 영 영 영 영 허면은 이게 요렇게 행은에 이디 불 일어나고 이딘 영 해서 이 나무로 멘든 것도 없고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로 만들어서 이딜 그 다이¹²⁸⁾를 만든 거지, 이디. 돌로 켜을 거야, 이것이. 돌로 해서 평평허게시리 멘들앗주게.

128) '다이'는 일본어 'だい'에서 온 말로 '받침대'를 말한다.

바닥에 화로 만들앙 앓아근에 영 영 푸끄곡

사람이 영 앓아근에 영 영 영 영 푸끄곡 이제 이 연기는 저레 나가게, 여기 연기 통 해 가지고. 경허난 요것이 또 요런 디, 이건 안 영진이네 집인 요렇게 켜고 시장통이나, 이○곤이네 집이나 저 누게고? 조 대장네 집인 이것이 아니랴다. 그냥 바닥이랴저. 저 조 대장은 사서 허지 못허는 사람이랴거든, 앓앙베끼. 앓앙베끼 못 허니까 그냥 바닥에 이 저 화로를 만들앗어. 이디 저 시장통에 이○곤이 허는 디도 그 사람도 장소가 그렇게 널른 디가 아니난 그냥 앓아근에 영 영 영 영 허게시리 멘들앗고. 건 이녁 편리헌 대로 그냥 만들어시킨. 겨난 또 행상허던 사람은, 수원 방 서방은 요런 통만 가정 오면 켜니까 요런 통만 가정 오른 이 바닥은 뭐, 밑바닥에 그냥 이 흑 우에 그냥 그 이제 요 불 살릴 거만 멘, 그 놓으든 켜니까. 경행 해 낫주게.



똑딱 허든 팡 치고

흔 번또 탕 치고

망치 큰 거 행은에 이디서 이제 하르방이 켜를 영 노면은 납작하게 두드리젠 허면은, 이걸 이 사람이

'모루'를 그려 '메질'을 설명해 주는 김중관 씨

큰 망치로 이걸 탕 두드리든, 한 사람은 집게로 영 (쇠를 잡아). 뜨거운 거니까. 이렇게 잡으든, 영 잡았 이시든 여기 산 사람은 팡 두드리고. 경허든 이 사람은 이거 탁 허든 바란스¹²⁹⁾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똑딱 허여, 죽은 망치가정 똑딱 허든 이 사람이 혼 번 또 팡치고. 더퍼 놓고 허든 안 돼거든. 영 허든 똑딱 허면 저 사람이 탕치고, 경 이제 영 허든 탕 치곡. 왜냐하면 그것이 바란스를 맞춰야 허니까 더퍼 놓고 경해 가지고 이제 쉼. (집게 잡은 사람이 신호를) 똑딱 허든 이제 탁 두드리고 경해낫주게. 거난 것이 아주 기술적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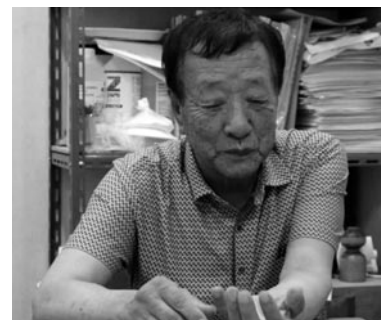
소나무 썩은 빨리덜 연료로 써었어

(불 피울 때는) 석탄은 아니고 숯허고. 숯은 해실 거야. 숯허고 나무로도 허지 안했든가? 영진이네 집은 나무로도 허지 안했든가, 그때? 왜냐하면은 숯이 그 어렵거든. 저 소나무 썩은 낭 토막덜 그때는 산에 강 캐당은에 그 연료로들 많이 썼거든. 소나무 그 썩은 그 빨리덜.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게, 그 저 그냥 나무를 해 오진 못허니까 어디 소나무 썩은 그 빨리덜. 그걸 캐다가 연료로덜 써었어, 그때. 다 그걸로 헌 것도 같고, 저 숯으로 헌 것도 같고.

129) ‘바란스’는 ‘균형’을 의미하는 ‘밸런스’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토평리 세 군데 불땃간,
오늘추록 비 축축 올 때 가주

서귀포시 토평동 강성진·오남호·김응반



강성진

오남호

김응반

토평동은 서귀포시 동남쪽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다. 토평동을 찾게 된 것은 토평동마을회에서 2019년에 발간한 『토평동 마을 택호 및 지명 유래』 책자를 확인하다 '불밧집', '불메항', '불미항'에 대한 기록을 보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24일, 서귀포시 토평동 마을회관에서 마을의 터줏대감인 강성진(1934년생), 오남호(1942년생), 김응반(1945년생) 씨와 만나 토평동 일대에 있던 대장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성진 씨는 토평 토박이로 돌쟁이 일을 했던 분이다. 석공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연장 및 이와 관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토평동 대장간의 오랜 역사를 말씀해 주셨다. 특히 종종 찾았던 감남골 '불밧간'에 대한 기억과 함께 담금질 및 연장 버리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려 주셨다.

오남호 씨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농기구와 토평동 대장간의 작업 과정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단골로 다녔던 동동네 불밧간에 대한 자부심, 토평동 주민 삶에 녹아 있던 불밧간의 시간을, 자신의 일생 속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억으로 하나씩 짚어 주었다.

김응반 씨는 현재 토평동 노인회장님으로, 강성진 씨, 오남호 씨 섭외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분이다. 마을의 오랜 역사와 함께 어릴 적 불밧간에서 풀무질을 돕던 일들을 풀어내 주시며 이제는 사라진 대장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셨다.

토평동의 대장간과 함께한 세월을 기억하고 있는 제보자들을 통해 대장간의 작업 연장, 일하는 방식 등을 채록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사라져 버린 토평동의 불밧간을 몇몇 사람들의 기억으로나마 기록하고자 한다.

토평에는 동동네, 뒷빌레, 감남골에 불밧간이 잇었고

(대장간을) 불미, 불메, 불밧간. (토평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해가지고, 네 군데. 보니까 (불미가) 동동네도 잇었고, 또 요 위에 강씨네도 잇었고, 우리 동네도 잇었고. 감남골 동네. 쪼글락흔 비 오면은 내려가는 그 물 또랑이 잇주.¹³⁰⁾

(토평리에 불밧간은) 많은 편이지. 아메도 이 마을도 크고 허니까. 옛날에 이 토평을 삼백여 대촌이라고 해놔어. 삼백 호가 넘는 대촌이라. 사삼사건 전이부터.¹³¹⁾

(강씨네는) 뒷빌레¹³²⁾. (감남골 지경) 우리 형님네 올레 동산에. 그 하르방 혼자 할 때 최씨 하르방. 최○찬이 아방이 아니? ○만이 아방이 ○문이주. ○반이 아방이 ○문인가. 그 세 성제. (이름을) 몰르고. 우리 알거닌 그 하르방도 혼자 살았어.¹³³⁾

감남골 불밧간이 제일 오래 잇어놔어¹³⁴⁾

(불밧간이) 사삼사건 후에도 잇어놔주게. 혼 오십 년, 육십 년 초

130) 김응반 씨 구술.

131) 강성진 씨 구술.

132) '뒷빌레'는 토평동 1483번지 동쪽, 토평동 1484-5번지 북서쪽 일대에 있던 너럭바위, 혹은 이 빌레 일대를 일컫는다. 토평동마을회(2019), 『토평동 마을 택호 및 지명 유래』, 101쪽.

133) 김응반 씨 구술.

134) 오남호 씨 구술.

까지 있어나지 않아시카? (장가갈 때) 있어나실 건디. 스물한 살, 육십이 년. 있어난 걸로 보는데. 우린 이 알동네 사니까 이 동동넬 주로 많이 다녔주게. 감남골허고 동동네허고 두 군데가 오래 잇엇주. 이 동동네가 물 맞춤은 잘헌덴 해났어. 췌 불 달귀나고게, 강도를. 담금질.

감남골이 제일 오래 잇어났언. 막 오랬지. 그 집이 이장 헐 때 그 때ㄱ장 있으니. 그때 육십 년도. 그때 싹 갈앙 막 포장해 불엇주게. 김○용 씨라고. 게난 하튼 육십 년도엔 잇어났어게. 우리알라이 어뎡 생각허느냐면 나가 장개간에 그 송아질 산에 혼 칠십삼 년도에 췌 세 겔 교환허멍 헛는디. 칠십사 년도ㄱ지 당시 출 비젠 허민은 일 년에 혼 번은 호미를 담금 거시기 해여, 베려. 췌 해난 생각허면 은 잇어난 걸로 생각 췌. 칠십 년, 육십 년대ㄱ장은 잇어났어.

기구 만들젠 허믄 어떤 때는 둘이도 허곡, 보통 혼자도 허곡¹³⁵⁾

농기구게. 무신 췌이, 췌스랑, 나대 그런 거. 모든 기구 만드는 거라.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는 거. 풀 베는 거나 땅 파는 거나 그런 거 다 만들엇지. (만드는 거 봤던) 기억이야 잇지. 저 어떤 때는 둘이도 허곡, 보통 혼자도 허곡. 뭐 만들젠 허믄 만들레 간 사람이 ㄱ치 도와

135) 강성진 씨 구술.

주곡. 원 기술자는 혼자 주로. 만들 게 많이 잇이믄 그 기술자가 혼 사람 누게 자기네 불러근에 같이 다 해근에 만들고.

(토폽리 세 군데 불멧간은) 거의 비슷하지. 비슷허고 ㄱ트다시피 허주. 특별한 건 없고, ㄱ튼 기구를 만드는 거니까. 농촌에 사용하는 거. 누게 어디가 물 잘 맞추느냐가 문제지. 잘 만들곡 조금 못 만드는 거 그런 건 차이 잇주마는 요즘은 거의 비슷해, 만드는 과정은.

동동네 뎡기민 단골이엔 해근에 그디만 뎡기는 거주¹³⁶⁾

우리는 우리 쪽 알동네 췌이난. 여, 동동네 뎡기민 옛날부터 단골이엔 해근에 그디만 뎡기는 거주. (동동네 불멧간) 김○홍이엔 혼 어른. 가족이 애월인가 어디 한림인가? 농서는 안 헛어. 그 어른이 토폽 와 가지고 부인을 얻어 가지고 살았어. 가족은 딸 하나 잇엇단에 그건 잘 몰라. 지금 혼 가이가 육십 췌은 췌실 거야. 지금 살아 시믄 혼 백이십 년은 안 췌실 거라. 게난 그 하르방네 영 혼췌 해 보니까 혼 백이십 여 년. (육십 년) 여기 살다가 토폽을 완전히 떠나 버렸어, 여기서 죽지도 안허고.

136) 오남호 씨 구술.

감남골 최씨 하르방이 제일 오래 헛어¹³⁷⁾

(감남골 불멧간은) 최씨 하르방. 그 하르방이 제일 오래 헛어. (이 할아버지는) 토평서 돌아갓주. 원래 토평 사람이주. (어떻게 해서 불멧간을 했는지) 건 몰라. 어린 때부터 헛 거난에. 대물림은 아닐 거라.

뒷빌레 강씨는 요새 신식계¹³⁸⁾

(뒷빌레 불멧간은) 토평 사람. 강씨는 요새 신식계. 무신 용접도 허 꼭 그런. 겐디 강씨가 막 일찍 죽어불지 안헛어? 허긴 해도 혼 이십 년 더 돼지 안헤신가? 그때 뭐 인수인계 받았덴 헛 얘기 헛게마는. 마누라는 살아신디 남편은 돌아가 불고. 돌아가기 전까지 (불멧간) 허긴 헛주게.

놀레 가면은 이거 니 헛끔 부끄라¹³⁹⁾

저도 어린 때 그 하르방 혼자 앓이면은 하르방이 “야, 이거 니 헛끔 부끄라.” 허민 이렇게 헛난 적은 있어요. 대장간에 가든 풀멧간 이엔 헛주. (옛날엔) 불메지. 불미. 불이 부꺼 가면은 불이 살아나가

137) 강성진 씨 구술. 토평동마을회(2019:81), 『토평동 마을 택호 및 지명 유래』에 따르면 토평동 2184-2번지 일대의 동산에 최씨 할아버지가 살면서 농기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빌려 주던 ‘불밧집’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138) 오남호 씨 구술.

139) 김웅반 씨 구술.

니까 그때 췌가 잘 녹아. 그래서 불이 췌면은 야, 이거 한번 부꺼 보라헤 가지고 헤 본 적은 있어요. 거기서 하르방 하는 거 보면은 하르방 혼자 허면서 허니까. 뭐 놀레 가면은 “야, 너 이거 헛끔 부꺼 보라.” 행은에 헛난 적은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최씨 하르방.

(불미) 이디헤 가지고 손잡이 헤 가지고 허면은 이 불이 와락와락 살아나, 부끄는. (상자를 가리키며) 저거보다 커예. 그 안에 공기를 압축해근에 불을 타게시리 만드는데 거난에 바람 영 게민 그게 브름 부끄는 거주.

벌경헌 췌를 머릿돌 우에 갓다 놔서 두드리면서¹⁴⁰⁾

화덕, 숯. 계난 나무 헤시민 그 안에 연기가 팍 찰 건디 연기가 없어요. 계난에 우리 그때 숯인가 막 생각허는디. 연탄 ㄹ는 건 꿈도 못 꾸고게. (불 피우는 데는) 화덕이주. (두드리는 데는) 머릿췌엔사 허는가? 머리 췌가 아니고 머릿돌.

췌 이렇게 세와 가지고 여기 넓으면은 그디 췌를 놔 가지고 망치로 때려. 만약에 호미를 만든다 그럴 때는 다 바르게시리 때리는 거. 불 벌경헌 췌를 막 때리면 바르게 돼지 않습니까게. 흰 것보다 그렇게 해서 허는 걸 나가 뵈습니다. 그 판이 있어요. 췌판 요만이

140) 김웅반 씨 구술.

현 것이 있어요. 부끄면서 그 빨갛게 불 부튼 거 그 우에 갖다 놔서 이제 망치질 해근에 두드리면서 만들지예.

그다음은 전부 다 혼 번에 두드려근에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다음 불에 달궈. 그다음 또 메질해영 나라신¹⁴¹⁾가 뭐 허는 거지. 멧 번. 그 하르방이 모양 나게끔 다 두드리렌 허지.

하르방은 기술자난 딴 사람은 보조 역할허는 거지¹⁴²⁾

하르방 혼자, 집게로 잡고. (망치질도) 영 봐 가지고 때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하르방이 혼자만 허니까 자기대로 집게를 잡아서 췌 놓고, 자기 혼 손으로 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해는 거 나 봤습니다.

또 만든 거, 췌몽치 큰 거는 한 사람 때리는 사람 별도로 또 있어. (하르방은) 집게 잡아근에 그 딱리는 사람신디 얘기하면서 세계 때리렌 허곡, 막. 하르방들은 그거 만드는 기술자난에게 딴 사람은 보조 역할허는 거지. 때리곡, 이 부끄는 사람도 뭐 만들레 온 사람이 혼자나 두세 사람도 댜곡, 세 사람 넘게도 허곡. 만들레 오는 사람들이 많지예. 경허면은 부끄는 거는 만들레 온 사람들이 다 해.

141) '나라시'는 일본어 'ならし'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142) 강성진 씨 구술.

불에 구워근에 벌경하면은 담금질을 해여¹⁴³⁾

그다음은 솥돌로 갈아. 게민 어느 정도 날이 날 거 아니여? 그다음은 또 불에 진어. 그다음은 또 담금질을 해여. 췌 강도, 거렇게 식은 다음에. 저 칼이고, 낫이고 그런 거는 곱고. 큰 거, 땅 파는 거나 이런 건 곱지 안헤연. 그때도, 막 얇은 거, 찌르는 거, 만드는 거 그것만 신돌에 곱곡. 불에 구워 그다음 담금질허는 거지. 전부 곱아 근에 완전히 만들어 낱. 두드릴 거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만들어 낱. 그거 불에 일단 구워근에 벌경허면은 그걸 물에. 신돌에 곱곡 전부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 완전히 완료되면은 그걸 담어, 불에 집어넣어, 시아게¹⁴⁴⁾ 해근에.

(담금질은) 그냥 물에지. 경헌데 그게 기술자라. 기술자니까 그 물에 집어 놓는 거 약하고 췌고 헨 거 그걸 잘 맞추는 게 그게 기술자 지게, 제라헌. 깊이, 게난 이걸 혼 번에 확 행 물에 담그질 안허고, 꺼내근에 그 연장 상태를 봐. 경행 또 담금질을 해여. 그축 허데. 기냥 물에 확 담가 부는 것이 아니고. 췌금 담강 꺼냈다근에 영 뵙 또 담금질허는 거. 그 칼에 놀만 약간 깊이 영 허는 놀로만 집어넣지. 그 우에는 벌경헌 냥 그냥 있어요.

143) 강성진 씨 구술.

144) '시아게'는 일본어 'しあげ'로 일의 마무리, 마지막 손질 등을 말한다.

손잡이 없을 적에 손잡이 만들앙 손잡이에 굽기ㄱ장은 칼 나시
민 그걸로 나무 자루에 꽂는 거ㄱ장은 헤 낫당 빼서 이제 구워사
담그지, 물에. 완료허기 전이 만들어근에 그냥 거기에 행 꾸워 낫
다가 빼어서 담근 다음에는 그때는 쫓지예.

(담금질 그릇은) 장데. 돌로 저 통 만들어서. 돛도고리 모양으로 그
추룩 현 것에 물 바근에 거기서. (물도) 소박 안 논다. 물을 그 돛도
고리 깊이에 따라근에 요만이 깊으면 현 반 정도는 물 차게 바근
에 사용허지. 도고리에는 물베끼 안 바요. 기름 사용헌텐은 안 들
어 받.

칼, 낫 꺼무룽현 거 문대 불곡 원 형태로 굴곡¹⁴⁵⁾

(자루 꽂은 후) 갈아야. 칼이면 칼, 낫이면 낫 꺼무룽현 거 문대 불
곡, 없애 불고. 처음 만들 적에 그 원 형태로 굴곡. 또 완전히 헤근
에 물에 집어와 낱 끝에 이제 좀 갈곡 약간. 그때는 늘 장황한 거 췌
물에 집어와 가면 꺼무룽허믄 때 묻고 이추룩 허믄. 그거 현 번 신
돌 미는 걸로 썩. 그것도 두 번은 집어서도 허곡 만들러 오는 사람
이 다 가정 왕 집에서 헤도 돼곡.

145) 오남호 씨 구술.

곡쟁이는 이신 집이 현두 집베끼 없었어¹⁴⁶⁾

풀 비는 낫, 지금 말로 낫이지. 옛날 말로 호미. 췌스랑, 췌이. 곡
쟁이는 얼마 안 나왔어. 옛날에 우리 현 때는 곡쟁이엔 현 게 별로
없었어. 췌이, 췌스랑, 칼, 호미, 굴쟁이 뭐 그 정도지.

곡쟁이는 이제사 나온 연장이지. 우리 어린 때는 곡쟁이 현 게
잇긴 잇어도 그때는 일본서 어떻 현 건진 몰라도 이 동네에 곡쟁이
엔 현 게 멧 자루 없었어. 우리 동네도 현두 집 시난. 우리도 그때
당시 현 십육 혼가 멧 호 돼는디. 곡쟁이 이신 집이 현두 집베끼 없
었어. 그건 어떻게 쓰느냐? 이 영장 나면은 그때 곡쟁이 아주 편했
어. 지릿대 용도 돼고 보니까 곡쟁이가 그때 아주 좀 귀한 물건이
었지. 땅 팔 때 돌 그튼 거 이시민 그걸로.

굴쟁이 문딱 몽글아 불민 두드령 놀쪽에 얹게시리¹⁴⁷⁾

호미는게 자꾸 갈곡. 호미는 옛날에 곡식도 다 그걸로 베티. 산
에 산야초, 촌. 또 검질 비어다근에 뭇감 헛지, 산에 바근에. 지들커,
다 호미가 주로 많이. 보리, 조. 전부 낫으로 비는 거난. 그거 다 몽
글민 또 새로 만들어.

(벼린 후 담금질은) 여러 번 안 허여, 그건 얹은 거난에. 현두어 번

146) 오남호 씨 구술.

147) 강성진 씨 구술.

불에 갇다 오면은 처음 허는 거나 마찬가지로, 담금질은.

호미, 굴쟁이, 칼, 그 굴쟁이 문딱 몽글아 불민게, 베리기도 하나 지. 막 굴멍 쓰다 보면은 이 얇은 딴 다 없어져 불민 뚜꺼우면은 일 단 저 불멧간에 간에 두드령 눌쪽에 얹게시리 만들엉.

돌 깨는 거, 두드리는 거, 다듬는 거도 불멧간에 강¹⁴⁸⁾

(토평에 돌챙이) 저 돌 깨는 거, 불멧간에 강 만들지. 곤젠 허난 잊 어벙저. 나중에 돌에 굵기 뚫렁 낱 허는 거는 야엔 허고. 구녕에 낱 뚜드리는 정. 야, 일본말일 거우다. 야엔 허는 건. 막 여라 질이지, 이름은 몰라도. 다듬는 거. 켄노¹⁴⁹⁾게. 그런 건 베려야지게. 문 쓰 다가 많이 써 가면은 그게 다 몽글아지면은 또 새로 강 두드령 만 들어야지. 메엔 현 거는 두드리는 것가 메고. 그건 베리지 안헤. (메 와 켄노) 크기가 다르주게. 켄노엔 현 거는 손으로 두드리는 거, 돌 다듬는 거.

(켄노) 동그랑현 거 잊지 안허여? 이 동그랑현 옆이 이디 잊지 안 허여? 그 에염이 돌로 헤 가면 그게 몽글라 불어. 그 모가 없어져 불어. 경허면은 또 그거 뚜드려근에 모나게시리 멘들앙.

불미질허는 텐 거의 다 헤. 우리 헐 땀 서귀포 ㄴ튼디, 그런 거 만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전문적으로. 그런 건 서귀포 ㄴ튼 디 기계 이용헤근에덜. 기계로 두드령. 그 당시 불미헐 땀 토평서는 켄 노 ㄴ튼 거 만들질 안헐어.

돌챙이 정은 코 좀 나오게시리¹⁵⁰⁾

그때 미깡 값이 얼마나 좋안? 가격이. 도둑놈 방지, 쉼 방지, 바람막이도 좀 잇고. 아무나 밧디 들어가서 밀감 따가지 못허게끔 담 이 없으면 지나가다라도 확 들어강 멧 개 따 가고 이추룩 헐 건디. 그런 방지로 처음엔 다 밧마다 다 (담) 돌렸지. 주 목적은 밀감 방지 그것이.

경허난 그때부터 돌일허는 사람 하영 생겼지. 난 주로 돌 쪼개는 거. 쪼개는 사람이 잇고, 담 쌓는 사람이 벨도로 잇고. 다 그렇지. 쪼 개는 사람보다도 담 쌓는 것가? 그게 얼마나 보기 좋게 싸느냐, 보 기 굵게 싸느냐 그런 거. 쪼개는 거야, 그자 적당히 큰 거 담 들러서 담 쌀 정도로 쪼개는 거니까. 야 ㄴ튼 건 필요허고, 켄노 ㄴ튼 거는 주로 담 싸는 사람.

(야 버리는 건) 여라 번 헤야 웨어. 막 여러 번 헤도 것도 거 큰 거 잇고 작은 거 잇고. 그추룩 허난 그중에 큰 망치로 잡아 두드리고

148) 강성진 씨 구술.

149) '켄노'는 일본어 'げんのう[玄翁]'로 돌 깨는 데 쓰는 큰 쇠메를 말한다.

150) 강성진 씨 구술.

헤 가민 얼마 안 썩 망가져예. 정은 구멍 뚫부는 거니까 꼬트머리
몬 뭉테지면은 두드령 코 좀 나오게시리 헤여근에. 그건 일에 따라
하지게.

우리 혈 때는 저 서귀포 간 헐. 서귀포에 만들어 놓 꼭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아 노면은 그거 사다가 사용만 했지. 그런 건 철물점
에서 나왔주게. 불메에서 만들엉 철물점 납품허민 철물점에서 사
왔어.

글쟁이, 칼은 베령 쓰긴 쓰는다¹⁵¹⁾

(낮은 베리는 건) 일 년게. 출 빌 때가 우린 잘 허는다. 팔 월 추석 넘
으면은 출 비러 가지이? (글쟁이) 일 년 더 쓴다. 베령 쓰긴 쓰는다
그건 잘 몰라. 칼도 일 년은 더 쓴다. 만들엉. ㄴ는 거는 집에서 글
아 쓰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일 년 더 쓴다. 호미나 칼이나 뭐 비슷
허지.

기계 나옴 시작해 가니까 차차 없어져 버렸지¹⁵²⁾

기계가 나옴 시작해 가니까 기계로 뭐 몬 허고. 기계로 헤여근에
허는 디는 만드는 게 빠르고, 많이 만들고. 불메간에서는 사람이 힘

151) 강성진 씨 구술.

152) 김웅반 씨 구술.

으로 두드령 만들곡. 혼자 몬 기냥 기술자 혼자만 허는 거 아니. 못
만드는 거니까 맞질 안허지. 사람 빌영 허곡 헤영 폴젠 폴아근에
맞추지 못허고 허니까 차차 없어져 버렸지. 이젠예, 육지서 큰 공
장들이 호미도 만들고 모든 자재를 만들어 노니까 여기서는 수지
가 안 댜예. 그래서 이제 엇어진 거고. 그렇게 댜 결과우다게.

불메 가는 날은 비 축축 오는 날¹⁵³⁾

그때는 쓸은 아니라, 돈으로 주지. 댜 폰 주긴 줏는다 그건 얼마
는 생각이 안 나고. 댜 규정이 없어요. 만든 사람도 댜.

불메 가는 날은 어떤 날을 가느냐? 오늘처럼 비 축축 오는 날. 그
런 날을 주로 많이 갔어. (비 아닌 날도) 하튼 그디 종사허주게. 아뻬
헤도 만들 거 이신 때는 허곡, 엇이면은 놀곡. 그렇지 댜. 매날 이렇
게 많이 잇어근에 만드는 게 아니고.

옷은 갈정벙이 갈옷뿐이지¹⁵⁴⁾

그야, 제주도 갈옷뿐이지. 갈정벙이 그거지. 옷이엔 현 게 몬 그
거지. 미녕옷 짜는 그런 옷들 그 감물 들영 입곡 그런 거지. 지금처
럼 이런 옷 입곡 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감물이니 댜니 그런 거,

153) 오남호 구술.

154) 오남호 구술.

IV.

그런 거베끼. 지금은 육지서 뭐 온갖 옷을 다 만들엉 나왔주마는
옛날은 육지서 옷 만들엉 들어오는 것도 우리 알건이 벨로 엇어, 완
전히 고급 옷은 들어오지마는. 농촌에 보통 입엉 일허레 텅기곡 그
런 디 입는 옷은 육지서 들어와 보질 안헤수다. 다 전부 자급자족
이주게.

다치민 아무것도 엇이난 속 캐다근에 처멧지¹⁵⁵⁾

속이 약이주게. 불에 데일 땀 몰라. 하여튼 호미로 손 베민 게나
저나 속. 어디 강 씨러져도 피 나 가민 속. 이 담배도 해났어, 우리
태우는 담배. 그거 해근에 손 벤 디 허민 지혈돼주게.

이 손가락 저가 옛날에 이렇게 잡양산디 비다가 호미로 이거 비
어서 지금도 이거 잊지 안허파? 표적 잊지 안허파? 그때 아무것도
엇이난 속 캐다근에 그냥 처멧지 뭐. 게난 그 당시에는 피가 지혈
이 돼면은 그때는 내려도 괜찮은데, 영 아래 이시믄 이게 멈추질
안헤. 기냥 계속 나지.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보민 “야, 하늘 우트레
들르라. 들르라.” 헤 가지고 들러 가지고 피를 멈추게 만들고 그렇
게 해났어.

155) 김웅반 구술.

- 348 곶강이, 물질해는 거는 제주도답게 맨들어야 팔아먹지
 성산읍 고성리 송현균
- 373 겐노는 물에 담그고, 노미는 기름에 담그고
 조천읍 신촌리 김규중
- 416 예전 벌초 때는 낮이 이만 개 나갔었는데
 한림읍 대림리 이승태

골쟁이, 물질해는 거는 제주도답게 맨들어야 팔아먹지

성산읍 고성리 송현균



송현균(1943년생) 씨는 현재 고성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표선민속오일시장 세 곳에서 대전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다. 충청도가 고향인 송현균 씨는 열여덟 살 무렵부터 대장간 일을 익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형을 따라 제주에 온 뒤 신양리 출신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서른 살에 제주에 완전히 정착해 고성민속오일시장에서 고향의 이름을 딴 대장간 문을 열었다.

2023년 5월 19일, 성산읍 고성민속오일시장 내에 위치한 대전철공소 작업장에서 송현균 씨를 만나 대장간에 갖추어야 할 도구, 제주도 농기구, 어업 도구 등의 특징, 대장간에서 만드는 물건의 명칭, 대장간 운영 방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농업 환경이 달랐던 충청도와 제주는 농기구의 모양은 물론 어구의 모양도 달랐기에 제주에 맞는 물건을 제작·판매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상세히 꺼내 주셨다. 송현균 씨는 슬하에 딸 셋과 사위들을 두었지만 대장간 일을 이어나갈 후계가 없어 송현균 씨 대에서 대전철공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평생 함께 해온 대장간일에 여전히 보람을 느끼지만 아쉬움이 크다는 송현균 씨의 삶의 고백에서 대장장이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도에선 불밋간, 충청도에선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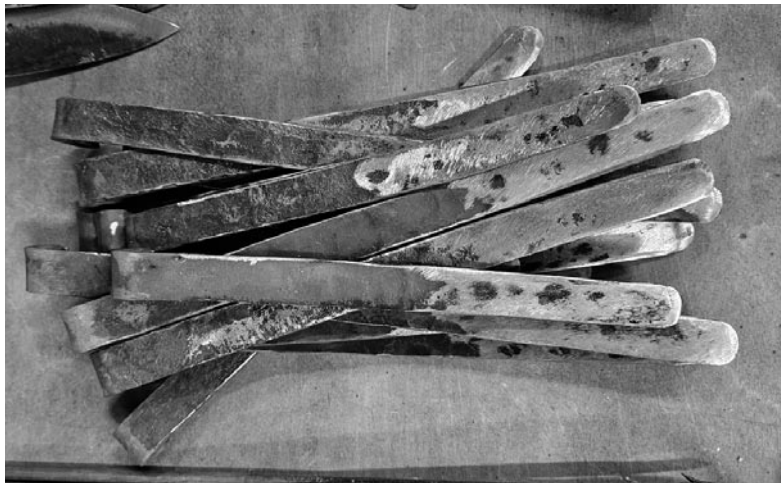
오래 됐어요, 옛날부터. 여기 들어온 지가 한 오십 년 넘었으니까. (충청도에서) 국민학교 졸업해 갖고 바로 했으니까. 열 한 일고, 여덟 됐을 거예요. 조금 놀다가 했으니까. (충청도 대장간이) 우리 옆 집에 있었어요. 눈으로만 옆에서 봐 가면서 왔다 갔다 해다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조금 안 해다가 서울로 올라가 갖

고, 우리 형이 가구점 해다가 서울서 을지로 칠 가에서 이 일을 해
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대전서는 그때 장사 한 거지.

(제주도 성산, 고성) 여기서 했어. 여기가 우리 처 고향이고 허니까.
바로 신양리. 제주도에선 불밧간, (충청도에선) 대장간 했죠. (대장장이
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공장에 찾아와 갖고 해 달라고만.

옛날에는 농기구 다 맨들지, 베리기도 하고

(불미간에서) 옛날에는 농기구하고 다 맨들었어요. 석공 일 같은
거, 돌챙이 일 하고. 또 주로 인제 여기 와서 해녀 도구들 맨들기 시
작했어요. 지금 해녀들 많이 죽고 없으니까 인제 일 없지만. 해녀 도



송현균 씨가 제작한 '빗창'

구, 칼 이런 것 만들었어요. 또, 밧 (연장하고). 그런 거 다 맨들지. 베
리기도 하고. 갖고 오면 베려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렸을 때부
터 했기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들어오는 대로 뭐든 해 달라고 하
면 해 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머릿돌하고 망치, 찻게, 탄하고 이런 거지 뭐

첫째, 저 뭐여? 머릿돌이라고 해야지. 머릿돌하고, 망치, 찻게 같
은 거. 그라고 인제 불미, 저 불 피우는 거 탄하고 이런 거지 뭐. (옛
날에는 나무로) 이제는 그런 걸 해지도 못하고. 화덕. (물통도) 그냥 물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해는 거지. 후앙¹⁵⁶⁾이라고 바람 나는 거, 불
피워야지 바람이. (예전에는 풀무) 걸로 했죠. (이젠) 후항이 된 거죠.
지금 해는 건 이제 없어진 지가 꽤 오래 돼요. (밭로도) 옛날에 했지
만. 그걸 이제 없어진 지가 꽤 사, 오십 년 됐는데.

화덕은 찰흙 갖고 버무려 갖고 하는 거지

(화덕은) 찰흙이라고 있어. 찰흙 갖고 인제 같이 버무려 갖고 하는
거지. 화덕에 그 크기야 뭐. (옛날) 그대로예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156) '후앙'은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인 '풀무'를 말한다. 화자에 따라
'후앙', '호앙', '후왕'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옛날 그대로. (직접 화로도 만들고) 우리가 다 그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잘 깨지고 나가고 해는데. 불 피우고 그 들어오는 게 거기 다 돼 있어요. 돼 있으면 그걸 인제 한 번 해보든 대번 나와요. 밑에 재 빠지는 거, 나오는 거. 내가 알아 갖고 만들어 갖고 해야지. 그게 오래 가고 그런 게 있지.

(화덕은) 자꾸 깨져요. 불에 계속 타는, 깨지고 없어지고. 어떤 때는 일 계속할 때는 한 달에 한 뒤 번은 (다시 흙을) 발라야 돼요. 안에 불 피우는 디만. 탄 디는 필요 없고. 바깥에는 발를 수가 없죠. 바깥에는 해 갖고 안에 있고 불 피우는 디만 요렇게 있어요. 고 부분만 요렇게. (진흙으로) 발라 주고 해야지. 왜냐하면 흙이 닳으면 깨져 갖고 없어지고, 녹아 갖고 없어지니까. 일을 많이 해든 한 달에 두 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화덕, 요기 시방 여기 불 피워서 났기 때문에 여기 밑에. 후앙이 일로 들어가 갖고 바람이 나 갖고 불이 올라오게. (진흙이) 닳어지고 떨어지든 나가든 발러 주고 해야지, 여기만. 탄 것은 안 하든 돼.

모릿돌은 빼쪽하게 맨든 게 좋은 점이 있는 거지

(모릿돌은) 저 부산서 사 갖고 온 거. 이거 오래 됐어, 한 오륙십 년. (밑에는) 나무로.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 뚱고랑해 갖고. 고런 건 맨들었지만. (꽃아 놓은 건) 쇠 썰려고 해 논 거. 다가네¹⁵⁷⁾로 쓸 적에, 뭘 끊고 할 적에. 그 뚱그락헌 거 맨드는 거. (여기서는 쇠)



송현균 씨의 '모릿돌'

잘르는 거. 다 닳아진 거 좀 잘르지. 다 빼 주고 잘르고. 그렇지 않으면 저걸로 다 잘라요.

(모릿돌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대가 뺄쪼록하게 안 만들어 갖고, 몽땅하게 대 갖고 했는데. 지금은 인제 다 왜정 때 나온 것들이라 전부 다. 저 머릿돌이 양쪽에 해가 이제 쓰기 시작하니께 저걸로 쓰지요. (길쭉한 게) 좋은 점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

- 157) '다가네'는 일본어 'たがね[鑿]'로 '정', '끌'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속의 표면을 깎거나 찍어서 문양을 만들거나 상감하는 데 쓰는 철강 공구 혹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이다.

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뚱그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안 돼. 저것은 여러 가지야. 구멍도 뚫을 수 있는 거고 동그랴게 땀들 수도 있고 해는 거. (뚱그란 모양) 그건 이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땀드는 게. 땀 대 갖고 어떻게 땀들어 달라면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땀드는 거지. 그건 기술 아니면 못 하는 거지.

혼자 해기 때문에 모릿돌은 불 피우는 데 옆에

(모릿돌은) 불 피우는 데 옆에 있어야 돼. 바로 꺼내 갖고. 옛날에는 사람이 다섯 명이 일할 적에는 꺼내는 사람, 불 피우는 사람, 화덕 불무질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었는데 지금 인제 혼자 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됐으니 기계도 혼 대, 때리는 것도 혼자.

(모릿돌 부분 명칭) 안 해. 그런 건 별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위치해 갖고 내놓고. 고정만 해 놓으면 동그랴게 말올라면 이쪽에서 했고. 옛날에는 저것이 나오기 전에는 네모반듯하게 때리고 했는디. 지금은 없어진 지가 오십 년쯤 넘었는데. (밑에 받침이) 나무. 돌 들어가면 올려 갖고, 깨져 갖고 안 되지요. (머릿돌이) 뺄쪼록한 것이 이쪽으로 오고. 저 넓죽 한 것이 오른쪽으로 가고, 일하기 좋게. 자기 쓰기 좋게 만들어 놓 거.

후양은 나무를 길게 짜 갖고, 네모 뒤투 갖고

(후양은) 우리는 이렇게 인제 나무를 짜요. 나무를 길게 짜 갖고

이거 푸걱푸걱해요. (모양이) 네모 돼 갖고. 길게 돼 갖고. 베니다¹⁵⁸⁾ 같은 걸로 짜. 딱 막아 갖고. 이 안에다가 딱 맞게 불이, 저쪽으로 가면 바람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바람이 나오고. 화덕에 불에 가야지, 불이 피워지는 거지. 바로 옆으로 인제 관을 맨들어 두면 빠이프 같은 걸. 구멍 나 갖고 바람 나가는 거 북작북작. 지금 그런 건 원래 제주도 말로 불미인디 불 북탁북탁해는 거. 지금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많이 잊어버렸네, 그거 헨 지가 오십 년도 넘으니까. 옛날에는 다 부각부각하는 거 그걸로 다 했는데. 지금 기계 연장이 좋게 나온게. 후앙이라고, 바람이 옛날에는 이거 다 손으로 북작북작, 북작북작 다 했어.

물통은 도루무깡 저걸로 다 했은께

(물통은) 나 여기 와 갖고 한 육십 년 다 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걸로 다 했은께. 그전에 나무통으로 했는데 나무통은 요즘 안 해. 쇠로 된 도루무깡¹⁵⁹⁾. (밑에 대는) 자기가 알아서 높이가 돌로 싸 갖고 맨들, 우이로 얹어 놓든지 해야지.

158) ‘베니다’는 ‘얇게 켜 널빤지’를 말한다.

159) ‘도라무깡’은 일본어 ‘doramu+桶’으로 ‘드럼통(drum桶)’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망치는 함마, 또 손망치 있고

(망치는) 내가 맨들어 갖고. 연장은 다 내가 맨들어 갖고 써야 되지, 별도로 나오지는 안해요. (크기는) 다 틀리지요. 그니께 쓰기 좋게 맨드는 거죠. 자기가 알맞게 맨들어 쓰는 거 있고. 구멍 뚫고 이런 건가, 벨도로 알아서 맨드는디. 지금은 기계가 나온게 그런 건 이제 안 맨들고. 옛날 기계 나오기 전에는 다 맨들어 썼지요.

이건 최고 간단하게 헬 적에 인제 뭐 잡아내고, 뾰듯하게 모양 맨들고 할 적에, 건 내가 모양대로 쓰는 거고. 그건 구멍 뚫으려고 쓰는 거. 함마 같은 거 맨들 적에. (요저는) 다가네¹⁶⁰⁾, 꿇는 거. (주로 쓰는



송현균 씨의 '망치'

160) ‘다가네’는 일본어 ‘たがね[鑿]’로 ‘정’, ‘끌’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속의 표면을 깎거나 찍어서 문양을 만들거나 상감하는 데 쓰는 철강 공구를 말한다.

망치는) 세 개. (무게, 크기 다르고) 그래야지, 모양만 틀리지. 쇠[쇠]는 똑 같아야 돼. 강철로 만들어야기 동안에. (강도가 다르거나) 그러면 안 돼.

(함마) 이거로 메질하고. (함마는) 한 종류지. (자룩은) 길게 쓰는 사람은 거덜 길게 빼고 쓰는데. 지금은 기계로 해기 동안에 길게 필요 없고.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 거지. 필요가 없게 되고.

(대장간에 망치가) 함마, 때리는 거. (크기에 따라 이름이) 조금 틀리지요. 이름이 틀린 게 아니고 함마하고. 뗏 가지 안 해. 조금 크기만 따르지. 모양은 내가 쓰는 거 다 알맞게 만들어 쓰기 동안에. (망치는) 한 세 개. (모양이) 다 어디나 비슷해. 왜냐면 옛날에 뒤에도 앞, 뒤가 쓰는데. 난 밑에 바닥만 쓰기 동안에. 우에는 안 쓰기 동안에. 옛날에는 뺄쪽하게 맨드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거 안 해. (함마는 크기가) 작은 거지. 사람 손으로 메질이라고 함마 때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손에 그건 알아 갖고, 받쳐 갖고 쓰는 거. 또 손 망치 있고. 그쪽에서 인제 크고 작은 거지.

기계 없을 적에는 메질로 때리고

(함마는) 메질. 기계 안 나왔을 적에 사람들이 메질로 때리고, 나는 찍게 된 거야. (모루 위에 쇠를 놓고) 때리고, 망치질 하고. (망치는) 같이 맞춰 갖고. 장단 딸그닥달그닥. 함마로도 인제 둘이, 저 기계 없을 적에는 함마로 다 때리고. 작은 거는 조금 슬슬 때려치면 되니까. 세게 안 때려. 함마 때렸을 적에 옛날 서이 함마질 할 때가 있

어요. 고다움에 인제 다 없어진게. 둘이서 망치질하고 함마질하고 둘이서 해니까. 같이 왜냐면 쇠를 맞춰 갖고 나가야.

짚게는 잡을라든 여라 가지가 있어야 된게

짚게가 많이 있어야 됐어. 여러 가지 해는 동안에. 그건 그때 다 해 갖고 만들어 써야 된게. 예를 들어 망치는 두 가지든 되지만 짚게는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잡을라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게. (손잡이, 쉘을 잡는 부분 모양은) 조금 넓게 맨들고, 좁게도 맨들고. 잡은 거 이렇게 만들어. 저기 가면 다 있어.

(집게는) 여러 가지 해야지. 쇠[쇠], 뭘, 넓은 스프링 같은 거 있어,



송현균 씨의 '망치'와 '집게'

그런 것 빼는 거, 둥그란 쇠 잡는 거. 요거 우리 똥그란 쇠 잡는, 잡을 때 쓰는. 이쪽에 잡을 때는 이쪽에 잡아야 되고. 이쪽 날 낼 적에는 이쪽에 잡아야 되고.

풀무는 기계로, 화덕은 탄으로

(화덕, 머릿돌, 물통, 메, 망치, 집게, 풀무) 그거 가지면 일을 할 수가 있는게, (대장간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지. (예전이랑 지금 풀무) 그거 틀리고. 사람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낫기 동안에 틀리고. (메질 기계) 그 이름이 없어. 때로는 우리가 불르기 좋은 기계로. (그다음) 후앙, 불무. 그러고 없어요. 연장은 다 옛날 그대로.



대전철공소 내의 '화덕'과 '풍구'



송현균 씨가 사용하는 '코크스'

화덕 틀리고. 화덕은 옛날에 이렇게 맨들어 갖고 쓰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 땅에서 불 피우고. 나무, 옛날에 탄이 안 나오고 했을 때는 그걸로 썼지만. 지금 탄이 나온게 화덕을 별도로 다 맨드는 거지. (불 피우는 온도) 그것도 몇 돈가 하는 건 나 모르지만. 핫튼 나무는 좀 많이 참나무로 해 갖고 해야지, 나무가 오래 가는 거예요. (충청도에 있을 땐) 그때는 나무로 했지. 제주도에서 맨 처음에는 나무로 해다가. 고다음에는 탄으로 바꾼 지. 우리 들어와 얼마 안 돼 갖고 탄이로 다 바꾸기 시작. 그때는 나무로 할 적에는 사람 서이, 너 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불을 때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큰 대장간은 최하로 다섯 명이 있어야 돼요

(메질하는 사람) 두 사람. 내가 망치, 찰게 잡고 망치질 해는 사람이 있어야 되께. 옛날은 메질해는 사람 따로. 찰게잡이 해 갖고 찰게 잡아 모양을 맨들어 내는. 때리는 사람, 두 사람이 따그닥따그닥 때려 주믄 돌려 주고 망치로 해고. 궁께 세 사람 하는 폭이지. (옛날엔 최소로) 나, 찰게잡이하고 두 사람 있어야 돼요. 아니. 네 사람. 불미 해는 사람.

(큰 대장간은 숫자가) 많지. 거기는 시야기¹⁶¹⁾하는 사람, 벨 사람 다 있는께. (시야긴) 옛날에 독들 맨들믄 칼 날 내고 이런 것들. 옛날에 이걸로 독들 맨들고 했지만. 지금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깎아 주고 해야 돼, 날이 이렇게. 큰 대장간은 사람 핫튼 최하로 다섯 명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나 하나만 가지믄 되지.

(이제는) 배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나 버렸쥬. 사람이 없어요.

쇠 달구기 온도는 불 보믄 알아요

(쇠를 달굴려면 화덕) 온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화덕에 바람이 좀 세게 나오믄 빨리 달어지고. 조금 늦게 되믄 쇠에 알맞게 구멍을 조정을 해야 돼요. 불은 피워 놓고 바람만 인제 좀 세게 나오고, 덜 나

161) '시야기'는 일본어 'しあげ'로 일의 마무리, 마지막 손질 등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시야기', '시야게' 등으로 나타난다.

오게 조절만 하면 돼.

(적당한 온도는) 불 보믄 알아요, 불 색깔. 특별한 색깔은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보믄 탄이 불 달어지겄다 하면 집어넣으면 돼. 불은 이 눈으로 보믄 어떡하든 다 아는데. 왜냐면 쇠 집어넣고 불이 어느 정도 하면 맨 처음에 들어가믄 새카만데 불은 빨간 거 아닙니까? 그 쇠가 들어가면 새카만 쇠를 달궈지믄 그 불하고 같은 색깔이믄 달어진 거지. 바람을 조정해 갖고 빨리 헬라면 바람을 좀 세게 틀고 늦게 헬라면 쪼금.

한 개 놓고는 요즘은 일을 안 하고. 여름, 저 골각지 같은 거 맨들 쇠 넣을라믄 한 이십 개 정도 들어가믄 그거 다 한꺼번에 달어져요. 달어지믄 거기서 맨 밑에 것만 우선 서서 해고 불은 막어 놓고. 옛날에는 하나, 하나 이렇게 맨들어 냈지만 지금은 여러 개 한꺼번에 집어넣어야지, 쇠를 달어 놓은께. 그니까 바람이 조정해야지. (바람 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계로 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별로 없어. 왜냐면 우리가 색깔 보믄 알은께. 어느 정도 달어지믄 이제 됐다 해는 걸 알기 동안에.

다 메질로 때려 놓고 망치질하고

호미나 여러 가지 사람 메질하기 따르는데. 솔직히 말해 그거 한 사람으로서는, 그때 두 사람이 때려 갖고 호미를 맨들었는데. 힘들어요, 옛날은. 왜냐면 다 메질로 때려 놓고 망치질을 했기 동안에 쉬

운 메질을 헬 적에가 쪼끔 힘들지. 거 다 때려 노른 모양을 다 잡고 때려와 잡는 거니까. 찹게잡이가 인제 그 앞에 날이나 때리라든 조 금 거기만 대주는 거지. 알아서 다 때리든 탁탁탁 때려 줘요. 쇠에 대 갖고 뭘 맨들 용도가 되든 많이 때릴 게 있고, 적게 때릴 게 있 고. 골각지 맨들든 날 부분을 좀 많이 때려 줘야지. 넓은 디를. 아무 래도 심에 뽑는 것보다는 날 부분이 힘들으께.

손잡이 (만들 땐 주의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 시방 옛날에는 그것 도 두 사람이 때려 줘야 되기 동안에. 탁탁탁 때려 나오는 거지. 찹 게잡이가 이렇게 대주든 인제 아는 사람이 알아서 때렸지. 지금 기 계로 나온게 그렇지, 옛날에 다 망치로 때렸지. 다 찹게잡이가 대 줘야지 돼. 때리는 사람 다 알아서 때려줘요. 요기 때릴 거 저기 때 릴 거. 날 부분. 좀 신경을 써야지.

물야끼라고 그것이 최고 힘든 거지

(때리고 나면 물에다 담그는) 야끼¹⁶²). 일본 말로 야끼. 여기 제주도 말로는 아이고, 뭐라고 했더라. 것도 하도 오래되니. 물 야끼라고 물에다가 어느 정도 뭇 번 정도 담가야. 그것이 최고 힘든 거지. 쇠 를 칼 같은 거 갖고 야끼로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얼마큼 대야 되

162) ‘야끼’는 일본어 ‘야키’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날붙이의) 불림, 담금질’을 말한다.

는지 그걸 말로 해 갖고 안 통해. 그건 이십 년 배워야지 되는 거지. 지금이야 다 담그는 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날만 요만큼만 나오게 탁 담고 내야지. 그래야지 날이 이렇게 듬뿍하면 다 부러지고 안 돼.

특별한 물이 없어요. 그냥 물인데 담그는지 얼마 야끼를 담갔고 해가. 고급 기술인디 그것을 말로 해 갖고 되지 않는 거. 뭇 십 년 배워야 돼. 야끼 놓는 것이 최고 기술인디. 고걸 어떻게 갖고 알맞 게 해든 날 부분을 하얗게. 지금 기계 나온게 옛날에는 하얗게 안 나와. 가는 쇠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기계로 허다 보면 야끼 노른 하얗게 짙 퍼져 나오고 고것이 야끼 들어가는 거. 고거 날만 요만 큼만, 고 부분만 짙 그게 기술인디. (물에다 푹 담그면) 다 버려 버려. 날만 들어가게끔 짙. 날만 들어가게 해 갖고 탁 꺼내든 지금은 쇠 가 좋기 동안에 하얗게 야끼가 들어가요. 칼, 예를 들어서 호미나 낫 같은 거 맨들면 이만큼 짙 들어가.

(물통도) 지금은 우리 큰 고무 다라¹⁶³). 옛날에 도르무깁에 했지 만 지금 고무 다라 같은 거 나오고. 짙 하고 식어, 왜냐면 그대로 한 번 담가 놔 갖고 꾸부린 쇠가 꾸부리져. 요러큼 울퉁불퉁해져. 고 거 잡아 갖고 또 한 번 짙 해 갖고, 두 번은 해 갖고 담가야. (물에 갔 다 온 전) 불에 들어가면 버려 버려. 그게 최고 기술인디 잘못된 거.

163) ‘다라’는 일본어 ‘たらい[盥]’에서 온 말로 ‘대야’를 말한다. 화자에 따라 ‘다 라’, ‘다라이’ 등으로 나타난다.

(물 대신에) 기름에다 푹 담그고 했지만. 옛날에는 다 물로 싹 해갖고 그게 기술이지. 공업사가 아니고 이런 데 헬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물에다 담그고 기름에다 담그지. 옛날 기계 같은 거, 연장 같은 거 이런 거 맨드는 데 기름에다 했지. 우리 이런 기름 갖다 담그면 원래 쇠가 야끼가 지대로 안 들어가는 거야.

재료는 육지에서 갖고 왔어요

(부산 가서 탄, 쇠 사올 때는) 게, 오랬는다. 팔십 년대. 저 먼저 일은 했지만 그때부터 아마 탄을 사 왔을 거라. (예전에 쇠는) 배로 들어와. 나 헬 때만 해도 탄 같은 건 다 육지에서 들어오고, 쇠도 육지에서 부산 가 갖고 배로 싣고 들어오고 그랬어. 거기서 골라 놓고 인제 직접 배를 부치고 들어 오고 그랬지. (한 번 가면) 좀 많이 갖고 와야죠, 차로 하나 정도는. 쪼만한 차, 일 톤 트럭. 오래 써. 그러믄 한 일 년 가까이 쓰다 보면 또 나가고. 탄하고, 공께 보통 일 년치 한꺼번에 불르는 거죠. 왜냐믄 한 푸대 이렇게 안 보내 주니까. 탄을 한 스무 푸대, 지금 이제 한 돈이라고 해. 쇠는 뭐 상관없고. 가서 있는 대로 눈으로 봐 갖고, 많으믄 많은 대로 갖고 오고 그래야지. 자꾸 나가지 묻하니까. 지금은 인제 다 전화로 연락해 갖고 보내 달라 뭐하면 되지만. 옛날엔 돈 갖고 나가야지. 한 백만 원도 안 될 거야. 아마. 칠, 팔십만 원. 나중에 갈 적에는 한 백만 원 정도 갖고 가고. 자꾸 커지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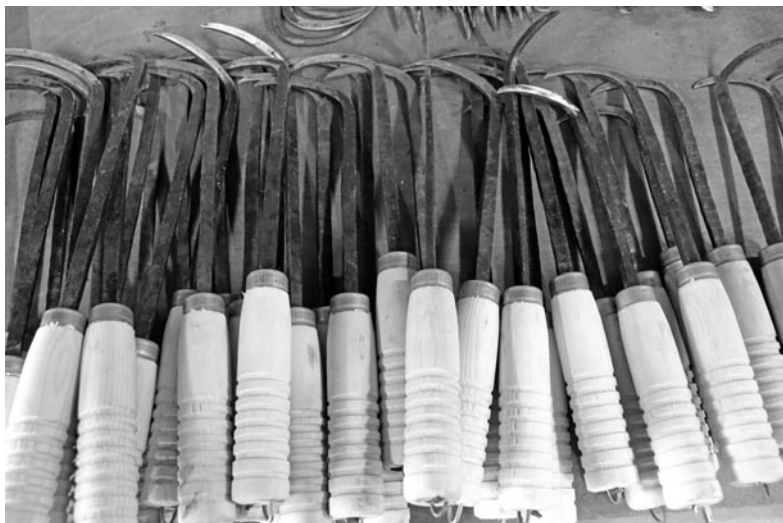
(나무는) 저 부산서. 나는 주로 육지에서 갖고 왔어요. 골각지 자루 같은 것도 부산서 넓기 동안에. 아무래도 지금 그런 거 없기 동안에. 부산 가 갖고 지금도 갖고 오고. (제주 산에 있는 나무) 그걸로는 안 해 봤어요, 일을. 왜냐믄 그렇게는 개수도 몇 개 안 나오고. 옛날에 다 여기 소나무 갖고 와 갖고 했지만 일이 안 돼.

우리 쓰는 연장이야 윤노리로 다 하지

옛날에 소나무 했는다. 인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소나무가 아니야. 무슨 나무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소나무. (윤노리나무) 그건 못 써요. 자락을 박지를 못해요. 윤노리 같은 건. 함마 자루는 윤노리로. (대장간에서) 우리 쓰는 연장이야 윤노리로 다 하지. (판매하는 연장은) 참나무. 참나무가 단단해. (소나무 가격은) 싸지. (참나무는 비싸고) 뭐 만드는 건 참나무야. 참나무를 써 갖고 호미 같은, 고기 귀 먹는 거 하는 그 옛날에 해는 다 참나무. 숯. 그거 다 참나무로.

제주도답게 맨들어야지 팔아먹지

(골쟁이랑 골각지랑) 똑같은 거. (모양이) 큰 것, 넓은 거는 육지 거. (좁은 거는) 제주 거. (제주도 도구 모양) 그대로 맨들어 내야지 팔아먹지. 틀려지면 안 되지. 넓은 건 이제 육지 사람들 많이 살기 동안에. 넓은 걸 맨들어 본 지가 얼마 안 돼요. 물질 해는 거 이런 거, 제주도답게 맨들어야지 팔아먹지. 안 돼. 지금은 맨들 거 알아서 쇠를 나



송현균 씨가 제작한 '굴각지'

오기 동안에 찔라 갖고 집어 노른 되는데. (전에는) 하나씩 집어넣고. 많이 못 집어넣어. 예전에 불밋간 헐 적에는. (쇠를 자르는) 옛날 사람이 별도로 있었지. 다 우리가 찔라서 썼지. (짜르는 연장이) 금께 다가네¹⁶⁴라고 했지. 일본 말이지. 다 왜정 때 일들을 했기 동안에 이 일이 퍼진 거지. 저 머릿돌도 일본 애들이 쓰던 모양이 조선에서 쓸 적에 이렇게 뚱그랴고.

164) '다가네'는 일본어 'たがね[鑿]'로 '장', '끌'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속의 표면을 깎거나 찍어서 문양을 만들거나 상감하는 데 쓰는 철강 공구를 말한다.

돈어 없어 보리를 주는 대로 받은 거지

(호미 하나 만드는 시간) 그거 시간으로 볼 수 없어요. 하루에 내가 기계 없을 적에는 몇 개 못 만들어. 한 여남은 개, 열 개. (이제 기계로 만드니까) 한 이삼십 개 나오죠. (예전에는 팔로 받거나) 그렇게도 했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보리를) 그때는 주는 대로 받은 거지. 한도가 뭐, 정해진 게 아니고. 내는 해 달라든 해 주는 대로 해주고. 또 받기도 하고 그랬죠. (벼리는 값은 물건 값의) 한 삼분에 이. 이는 안 되고 반도 안 되고. 반 조금 못 받았어. 끝만 조금 베려 주고 해는 건께. (만약 호미가 만 원이면 베려 주는 건) 삼천 원.

봄, 가을이 일하기에 좋지

그전에는 제주도 와 갖고 내가 할 적에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 봄, 가을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여름에 최고 한글했었고. 겨울에도 그럭 저럭 괜찮아. (일하기에 좋은 계절은) 봄, 가을이지 뭐. 여름에는 뜨거워서 불 앞에서 힘들어요. (또) 흐린 날씨가 좋지.

조금씩 데인 데는 된장 같은 거 발르고 했지

(일하다가) 손 많이 잘렸죠. 손 진 디가 많아요. 많이 지어요. 지금 장갑 끼고 기계로 해기 동안에.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별로. 내가 일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해니까. 알아서 어지간히 해기 동안에. 무슨 일을 해서 무지간 해지 않고 알아서 힘든 건 조금 약하게. 지금 기

계가 있음께 옛날에 망치를 할 적엔 잘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대장간에서 다치신 분이) 많이 있었는디.

(장갑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 거 감을 쳐지도 안 됐고 그때는 못 썼어요. 왜냐면 옛날에 맨손으로만. 손이 막 엉망진창이지. (장갑은) 고무로 된 거 미끄러서 우린 못 써요. 면장갑밖에. 막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지. 고무장갑 같은데 미끄러지고 못 써요. 신발은 나는 장 볼 적에 원래 위카¹⁶⁵⁾라고 이렇게 군대 위카 신었어. 다리 안 다치고 해서. 그걸 구해 갖고 신고 했어. 아이고, 발도 많이 다쳐요. (옷은) 평상시 이거 똑같아요. 별도로 없어요.

(화상 입었을 때) 약 같은 거 안 나왔을 그때는 참 힘들지. 뭐 비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심하게 나는 다쳐 보지는 안해 봤지만 조금씩 데는 건 많아요. 성질이 급해 갖고. 그런 것들 된장 같은 거 발르고 했지. 된장이야 묶어 가든 덧도 안 나고. 썩은 좀 처맬 수가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썩도 쓰고. 하여튼 나는 된장밖에 안 해 봤어요.

대장간에 연말 때는 술하고 밥이나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거 했죠. 거 해는 사람이 있고, 뭐 제사 같은 거 우리는 안 지내. 그냥 연말 때는 술하고 밥이나 한 그릇 떠 놓고. 크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별도로. 지금 우리 딸이 아마 연말 되면 해여. 옛날

165) '위카'는 '군화'를 말한다.

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건 힘들고 이제 못 해. 옛날에는 술 한 병만 사다가 따라 주고 말았는데. 지금은 딸이 밥만 한 그릇 떠 놓고 해, 밥하고 이것저것 거기에 맞는. 고기만 올리고 말아요, 생선. 국은 안 끓일 거야, 아마. 술은 올려야지. 주로 인제 연장 앞에다가 해야지. 화덕. 모릿돌, 저쪽 그라인데¹⁶⁶⁾ 돌, 그 세 군데. (술은) 소주.

절은 안 할 거야. 나는 안 하는디. 우리 마누라가 계속해다가. 마누라 죽는 바람에 딸이 밥만 떠 놓고 해는. (누구한테 지내는 재사인지) 모르죠. 나도 누구한테는 몰라요, 이게 공장. 기냥 이거 해 놓는 거 다 하고 떠 놓는 거지.

세화, 표선 왔다 갔다 했죠

옛날 사람들 메질하고 할 적에는 사람도 많이 있고 했지. 이제 술도 안 먹고 뭐 이러죠. 혼자 해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옛날에는 재미난 것도 없어요. (예전에) 장사 잘됐어요. 해녀들도 많고 농사짓는 사람도 많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애들 너이 학교만 가르쳐 놓고 말은 거지.

(다른 대장간이) 저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안에 들어, 나는 장터 안에 옛날부터 했기 동안에. 장터 안에 다 찾아오지. 딴 데는 찾아가는 데 없을 거요. 금께 오는 사람은 계속 딴 데 안 가요. 또 연장

166) '그라인데'는 '면을 짜는 기계'를 말한다.

이 틀려. 똑같은 거 같았지만 물에서 야끼 놓고 이런 것이 다 틀리니까 기술이, 다 찾아와요.

세화하고 표선. 거기 창고 있으니까 쟁여 놓고. 공장은 아니. 왔다 갔다 했죠, 내가 거기 가 갖고 일도 해고 했었는데 지금은 힘들어 갖고 안 해요. 칼 같은 거 갈어 주고, 낫 갈아 주고. (볼로 해서 베리는 건) 그건 힘들지게. 불 한 번 필라든 꽤 힘들어 지금은. 옛날은 그거 꿈도 안 꾸고.

대장간 일을 전수할 제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 요즘 와서 내가 생각해지만 내가 일을 해도 한꺼 그래도 사람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일을 해 주는 대로 잘해 주고. 맨들어 주는 것도 잘 맨들어 주고 행께. (단골 분들이 성산, 동네에서) 다 와요.

(이 일을) 보람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을 다 고맙게 생각하고. 뭐 맨들어 주면 아이고, 아저씨 저기 고맙다 이러고.

(전수할 자녀가) 없어요. 딸밖에 없기 동안에. (제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 사위가 조금 해다가 한 반 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와서 나중에 나 없으면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죽은 다음은. 조금 그때 한 십 개월 동안 일하고 간 사위가 있어. 두 번째 사위가. (딸이) 넷. (같이 일하는 딸이) 세 번째.

젠노는 물에 담그고,
노미는 기름에 담그고

조천읍 신촌리 김규중



김규중 씨(1948년생)는 제주에서 돌일을 하는 돌쟁이 사이에서 유명한 대장장이이다. 돌쟁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디서 연장을 구입했는지, 무더진 연장은 주로 어디서 버리는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김규중 씨의 철공소라고 대답한다. 석공일 하시는 분들의 추천으로 2023년 5월 18일, 조천읍 신촌리의 우리철공소를 찾아가 김규중 씨를 만났다. 가게 앞에는 번듯한 간판도 없고 연장과 철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잠시 주저하였으나 김 씨의 친절하고 대장일의 시연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김규중 씨는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곡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기 위해서 직접 연장을 버려서 사용한 것이 대장일의 시작이었다. 김규중 씨가 제주에 온 지는 50년이 다 되어 간다. 아버지 지인이 제주에서 소금 공장을 하고 있어 1975년에 제주로 일하러 오게 됐다고 한다. 처음에 소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자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79년 좀 신산^ㄴ루에 위치한 김^ㅇ년 씨의 대장간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다. 산지천 근처의 길광철공소에서 1년 정도 일하고 동광양 물통에 있는 철공소에서도 1년 정도 일을 했다. 제주동초등학교 쪽 대장간을 인계받아서 20년 정도 용접과 대장일을 했으며, 60세에 신촌의 지금 자리로 이사 와서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다. 따로 가게를 홍보하거나 오일장에 나가서 좌판을 벌인 적은 없지만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겐노'와 정을 버려야 하는 석공부터 문어를 잡는 '골갱이'가 필요한 해녀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김규중 씨를 만나러 온다.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곡리 하죽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죽곡리 하죽. 하죽 부락. 상하죽으로 나뉘어서 이제 죽곡이라고 부르거든, 거기름. 태어나서 거기서 인자 농사,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농사를 졌어. 근데 인자 그때는 이제 주로 나무 같은 걸 많이 해서 땀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불밋간을 쪼끔 내가 해났어. 내가 혼자 그냥 불 피워서 그냥 연장 베려서 그냥 썼다 이거지. 직접 했어. 동네 애들까지도 해서 그렇게 고쳐서 인제 나무 같은 거 파묻은 그걸로 인제 이제 날이 서야만 날이 날카로워야만이 나무가 찍어지니까. 그때 배우지는 안했지게. 내냥으로 그냥 해는 거 한 거지게.

소금 공장에서 일하려고 제주도에

제주도에 온 지는 칠십오 년도. 소금집이 있어. 근데 그 소금집으로 해서 제주도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소금집이서 한 이 년 동안 소금 일을 하다가. 인제 굵은 소금을 가, 가져다가 그것을 물에 다 녹혀 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가서 인자 가늘게 만든 거. 거기서 일을, 처음에는 들어와서 일을 한 거지.

그때는 인제 아버지가 그 양반한테 부탁을 한 거야. 아버지하고 같은 동네이니까 가까운 저기, 친척같이 친구같이 그러니까 가깝지게, 그렇게. 그래서 나를 부탁해서 제주도로 들어오게 만든 거야. 거기다 전라도, 같은 동네 인자 우리 마을하고 쪼끔 한 건너편에

있어. 월명이라고, 동네 이름이. (그분이 제주에서) 소금집, 소금집을 하고 있어서. 그래 가서 거기 일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이 안 돼. 돈을 안 주니까 얼마 안 되니까.

나는 피부리지 않고 두 사람 몫을 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인자 노동일이라고 한 거지. 노가다일, 공사장. 육지서도 공사장 같은 데 많이 나가서 일을 했어. 그니까 뭐 고런 것은, 별로 신경이 힘이 안 드는데 돈이 안 되는 거지개. 그래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인자 저 뭐야, 지금은 기계로 다 허잖아. 그때는 전부 다 사람이 지고 뭐야, 삼층, 사층까지 올렸잖아게. 그게 벽돌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게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지. 근디 나는 피부리지 않고 두 사람 몫을 해. 두 사람 몫을 하니까 그 사장이 나를 놔 줄라고를 안 해. 다른 사람은 경 안 허지개. 다른 사람은 그 거 하는 것만 해서 몇 장씩 지고 올라가는데 나는 그 곱을 지고 올라가거든. 그 일도 한 이 년 동안.

신산ㄹ루 김○년 씨 대장간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거지

이 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래 가지고는 이제 바로 그 옆에가 인제 대장간이 있어났어. ○년 씨라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배운 거지개. 그게 신산ㄹ루¹⁶⁷⁾. 그래서 신산ㄹ루 바로 옆에서 이제 하숙집을 했거든. 거기서 인자 밥을 먹고 다니면서 그거를 인자

계속 보고 다니니까 이제 비 오고 그런 날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니까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인자 거기로 들어간 거지, 내가, 그 집을. 종업원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칠십오 년도 들어와서 이 년 있고 삼, 사 년 있고 한 구 년도. 아니, 팔 년이나 칠십팔 년이나, 구년이나.

대장간. 거 뭐 이름은 없어, 이름은 없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최고 해났어, 그 양반이. 대장간이라 부르기도 허고, 불밧간이라도 부르기도 허고. 그때는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뚜드려야 되니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큰 망치 그 갖고 두 손을 다 돌려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저기 보든 인자 여기 이만헌 겐노¹⁶⁸⁾라고 저기 오, 오함마¹⁶⁹⁾가 있는데 그건 인제 세 사람이 해서 뚜드려야 돼. 불에다 달과 가지고. 그러든 인자 그 사람 한 사람이 째게 잡고 잡으든 세 사람이 인자 여그 쓰고 여그 쓰고 이렇게 세 군데 뚜드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늘려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 그거를. 큰 거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적은 거는 두 사람이 뚜들기도 하고. 사람이 그 인자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어신가? 네 사람이 있기도 하고, 세

167) '신산ㄹ루'는 제주시 일도2동 신산공원 주변을 이르는 말이다.

168) '겐노'는 일본어 'げんのう[玄翁]'로 '(돌 깨는 데 쓰는) 큰 메'를 말한다.

169) '오함마'는 일본어 'おお(大)'와 '망치'를 뜻하는 영어 'hammer'의 일본어식 표현 'ハンマー'가 합쳐진 것으로 '큰 망치'를 말한다.

사람도 하기도 하고 그냥 대중 없어. 왔다 갔다 하고 인제.

노미를 메로 한 번에 때려서 만들믄은 합격이라는 거여

그 일 배우려고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인자 여기서 찹게잡이라고 하는데. 그 찹게잡이가 이런 노미¹⁷⁰⁾를 이제 가지고 이거 쪼을 인자 메로 저 때리라고 허더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한 번에, 한 번에 때려서 만들믄은 합격이라는 거여. 근디 나는 인자 힘도 좋고 인제 옛날에 이런 메질해서 떡방아도 많이 찼고 해났어, 농촌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니까 이거 뽑는 것이, 빼는 것이야 뭐 간단허지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그냥 거기서 합격해서 그냥 거기서 일허고 해났지. (메질을) 잘하니까 거기서 쓴 거지.

(철십)구 년에, 구 년에. 계속 인자, 남이 거기서 인자 거기서도 하고 다른 집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났지. 그 집에서 어, 몰라, 한 이 년 했는가?

고향이 있을 때부터 내가 저기 해난 거지게. 배운 건 없고. 특별히 저기는 없어. ○년 씨한테 인자 저기헌 것이 좀 효과가 잇지게.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뭐 하는 데 쪼끔 소질이 있어. 그래서 저기 한 거지게.

170) ‘노미’는 일본어 ‘のみ[鰯]’로 ‘꼴, 정’을 말한다.

대장간이라고 안 부르고 길광철공소라고 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다가 저기는 인자 없어, 없어지고 그 양반이 인자 저그 내창가에 있는 길광철공소라고 있어났어. 저 어데 동문시장, 내창가. 산지천 우게, 우게, 길광철공소. 이제 거기도 대장간이지. 이제 거기가 그 양반이 거기 가서 일을 한 거야. 요것도 이제 철공소라고 된 거지게. 대장간이라고 안 부르고, 길광철공소라고 했어, 그때. 그 양반 인자 그 가서 이 일을 한 거지. 자기네 인자 일은 설러 버리고. 공께 그것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디 하여튼 자기 건 설러 버리고 인자 거기서 남의 집 가서 인자 거기 밑에서 일을 헌 거야, 그 양반. 나도 그 가서 인자 일을 또 한 일 년인가 쪼 해났지, 나도. 다 간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이 간 다음에 나도 인제 얼마 있다가 또 글로 갔지. 나도. 그것은 한 일 년 동안 했지게.

친구가 물통에서 대장간을 채려서 거기서도 일 년 이상 했지

그 후에는 또 인자 여기 저 물통¹⁷¹⁾ 있지? 그거 어디라고 허냐? 지금 경찰서 뒤에 옛날에게 물통이라고 있어났어.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가, 친구가 가서 대장간을 가서 또 했어. 인제 다른 데서 하다가 인자 그 양반도 인자 나와서 자기가 그걸 채려서 한 거야. 이제 거기서 또 내가 인자 이 일을 한 거지. 거기도 이름은 없어.

171) ‘물통’은 제주도 이도2동 동광양 지역 부르는 말이다.

거기도 한 일 년 이상 했지. 그르고 또 그, 전에 으, 유 씨라고 있어. 유 씨라고 그 인자 하라방인데 거 가서도 인제 거 가서도 한 이 년 해신가? 거기서는 쫘 오래 했어. 거기는 바로 경찰서 옆에서도 하기도 하고, 저 삼양으로 이사 가서 삼양서도 해났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아까 친구 그거 현 다음에 인제, 물통.

인자 용접도 하고 대장일도 하고 두 가지를 한 거지

거기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저리 가서 이제 공장을 산 거지. 저 중앙병원 건너편, 동교¹⁷²⁾. 근데 그 양반이 어, 교통사고를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는 할 수 없이 남한테 인계, 넘겨야 되게 돼서 내가 그거를 인계를 받은 거야. 그때가. (팔십 년대) 초반 쫘, 초반쫘 되지게. 거기서는 인자 용접도 하고 인자 대장, 대장일도 하고 두 가지를 한 거지. (우리철공소) 여기에 온 지는 내가 육십 살에 왔으니까.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 가몬은 그때 대장간 허가 주켤

근디 그러기 전에. 거기에 이제 쫘쫘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근디 거거서 인자 동문시장에서 인자 물건을 나한테 해서 갖

172) ‘동교’는 제주동초등학교를 말한다. 김규중 씨는 제주동초등학교 근처에서 대장간을 운영했었다.

다 주기도 하고 자기냥으로서 베려서 갖다 주기도 하고 현디 그 사람이 인제 내가 조금 싫은 소리 했더마는 그 사람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어. 거 갖고는 이제 허가 없이 내가 일을 해났거든.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 경찰서에서 와서 딱 나 일헌 거 보더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러면서 내한테 뭐라 하나몬은 여기, 여기 지역은 으, 허가될 지역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몬 허가를 주켤.

근데 여기 와서는 뭐 나이도 다 되고 인자 설러 불, 저거, 저거 되고 허니까 그냥 그냥 그치록 해났주게. 저쪽에. (동초등학교에서) 계속 했지게. 계속 해도 인자 거기서도 경찰서도 뭐라고 못 허더라고. 벌어먹고 사는데 내가 나도 경했지게. 어떻힐 거냐고 벌어먹고 살라고 저거 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크게 뭐라고 못허고[모터고] 그냥 이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 가몬은 그때 허가 주켤. 거기 는 허가 받을 장소가 아니라 이거여, 대장간이. (거기서) 이십 년, 거기서 이십 년. 거기서가 길게 했지게.

요런 식으로 있으몬은 이게 모룻독, 이쪽에 화덕

먼저 (찜계로) 잡고. 쉽게 말해 처음에는 여기 여기다 집어넣고. 화덕, 화덕. (화덕은) 내가 직접 만든 거지.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디서 헐 때 아까 ○철이라고 현 사람 있지? 거기서 인제 이렇게 만들어서 인제 땀 것을 이제 한 거지.

예전에는 공께 요런 식이지. 그러니까 우게 뚜껑은 없지. 우게 뚜껑만 없고 요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밑에다 인제 불이 집어 넣어. 저기 호양¹⁷³⁾에 들어가서 거기다 인제 저기를 넣고 불을 때는 거야. 옛날에도 그건 화덕이라고 불러놔지게. 화로 비슷하지게. 요런, 요런 식으로 이러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된 거여.

(돌로 만든 화덕) 그거 안 해 보고. 근데 저런 일반 돌은 저기 불 가



‘화덕’ 앞에 앉아 있는 김규중 씨

173) ‘호양’은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인 ‘풀무’를 부르는 김규중 씨의 말로, 달리 ‘후왕’이라고도 했다.



김규중 씨가 사용하는 ‘내화벽돌’

면 다 녹아 붙어. 내아¹⁷⁴⁾. 내아. 그걸로 싸 봐야 이거 안 녹지. 크기는 얼마 안 크지. 가만 있어 봐. 아니, 나무로 가르쳐 줘야 정확하게 나오지게. 그제. 화로하고 틀려. 요런 식으로 인자. 벽돌이 인자 내 화벽돌이라고 이게 따로 있어. 이게, 이게. 그러믄 인자 여기 뒤는 여기 딱 막아진 거고 여기. 다른 것은 녹아서 쓰도 못허여[모더여]. 나도 저거 내화벽돌이거든. 내화벽돌 저 밖에 있기는 했는데 그래 갖고 여기다 여기다 아까 아까처럼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인자 여기

174) ‘내아’는 내화 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인 ‘내화벽돌’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내화벽돌’은 불에 잘 견디므로 독의 아래쪽 내부, 화덕의 하단부 등을 쌓는 데에 쓴다.

다 넣어. 갓고 인자 우에서 석탄을 부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저기했잖아.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밧간에 써낫지게

저기서 이제 불을 저기 허문은 요거는 기름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 그때 옛날에는 석탄으로 해났지게. 옛날에는 석탄 해났는데 이제 요거는 개조해서 인자 기름으로 쓴 거야. 그때는 석탄으로 해났지, 나무는 안 허고. 나무는 이제 불 피울 때, 그거 피울 때 나무 쪼 가리로 뭐야 요런 식으로 잘잘하게 쪼개 가지고 거기다 한 요만큼 집어넣어, 여러 개를. 갓고 인자 불을 지펴 가지고 거 우에다 솥을 이렇게 덮는 거야. 아니 석탄을. 그믄 거기다 불이 붙어, 거기서. 솥은 이제 내가 처음에 아까 고향에서 헐 때 솥으로 한 거지. 그때 처음에 솥으로. (화덕을) 그렇게 다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 써났어.

(예전에) 화덕은 석탄 땀다니까. 나도 거기서(동교 근처에서) 뭐야, 한 이 년 동안인가 그 석탄을 사용했지게. 거기서. (나무는) 안 허고, 안 했지. 솥도 아주 그 전 전, 석탄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그 기관차도 석탄으로 갔잖아. 그래서 그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자 해서 불밧간에 써낫지게. (석유는) 하여튼 저기서부터 했으니까 오래 됐지게. 저기 신산^ㅁ루 할 때는 그냥 탄. 물통 거기서부터 요것을 써낫지게.

이제는 후왕이라고 전기로 돌아가는 거 있어

풀무, 풀무. 그때는 이제 나는 그건 안 써 봤어. 근데 나 헐 때는 이제 후왕. 후왕이라고 이제 전기로 돌아가서 쓰는 거 있어. 그것도 저기 어디 가 있어, 지금 후왕이. 그걸로 해서 여기다 전기를 넣어서 이제 불을 피우는 거야, 여기를. 그믄 여기다 넣고 이제 쇠[췌]를 여기다 넣고 이제 여기다 이러게 쇠[췌]를 넣으믄 인자 쇠[췌]가. 여그서 이제 석탄이 들어 있는 거지, 그러믄. 그 정도, 이 정도. (화덕이) 크지 않지. 근디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이것이 늘어나. 이것이 달아지면서 이것이 인자 쉽게 말하면은 뭐야, 할망들, 할망 되는 것처럼 여기 늘어나. 이것도 요것도. 그러면 여기 여기가 다 파해서 없어져, 여기가. 여기가 다 파여서 이제 이제 늘어나는 게 그거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해서 새 걸로 만들어서 쓰고 쓰고 해났어. 그니까 우리 사람 저기나 똑같애. 쇠일[췌일]도.

(풀무는) 아까 쇠[췌]를 익히 주는 거지. 이것이 그니까 풀무. 여기 저꺼지는 거. 바람 내는 거. 그니까 여기 또 구멍이 있어. 밑에 여기다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바람을 불어 주는 거지. 계속, 계속 바람을 너 줘야. 그거 꺼 버리믄 불이 안 나지. 여기 밑에다가 인제 여기 딱 해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게. 요런 식으로. 후왕.

모렛독이라고 그러는가, 모렛돌이라고 그러는가

요거는 이제 원래, 원래 저거는 구멍이 없어. 근데 인자 다른 저



김규중 씨의 '모랫독'

기를 용도가 쓰기 위해서 또 구멍을 뚫으는 거야. 인자 이거는 인자 구멍이 있는 거고.

(대장간에는) 화덕이 있고. 그다음에 모랫독 있고, 모랫돌. 독이라고 허든 돼. 모랫독이라고 그러는가, 모랫돌이라고 그러는가. 하여튼. 고기서 고건게. 모랫독. 궁께 찹게, 찹게잡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때릴 때는. 때린 사람도 중요하지마는 찹게잡이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니까 인제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인자 여기 각도를 이렇게 맞춰 줘야 돼, 요것도 이 모랫독에다 대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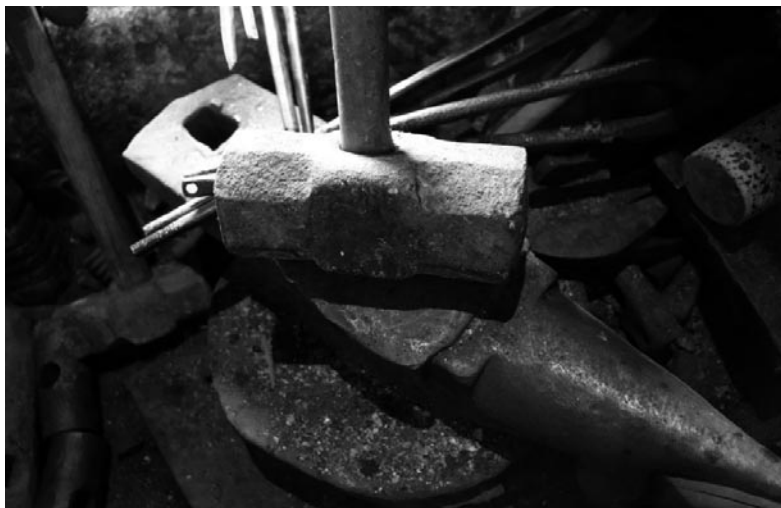
게 이러게, 이게 이러게. 그든 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것도 해서 요러게 돌려치는 거야, 요러게, 요러게.

모랫독 네모난 구멍에 쇠를 꼽아

모랫독.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비슷해. 여기는 구멍 아까 저기 있는 거는 저쪽 구멍 있지? 그거 구멍이 두 개가 있어.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 구멍을 많이 사용했어. 이거 네모난 구멍도 있고, 네모난 구멍은. 거기다 다른 쇠[釵]에다 꼽아 놓고 거기에 맞는 쇠[釵]를 거다 꼽아, 거기다. 그래 갖고 또 이 도기가 있어서 거기다 놓고 또 뿔을 뚫들기도 그래났어. 구멍. 그리고 요거 빼쭉헌 거는 이제 이거 동그란 고런 것은 인자 말 때도 인자 쓰기도 하고 인자 이것도 다양하게 써 먹지게.

(모루 모양이) 다르기야 하지마는 똑같, 비슷한 거야. 그거. 여기가 둥글고 여기가 조금 이제 충기, 칭기가 있지. 칭기가 있으면 요것도 또 이 칭기 요것도 써먹어. 모양 만들 때 써먹든지 하여튼 뭘 할 때 써먹는 다 이것도 써먹게 돼. 이거는 모랫독 다이¹⁷⁵⁾지게, 이거 밑에 이거는, 이거는 모랫독. 세트를 모랫독. 근디 요거는 지금 이걸 모랫독을 안 쓰기 때문에 사람이 안 뚫들고 기계로 뚫들기 때문

175) '다이'는 일본어 'だい'로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데 쓰게 만든 물건인 받침을 가리킨다.



김규중 씨의 '망치'와 '모룻독'

에 저렇게 파작 붙여 놓은 거야, 지금. 따로 지금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여기서 탁 뚜들면 이것이 구십 도로 딱 오그라져

(모루는) 다 틀리지. 여거 적은, 적은 것도 있고 요, 요거 제일 큰 거. 큰 종류. 그니까 이보다 적은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다 틀려. 요거는 대형 최고 큰 거. 궁께 아까 이것 구먹 같은 데는 인자 이런 것을 넣고 여기다 쇠[鐵] 같은 거 인자 꿰우기도 하고 요 꾸불

176) '카도'는 일본어 'かど'로 모난 귀퉁이, 구석, 길모퉁이 등을 말한다.

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써먹는 거라, 이게.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휘는 모양이 저거 허고. 여거는 카도¹⁷⁶⁾ 같은 데 넣고 인자 쪼개기도 하고 그러게 다 써먹는 거여. 요거는 인제 요거다 넣고 이제 각지게, 쉽게 말해 옛날에는 꺾쇠[鐵]를 많이 해 나갔지게, 이거 이거 이걸로. 이렇게 꺾을 내 가지고 이제 여기서 탁 뚜들면 이것이 이거 구십 도로 딱 오그라져. 그럼 나무에다 이걸 딱 해서 이렇게 박아 주잖아, 이걸로.

화덕에서 한 사람이 꺼내 주면 잡고 인제 여기서 뚜들고

그니까 요런 식으로 있으믄은 이게, 이게 모룻독. 그다음에 여,



기계 메질을 하는 김규중 씨

이쪽에 화덕. 여기서 이제 화덕에서 한 사람이 여기서 꺼내 줘. 꺼내 주면 여기서 잡고 인제 여기서 두들고 여그서 인자 한 사람이 있고, 여그서 한 사람이 있고, 여그서 한 사람이 있고 서어서 두드는 거야. 그니까 큰 거, 큰 거 두들 때.

(집계잡이는) 가까운 데. 여기, 여기 스고 여기 스고, 여기 스고. 아까 큰 거 두들 때는 하나 두들 때는 가운데서 두들고. 물통은 이제 그건 아무 데나 놔도 되지.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주로 여기다 많이 놓지게. (물통은)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 많이 놔지. 가까운 데다.

망치, 이거 한 오십 년을 썼어

다른 도구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지게. 찌게, 찌게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한 뭐야 한 여나쁜 개베끼 안 되지, 옛날에는.



김규중 씨의 '망치'

망치는 인자 따라서 이제 여러 개도 되기도 허고 뿔뿔[뿔뿔] 사름들은 그냥 조금 쓰고 버리고 또 하고 허는디 나는 이거 한 오십 년을 썼어. 이거는 이제 한 번 딱 저기 해 노른은 물이 딱 해 놓으면은 안 닳아져. 이것도 이거는 인제 또 틀린 거. 이거는 아까 식으로 이제 이거는 켜노, 켜노. 날 내는 망치 이거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아까 요거는 낫 바닥을 두드렷잖아. 낫 바닥을 이거는 이제 여기를 두드는 거. 여기 이거를 날을 내 주는 거. 이거를 또 두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윤유리 나무, 그걸 자락을 박아서 써야 안 울려

금계 메 종류는 여러 가지라. 그 저기서 요런 거 세 개 중에 세 개 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인자 요런 것은 인자, 인자 밖에 나가서 쓸 때 그냥, 그냥 무작정 쓰는 거, 무대기로. 여기서 쓸 때는 인자 아까 윤유리 나무. 그걸 자락을 박아서 써야 안 울려. 이거는 울려서 안 되고, 손이 아파. 다 저기가 있어. 자동, 자동 함마. 없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아까 메질. 메로, 다 두드는 거야.

기름 묻은 장갑때기나 거런 걸로 불 피워놔어

불 피우는 것이 가장 큰 일. 종이 없을 때가 어디가 있었어? 다 종이야 있었지. 이런, 이런 기름 저기가 없었지. 이걸 인자 기름 묻

히는 인자 장갑때기나 수건이나 거린 거지. 그게 나는 인제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이거 다 써 먹는 거지. 이런 거 써. 장갑은 이거, 이거 이것도 있고 다 틀려. 그다음에 여기 인자 스위치를 너는 거예요. 이걸 아까 불을 피워나서, 이거 봐. 이렇게 부트는 거. 이제 미용실 가문은 다 꼬시렀다고 뭐라고 그래. 이거는 아까 핀세¹⁷⁷⁾, 이거 핀세 만드는 거고. 여기 요런 식으로. 갖고 이거 찢라 가서 아까 그 켄노 자루 뒤에다 박아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다른 데는 돈 받고 팔드라고. 나는 그냥 다 해 줘.

석탄 속에다 묻으면 쇠가 익은다고

두드리기 전에, 그 시간은 그거는 정확히 몰르고 인자, 인제 감으론 아는 거지, 인제. 보고 어느 정도. 이거는 석탄으로 한 것은, 이것을 석탄 속에다 이렇게 묻어. 이렇게 이게 석탄이면은, 그래 갖고 이제 여기서 쇠[鐵]가 이제 속에서 익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보든 이제 이제 알아져. 갖고 꺼내 가지고. 잠깐에 안 달과지지게. 한 이십 분 이상 해야 거기서 인제 거기서 열도 받고 탄에 불도 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이 나온 거지.

이제 불을 피워야. 근디 우리 뭐야, 밥하는[바바는] 거나 똑같애.

177) ‘핀세’는 작은 물건을 집을 데에 쓰는 기구인 ‘핀셋’을 가리키는 김규중 제보자의 말이다.

이것도 우리도 밥하[바바], 밥할라든[바발라든] 어때? 첫째, 쌀을 씻었고. 쌀을 씻고 그다음에 얹히고. 지금이야 기계로 다 해주마는 옛날에는 다 나도 밥을 얼마나 많이 해났어? 이런 아궁이 속에 불 때가 밥을 해났지게. 그러믄 쌀을 씻거서 이제 얹혀 놓고 인자 불을 때는 거야.

색깔을 보면서 달궈지면 뭉들어

우리는 인자, 나는 인자 저거 허니까 불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달궈지는 것이 보이지게, 색깔이. 색깔을 구워서 보이면은 이제 이것을 꺼내 가지고 여기서 아까 저런 식으로 뭉들어, 이거. 요런 식으로 놓고, 이러게 뭉든다고. 이 가운데를 뭉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좀 퍼지게 돼 있어. 불이 달과진 거라서 그래서 인자 여기서 기계다 뭉들고. 기계를 뭉드는 이유는 이제 직접 해서 해봐야 되는 데. 이거 사람 손으로 뭉들라믄 좀 힘들잖아. 요것이 이제 요만큼 요만큼 나오는 거야.

집게 잡고 이제 또 망치로 뭉드리는 거주

석공 저거 혈라믄 이제 이쪽에 또 연장 저기가 있어, 도구덜이. 그것으로 인제 잡고 인자 베류고 이제 하는 거지게. 찹게. 집게, 집게 잡고 이제 또 망치로 뭉드리는 거주. 그러믄 인자 내가. 여그 연장이 있지. 노미도 있고. 근디 도구덜이 다 틀려. 인자 이런 노미 같



김규중 씨의 '집게'

은 것은 이걸로 잡아서 이걸로 잡아서 인자. 이거 노미. 그래서 여 그를 두드는 거야. 여기서 날을 내는 거야, 불에 달구는 거야, 달궈 야지. 우선 집게를 잡고. 이걸 뜨거우니까 이렇게 불에다 달구면은.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인자 켄노, 손망치. 이거는 망치. 이거는 인자 켄노. 이것도 여기서 불에다 넣고. 인자 요거는 이렇게 불에서 꺼내 가지고 여기서 달궈지면 이거 이제 망치로 이걸 때 려, 이거를. 이거를 막 때린다고 이거를. 그래 가지고 때려 갖고는 여그 불에다 또 집어넣어.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퍼져야 돼, 이게.

기계에 대 갖고 두드른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여

여기 퍼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기계에다 두드는 거예요, 여기다. 기계에 대 갖고 두드른은 여기가 도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여. 그러면서 여기 날이 되면서 여기가 조금 움푹하게 패여. 저그 가서 하나 갖고 와 봐 봐. 요런 식으로 으, 요런 식으로 좀 가운데가 들어가. 요런 식으로 여기 움푹하니. 요것이 모서리로 돌을 때리니까. 주로 이거 모서리가 다 사용을 하니까.



우리 철공소 내의 '메질 기계'

불을 피우고 집게를 잡고 두드는 거

베리는 거. 불을 피우고 인제 쇠[鑊]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자 거기에 맞는 집게를 잡고 그거를 인자 내서 아까처럼 기계에다 두 드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불에다 넣어서 다시 한 번 이제 손으로 인자 그거는 인자 마무리 단계. 예전에는 이런 거 두들라든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식으로 이렇게 집게를 딱 잡은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인제 가만히 있어, 또 망치, 내가 갖고 오께. 지금은 인자 기계가 요런 식으로 모랫독이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인제 모랫

독. 따로 인제 여기 있어 가지고 요건 읍이 그래 갖고 이제 앞에서
뚜두는 거야. 그믐 인자 집게잡이가 아까 여기 식으로. 여기서 이
제 잡고 이렇게 해 주는 거야,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인자 한 바쿠 이렇게 돌려 주고 이렇게. 메질
하는 사람은 여그서 인제 그걸 잡아 주믈은 여기 서서 이제 옛날
여기서 이걸 뚜드는 거여. 요러게 해서 요걸 뚜드는 거여. 이렇게,
이렇게 돌리믈은.

메질꾼이 잘 뚜드냐 못 뚜드냐 그것이 중요하지

메질꾼, 한 사람이 충분허지. 공께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 집게잡이가 인자 이것을 아까 그 상태에서 이것을 뽑아
내믈은 합격이라, 이거. 인자 집게잡이가 잘 돌린 것이 아니고 이
제 메질꾼이 이것을 이렇게 나오게끔 잘 뚜드냐 못 뚜드냐 그것을
이제. 메질꾼이 합격이지, 그 집게잡이가 이제 저거 해 주믈은.

(두 사람이 메질하는) 그런 경우는 인자 요런 큰 거 할 때도 허고, 인
자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것이 요러게 나오거든, 뚜들믈은. 기계
다, 기계다 뚜들어도 되고 손으로 뚜들믈 인자 사람이 둘이서 뚜드
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 서서 여기서 이렇게 뚜드는 거예요. 둘이
서 요러게 납작하게 할라면은 박자에 맞게 똥, 똥 뚜드는 거여.

집게가 어디 가 불었냐? 요런 식으로 요걸 잡으믈은 요러게 잡으
믈은 여기서 또 뚜들어 주거든. 이거를. 두 사람이 여기서 스고, 여

기서 스고 그렇게 뚜드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치고 그쪽서 치고
그러니까 둘이 딱딱 박자가 맞는 거지. 세 명(까지), 하나에. 세 사
람이 뚜드는 거여, 이거를. 이거는 인자 이게 평지인데 여기 평지인
데 이거를 이렇게 늘어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엇가락처럼 (늘어나지). 이렇게 불에 달구믈은 이렇게 엄청 잘 익
으면은 이것이 그냥 쉽게 늘어나. 그래서 세 사람이 뚜드는 거야.
(모루는) 똑같애. 요건 요건 큰 거. 이거 이거 똑가트여. 큰 거. 이게
젤 큰 거지. 이거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물이 안 담그면은 물러서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쓰다가 온 거여. 근디 여그는 날이 없잖아? 지금 몽
탕허니 날이 없다고 지금. 그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불에다가
넣어 갖고 여기 뚜드는 거야. 아까 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망치로
뚜들어 가지고 이제 두들믈 요것이 조금 이게 퍼져. 요만큼 요만큼
만. 쪼끔 밖으로 나와, 이렇게. 그러믈 인자 기계다 뚜들믈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뽀뽀하게 이렇게 평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인자 날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인자 기계로 잘라
서 해 놓은 거니까 날은 있어도 지금 베리지 않은 상태라, 이거는.
이제 불에 들어가야 저그가 나오는 거야. 날이 제라허게. 그리고 또
이거 물에다 담과야만이 이게 강하게 돼. 물이 안 담그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 물러서.

불이 빨갛게 익게 되든 식후와서 야끼를 넣는 거지

여기 이제 물통에 여기다 이제 식후는 거야, 젠노는. 아까같이 여기서 불이 빨갛게 익게 되든은 여기 내서 인자 여기서 해서 인자 속에다 놓고 인자 빨간 것을 이렇게 돌려서 식후와. 이러게, 이러게. 그니까 야끼¹⁷⁸⁾를 넣은 거지. 쉽게 말하면 양쪽 안에 이제 갖고 빨리 들어서 또 저기에다가, 인자 여기다 해서 인자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이게.

여기도 물통, 이렇게 돌려주는 거라. 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물에 '담금질'을 하는 김규중 씨

178) '야끼'는 일본어 '야키'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날붙이의) 불림, 담금질'을 말한다. 대체로 '야끼 넣다'는 표현이 사용된다.



기름에 '담금질'을 하는 김규중 씨

그러니까 여거는 이 카도¹⁷⁹⁾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 일 센치 정도만 들어가면 돼, 이거는.

젠노는 물에다 담그고, 노미는 기름에 담그고

그거는 물, 담금질할 때. 아까 말한 여거는 기름에도 담갔지마는 옛날에는 물에다 담갔지. 강도가, 물에 담근 거는 너무나 강해. 제라히게 안 맞히면은 다 부러져[뿌러져]. 이거는 이것도 그러지마는 이제 아까 노미 같은 거, 꺾이 뿌러진다고. 그런데 기름에다 담그

179) '카도'는 일본어 'かど'로 모난 귀퉁이, 구석, 모, 길모퉁이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면은 질겨. 그니까 켄노, 요거는 물에다 담그고. 노미는 기름에 담그고.

(기름통 두 개) 이거는 여그는 이제 큰 거고 여그는 인자 식후는 거. 여그는 인자 야타와. 여그 기름이 요만치베끼 없어. 그니까 아까 담근, 저기에서 너무나 깊이 들어가든 저거니까 요만치 해서 딱 놔두든 그기베끼, 그 밑으로베끼 인자 저게 안 되는 거지. 두드리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쓸 만큼만 이제 해지는 거야. 담과지는 거야. 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여까지 해서 이제 담귀지지마는. 게 담금질은 이제 그 쇠[췌]에 따라 틀리지게. 쇠[췌]에 따라.

쇠를 녹이지 않고 익혀서 두드려

(쇠는) 내가 사 와야지. 요번, 요번에도 한 팔십만 원어치가 백만 원 어치가 사 왔어, 저거. 쇠[췌] 사다가. 아무 쇠[췌]가 아니지. 이거 샤우더¹⁸⁰⁾ 이런 거. 이진 이진 강화 쇠[췌]거든, 자동차에 거. 동그란 거, 거의 다 동그란 거 나오지. 어, 옛날에 일본 사람이 쓰던 마차는 사각이지. 고거, 고거는 쇠[췌]가 굉장히 좋아. 그걸로도 인자 해서 만들고 해냈지게.

(쇠를) 여기서는 녹이지는 안하지게. 거기는 인자 제철소에 가든

180) ‘샤우더’는 기계(자동차) 등에 회전을 전달하는 둥글고 긴 축을 말한다.



김규중 씨가 연장 제작에 쓰는 ‘샤우더’

은 이제 이런 고물 같은 거 인자 무더기로 갖다 집어넣어서 거거서 끓여서 인제 재질이 나오는. 녹이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지마는 이제 주물공장 저 숯, 숯 그거는 또 틀려. 그거는 가다¹⁸¹⁾를 딱 해 가지고 쇠[췌]를 녹혀 가지고 거기다 지어 붓잖아. 그거는 그 역 할하고 여기는 그런 건 없어. 쇠[췌]를 녹여서 만드는 건 아니지. 쇠[췌]를 익혀서, 익혀서 두드리니까. 다 두들겨 만들지. 모양 같은 거 인자 그것도 손으로 다 해서 그레 만드는 거고.

181) ‘가다’는 일본어 ‘かた[型]’로 ‘모양’, ‘본’, ‘거푸집’ 등을 말한다.

메를 뚜드려서 쇠를 찰르는 거야

아까 그거 그런 저기는 이제 이것을 불에다 익히 가지고 여기를 잘라. 두들어. 사람 손이, 사람으로 해냈어, 옛날에. 그걸로 해서 쇠[췌]를 잘랐거든, 이거는 망치로 뚜드려서. 다 제각기인디 다들 이것도 크기가 틀리잖아. 뚜껍고 얇고[얹꼬] 이게 다 다양해. 그런데도 이제 한 가지로 다 두들든 나오는 거여, 이게. 여기 인자 다 놓고 인자 메를 뚜드려서 찰르는 거야. 이거를, 쇠[췌]를.

용접해서 과수원 문 같은 것도 인자 만들고

여기서는 주로 석공들 쓰는 저 아까 저기, 저 있는 겐노 같은 거, 망치 같은 거, 옛날에는 노미 같은 것도 많이 해서 해냈지게, 철근으로.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없어. 기계로 다 나와 부니까. 인자 이 기계 노미 같은 거 인자 벨류고, 겐노 벨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 거지게.

석공 도구하고, 베리는 거. 그리고 또, 용접. 용접해서 인자 과수원 문 같은 것도 인자 만들고.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과수원 문을 좀 많이 만들었지게. 여그, 여기 길 나고 우에 길 나고 해나서. 인자 차에 호르때¹⁸²⁾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지. 저쪽에 있을 때는.

(호르때는) 저 뭐야, 트럭에 보면 이렇게 천막 씌워서 저그 차 타고 허잖아. 철. 철로 해서 만든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만들고. 인자 천막 같은 건 이제 천막집이 인자 가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뭇가지 짜를 때 쓰는 나대, 주루 이것이 육지로 많이 나가

또 마이 쓰는 게 나대, 나대. 주루 이것이 인자 많이 나가. 이것이 육지로 이것이 육지서 많이 쓰드라고. 주로 이제 나뭇가지 거 치를 때, 짜를 때 나뭇가지. 인자 이것이 이거 나오는 거. 이거를 불에다 집어다 넣고 이게 째게가 다양해. 다 따로따로 있어 갖고. 요마마 큼 기계다 두들어. 그든 인자 요런 식으로 오그라져. 인자 이런 식으로 오그라진다고. 그래 가지고는 인자 이거 이거 두들어 가지고



김규중 씨가 제작한 '나대'

182) '호르때'는 물체를 쓰러지지 않게 바치거나 몸을 지탱하는 데에 쓰는 막대인 '폴대'를 말하는 듯하다.

는 이걸 또 만들어, 꺾을. 그래 갖고 또 이거는 인자 요런 식으로 또 뒤에 다 이거를. 이거를 다 두들었지, 사람이.

이런 것도 나대 같은 것도 육지로 많이 나가. 이게 인터넷에서 사위가, 옛날에 누가 나 일헌 것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찍어 가지고. 거기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것이 나대가 많이 나간다고. 한 이 년간만 해도.

굴쟁이 자룩은 윤유리낭

요거는 특별한 굴쟁이지, 특수 굴쟁, 굴쟁이지, 산에 다니고 그럴 때 쓰는 거. 통집잖아. 강하고. 요거는 요거는 인제 미역 판다고



김규중 씨가 깎아 놓은 '호미 자루'

이렇게 인자 만들어 달라고. 요거는 인제 성게 잡는 거, 아니 요건 성게 잡는 거, 요거는 문어 잡는 거. 이것보다 더 무겁게 해 달래. 쓰는 사람마다 다 틀려.

(호미 자루) 요거, 요거 윤유리낭. 그니까 이것은 더 오래 가지게. 이걸 내가 직접 만든 거고. 요거는 요거는 인제 내가 견본으로 한번 사와 봤지게, 이거는. (연결하는) 그거는 인자 저런 데서 다 따라 오지게, 같이 돈 주고. 자룩 집에서. 요것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한 거고.

그니까 제주도 전 지역에서 거의 다 온다고

(많이 파는 건) 겐노 이거. (돌일하는 분들이) 만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슬포서도 온다고. 그니까 제주도 전 지역에서 거의 다 여기로 온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정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아까도 말했지마는 내 입으로 잘한다 소리는 한 번도 안 해 봤어, 지금까지. 손님들 와서 인정하고 멀리서 오니까 그러지.

사람이 필요가 없어, 자동 함마가 다 해 줘

나는 (동문통) 거기서 인제 인계받을 때부터 (자동함마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써놔서. 그 전에는 인자 다른 텐 없어놔지게. 메질로 히고. 편해. 사람이 필요가 없어. 저게 다 해 줘. 여기서 몇 사람 뭇을[모글] 해 주지.

(동초등학교 근처에서) 혼자 했지. 거기서. 여기서도 계속 혼자 했어. 다른 사람 안 쓰고. 요런 거 할 때는 공께 요런 거 할 때는 인자 혼자서 뚜드려도 되기도 하고 나도 혼자서 많이 해났어. 일할 때는 인자 빨리빨리 뚜드려야 돼, 식기 전에. (옛날은) 찹게잡이 있어야지.

보로방¹⁸³⁾이라고. 인자 이거는 나가 인자 초벌을 쉽게 말허믄은 그 뭐라고 허까 초벌을 구멍을 뚫어. 이거를 길이로 구멍을 뚫어, 이거를. 그래 가지고 불에 가서 늘려. 요것을 해서 인자 불에서 이거를. 뽀찌¹⁸⁴⁾ 요기 있잖아. 자, 뽀찌가 이렇게 있어이. (끼워 가지고) 늘려. 이거는 사람 손으로 허는 거여. 이거는. 이게 달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람 손으로 이거 다 하는 거지게. (뽀찌가) 옛날에도 있었지. 옛날에는 여기다 큰 거야. 그걸로 인제 구멍을 뚫어. 이거로 생쇠[생췌]를. 이 길이 저거 저 안할 때는. (옛날에는) 달궈서 그냥 막 해서 구멍을 뚫었어.

옛날에는 사람으로 뚜드렸지만 요새는 다 기계로 쓰주게

나대는 이제 스프린스, 자동차 스프린스 있잖아. 저쪽에 보면 있어. 나대 만드는 건 인제 폐차장 같은 데, 고물상 같은 데 가서 구해

183) ‘보로방’은 네덜란드어 ‘boor bank’의 일본식 발음 ‘ボールばん’에서 온 말로 드릴로 구멍을 뚫는 공작 기계인 ‘탁상용 드릴’을 말한다.

184) ‘뽀찌’는 구멍을 뚫는 도구인 ‘펀치(punch)’의 일본식 발음이다.



김규중 씨가 연장 제작에 쓰기 위해 마련해 둔 ‘쇠’

오지. 쇠[췌], 못 쓰게 되면 거기서는 인자 고물로도 나가기도 허고 인자 재생하기로. 저기 있잖아. 저쪽 봐 봐. 자르는 과정은 인자 카타날로 찢러. 카타날 짜르고. 아까 이 각도로 이 각도로 이렇게 잘라진 것은 이제 산소로 불어내지. 다른 데서는 저놈을 잘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산소로 인제 찢라낸 거지.

산소는 인자 절단하는 거, 찢르는 거. 요거는 이제 카타기로 인자 요렇게 된 것은 이제 카타기로 잘라내고, 그래서 인자 요 정도 된 거는, 쉽게 말해 요거를, 요거를 요런 식으로 쪼개는 거여. (얇게 하려면) 이제 아까 저기서 뚜든다니까. 이 상태에서는 인자 여기는 그 공장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 자동차에서. 이걸 공장에서 그냥 나

오는 거고, 아까 말한 식으로 인제 이거를 여기서 꾸불려서 인자 이거를 뚫어서 여기 코를 내는 거야. 여기는 인자 쉽게 말하든은 날. 사람으로 말하든 얼굴이지게, 이게. 그렇게 뜯어내는 거야, 기계로. 아까 그 기계로 뜯어, 옛날에는 사람으로 뚫렸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몰라 그렇게(싹뎅어리) 들어왔는가 모르지마는 요새는 다 저걸로 쓰주게.

자동차 못 쓰게 된 거 구해다가 만들지

(젠노 재료) 그것도 환봉이라고 그것도. 요런 것도 옛날에 자동차 그 옆에 손, 그 긴 거 그것도 그긴 까는 거지마는 자동차 안에 있어 이거. 거그서 인자 못쓰게 된 거는 인자 구해다가 인자 또 여기서



'젠노'를 만들 때 쓰는 '환봉'



김규중 씨가 제작한 '호미'

만들었지. 잘라서 저렇게 만드는 거. 이게 전부 다 사람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거지게.

이걸로 뚫들든은 무조건 다 나와

농기구도 만들고, 호미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허기도 했지. (만드는 시간) 그런 건 인제 저기 다 틀리지게, 쇠[췌]에 따라서. 근데 나는 (나대) 하나 갖고는 안 해 봐났지게. 이것을 넣어보는데 이렇게 이제 한 번 집어넣고 이거 저기 할라든은 두 시간, 네 시간, 여섯 시간. 사십 개, 한 팔십 개. 한 팔십 개 만드는 데 한 세 시간, 여섯 시간. 지금 기계가 있은까.

이걸로도 뚫들든은 인자 호미가, 호미가 나오고. 칼도, 칼도. 칼

도 나오고. 다양, 다양하게. 하여튼 쇠[썰]만 있으면은 무조건 다 나와. 두드는 거 이거 익히 가지고. 이런 쇠[썰]는 그냥 칼 같은 거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거지.

만드는 거야 금방 만드는데

(호미) 이런 거 할라면 만드는 거야 금방 만드는데 다른 거 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여유를 주지. (호미는) 하나에 만 오천 원. 안 비싸, 나대도 안 비싸. 나대 이만 오천 원인가?

(비싼 건) 켄노. 켄노는 이제 재료가 많이 들어가. 이것도 재료가, 샤우더를 많이 썼지. 샤우더. 자동차엿 거, 이거. 자동차에 샤우더. 옛날에는 이걸로 많이 썼다고. 이걸로 많이 사다가. 근데 이거 이거 허문은 이거 이거 찢라 내고 여그하고 여그하면 한 뭐야. 한 여섯 개?

(벼리는) 비용은. 켄노는 만 원, 아, 이만 원. 아까 요만한 거, 켄노 한 거 요거는 만 원. (켄노) 파는 거는 이제 아까 큰 건 요만한, 요만한 것은 오만 원. 나는 싸게 받는 거지. 야, 이것도 좀 오래됐어. 그렇게 받는 지가. 손잡이까지 끼워서가 이제 그거는 육만 원. (동초등

185) '샤우소'는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의 하나인 '시우쇠'를 말하는 것으로 달리 '숙철', '정철'이라고도 한다.

학교 앞) 거기서도, 거기서도 내내 이런 식으로 했지. 거그는 인자 고물상에 가서 샤우소¹⁸⁵⁾ 사다가.

한두 개 벼리는 데 한 삼십 분

돌질 도구. 돌질 도구를 많이 했지. 벼리는 데 시간은 한두 개 벼리는 데 한 삼십 분? 금방 돼. 저기서 이제 익히만 지문은, 익으론 저거니까. 사람, 사람 손으로 두드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두드니까 금방 금방 되지. (예전에는) 아무래도 틀렸지. 시간이 곱 먹지. 곱 잡아야지.

특히 바쁜 시기는 쪼끔 음. 봄 지나서. 겨울에는 없어, 일이. 여름 되기 전에 그대로 가을에. 가을에 쪼. 가장 좋은 저기는 겨울이지. 여기는 인자 불일이니까, 여름에는 더 좋고. 딱 빼잖아, 땀을. 고건 농담이지. (여름에는) 그러니까 오전만. 오전 그러니까 손님한테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오전에 빨리 오시라고 하지. 근데 있지, 중요한 것은 저 모습포서 여기까지 와. 아까도 말했지마는 다른 데서는 자기네들이 제일로 잘한다고 막 영해. 근데 손님들이 와서 애기를 해. 지뽀도 모른 것덜이 잘한다고 헛다고.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냈어. 손님들이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익화서 어떻게 집어넣느냐

(제일 중요한 기술은) 담금질이지. 다 중요해. 만드는 것도 그렇

고 만드는 것도 잘못 만들으론 안 좋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사람 태어난 거나 똑같애, 사람도. 연장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잘못 구멍이 뚫어지게 뚫어지고 그러론은 그것도 안 좋은 거지. 사람이나 똑같아, 이것이. 쇠[鐵]일이 쇠[鐵]일도. 담금질이 최고지게. 그거는 인자 얼마나 익화서 어떻게 집어넣느냐에서 이것이 강도가 틀리거든. 무조건 으, 달과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인자 어느 정도 익히 가서 공께 그것을 딱 눈으로 나는 오래 해 놓으니까.

불에 너른 딱 보론은 인제 내서 아까 여기 기름에다 담갔잖아. 고런 식으로 담글 때 인자 강도가 이제 여기 얼마나 저기가 되느냐 해서 강도가 틀려. 그건 내냥으로 터득헌 거지게.

불침이라 이거, 불침. 불이 준 침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건 없어.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 다치기야 많이 다치지. 안 다치고 일 해져? 주로 손을 많이 다치지. 요거, 요거. 요거 손도 다쳐난. 요거도 다치고 요거도 다치고 요거 요거, 요거도 꼬뭇고, 요번에. 요거도 요번에 꼬뭇고 게니까 이거는 불침이라, 이거. 불침. 불이 준 침이라고. 이것도 제라허게 저기 허른 건강하게도 저기해. 이거 무시 못허는[모터는] 거. 장난 말 같지. 이거는 이거 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거 일허다 보론은 이거 손 걷고 보론은 여기 저기 만해. 여기, 여기, 여기 거의

전부 다 불침 맞은 거지. 제라허게 맞으론 건강에도 좋은 거야, 이거. 거짓말 같지마는 근디. 치료허는 건 인자 약 바르면 치료하지게. 약. 예전에는 약 안 발랐어. 우리 माम님이 그 여기에도 약국 가서 사다 발라 줘도 나는 그런 거 안 해. 한 며칠 있으면 그냥 읊어져. 내 살은 보통 사람허고 틀려. 내 힘도 그렇지마는 보통 사람허고 틀려.

두한이보다는 못 허지마는 한 방 치른 없어져

(불미일에 중요한 조건은) 몸뚱아리, 힘. 그니까 몸뚱아리가 힘이지게. 지금이니까 이렇게 그렇지마는 옛날에 뭐야 한 사십 대는 젊은 청년들 이렇게 통통해도 손 꼭 잡으론은 손 아프다고 발발발 해났어, 교회에서도. 이 힘도 저거지마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이 췌간하지. 근데 얼굴이 췌간헌디 저거는 이렇게 자기 눈 안에 췌 들어요. 췌 들어온다고, 눈 안에. 췌을 때 그 한 방 치른 없어져. 옛날에 두한이 있지? 두한이보다는 또 못 허지마는[모터지마는], 그 정도로.

처음에 쓰리빠 신고 허다가 발창까지 구멍이

그냥 요런 복장, 장화는 요거, 저거고. 옛날에는 장화 안 신고, 처음에 쓰리빠¹⁸⁶⁾ 신고 허다가 저거 쇠[鐵]가 딱 이렇게 떨어지니까

186) ‘쓰리빠’는 실내화를 가리키는 ‘슬리퍼(slipper)’의 일본식 발음이다.

여 발창까지 구멍이 뚫 떨어진 거야. (웃음) 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냥, 치료가 됐어. 뭐 크게 신경 안 써, 나 그렇게 다쳐도. 또 여기도, 여기도 있어. 여기도 편세가 이만치 요만한 거 하나 딱 들어 갖고 백혀 갖고는 요런 거 인자 때린 것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그 아까 그것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걸로 많이 썼거든, 옛날에는. 거기서 편이 떨어져 갖고 이거 딱 백혀 갖고는 여기 지금 여기 꺼낸 자국도 있어, 지금.

밥은 먹고 사니까 크게 욕심 안 부려

기억에 남는 건 돈 번 것이 기억에 남겠지, 하영 벌었지. 그거는 하루 갖고는 안 돼. 한 달에 백만 원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또 더 벌 때도 있고 또 다른 거 인자 과수원 문 같은 거 할 때는 더 벌 때도 있고 그래. 정해진 게 없어.

밥은, 밥은 먹고 사니까. 또 माम님이 또 일허러 다니잖아. 같이 인제 저기하니까 밥은 먹고 사니까 크게 욕심 안 부려. 다른 데 저거 허문은 뭐 오일장 저기서 뭐 칠만 원도 받는다고, 겐노. 사러 여기 베리러 온 사름이 얘기를 해.

(대장간 일에) 만족했지, 지금까지. 다음 생이 안 나와. 다음 생이 있간? 없어. 나는 원래부터 기질이 있어났지게. 원래 메질을 옛날에는 떡방아 떡을 많이 해났잖아, 촌에서. 메로 해서 그걸 떡방아를 찌 놓으니까 이거 메질 같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여. 그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찹게잡이가 이거 하나 뽑으믄은 성공, 인제 이만한 거지게. 이거. 자기가 찹게 잡고, 이거 하나 베릴, 저거 허문은 합격이라고 허는디 뭐 그까지 거 뽑는 거, 그냥 뽑아지지게. 옛날에 해난. 옛날에 메질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다른 사람 안 돼.

그렇게 배와 갖고 일 못 해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고 허문 하라고 허지게. 요번에 사위가 한다고 한 이 년 동안 했는데 여거서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가 버렸지. 그래 갖고 이제 어디 지금 컴퓨터 저기 하거든. 그러면서 지금 뭐 한 달에 백만 원 준다냐 어찌냐 거기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인자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와서 일한다고 허긴 현디. 그렇게 배와 갖고 일 못 해[모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게.

(사위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 공께 지금 뭐야, 한 두 달 됐냐? 그 전에 계속 나왔어, 오전에는. 자기도 인자 콤퓨타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한디 인자 과수원 문 같은 거 가서 만들고 허문은 인자 돈도 내가 주기도 하고 여기서 주기도 가끔 주기도 하고 그러는디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지, 안 차긴.

예전 벌초 때는 낮이 이만 개 나갔었는데

한림읍 대림리 이승태



이승태(1962년생) 씨는 현재 한림민속오일시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두 곳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는 대장장이다. 이승태 씨의 아버지는 전북 김제 출신의故 이원일 씨로 10대 후반부터 대장간 일을 해왔다고 한다.故 이원일 씨는 이승태 씨가 네 살 되던 해에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주한 이후 용담동 한두기 근처 대장간에 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 이후 서문시장에 와서 자신의 대장간을 차렸다. 이후로도 광양, 노형 등을 옮겨 가며 대장간을 열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쪽 한림민속시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대장간을 운영했다. 이승태 씨는 젊은 시절 제주를 떠나 살다 약 20년 전 다시 제주로 돌아와 아버지 이름의 대장간을 운영하며, 대장간이 변화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2023년 5월 19일, 한림민속시장 내에 위치한 원일 대장간에서 이승태 씨를 만나 과거 아버지의 대장간과 자신의 대장간의 모습을 비교해 주는 이야기를 들 수 있었다. 과거 쇠를 구하는 일부터 농기구를 제작하는 일, 버리는 일 모두가 대장간이 일어났고, 쇠를 두드리는 메질꾼, 대장이라 부르는 집게잡이가 있었다면 이제는 건목으로 농기구를 만들고, 버리는 일은 더 하지 않는다는 말, 제주도의 큰 풍습 중에 하나인 벌초 시기가 될 때 매우 성행했던 대장간이, 기계화로 인해 점차 쇠퇴해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을 이승태 씨의 담담한 어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김제에서 입도한 아버지

선친께서 (이 일을) 계속하셨어요. 아버님도 스무 살 되기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원래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고, 전라북도 김제 쪽인데 내가 네 살 때 입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추억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가 고향인데. 그 육지에서부터 그니까 결혼하시기 전부터 이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십 대 후반부터 했,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들 테니까. 힘들게 일 배우서 가지고 계속하시다가 이제 내가 네 살 때 몸뚱아리만 입도를 하신 거지. (가족은) 누나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대장간

(아버지가) 할 줄 아는 일이 이 일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원일 대장간인데요. 그때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대장간을 차려서 한 게 아니고 일꾼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까지 있는 데, 이제 지금 말하면은 거기 취직을 해서. 직원으로 이제 했던 거고. 이제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장간을 차려서 한 게 뭐 그 뒤로 뭐 몇 년 뒤에 되겠죠, 뭐 자세한 기억은 없고. 아버지가 하셨던 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니까.

저기 저 맨 처음에는 용담동에 한두기라는 데 있어요. 그쪽에 이제 그쪽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서문시장 쪽으로 나와서 대장간을 차리면서 했고.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일 거야, 아마. 이제 그때부터 쪽 하셨죠. 이제 옮겨 다니시면서 서문시장 쪽에서 하다가 뭐 서사라 쪽으로 갔다가 계속 옮겨야 했어요. 과양 저 뒤쪽에 산장 동네라고 하는데 산장이라는 데 글로 가셨다가

노형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주시 민속오일장에 이제 대장간 거기 지어서 하시면서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은 다 치우고 장에서만 하는 걸로 하고.

아버지는 모루 앞에서 집게 잡는 대장

(일꾼은) 보통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두고 했어요. 아버님은 이제 앞에서 모루 앞에서 집게 잡는 이제 집게잡이죠, 그러니까 대장이지 뭐. 아버지가 다 하는 거. 지금 모루 앞에 서 가지고 이제 앞에는 이제 둘러서서 이제 메질이라고 하죠? 메질하는 사람이 한 세 명 써서 막 다다다다. 요즘은 뭐 기계로 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다 돌림 메질이라고 해서. 그거를 아버지가 하셨어. 돌아가면서 다다다다다 이게 계속 연결이 돼야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집게잡이가 이제 자꾸 이제 망치 작은 거 들고 어느 쪽에 때리라고 툭툭 찍어 주면 이제 그쪽으로 때리고 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주도 농기구 만드는 건 다 하셨어요

뭐 농기구는 다 하셨어요. 지금 말하는 골쟁이. 호미죠? 제주도에서 골쟁이라고 하는데 골쟁이, 이제 호미, 낫, 칼 뭐 쇠스랑, 팽이 뭐 제주도 말로 이제 장호미라고 하는 나대 뭐 이런 거 다 하셨어요. 이 쇠를 녹여서 하는 어디 틀에 부어서 하는 거는 이제 주물

이라고 그러고. 주로 가마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만드는 게 쇠물 녹여서 제주도도 덕수 쪽에 가면 옛날에 그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쇠물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드는 거고.

고철을 사와 녹여서, 구워서, 익혀서, 때려서

아버지가 했던 것들 주로 이제 고물상 같은 데서 이제 주로 이제 고철, 고철을 사오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에 부어서 빨강게 익잖아요. 그래야 이제 모양으로 변형시키기가 쉽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그니까 나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제주도에에는 없었는데 기차 철로, 기차 철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겨서 요게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요렇게. 그걸로 이제 다 찢르고, 가르고 해서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런 종류로 했었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나오는 스프링이라는 그런 쇠가 있어요. 납작한 거, 납작한 거 되게 강도가 높았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쇠스랑도 만들고 그거 다 쪼개서 팽이도 만들고, 굴쟁이도 만들고, 나대도 만들고.

뭐 비슷한 모양의 쇠가 아니고, 그 쇠 가지고 녹여서 구워서 익혀서 때려서 만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나마 기계로 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런 쇠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작업으로 했던 거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 작업하는 거 자

체가. 거기에다가 뭐 인제 열처리 같은 건 아버지가 다 했으니까 찹게잡이가 이제 열처리 다 하고 하니까.

화덕, 모루, 집게, 메 있어야 되고

(대장간 안에) 제일 필요한 게 인제 저 화덕이 있어야 되고. 나 어릴 때 보면은 화덕 옆에 이제 바람을 집어넣어 주는 풍로도 있었어요. 풀무, 풀무라고 하죠. 옆에서 이제 풀무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 붙어야 되고. 이걸로 해서 바람을 집어 넣어야 화력 조절이 되니까. 화덕이 있어야 되고, 모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게 있어야 되고 앞에서 메질해야 되니까 뭐 큰 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승태 씨의 '모루'



이승태 씨의 '집계'

저런 그라인더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막 성능은 좋지 않아도 그라인더가 있어야 날 연장을 만들어요. 얇게 때려낸다고 해도 날, 날이 안 돼요. 그니까 연마를 해 줘야지. 그라인더에 갈아서 이제. 아버지, 나 어릴 때는 (그라인더) 있었어. 그렇지, 나 어릴 때니까 그때는 있었지. 거의 뭐 육십팔구 년, 칠십 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야, 진짜 오래되긴 했다. 그때 전기가 다 있었, 들어왔었어요. 전기 없으면 일하기도 힘들었어. 거 나중에는 이제 전기에 연결해서 저런 풍로로 인제 하니까 풀무가 없어졌지. 거기, 거기 인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도 없어지고.

풀무질은 횡수를 늘려야 화력도 세지고 바람 양도 많아지니까

(풀무는) 이거, 이걸로 했어요. 옆에서 서서 이렇게 하면은 이 틀 안에 이렇게 밀면은 바람이 옆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하면은. 내가 봤던 거는 사각이었어요. 사각이었고, 인제 다 막고 이제 앞에 여기서 인제 이거 하는 구멍은 이제 뭐 무슨 닭털 같은, 닭털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바람이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이렇게 밀게 돼 있고 이런 사각이었는데 이제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요 정도 해 가지고 이쪽 저기 화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글로 바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거를 엄청 빨리 횡수를 많이 하면 화력이 세지고 바람 양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쇠를 많이 익혀야 되는 거 있고 들 익혀야 되는 거 있고 해서 풀무질도 아주 그것도 세밀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저 바람 나가게 하는 거. 그 저, 그 중간에 과도기 때는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애. 그 저기 뭐야. 그게 풍로예요. 풍로고. 그것도 풍로죠. 바람 일으키는 거니까. 이 뺏튀기 할 때 쫓던 이거 돌리는 거 그런 풍로도 쫓던 것도 같애.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화덕은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

화덕은 지금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저쪽 옆에 공간이 있었지. 풍로가 들어가야 돼, 풀무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버지가 했던 대로 막히는 데요. 막혀 가지고, 위로 해 가지고 연기가 밖으로 나 가지고 그렇게. (옆에만 막아 놓고) 예전에는 뭐 그런 데가 많았었죠. (나 때) 그런 건 아니었고. 아버지 하는 데는 이게.

(연료는) 석탄. 지금도 뭐 석탄을 쓰는데. 보면은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데 가운데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 화덕이 저 밑에다 공간이 있

어요. 공간이, 공간이 있고 그걸로 이제 재도 떨어질 수 있게끔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운데 요렇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석탄을 그냥 부으면 빠지잖아요. 못 빠지게 한 요 정도 깊이에서 저 철근 같은 걸로 용접을 해 가지고 용마루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 용마루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석탄이 바로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대신에 바람은 올라올 수 있게 틈을 뭐 한 이 정도 쥐서 쪽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 놓고 옆에 이렇게 해서 밑에 밀붙 나무 같은 거 처음에 넣고 불붙여서 바람 주면은 나무에 불이



원일대장간 내의 '화덕'

불잖아요. 그 위에 석탄 부어서 처음에 이제.

(내가 어렸을 때도) 석탄 썼던 거 같아요. 그 전에는 나무로 다 했겠죠. 숯으로 했겠죠. 예전에는, 옛날에는.

탄? 제주도에 없어요. 제주도에 취급하는 데 없어서 육지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못 부르고 부를 때 많이 불러 봐야 몇 년 쓰고.

모루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던데

모루라고 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던데요. 요즘 뭐 인터넷에서 파는 거 이렇게 봐도. 아버님이 사용했던 거는 제주시 민속오일장에 있고, (한림에 있는) 이것도 오래된 거죠. 나도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쓰던 거 갖다가 놓고 쓰는 거니까 어, 몇 년 되었는데는 모르죠.

(화덕과 모루 위치는) 비슷해요. 그럼 그 대신에 이 앞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요 앞에서 메질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메질하는 거 없어졌잖아요

(메질하는 사람은) 뭐 대장장이나 뭐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 둘이나 셋 가지고 메질하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거 없어졌잖아요. 기계로 자동으로 이제 다다다다다 때리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건목으로 해 달라고 해서 물건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싸게 갖고 와서 다듬어서 물건을 만드는 건목이라고 그래요, 건목. 건목 해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다듬고, 요렇게 때려 달라고 해요. 이걸 건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고비를 주고 해 오잖아요. 이걸 이제 다듬고 모양을 만들고 자루 박고 열처리하고 그다음 갈아서. (대장간에 들어오는 재료는) 그런 정도는 해와야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할라면은 너무 힘들어.

(아버지 때는 건목 없이) 그것도 다 아버지가 했던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 메질하고. 이거는 이제 건목을 이제 기계로 일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수고비 주고, 제주도에 하는 사람 있어요.

모양 만들고 담금질한 뒤 손잡이를 박아

이런 호미 만들어요. 다듬고, 모양을 더 예쁘게 다듬고, 불에 구워야죠, 우선은. 다듬고 그다음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꾸부리고 망치로 때려서 꾸부리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열처리하고. 이렇게 모양으로 구부린 다음에 열 처리를 해요. 애는 열 처리를 해줘야 되는 쇠니까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처리)는 담금질. 모양 만들고 담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잡이를 박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박아요. 밑으로까지 나오게 꼬부려 가지고 그래야 안 빠지니까 손잡이 박고 그다음에 그라인드에 이렇게 갈아낸 다

음에 니스 바르고, 열처리한 다음에 (갈아내요.) 이게 다 식혀낸 건데 이렇게 갈아준 거지, 갈아 가지고 그다음에 상품이 팔릴 때까지 녹이 슬면 그렇잖아요. 녹슬지 말라고 니스를 발라요. 상품성을 유지하려고 니스 발르는 거. 별다른 뜻은 없고. 별다른 뜻은 없고 그냥 상품성 유지하려고. 나는 기름 사용 안 해.

골갱이하고 낫이 제일 많이 나갔죠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은) 골갱이. 골갱이, 칼, 뭐 낫 그 정도. (아버님이 일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골갱이하고 낫이 제일 많이 나갔죠. 지금은, 낫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이유가 예초기 많이 쓰



이승태 씨가 제작한 '골갱이'

고. 제주도 벌초 때는 엄청났었어요. 예전에는 벌초 때면은 낮이 나가는 개수가 만 오천 개, 이만 개 이렇게 나갔었는데. 요즘은 뭐 벌초 때라고 해도 천 개도 안 나가니까. (벌초 되기 전에는) 미리 만들어야죠.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소매도 하지마는 철물점 같은 데서 와서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가져갈 정도였으니까.

기분 좋으면 버려 주고 안 내키면 안 하고

보통 요런 거 가져오면은 이제 하루에 한, 반나절 정도 작업하면은 한 이백 개 정도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천천히 해 갖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

(벼리는 일) 해 달라고 많이 와요.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경향이 많아. 되게 까다로워, 요구 사항이 많고. 기분 좋으면 해 주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주로 골쟁이에요. 이 골쟁이, 낫 같은 거 갈아 달라고 많이 가지고 칼하고 갈아 달라고 그 골쟁이하고 해녀들 쓰는 까꾸리, 호맹이, 호맹이 그것도 많이.

사람마다 다 다른 물건 값, 벼리는 값은 절반 정도 받아

요런 거는 육천 원, 그런 거는 팔천 원. 이걸로 만들면 그거는 팔천 원 받고. 요런 건 육천 원 받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격도. 어떤 집은 뭐 만 원 넘게 받는 집도 있고. 뭐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주문해서. 근데 요즘 자루도 중국 같은 데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단가에서 안 되니까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해요. 자루 같은 거 손잡이 같은 거. (벼리는 건) 판매가의 한 절반 정도 받아.

좋은 골쟁이

(좋은 골쟁이) 당연히 있죠. 그 쓰시는, 쓰는 분 손에 잘 맞으면 좋은 거고. 내가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만드는 사람이지. 무게감도 다를 거고, 그다음 만드는 모양이 또 다 달라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건)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단골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용도에 맞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모양도 중요하고 뭐 제품의 강도 용도에 맞게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물리, 물르다고 하죠, 너무 물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열처리해 내는 것도 중요하고 뭐 또 이쁘게도 만들어야 되고. 다 중요하지.

불에 강한 소재로 된 작업복

일상복이 아니고, 작업복은 따로 있는데 이제 불에 좀 강한 소재로 된 걸 많이 입어요. 나일론 같은 거는 불뚱 튀고 하면은 다 구멍나 버리고 하니까 주로 면으로 돼 있는 것 많이. (신발은)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 편한 거 신으면 되지. 그것도 불에는 좀 잘 견뎌야 되겠죠.

농번기가 가장 바쁜 시기지만 이제는 봄에도

농번기 때가 제일 바빠요. 그리고 요즘 추세를 보면은 봄 날 때, 그니까 제주도는 그래도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텃밭도 많이 가꾸시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모종도 심고 뭐 화초도 갖다 심고 나무도 심고 하신다고 봄 날 때가 좀 바빠요. 그리고 이런 농촌, 농사하시는 분들은 계절마다 심는 품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도 또 그때 또 바쁘고. 칼을 주로, 뭐 수확할 때는 칼도 많이 쓰고 뭐 심을 때는 이제 호미, 골갱이이 같은 거 많이 쓰고. 봄 때 이제 식목일 전후로 해서 많이 바빠, 요즘은. 예전에는 벌초 때가 제일 바빴어요. 낫, 낫 준비한다고.

미리, 미리 해야 해요. 미리, 미리. 닥쳐서 하려면은 바쁘고, 짜증나고, 능률도 안 올르고, 미리 해 봐야지, 편해. 그래서 좀 미리 하는 편이죠. (사계절 가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죠. (여름에도)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덤지는 않아요. 요 화덕 옆에서 하면은 되게 더울 것 같은데, 물론 조금 더 덤기는 한데 저 위에 보면 이렇게 구멍으로 연통으로 해서 열기를 다 빨아내기 땀에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뭐 숨도 못 쉴 정도는 아니에요. 뭐 여름에는 더운 게 당연하니까.

이 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적성에 맞고, 재미도 있고

(저는) 여기 오면서부터 했어요. (제주에 다시 내려온 지 이십 년) 그 정

도 됐죠. 나도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이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나는 사람 잘 못 다뤄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성이 좀 있어 가지고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조금 일하고 조금 벌고 그냥 그게 낫지. 사람을 못 다뤄서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그거 처음에 이 일할 때 부모님도 다 반대했었고. 다 대학까지 졸업시켜 놔는데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적성에는) 맞으니까 하죠. 재미도 있고 맞으니까 하지. 속 편해서 하는 거지.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막 욕심부리고 하면은 못 했겠죠. 그런데 욕심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아버지의 대를 이은 대장간

(대장간은) 불미왕이라고도 하고, 불미라고도 하고. 요즘도 나이 드신 분들 오면은 저 불미, 불미왕이라고도 해요. 많이 해.

(아버지 가게는) 대장간이죠. 아버님이 한 육십오 세까지 하셨나? 그 정도 하셨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 약주를 많이 하셔서. (아버지랑은) 한 사오 년 같이 했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안 가르쳐 줬어. 하지 말라고 근데 어릴 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봤던 게 그 어릴 때 봤던 게 막 생각하면서 하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았죠. 근데 이제 계속하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나도 한 사, 오 년 지나고 한 칠팔 년쯤 되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아, 밥은 먹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좋은 물건 갖다가 파는 위주로 많이 바뀌었어

(아버지와) 가장 큰 차이? 일단 한 네다섯 명에서 했던 일을 일단 혼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물건 가지 수도 많이 줄었죠, 혼자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제 좋은 물건 잘 선별해서 이제 갖다가 파는 위주로 많이 바뀌었고.

(벼리는 일) 귀찮아서요. 벼리는 게 더 힘들어요. 새 거 만드는 거 보다. 달라진 건 일단 인원 수가 줄었고, 만들어내는 가지 수도 많이 줄었고 그 대신에 이제 많이 갖다가 파는 걸로 인제 바뀌었고.

물건이 너무 좋더라 말 들을 때가 제일 기쁘죠

어려운 점은 크게는 없어요. 내가 힘든 일은 안 하니까. (보람된 점은) 써 봤더니 물건이 너무 좋더라,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기쁘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하찮은 일 같아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거기서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되게. 그럴 때 좀 기분도 좋고, 하는 보람도 좀 있고.



2023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 불미

제주의 불미마당과 불미왕

연구 책임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공동 연구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김보향(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고은향(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수료)

발행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출판등록제651-2008-000003호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37-01
ISBN 979-11-982611-4-4 0370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